
여성가족패널조사

(KLoWF: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 Family)

연구책임자: 박 수 미 (본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김 종 숙 (본원 연구위원)

이 택 면 (본원 연구위원)

김 승 연 (본원 연구위원)

정 세 진 (본원 위촉연구원)

강 석 훈 (본원 객원연구원)

김 미 령 (본원 객원연구원)

Randall Jay Olsen (본원 객원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발 간 사

최근 우리 사회가 당면한 인구구조와 가족구조의 변화는 여성의 삶은 물론 전체 사회성원들의 삶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로 요약되는 이 변화는, 노동력 공급 부족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요구가 증대될 것이라는 점과, 빠른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해 가족정책이나 복지정책 등 다양한 정책 수립시 이에 대한 이해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해 줍니다. 따라서 여성 개인을 추적 조사하여 그들의 가족생활, 일자리,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영역 등 여성의 삶 전반에 걸친 변화와 역동성을 가시화할 수 있는 전국적인 종단 자료의 구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여성개발원에서는 2007년 본 조사를 목표로 2006년부터 여성과 가족에 대한 패널조사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국내에서 축적된 기존의 여러 패널자료들은 대부분 고유의 정책목적에 가짐에 따라 가족구조의 변화와 여성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파악하는 데 소홀하여 여성·가족정책 및 관련 연구를 지원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이뤄진 다양한 패널조사에서 여성의 생활세계와 가족의 구조 및 변화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여성 표본이 태부족인 상황입니다. 또한 여성과 가족의 실태를 파악하기에 적합한 성 인지적 조사도구의 필요성도 끊임 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여성가족패널조사는 여성의 생애주기 변화와 가족의 구조 및 변화를 통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규모의 여성패널을 확보함으로써 기존의 패널조사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여성가족패널조사는 변화하는 사회구조 속에서 여성의 의식이나 행위양식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광범위하게 수집, 분석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다양한 학문분야의 접근을 통해 여성의 삶과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구조적 제 요인들에 대한 동태적인 설명을 가능케 할 것입니다. 또한 여성정책의 핵심 사항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및 경제적 자립 증진, 여성빈곤화 방지 등의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가족의 변화 방향을 파악하고 가족의 객관적 사항과 문제에 의거한 가족정책수립을 가능하게 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향후 보육

정책, 일-가정 양립지원정책, 출산지원정책, 경제활동 촉진정책 등 다양한 정책들이 여성의 의사결정이나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세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책의 합리적인 수립과 평가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연구의 자문 및 평가에 참여하여 연구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신 원내외 여러 선생님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과제를 진행해주신 연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06년 12월

한국여성개발원
원장 서명선

연구요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대변되는 급변하는 인구구조 및 가족구조의 변화는 두 가지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갖고 있다. 하나는 노동력 공급 부족에 따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요구가 증대될 것이라는 점이며, 또 다른 하나는 가족 형성과 해체를 둘러싼 빠른 가족구조의 변화가 사회성원, 그 중에서도 여성의 의식구조 및 행위 변화와 맞물리면서 가족정책이나 복지정책 등 다양한 정책 수립시 이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선결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여성 개인을 추적 조사하여 그들의 가족, 일,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 등 여성의 삶 전반에 걸친 변화와 역동성을 가시화할 수 있는 전국적 종단 자료를 패널자료의 형태로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에서 축적된 기존의 여러 패널자료들은 대부분 고유의 정책목적에 가짐에 따라 여성·가족정책 및 관련 연구를 지원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기존에 이루어진 각종 패널들은 주로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인력정책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이 있으며, 가족구조의 변화와 여성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파악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이뤄진 다양한 패널조사에서 여성의 생활세계와 가족의 구조 및 변화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여성 표본이 태부족인 상황이다. 또한 여성과 가족의 실태를 파악하기에 적합한 성 인지적 조사도구의 필요성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여성가족패널조사는 여성의 생애주기 변화와 가족의 구조 및 변화를 통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규모의 여성패널을 확보함으로써 기존의 패널조사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여성가족패널은 변화하는 사회구조 속에서 여성의 의식이나 행위양식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광범위하게 수집, 분석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다양한 학문분야의 접근을 통해 여성의 삶과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구조적 제 요인들에 대한 동태적 설명을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여성정책의 핵심적 사항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및 경제적 자립 증진, 여성빈곤화 방지 등의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가족의 변화 방향을 파악하고 가족의 객관적 사항과 문제에 의거한 가족정책수립을 가능하게 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향후 보육정책, 일-가정 양립지원정책, 출산지원정책, 경제활동 촉진정책 등 다양한 정책들이 여성의 의사결정이나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세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책의 합리적인 수립과 평가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가. 연구내용

본 연구는 2007년 여성가족패널조사 본 조사를 앞두고 연구 방향 및 연구 전략 정립, 조사설계 논의, 조사도구 개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1) 여성가족패널조사의 추진 내용 확립 : 조사대상, 조사주기, 추적 원칙, 조사설계 원칙, CAPI(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의 장점 등에 대한 개괄적 소개.
- 2) 여성가족패널조사의 표집 및 가중치 부여 방안 모색
- 3) 여성가족패널조사의 조사내용 정립: ‘여성과 일’, ‘여성과 가족’, ‘여성과 여가(생활)’영역을 중심으로.
- 4) 여성가족패널조사와 연관성이 깊은 해외 패널조사에 대한 심층 분석: NSFH(National Survey of Families and Households)와 NLSW(National Longitudinal Surveys of Women)를 중심으로.
- 5) 여성가족패널조사의 장기 과제 수행내용을 중심으로 향후 일정 소개
- 6) 여성가족패널조사의 연구방향과 연구내용, 조사설계 등을 논의한 기획자문위원단 회의 내용, 여성가족패널조사의 연구방향을 정립하기 위해서 살펴본 국내외 패널조사 개관, 미국과 호주 패널조사기관 방문 보고서, 예비조사에 쓰인 질문지(6종: 가구설문지, 기혼취업여성설문지, 기혼비취업여성설문지, 미혼취업여성설문지, 미혼비취업여성설문지, 남편설문지)의 질문항목, 등을 부록으로 첨부

나. 연구방법

- ☐ 국내 여성관련 패널 조사의 자료 수집 및 내용 분석
: 청년패널, 노동패널, 교육-고용패널, 청소년 패널 등
- ☐ 해외 여성가족 관련 패널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기관 방문을 통하여 자료 수집 및 관리방식 등을 조사 연구
: 미국- University of Michigan(PSID)
University of Ohio (NLSY, NLSW 등)
호주- Australian Institute of Family Studies
University of Melbourne (HILDA, WHA) 등
- ☐ 패널포럼 운영

- ☐ 기획자문위원단 운영
- ☐ 설문지 개발을 위한 자문단 구성
- ☐ 패널 관련 기관 전문가 및 조사기관과 연구진의 워크숍 실시
- ☐ 예비조사: 1차년도에는 적은 표본수(약 500가구)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본 패널 조사의 본격적인 시작을 위한 사전준비작업의 기초로 삼음.

3. 여성가족패널의 특성 및 추진사항

가. 여성가족패널조사의 특성

조사대상은 가구내 19세~64세 여성 전체와 조사대상 여성의 배우자로 한하며 가구내 해당연령 여성이 추적대상인 원표본(original sample)이다. 농어가를 포함한 전국 대표 표본을 추출한다. 표집틀은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의 표본조사구로 하며, 거주지역에 의거한 다단계 층화확률추출법에 의해 대상 가구를 표집한다. 1차년도부터 CAPI시스템에 의한 면대면 조사를 실시하며 초기에는 핵심 항목 위주로 조사하고 3년주기로 특정 주제에 대한 부가조사를 실시한다.

나. 1차년도 연구내용

7회에 걸친 패널포럼, 두 번의 기획자문단 회의, 세 번의 정책워크숍, 국내외 관련 기관 방문 및 자료수집, 12차례에 걸친 설문지 개발 연구진 워크숍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연구하였다.

- ☐ 국내 기존에 실시되었던 여성관련 패널의 구성내용 및 연구방법, 조사방식 등 패널 조사의 안착요건 분석
- ☐ 외국의 여성관련 패널의 구성내용 및 연구방법, 관련 연구 주제 분석
- ☐ 조사의 기본 구조 및 내용 구성 확정
 - : 표본 틀, 패널구축기간, 조사대상, 추적 원칙, 조사방식 및 관리 방법 등 패널조사의 기본 구조 논의 및 잠정 확정
- ☐ 대표성 제고를 위한 표본 추출 및 조사 설계 연구
- ☐ 설문조사의 내용 및 질문지 개발
- ☐ CAPI 조사방법과 패널조사자료 DB 구축 방안에 대한 사전 점검

다. CAPI 對 PAPI

CAPI(Computer-Assisted Personal Interview)란 면대면 조사의 전 과정을 전산화하여 자료의 수집, 처리, 및 배포의 전 과정에서 에러를 줄이고 양질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조사기법을 말한다. CAPI 시스템은 PAPI 방식과 비교할 때 1) 비용절감, 2) 시간절감, 3) 자료의 질 향상이라는 세 가지 장점을 갖는다. 그러나 CAPI 시스템의 장점들은 단순히 컴퓨터에 탑재된 설문지로 면접조사를 하고 에러를 체크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조사가 반복됨에 따라 축적되는 대량의 자료를 DB화하고 검색하는 총체적 시스템의 구축에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제대로 실현되기 어렵다. 따라서 CAPI 시스템의 구축과 운용은 장기간에 걸친 막대한 액수의 투자와 개발 노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4. 여성가족패널 표본설계 방안

현실적으로 여성가족패널은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를 사용하여 표본을 추출하는 방안이 거의 유일하며, 이러한 과정을 대한통계협회에 의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표본추출 전과정에서 대한통계협회와 KWDI의 연구진과 밀접한 의사전달채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다. 또한 10%표본조사구를 사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며, 이 때 인구주택총조사시점과 여성가족패널의 조사시점의 차이를 효율적으로 극복하는 방안이 사전적으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가족패널의 추적원칙으로는 현재 PSID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으나, GSOEP방식을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추적원칙을 정함에 있어 유의할 점은 표본단위가 가족인가, 아니면 가구인가에 따라 원표본여성의 개념이나 추적방법 등이 상이해 진다는 사실이다. 현실적으로 가족을 단위로 한 표본들이 부재하기 때문에 가구를 표본추출단위로 사용할 수밖에 없지만, 추출된 가구를 통해 가구개념으로 접근할 것인가, 가족 개념으로 접근할 것인가의 문제는 조사목적에 비추어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다. 만약 여성가족패널이 여성 개인뿐만 아니라 그 여성이 속한 가족 동학(family dynamics)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목적이 있는 경우 가족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다만, 가족 개념을 사용할 때는 먼저 포함되는 가족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으며, 실사과정 시에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조사목적에 부합된다는 관점에서 명확히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선행 패널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의 개인패널조사가 미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어려우며, 가구패널조사보다 탈락률이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패널조사의 과거 경험치를 바탕으로 목표탈락률을 설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한편 가중치 부여에 있어서는, 국내외 패널조사의 경험으로 볼 때 여성가족패널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종단면가중치와 횡단면가중치를 동시에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개인가중치와 가구가중치가 동시에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가중치이외에도 여성가족패널의 경우 특정계층에 대한 규모추정에 빈번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HILDA나 BHPS에서와 같이 기록개인가중치를 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5. 여성가족패널의 조사내용

가. 조사영역의 개념화

우선 여성개인을 둘러싼 환경을 크게 일(경제활동), 가족, 그리고 더 큰 범주의 일상생활(여가)로 나눌 수 있으며, 이 세 가지 영역 속에서 자신의 삶의 방식을 다양하게 꾸려가는 여성집단의 생활세계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한다. 예컨대 여성 개인에 있어서 '일(경제활동)'을 주로 하는 집단, '가사노동을 주로 하는 집단', '일과 가사노동을 비슷한 비중으로 하는 집단', 나아가 이런 집단을 기·미혼에 따라서 혹은 연령이나 지역에 따라서 다시 세분화할 수 있을 것이며, 각 집단별로 의식과 행위양식, 가족관계의 변화 요인과 흐름을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활동과 가사노동을 빼 나머지 일상에서의 여성의 여러 활동들 또한 여타의 영역에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는 의미 있는 생활영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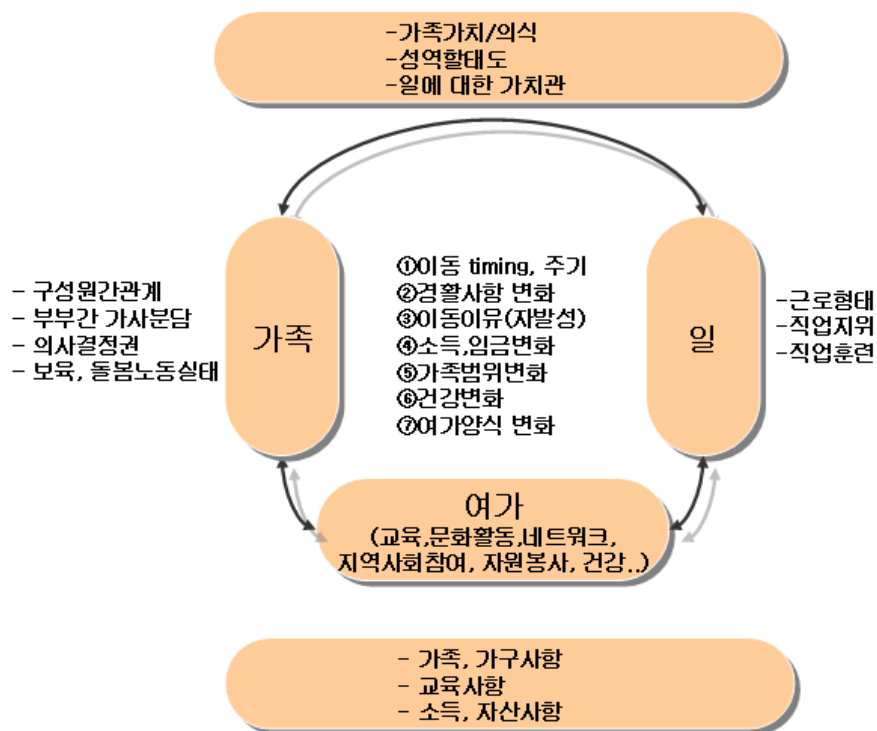
세 가지 영역은 여성의 일생을 지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변형되고 재구조화되는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여성의 생애주기(life cycle) 이동을 패널조사의 한 축으로 삼는다. 여성의 삶의 방식은 출생시기부터 시작하여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남성과 다른 신체적, 환경적 특성을 가지고 구성되며, 특히 결혼과 출산, 양육, 부양 등 여러 생애사건들(life events)에 의하여 큰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여성의 생애주기에 있어 중요시기(critical period)나 사건을 고려한 조사 항목들을 추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이러한 삶의 영역들과 양식들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행위 구조와 양식은 기

본적으로는 개인의 물질 토대에 의하여, 다른 층에서는 이념이나 가치관 등에 의하여 영향을 상호 역동적으로 주고받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영역과 생애사건들이 동일 개인의 생애에 있어서 어떠한 변화와 역동성을 보이는지, 나아가 세대를 지나가면서 누적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가를 볼 수 있는 것도 추적조사에서 포착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나. 주요 설문항목 구조

여성과 가족, 여성과 일, 여성과 일상 및 여가의 세 가지 영역에서 추출되어지는 주요 설문 항목은 다음 그림과 같이 구조화될 수 있다. 이 세 가지 영역은 상호 관계 속에서 영향을 받으면서 여성 개인과 가족 구성원들의 행위양식에 다양성을 부여할 것으로 본다. 1차년도 조사(WAVE1)에는 결혼, 출산, 취업에 대한 회고적 조사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조사대상의 전반적인 생애사를 파악하고 1차년도 조사결과의 중단적 성격을 확보한다.



6. 해외 패널 사례분석 : NSFH와 NLSW

가. NSFH와 가족연구의 쟁점

NSFH(National Survey of Families and Households)는 다양한 가족생활 영역에 대한 전국적 종단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1987년부터 위스콘신 대학의 관련학과 교수들로 이루어진 연구진에 의해 기획, 실시된 패널조사이다. 조사는 1987~8년, 1992~4년, 2001~3년, 총 3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미국 거주 9천4백여 가구를 표집하였고 흑인, 푸에르토리코인, 멕시코아메리칸 가구 및 신혼부부 가구를 오버샘플하였다. 질문지는 응답자의 유년기 가정사, 결혼력, 동거, 교육, 출산력, 고용, 결혼관계, 양육관계, 친척과의 접촉, 경제적-심리적 복지 등을 포함하는 가족생활 전반에 관한 광범위한 문항들을 포괄하고 있다.

NSFH가 여성가족패널에 주는 시사점은 급격히 변화하는 한국의 가족형태 및 가구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수적으로 열세인 특정한 가구형태나 가족유형을 과대표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이다. NSFH에도 포함되어있는 편부모 가족, 양부모 가족, 소년소녀 가장 뿐 아니라 우리나라 가족만의 특유한 형태라고 할 수 있는 기러기 가족, 주말부부 가족, 독거노인가구, 1인가구 등 다양한 소수 가족형태를 과대표집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나. NLSW와 여성연구 쟁점

NLS(National Longitudinal Survey)는 미국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과 노동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 미국 전역의 다양한 연령집단의 남녀들이 겪는 노동시장 경험에 관한 정보를 조사한 종단조사이다. 최초 조사는 1966년에 실시되었으며, 그 이듬해인 1967년에는 당시 30세에서 44세 사이의 장년 여성 코호트(NLS of Mature Women)와 14세에서 24세 사이의 청년 여성 코호트(NLS of Young Women)가 추가되었다. NLSMW와 NLSYW는 1966-7년에 시작된 NLS의 네가지 코호트들 중 여성을 대표하는 코호트로서, 장년여성 코호트는 노동시장에 재진입하여 주부, 어머니, 직장인으로서 역할 갈등의 한가운데 처한 장년 여성들의 고용과 노동시장 행동에 관한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년여성코호트는 학교를 졸업하고 직업 및 경력, 혹은 결혼과 관련한 선택에 처음 직면한 여성들에 관한 연구를 가능케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각각 선정되었다. NLSMW와 NLSYW는 1967년부터 2003년까지 조사되었으며, 2003년도 조사를 끝

으로 예산상의 제약 때문에 중단되었다.

구체적인 주요 설문 내용은 크게 응답자의 취업상태와 취업력, 직업훈련 경험, 정규교육, 가족소득 및 자산, 신체적 복리, 주거지 사항, 가족과 가구 구성, 결혼력, 출산력, 일과 가족에 관한 태도, 배우자나 파트너의 노동시장 지위, 건강, 여가생활과 자원활동, 차별경험, 자녀 양육-보육, 환자나 고령자에 대한 돌봄, 연금, 노후계획,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1997년과 2001년도 조사에서는 장년여성과 그 부모들 사이의 금전적 시간적 이전(money and time transfer)에 관한 설문, 1999년과 2003년도 조사에는 장년여성과 그 자녀들 사이의 금전적 시간적 이전에 관한 설문, 각각 추가되었다. 이처럼 다양하고 폭넓은 질문 문항들과 긴 조사기간으로 인해 NLSMW와 NLSYW는 광범위한 분야의 연구자들에게 청소년기에서 장년기를 거쳐 노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여성이 겪게 되는 삶의 형태 변화에 대한 다양한 학문적 관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었다.

7. 향후 일정

가. 2차년도 과제수행 내용

- ☐ 1차년도 예비조사 결과 분석
- ☐ 본 조사용 설문지 내용 수정·보완 및 확정
- ☐ CAPI 설문 프로그램 개발 및 예비조사 실시
- ☐ 1차년도 표본추출 및 조사대상 탈락 등 문제점을 보완한 조사방식 확정
- ☐ 패널 표본 선정과 본 조사 실시(7월~10월 예정)
- ☐ data cleaning 작업
- ☐ 기초분석 보고서 발간
- ☐ 여성가족패널조사 결과 DB 구축 방안 연구 수행 및 업체 선정
- ☐ 「여성가족패널 브리프」 정기적으로 발간
- ☐ 패널관리를 위한 패널소식지 등 홍보물 제작·배포
- ☐ 패널에 대한 이동 사항 확인 등 중간 점검

나. 3차년도 과제수행 내용

- ☐ 조사된 자료에 대한 외부 release를 위한 준비작업
: code-book, user-guide 마련 등
- ☐ 관련 연구자 및 학회 등과 공동 학술대회 개최
- ☐ 1차 조사검토를 통한 2차 패널조사 준비
- ☐ 2차 웨이브 조사시에 추가될 부가설문문항 중심으로 설문지워크숍 진행 및 2차 설문지 확정
- ☐ 2차 설문지에 대한 예비조사 실시
- ☐ 2차 본 조사 실시
- ☐ data cleaning 작업
- ☐ 기초분석 보고서 발간
- ☐ 이용자 편의적인 패널조사 결과 구현을 위한 DB 프로그램 개발
- ☐ 「여성가족패널 브리프」 정기적으로 발간
- ☐ 패널관리를 위한 패널소식지 등 홍보물 제작·배포
- ☐ 패널에 대한 이동 사항 확인 등 중간 점검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가. 여성가족패널조사자료 구축의 필요성	3
나. 여성가족패널조사의 목적과 기대 효과	6
2. 연구 내용 및 방법	7
가. 연구 내용	7
나. 연구 방법	8
II. 여성가족패널의 특성 및 추진사항	11
1. 여성가족패널조사의 특성	13
가. 조사방법	13
나. 표집 틀	15
다. 자료수집 방법 및 부가조사	15
2. 1차년도 연구 내용	16
가. 연구 내용	16
나. 추진사항	17
3. PAPI 對 CAPI: 컴퓨터를 이용한 면접조사의 역사와 장단점	21
가. CAPI의 역사(略史)	21
나. CAPI의 현주소: 오하이오 주립대 인적자원연구소(CHRR)의 CAPI 시스템	22
다. CAPI의 장점과 한계	23
III. 여성가족패널 포본설계 방안	27
1. 서론	29

2. 해외 여성가족관련 패널조사의 표본추출 현황과 시사점	31
가. NLSW(National Longitudinal Surveys - Mature Woman & Young Woman)	31
나. PSID(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32
다. HILDA(Household, Income and Labour Dynamics in Australia)	33
라. WHA(Woman's Health Australia, The Australia Longitudinal Study on Women's Health)	34
마. AFPS(Australian Family Panel Survey)	35
바. 시사점	35
3. 국내 패널조사의 표본추출방법과 시사점	36
가. 한국고용정보원의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37
나.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에서의 표본추출	40
다. 통계청의 가계조사 표본추출개요	45
라. 시사점	46
4. 표본추출단위와 추적원칙, 목표 표본수 그리고 가중치	47
가. 표본단위와 추적원칙	47
나. 목표 표본수와 추출 표본수	50
다. 가중치 종류 및 부여 방안	55
5. KLoWF의 표본설계방안과 관련 쟁점에 대한 제언	58
<참고 1> HILDA의 가중치산출과정	59
<참고 2> HILDA에서의 표본오차	67

IV. 여성가족패널의 조사내용17

1. 여성가족패널 조사내용 구성도	73
가. 여성가족패널조사 영역의 개념화	73
나. 여성가족패널조사의 주요 영역	74
2. 여성과 가족(family dynamics)	74
가. 가족정책의 필요성	74

나. 주요 정책 쟁점	75
다. 주요 연구주제	76
라. 정책적·학술적 기여	78
3. 여성과 일(labor dynamics)	80
가. 여성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정책의 필요성	80
나. 주요 정책쟁점	80
다. 연구주제	81
라. 정책적·학술적 기여	82
4. 여성과 여가	84
가. 정책의 필요성	84
나. 주요 정책쟁점	84
다. 주요 연구주제	85
라. 정책적·학술적 기여	87
5. 여성가족패널조사의 주요 설문 항목 구조	88

V. NSFH(National Survey of Families & Households)와 가족연구의 쟁점 89

1. 구축배경 및 운용체계	91
가. NSFH의 설계와 내용(제1차)	91
나. NSFH 2차 프로젝트에 대한 개괄	95
다. NSFH 3차 조사	96
2. 조사내용	97
가. 설문지 종류	97
나. 주요 변수들	98
3. 표본과 관계된 쟁점들	117
가. 조사단위	117
나. 조사대상자	117
다. 기타 자료수집의 쟁점들	117
라. 종단적 조사설계	117

4. 표본설계	118
가. 대상자 추출방식	118
나. 대상자 추적	120
다. 가중치	124
5. NSFH 자료를 사용한 선행연구	127
가. 거주형태의 변화	127
나. 성역할 변화	128
다. 차수 진행과정의 변화	128
라. 가족의 변화	128
마. 조부모와 손자녀관계	129
바. 결혼생활의 불공정성 및 만족도	129
사. 출산률	131
6. 여성가족패널에 주는 시사점	132
가. 표본설계	132
나. 조사항목	134

VI. NLSW(National Longitudinal Surveys of Women)와 여성연구 쟁점 139

1. NLS(National Longitudinal Survey)의 역사(略史)	141
2. 장년여성과 청년여성에 대한 전국종단조사(NLSMW와 NLSYW)	143
3. 자료의 활용 사례: 미국 여성의 출산력과 노동시장 참여	144
가. 연구의 배경	144
나. 여성 노동력의 공급	149
다. 여성의 출산력	158
라. 여성의 교육과 아동 발달	164

VII. 향후 일정 171

1. 2차년도 여성가족패널조사 추진 사항 및 향후 계획	173
--------------------------------	-----

가. 2차년도 과제 수행 내용	173
나. 연구 방법	173
2. 3차년도 여성가족패널조사 추진 사항 및 향후 계획	174
가. 3차년도 과제 수행 내용	174
나. 연구 방법	174

참고문헌	177
------------	-----

<부록>	181
------------	-----

1. 기획자문단 좌담회	183
2. 국내외 여성가족패널관련 자료 구축사례 분석	188
3. 패널조사기관 출장 보고서(미국, 호주)	224
4. 여성가족패널 질문지 설문 항목	244

표 목 차

<표 III-1> 층화를 위한 분류지표	42
<표 III-2> 시도별 표본조사구 분포	44
<표 III-3> 가계조사에서의 분류기준	45
<표 III-4> KLIPS에서의 여성표본현황	51
<표 III-5> 가구패널조사에서의 표본유지율(%)	52
<표 III-6> NLS의 응답률과 유지율	53
<표 III-7> 청년패널의 표본유지율	55
<표 III-8> HILDA에서 제공되는 가중치	57
<표 V-1> 월별 인터뷰 수	94
<표 V-2> NSFH 1차 주응답자 자기기입설문 영역	108
<표 V-3> NSFH 2차 주응답자 자기기입식 설문 영역	109
<표 V-4> 3차 주응답자 자기기입식 설문 영역	110
<표 V-5> 2차조사의 응답률	121
<표 V-6> 2차조사의 결혼상태 응답률	121
<표 V-7> 2차조사의 성별 응답률	122
<표 V-8> 2차조사의 교육 응답률	122
<표 V-9> 추적단계	123
<표 VI-1> NLS 코호트	142
<표 VI-2> 미국 여성의 출생 코호트별 연령별 출산력	160
<표 VI-3> 연령에 따른 출산율	162
<표 VI-4> NLSW의 변수정의	167
<표 VI-5> 아동의 기억력 테스트 점수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168
<표 VI-6> PPVT 점수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169
<표 VI-7> 아동의 PIAT 점수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170

그림 목 차

<그림 II-1>	자료수집방법 및 부가조사	16
<그림 IV-1>	여성가족패널 조사 내용의 개념도	74
<그림 IV-2>	주요 설문 항목 구조	88
<그림 VI-1>	20세 이상 남녀의 노동시장 참여율, 1948~2005	150
<그림 VI-2>	전문직 및 기술 서비스 종사인력 로그값, 1983~2005	152
<그림 VI-3>	남성, 출산 경험이 없는 여성, 자녀가 있는 여성의 임금 변화 비교(백인, 고졸자, 군입대자격시험(AFQT) 50점(100점 만점))	153
<그림 VI-4>	남성, 출산경험이 없는 여성, 자녀가 있는 여성의 임금 변화 비교. 백인, 대졸자, AFQT 80점	154
<그림 VI-5>	남성, 출산경험이 없는 여성, 자녀가 있는 여성의 임금 변화 비교(흑인, 고졸자, AFQT 50점)	154
<그림 VI-6>	남성, 출산경험이 없는 여성, 자녀가 있는 여성의 임금 변화 비교(흑인, 대졸자, AFQT 80점)	155
<그림 VI-7>	전일제 근로자의 주간 중위소득	156
<그림 VI-8>	인종별 전일제 남성 수입에 대한 여성 수입의 비율	156
<그림 VI-9>	자녀 연령에 따른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157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4
2. 연구 내용 및 방법	7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여성가족패널조사자료 구축의 필요성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대변되는 급변하는 인구구조 및 가족구조의 변화는 두 가지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갖고 있다. 하나는 노동력 공급 부족에 따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요구가 증대될 것이라는 점이다. 또 다른 하나는 가족 형성과 해체를 둘러싼 빠른 가족구조의 변화가 사회성원, 그 중에서도 여성의 의식구조 및 행위 변화와 맞물리면서 가족정책이나 복지정책 등 다양한 정책 수립시 이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선결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환경변화에 입각하여 한국여성개발원에서는 여성과 가족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돕기 위해 여성·가족 종단자료 구축을 기획하기에 이르렀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여성과 가족에 대한 정보를 수집, 축적하기 위해 패널조사 형식으로 조사를 기획하였다. 패널조사는 동일 표본에 대하여 일정한 조사 주기로 반복적인 추적 조사를 하는 것으로서, 개인의 생애과정에 따른 변화상과 시대 변화상, 특정 정책의 효과성 분석에 매우 용이한 조사방법이다. 여성과 가족에 대한 지속적이고도 포괄적인 자료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급변하는 인구구조의 변화는 가족의 변화, 관계구성의 변화, 삶의 양식의 변화를 의미한다. 특히, 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와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증대는 개인이 ‘가족’에게 부여하는 의미나 의존성에 이중성을 갖게 하고 있으며, 이는 ‘가족’이 노동시장구조와 갖는 연계성을 더욱 밀접하게 만들고 있다. 즉, ‘가족’은 여성의 삶의 기획과 행동양식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인 동시에 영향을 받는 종속적 영역임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가시화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관계의 밀접성은 사회 전체 구조 변화 및 정책 집행에 있어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 집단의 의식 변화’ 및 ‘가족(구조)의 변화’와 ‘노동 및 가족관련 정책’의 상호 관련성에 대한 미시적인 추적 자료를 구축함으로써 정책적 판단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구구조 및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 있는 현 시점은 경직된 공·사영역 분리 시스템이 한계에 달한 상태임에 주목해야 한다. 사회 전 영역에서 공·사영역 분리 규범이 해체되고 ‘생산노동과 재생산노동’, ‘일과 가족’, ‘일과 생활·여가’가 통합되는 새

4 여성가족패널조사

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공·사의 두 영역을 아우르며 생산 노동과 재생산노동을 수행해 온 ‘여성’에 주목함으로써 사회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의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2005년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확장됨에 따라 여성정책은 또 한 번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의 주관부처로 자리매김 됨에 따라 상호관련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하는 여성과 가족정책이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기반을 조성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포괄적인 여성 및 가족정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이 더욱 시급히 필요하게 되었으며 본 패널자료의 구축은 이러한 여성가족정책의 발굴과 정책 보완을 위한 중요연구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여성과 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 구축의 요구가 있는 가운데, 관련 자료 제공의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 “패널조사가 거품이나 패션이나” 할 정도로 다양한 패널조사가 진행되고 또 계획 중에 있다. 패널조사는 그 특성상 막대한 예산과 지속적인 패널관리를 요할 뿐만 아니라, 패널조사자료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패널조사를 기획하고 시행하는 데에는 조사의 어려움에 상응하는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원이 기획하고 있는 여성가족패널조사의 필요성을 기존패널조사와의 차별성 속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국내에서 축적된 여러 패널자료들은 대부분 고유의 정책목적에 가짐에 따라 여성·가족정책 및 관련 연구를 지원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기존에 이루어진 각종 패널들은 주로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인력정책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이 있거나 혹은 일정한 생애주기집단만을 표적 집단으로 삼아 집중분석함으로써 하위집단 분석에 적합한 조사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패널조사연구는 가족구조의 변화와 여성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파악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가족을 단위로 가족의 형식과 내용을 본격적으로 종단화한 자료는 전무한 실정이다. 견고한 가족주의로 특성화된 한국가족에 분명한 변화의 조짐이 보이며 ‘가족의 위기’ 상황이라는 쟁점까지 부각된 상황에서, 여성을 중심으로 급격하고도 근본적인 가족의 변화를 매해 추적 조사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둘째, 기존에 이뤄진 다양한 패널조사에서도 부분적으로 여성 및 가족실태가 파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생활세계와 가족의 구조 및 변화를 심층적으로 파악

하기에는 여성 표본이 태부족인 상황이다. 여성은 생애주기에 따라 ‘가정영역’과 ‘노동영역’을 빈번하게 이동 또는 병행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일-가정 양립’ 실태를 통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모의 패널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러나 분석 초점이 상이하고 조사대상이 협소한 기존 패널조사에서 갖은 경제지위변동으로 특성화되는 여성의 유효표본수를 확보하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여성가족패널조사는 여성의 생애주기 변화와 가족의 구조 및 변화를 통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규모의 여성패널을 확보함으로써 기존의 패널조사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셋째, 여성과 가족의 역동적 측면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성 인지적 관점이 녹아든 조사도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기존의 조사도구들은 남성근로자모형을 중심으로 노동시장 수급구조를 파악한다거나 일, 가족, 여가의 조사내용도 몰성적(gender blind)으로 이뤄져 왔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특히 많은 여성들이 살아가는 일의 세계, 가족생활 세계 등은 기존의 분류틀에서 포착할 수 없는 복잡성과 모호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여성들이 일을 하고 가족생활을 영위하면서 이 두 영역을 통합해 가는 미시적인 측면들을 제대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조사대상 특성에 적합한 조사도구의 개발이 요구된다. 이에 여성가족패널조사는 ‘일과 가족’, ‘노동과 여가’, ‘시장노동과 돌봄노동’, ‘경제활동-실업-비경제활동’, ‘자영업과 무급가족종사’ 등의 기존 범주 개념을 넘어서서 현실세계의 연속적인 측면과 통합성을 드러낼 수 있는 조사도구 개발을 연구의 주요 목적으로 삼았다.

넷째, 일과 가족생활의 통합자로서의 여성역할에 대해 꾸준히 연구해 온 한국여성개발원의 축적된 연구내용을 패널조사구축으로 수용, 발전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들 수 있다. 그 동안 한국여성개발원에서는 ‘여성취업실태조사’를 일정 간격으로 제4차까지 실시하여 여성의 경제활동과 그를 둘러싼 제반 환경과의 상호 관계를 분석하면서 다양한 정책적 함의를 끌어내는데 공헌한 바 있다(노미혜외, 1986; 노미혜외, 1992; 김태홍외, 1997; 김태홍외, 2002). 그러나 이 조사는 일정시점에서 여러 연령의 여성 집단들이 가지는 특성을 보여주는 횡단면 자료이므로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표출하는 특정시점간의 행동이나 의식의 전환과정(transition process)에 대한 동태적 정보를 제공해주지는 못한 한계점이 있다. 또한 이 조사의 주요 내용이 여성의 경제활동 실태와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에 중점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나타

나고 있는 가족구조 및 의식의 변화와 그에 따른 사회적 변화들이 여성의 경제활동과 생애주기 구성에 미치는 영향의 상호역동성을 보여주는지는 미흡하였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패널조사’를 통하여 여성 개인과 가족의 변화를 패널 자료형태로 조사·구축함으로써 급격한 변화의 중심에 있는 여성과 가족, 그리고 그 속에서의 여성노동과 일상의 변화실태를 가시화하여 학문적, 정책적 기초자료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와 같은 사회적 변화 및 정책 추진체계의 변화, 조사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여성가족패널조사 연구과제를 시행하게 되었다. ‘여성가족패널조사’ 연구는 2007년 여성가족패널 본조사 실시를 목표로 2006년에는 ‘조사연구의 방향’ 및 ‘조사내용 설정’, ‘조사 설계’, ‘질문지 구성’, ‘예비조사’ 등을 수행하였다.

나. 여성가족패널조사의 목적과 기대 효과

‘여성가족패널’은 여성집단을 중심으로 여성 개인과 가족의 변화를 종단적 자료형태로 조사·구축함으로써 급격한 변화의 중심에 있는 여성과 가족, 그리고 그 속에서의 여성노동과 일상의 변화실태를 가시화할 수 있는 학문적, 정책적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여성집단에 대한 장기적인 추적조사는 현재 뿐 아니라 여성 개인을 둘러싼 가족 및 사회적 배경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변화하는 사회구조 속에서 여성의 의식이나 행위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광범위하게 수집, 분석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여성에 대한 다양한 학문분야의 접근을 통한 설명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성과 가족생활 조사를 위해서 개발된 성 인지적 조사도구로 본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2007년 수집된 조사결과는 기존의 조사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서 측정 지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패널자료가 구축되면, 여성정책의 핵심 사항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촉진 및 경제적 자립 증진, 여성빈곤화 방지 등의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가족의 변화 방향을 파악하고 가족의 객관적 사항과 문제에 의거한 가족정책수립을 가능하게 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패널자료가 구축되면, 향후 ‘보육정책’, ‘일-가정 양립지원정책’, ‘출산지원정책’, ‘경제활동

촉진정책' 등 다양한 정책들이 여성의 생애전략이나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세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책의 합리적인 수립과 평가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이 보고서는 2007년 여성가족패널조사 본 조사를 앞두고 2006년 동안 수행된 연구 방향과 연구내용 정립, 조사설계 논의, 조사도구 개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첫째, 여성가족패널조사의 추진 내용을 살펴본다. 먼저 여성가족패널조사의 조사대상, 조사주기, 추적 원칙 등 조사 설계와 관련된 특성을 소개한다. 1차년도 과제 수행내용을 중심으로 조사 설계의 주요한 합의점 도출 과정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패널조사의 조사방법으로 채택한 CAPI(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의 장점을 PAPI(Paper and Pencil Interviewing)와 비교하여 소개한다.

둘째, 여성가족패널조사의 표집 및 가중치 방안에 대한 연구를 소개한다. 개인조사와 가구조사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여성가족패널조사의 조사대상 및 추적원칙을 고려하여 대표성을 확보하면서도 연구내용에 특화된 표집 및 가중치 방안에 대한 연구이다.

셋째, 여성가족패널조사의 조사내용에 대한 소개이다. '여성과 일', '여성과 가족', '여성과 여가(생활)'영역을 중심으로 여성 및 가족과 관련된 정책적·현실적 쟁점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조사항목을 도출하였다. 또한 여성가족패널조사 내용의 전체적인 구성도를 제시한다.

넷째, 여성가족패널조사와 연관성이 깊은 해외 패널조사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여성가족패널조사의 연구내용과 방법에 충분히 활용하고자 하였다. V장에서 대표적인 가족패널조사인 위스컨신대학의 NSFH(National Survey of Families and Households) 패널조사를 분석·소개하고 있다. NSFH 패널조사는 가구를 원표본(original sample)으로 하여 가구원 전체를 추적조사하는 방대한 연구로서 여성가족

패널조사의 중요한 연구 사례이다. 따라서 V장에선 가족패널조사의 특성을 충분히 살펴보기 위하여 NSFH 패널의 전반적인 조사 특성과 조사 방법을 상세히 기술하였다. VI장은 대표적인 여성패널조사인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의 NLSW(National Longitudinal Surveys of Women) 패널조사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패널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연구논문으로 구성하였다. 패널조사결과는 정책적·학문적으로 활용도가 매우 높은 바, NLS 패널자료는 방대한 후속 연구로도 유명하다. 오랜 기간 동안 NLS 패널자료 구축을 담당해 온 Randall Jay Olson 교수가 NLSW 조사결과 도출된 미국의 여성·가족관련 쟁점과 한국여성개발원의 여성가족패널조사에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연구논문을 작성하였다. VI장에선 이 연구논문을 소개함으로써 여성가족패널조사결과의 활용의 한 예를 보여 줌과 동시에 해외 여성·가족관련 조사연구와의 협력연구의 기틀로 삼고자 한다.

다섯째, 여성가족패널조사의 장기 과제 수행내용을 중심으로 향후 일정을 소개한다.

여섯째, 이 보고서의 부록에는 여성가족패널조사의 연구방향과 연구내용, 조사설계 등을 논의한 기획자문위원단 회의 내용을 수록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여성가족패널조사의 연구방향을 정립하기 위해서 살펴본 국내외 패널조사 개관이 수록되어 있다. 그 밖에 미국과 호주 패널조사기관 방문 보고서를 수록하였다. 마지막으로 예비조사에 쓰인 질문지(6종: 가구설문지, 기혼취업여성설문지, 기혼비취업여성설문지, 미혼취업여성설문지, 미혼비취업여성설문지, 남편설문지)의 질문항목을 수록하였다.

마지막으로, 6종의 대상별 질문지를 올해 연구결과로 제출한다.

나. 연구 방법

□ 국내 여성관련 패널 조사의 자료 수집 및 내용 분석

: 청년패널, 노동패널, 교육-고용패널, 청소년 패널 등

□ 해외 여성가족 관련 패널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기관 방문을 통하여 자료 수집 및 관리방식 등을 조사 연구

: 미국- University of Michigan(PSID)

University of Ohio (NLSY, NLSW 등)

호주- Australian Institute of Family Studies
University of Melbourne (HILDA, WHA) 등

□ 패널포럼 운영

: 패널조사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7차 패널포럼을 운영함으로써 패널연구진을
위시하여 본원 연구진들의 패널조사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 기획자문위원단 운영

: 본 패널조사가 타 패널조사와 차별화를 기할 수 있고, 향후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획, 운영하기 위하여 패널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전체 연구 진행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하였다.

□ 설문지 개발을 위한 자문단 구성

: 여성가족 패널조사의 목적을 살릴 수 있는 설문지 내용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하여 각 부문별 설문지 문항의
오차를 줄이고 적합성을 제고할 수 있는 설문문항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 패널 관련 기관 전문가 및 조사기관과 연구진의 워크숍 실시

: 선행 패널 조사 경험이 있는 연구소 및 조사기관 담당자들과의 공동 워크숍을 실
시하여 표본 추출 및 조사 진행과정 등 패널조사 전반에 걸친 체계화 기반 마련

□ 예비조사

: 1차년도에는 적은 표본수(약 500가구)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본 패널조사의 본
격적인 시작을 위한 사전준비작업의 기초로 하였다.

II

여성가족패널의 특성 및 추진사항

1. 여성가족패널조사의 특성	31
2. 1차년도 연구 내용	6
3. PAPI 對 CAPI: 컴퓨터를 이용한 면접조사의 역사와 장단점	12

1. 여성가족패널조사의 특성

가. 조사방법

1) 조사 규모 및 방법

- 여성 표본 10,000명 확보를 목표로 그들의 배우자까지 조사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조사대상 규모는 약 7,000가구에서 15,000여명 정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결정).
- 기본 방식: 단일코호트 추적이 아닌 가구원내 전 연령 추적

2) 조사 대상

조사 대상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안전을 중심으로 기획자문위원단 회의와 연구진 회의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내렸다. 논의된 세 가지 안전과 여성가족패널조사의 확정된 조사 대상은 아래와 같다.

■ 1안: 여성 집단만을 대상으로 전 연령 추적

- 한 가구의 19세 이상 64세까지의 성인 여성 모두 표집(고교 재학단계 배제 기준)
- 여성인구 특성상 65세 이후에도 농촌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가 있으나, 본 조사가 장기간동안의 추적조사임을 감안할 때 차년도부터는 포함되는 고령인구가 자연히 증가할 것이므로, 1차년도에는 경제활동 인구 기준으로 제한한 것이 비용 효과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관찰단위는 개인이지만, 조사단위는 가구를 중심으로 설정
- 가구특성 조사는 가구대표자 질문지로 확보
- 질문지 종류: 가구대표자, 학생용, 취업자용, 비취업자용

<장점>

- 기존 패널에서 확보하지 못한 여성표본사이즈의 확대
- 여성내부의 차이 및 특성에 대한 다양하고도 심층적인 분석이 가능하게 됨.
- 회고자료를 통하여 여성 생애주기별 변화과정을 1차시기부터 분석 가능

14 여성가족패널조사

<단점>

- 남성집단의 부재 등으로 인한 비교 분석의 한계가 있고, 여성에 대한 타 가구구성원의 영향에 대한 분석은 여성 응답자의 주관적 인식에 기반을 둘 수밖에 없는 점 (다른 거시 통계나 패널조사결과 등으로 보완)
- 일반 여성 전체를 대상으로 하므로 정책효과 등에 대한 심층 분석은 당분간 어려움.

■ 2안: 여성집단을 중심으로 하면서 특정 가구 과대표집(이혼 여성가구)

- 한 가구의 19세 이상 64세까지의 모든 성인 여성
- 이혼여성 가구 집단을 일정 비율 과대표집하여 추적

<장점>

- 기존 패널에서 확보하지 못한 여성표본사이즈의 확대
- 향후 발생하게 될 다양한 특정 가구의 변화에 대한 분석 가능
- 주요 정책 대상 집단의 실태 및 변화양상에 대한 추적 및 분석 가능
- 이제까지 특정집단에 대한 조사가 없었다는 점에서 독자성 확보

<단점>

- 체계적 표집방법의 어려움 발생
- 실사과정의 어려움과 비용 증가
- 질문지가 여러 종류가 됨으로써 공통으로 묶일 수 있는 항목의 제한

■ 3안: 가구원 전체를 대상으로 추적

- 여성, 배우자, 가구 구성원 모두(원가구원 중심 추적)

<장점>

- 남녀, 전 연령을 포괄하므로 집단 비교 분석 가능
- 가족관계의 역동성에 대한 객관적 자료 확보 가능
- 일반적인 가구 패널 형식과 동질성 확보

<단점>

- 여성표본 사이즈의 절대적 감소로 인한 여성의 삶의 다양성 분석 미흡
- 노동패널 등 기존 패널과의 다른 독자성 확보 미흡
(대안: 가족관계 및 의식관련 문항 보강으로 차별화)
- 실사과정에서의 비용 증가

■ **확정된 조사 대상: 가구내 19세~64세 여성 전체와 조사대상 여성의 배우자를 추적 조사함.**

- 가구내 19세~64세 여성이 원표본(original sample)임.
- 위 원표본을 중심으로 이들을 추적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들이 생애과정 속에서 형성하는 가구내 배우자를 조사대상에 포함시킴.
- 기본적인 추적원칙은 개인조사임. 그러나 원표본이 속한 가구의 여성가구원이 해당 연령 19세에 진입하면 원표본으로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임. 이 추적원칙이 채택되면 기본적인 추적 원칙은 가구조사의 성격을 지닐 것임(예비조사후 최종 확정할 예정).
- 한국여성의 삶을 전체적으로 조망한다는 연구 목적에 부응하여 농가도 조사대상에 포함시킴.
- 한국여성의 포괄적인 생활세계를 파악한다는 점과 현실적 표본추출방안을 고려할 때 특정 집단 과대표집은 고려하지 않고 있음. 다만 일정한 조사주기에 특정집단에 대한 부가조사를 계획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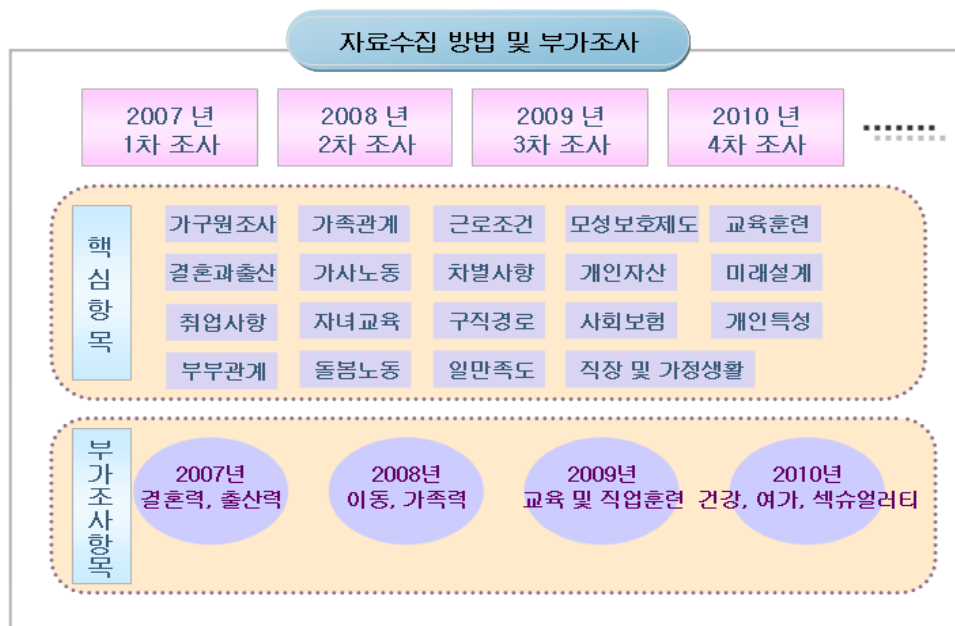
나. 표집 틀

- 본 조사는 2007년도에 실시할 예정이므로 조사를 위한 표집 틀은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추출된 조사구를 기준으로 할 예정이다(최근 통계청에서 2005년 조사구 자료 공개함).
- 거주지역에 의거한 다단계 층화확률추출법에 의거하여 표집한다.

다. 자료수집 방법 및 부가조사

- 1차년도 CAPI(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방식 도입 예정

- 초기에는 핵심항목을 위주로 조사하고, 3년 주기로 일정 주제를 중심으로 부가조사를 실시함
(예시-1차년도: 결혼력/출산력, 2차년도: 이동/가족력, 3차년도: 교육 및 직업훈련, 4차년도: 건강/여가/섹슈얼리티 등)



<그림 II-1> 자료수집방법 및 부가조사

2. 1차년도 연구 내용

가. 연구 내용

- 국내 기준에 실시되었던 여성관련 패널의 구성내용 및 연구방법, 조사방식 등 패널 조사의 안착요건 분석
- 외국의 여성관련 패널의 구성내용 및 연구방법, 관련 연구 주제 분석
- 패널조사의 기본 구조 및 내용 구성
: 표본 틀, 패널구축기간, 조사대상, 추적 원칙, 조사방식 및 관리 방법 등 패널조사

의 기본 구조 논의 및 잠정 확정

- 대표성 제고를 위한 표본 추출 및 조사 설계 연구
: 조사된 가구의 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표본탈락시 1차년도에 부여했던 가중치가 달라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 경우 어떤 방식으로 대체가구의 가중치를 부여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었다.
- 설문조사의 내용 및 질문지 개발
- CAPI 조사방법과 패널조사자료 DB 구축 방안에 대한 사전 점검

나. 추진사항

1) 패널포럼 5회 개최

- 1차(2.16): “국내패널조사의 동향과 여성가족패널에 주는 시사점”
(발제자: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 2차(3.2): “한국 노동패널의 특징과 작업과정”
(발제자: 황수경 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3차(3.27): “한국복지패널조사 개요 및 여성가족패널에 주는 시사점”
(발제자: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4차(4.7): “고령화 연구 패널조사의 구축과정과 시사점”
(발제자: 장지연 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5차(6.12): “Panel Study: Challenges, Trends, and Implications for KLoWF”
(발제자: 이진국 오키오 주립대학 교수)
- 6차(9.26) “NSFH(National Survey of Families and Households)”의 특징과 시사점
(발제자: 김미령 대구대 지역복지학과 교수)

■ 7차(11월 예정) “여성가족패널의 표집 및 가중치 방안 연구”

(발제자: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 포럼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 연구진 및 본원 연구원들의 패널조사에 대한 심층적 이해
- 주요 패널의 구축과정과 기술적 측면에서 향후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한 사전 대응 모색
- 실사업체 선정 및 관계 설정, 패널관리기법 등에 대한 정보 획득
- 최근 패널조사기법의 변화 및 CAPI 방식의 도입가능성 및 전통적 기법과의 비교 및 장단점에 대한 사전 진단
- 패널연구의 국제 동향 파악 및 국제비교 연구를 위한 추세 파악

2) 기획자문단회의 2차¹⁾

- 여성가족패널의 구축과 설계, 조사내용에 대한 논의
- 일시: 4월 5~6일
- 참석자: 강석훈교수(성신여대), 김정석교수(동국대), 김지연이사(미디어리서치), 류한구박사(직업능력개발원), 양정호교수(성균관대), 이계오이사(한국갤럽), 이명진교수(국민대), 정기선박사(경기도가족여성정책개발원), 최은영교수(충북대), 한준교수(연세대), 김영옥(한국여성개발원), 장혜경(한국여성개발원)

⇒ 두 차례에 걸친 기획자문단회의의 주요 논의 내용과 성과는 다음과 같다.

- 여성을 조사의 중심으로 하되, 남성이 여성의 행위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그러한 점을 감안하여 남성을 대상으로 한 간략한 질문지 개발이 병행되었으면 한다.
- 특정집단(이혼여성)에 대한 과대 표집에 대한 논의는, 가능하다는 의견과 표본 추출 및 가중치 문제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 현재 조사하고자 하는 내용의 범위가 크므로 일정 부분 축소하는 것이 좋다는

1) 기획자문단회의의 논의 내용은 부록에 상세히 수록하였음.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 조사 연령집단에 대한 논의 역시 경제활동인구집단 전체를 포괄하는 것과 일정 연령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있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 농촌가구에 대한 포함 여부는 비용 효과 측면에서 의견이 있었으나 가족의 변화를 본다는 점을 중시하여 표본 집단에 포함하는 것으로 중지가 모아졌다.

3) 정책워크숍 3회

■ 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검토 (2.23)

(연구진 내부 발제 및 토론)

■ 2차: [가족정책기본계획] 및 [가족실태조사] 검토 (3.14)

(장혜경가족센터장 및 김혜영연구위원 발제 및 연구진과의 토론)

■ 3차: [여성인력종합계획] 검토 (3.15)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기획 박난숙팀장 발제 및 연구진과의 토론)

⇒ 세 차례 정책워크숍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 여성가족패널의 중심 내용이 될 여성의 일과 가족의 주요 이슈 및 정책과제에 대한 논의
- 향후 조사내용에 반영되어야 할 주요 문제들 진단

4) 국내외 관련 기관 방문 및 자료 수집²⁾

가) 미국 출장(4.25~5.3)

- 미국 미시건 대학 PSID(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오하이오 주립대학 인적자원연구소 NLS(National Longitudinal Survey) 구축기관

2) 미국과 호주 패널조사기관 방문 결과는 부록에 수록하였음.

20 여성가족패널조사

나) 호주 출장(4.24~4.29)

- 뉴캐슬 젠더건강연구소, 멜버른대학 응용사회통계연구소

다) 출장목적 및 내용

- 관련 패널 조사 기관의 구축경험과 기관 형태, 여성가족패널 조사설계에 대한 조언

라) 한국노동연구원 고령패널팀/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교육고용패널팀 방문

⇒ 패널조사기관 방문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 ① 패널 조사 기관의 오래된 경험과 조직구성 등 탐색
- ② CAPI 시스템 구축시 고려해야 할 점이나 수반되는 예산의 문제, 상호 협조시 관계 문제 등에 대하여 논의
- ③ 여성가족패널 구축시 표본 및 주의점 등에 대한 자문
- ④ 실제 조사과정과 패널관리 기술에 대한 자세한 정보 습득, 질문지 수집
- ⑤ 본원이 향후 구축할 패널에 대한 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 ⑥ 객원연구원으로 오하이오 주립대학 Olsen 교수 계약 체결
- ⑦ 오하이오 주립대학 이진국교수(고령화연구국제전문팀)와의 연계(5차 패널포럼에 초빙)

5) 질문지 개발 연구진 워크숍 12차 개최

가) 영역별 질문지 개발작업

- | | |
|---------|--------------|
| ① 가구조사표 | ② 일 영역 |
| ③ 가족 영역 | ④ 여가 및 건강 영역 |

나) 대상별 질문지 개발 작업

- | | | |
|----------|----------|---------|
| ① 미혼 취업 | ② 미혼 비취업 | ③ 기혼 취업 |
| ④ 기혼 비취업 | ⑤ 남편 | ⑥ 가구 |

3. PAPI 對 CAPI: 컴퓨터를 이용한 면접조사의 역사와 장단점

가. CAPI의 약사(略史)

CAPI(Computer-Assisted Personal Interview)란 면대면 조사의 전 과정을 전산화하여 자료의 수집, 처리, 및 배포의 전 과정에서 에러를 줄이고 양질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조사기법을 말한다(Couper and Nicholls II, 1998). 종이 설문지를 이용한 기존의 면접타개식 조사방법(PAPI: Paper And Pencil Interview)에서 탈피하여, 컴퓨터에 설문지를 탑재하여 컴퓨터 화면을 통해 면접을 실시하며, 면접 현장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응답오류 등을 체크하고, 면접 종료 후 자료의 전송, 저장, 클리닝, 배포 등의 전 과정을 컴퓨터를 이용해 처리하는 것이 이 새로운 조사 테크놀로지의 주요 특성이다. 컴퓨터 테크놀로지를 사회조사에 이용하여 비용 및 시간 절감, 자료 질 향상 등을 꾀하려는 노력은 1970년대 초 이른바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조사(CATI, Computer-Assisted Telephone Interview) 시스템의 개발로 거슬러 올라간다. CATI는 초기에는 미국을 필두로 민간 마케팅 리서치 기관에서 간단한 시장조사 위주로 개발되어 사용되다가 1970년대 중반이 지나면서 대학 조사기관들에 의해 학술적인 목적으로도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 전화조사에 대한 불신에 중지부를 찍으면서 전통적인 면대면 조사를 전산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CAPI 시스템이 개발되기 시작한다. CAPI는 전화조사가 갖는 여러 전통적인 문제점들을 극복하면서도 컴퓨터를 이용하는 CATI 시스템의 장점을 그대로 살릴 수 있는 혁신적인 조사기법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CAPI의 본격적 확산은 휴대용 랩탑 컴퓨터가 상용화되는 1980년대 중반이 되어서야 가능했다. CAPI는 면접원이 직접 컴퓨터를 휴대하고 응답자의 거처를 방문하여 면대면 면접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바로 컴퓨터에 입력하여 조사기관의 메인 컴퓨터로 전송하는 일련의 시스템을 말한다. 초기에는 컴퓨터가 무거웠고, 전송시간이 오래 걸리고 접속이 자주 끊기는 등 장애가 많았으며, 그 결과 면접이 끝난 후의 인터뷰 자료는 플로피 디스크에 저장되어 본부로 우송되는 방식이 널리 쓰였다. 그 이후 컴퓨터 및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로 휴대가 간편한 대용량 랩탑 컴퓨터가 대량 보급되고 면접 자료를 본부의 메인 프레임 컴퓨터에 온라인으로 실시간 직접 전송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CAPI는 급속도로 확산된다.

CATI는 민간 마케팅 리서치 기관이 선도하였지만 CAPI는 정부기관이 그 개발을 주도했다. 최초의 시험적 CAPI 조사는 스웨덴 통계국과 네덜란드 통계국이 주관하여 이루어졌다. CAPI를 이용한 최초의 전국 규모 조사는 네덜란드 정부가 주관한 1987년의 네덜란드 노동력 조사(the Dutch Labor Force Survey)와 같은 연도에 미국에서 수행된 전국식료품소비조사(the Nationwide Food Consumption Survey)였다. 그러나 향상된 성능의 랩탑이 등장하여 CAPI 방식이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1988년에서 1994년 사이였다. 영국, 캐나다, 프랑스, 스웨덴, 미국 등지에서 정부의 전국 규모 노동력 조사가 CAPI(혹은 CAPI와 CATI의 병용) 방식으로 전환되었고 미국과 영국에서는 민간 부문의 여러 조직들도 CAPI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이 새로운 조사 테크놀로지의 확산 범위와 속도는 국가별로, 조사의 성격별로 상이하였지만, 현재 전 세계의 주요 전국 종단조사들 중 면접조사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조사가 CAPI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나 CAPI방식으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는 실정이다.

나. CAPI의 현주소: 오하이오 주립대 인적자원연구소(CHRR)의 CAPI 시스템

전국규모의 패널조사를 위해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는 CAPI 시스템 중에 미국의 전국종단조사(NLS)를 위해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인적자원연구소(Center for Human Resource Research, CHRR)에서 개발한 CAPI 시스템이 가장 선진적이고 진일보한 것 중 하나로 꼽힌다. CHRR의 CAPI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여러 하위 시스템들이 모여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다.

- 종이 설문지를 시스템에 입력하여 전자 설문지로 전환하는 기능
- 입력된 설문지를 면접원이 필드에서 사용할 수 있게 웹을 통해 면접원 각자의 랩탑 컴퓨터에 디스플레이 하고, 저장된 설문 내용을 DB로 전송하는 기능
- 서버이를 통해 모인 자료를 저장, 가공, 클리닝하고 검색하는 기능
- 완료된 자료를 웹을 통해 전지구상의 모든 유저들에게 릴리즈하는 기능

이처럼 CHRR의 CAPI 시스템은 십수년간에 걸쳐 막대한 비용을 들여 구축한 통합 시스템으로서, 면접 실사, 자료 전송, 자료 저장, 편집, 클리닝, 데이터 릴리즈 전체를 통합 관장하고 있다. 오직 패널조사에 적합하도록 고안된 시스템으로서, 여타 CAPI 시스템들에 비해 사용자와의 상호작용 기능이 보강되고 훨씬 더 사용자에게 우호적인 것이 특징이다. 특히 모든 시스템이 웹기반으로 구축되어, 면접원의 PC에 설문 프로그램을 탑재할 필요 없이 인터넷을 통해 설문을 수행하고, 데이터 릴리즈에 있어서도 웹을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변수, 원하는 웨이브의 데이터를 골라서 추출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또한 면접 과정에서 응답의 웨이브간 불일치(이른바 seam problems)를 체크할 수 있고, 스킵 에러(skip errors)를 비롯하여 인터뷰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논리적 오류들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특수한 케이스에 대한 면접원의 개별적 코멘트가 가능하고 그것을 언제나 불러와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특이치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고, voice-over ID를 이용하여 현장 인터뷰 내용을 감청하고 인터뷰 시간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다. CAPI의 장점과 한계

CAPI 시스템은 크게 보아 1) 비용절감, 2) 시간절감, 3) 자료의 질 향상이라는 세 가지 장점을 갖는다(Couper and Nicholls II, 1998: 11-12).

우선 비용 절감의 측면에서 보면, CAPI는 면접조사 이후의 자료 편집이나 가공 및 클리닝 과정에서 초래되는 여러 비용을 경감시켜준다. 물론 시스템의 개발 및 구축에 필요한 초기 비용(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입 및 설치 비용, 면접원 훈련비용, 등)이 상당히 소요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비용은 면접후 자료처리 비용의 절감에 의해 상쇄되고도 남는다. 이러한 비용 절감 효과의 당연한 귀결로서, CAPI는 실사 종료 시점부터 자료 클리닝, 자료 배포 및 차기 웨이브 실사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단축시켜준다. 특히 PAPI 방식에서 가장 시간을 많이 소모하게 되는 자료 입력 및 코딩 작업이 상당부분 불필요해진다. 또한 실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응답오류의 체크가 인터뷰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응답오류로 인해 사후에 응답자를 재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재조사하는 일이 크게 줄어든다. 나아가 1차 조사 응답자들의 신상과 거주지 등에 대한 정보가 전산화되어 자동 관리되므로 표본유지 및 관리에 들

어가는 비용과 시간이 크게 절감되어 차기 웨이브 실사를 위한 준비작업이 보다 빨리 완료될 수 있다.

CAPI 시스템의 도입이 가져다 주는 가장 큰 장점은 자료 질(Data Quality)의 향상이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통해 논리적으로 보다 더 복잡한 구조의 설문지를 구축할 수 있고, 보다 더 복잡한 문항 흐름 구조를 구현할 수 있으며, 보다 더 객관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 방식을 채택할 수 있기 때문에, 나아가 응답자의 응답 오류를 즉석에서 체크하고 수정할 수 있으며 데이터 클리닝 작업도 더욱 더 세밀하고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자적 방식으로 면접원의 부정행위(cheating)를 실시간으로 감시 감독할 수 있기 때문에, CAPI 시스템은 종이 설문지 방식보다 더 양질의 자료를 수집할 수 있게 해준다.

이상이 CAPI 방식이 갖는 장점들에 대한 이론적·논리적 예단이라고 한다면, 실제 자료수집 과정에서 이러한 장점들이 경험적으로 확인되는지를 테스트한 연구결과도 있다. 미국의 전국종단조사 자료(NLSY79의 11번째 웨이브)를 이용한 실험에서 응답자의 절반을 임의로 나누어 CAPI를 이용하여 면접조사를 하고 나머지 절반은 통제그룹으로 기존의 PAPI방식으로 조사하여 응답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본 결과, 이른바 스킵 에러(skip error)로 인한 무응답률이 CAPI방식에서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던 반면 PAPI 방식을 이용한 면접 케이스에서는 0.19%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감한 질문에 대한 응답의 솔직성과 조사 전반에 대한 몰입도가 CAPI 응답자들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CAPI 방식의 조사가 면접원 에러를 최소화하고, 응답자로 하여금 조사의 익명성을 믿게 함으로써 더 신뢰성 있는 응답을 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Brandburn, et al., 1991).

그러나 이런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CAPI 시스템 구축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한계는 초기 투자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산 여력이 큰 대규모 조직이라야 CAPI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영국의 경우, 민간부문에서 1996년 현재 CAPI나 CATI 시스템, 혹은 둘 다를 자체적으로 갖추고 있는 조사기관은 대부분 조사수수료 수입이 연간 5백만 파운드를 넘는 대규모 조사기관에 국한되어 있었다(Collins et al., 1998). 특히 앞서 열거한 CAPI 시스템의 장점들은 단순히 컴퓨터에 탑재된 설문지로 면접조사를 하고 에러를 체크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조사가

반복됨에 따라 축적되는 대량의 자료를 DB화하고 검색하는 총체적 시스템의 구축에
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제대로 실현되기 어렵다. 따라서 CAPI 시스템의 구축과 운용
은 장기간에 걸친 막대한 액수의 투자와 개발 노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효
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양질의 패널 자료 구축을 위해 CAPI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도전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III

여성가족패널 포본설계 방안

1. 서론	29
2. 해외 여성가족관련 패널조사의 표본추출 현황과 시사점	33
3. 국내 패널조사의 표본추출방법과 시사점	36
4. 표본추출단위와 추적원칙, 목표 표본수 그리고 가중치	44
5. KLoWF의 표본설계방안과 관련 쟁점에 대한 제언	58

1. 서론

모든 표본조사에서 표본추출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조사목적에 부합되는 표본을 추출하는 것이다. 여성가족패널조사(Korean Women and Family Panel, 이하 KLoWF)는 여성 집단을 중심으로 여성 개인과 가족의 변화를 종단적 자료형태로 구축함으로써 급격한 변화의 중심에 있는 여성과 가족, 그리고 그 속에서의 여성노동과 일상의 변화실태를 가시화할 수 있는 학문적, 정책적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³⁾.

조사의 목적 중에서 표본추출과 관련하여 중점적으로 고려할 분야는 동 조사가 동일표본을 추적 조사하는 패널조사형식이라는 점, 개인으로서의 여성의 변화뿐만 아니라 가족의 변화를 동시에 고려한다는 점에서 개인조사와 가족조사(또는 가구조사)의 개념이 혼재되어 있다는 점, 여성과 가족 그리고 그 속에서의 여성노동과 일상의 변화 실태를 가시화한다는 목적에 나타나듯이 다목적조사라는 점, 그리고 학문적인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제공과 여성과 가족관련 정책적 수요에 부응하는 기초자료를 생산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제 이러한 요인들이 표본설계 및 표본추출에 미치는 구체적인 함의점을 살펴본다.

KLoWF는 현재 고정표본을 사용하는 패널조사로 기획되었다. 일정한 주기를 거쳐 표본의 일부가 변동되는 순환패널조사(rotating panel survey)가 아니며, 또한 현재 상태로는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표본을 추가한다는 계획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최초의 표본추출이외에 다른 표본추출이 없으므로 초기년도의 표본추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또한 초기년도의 표본추출과정이나 결과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생긴다면 차기 년도부터는 이를 보정할 수 없는 방안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초기년도부터 과학적인 방법으로 한국의 여성과 가족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추출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패널조사라는 점에서 두 번째 강조되어야 할 것은 표본추적원칙이다. 이는 최초 년도에서 전국을 대표하는 표본이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다음 년도에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표본을 추적하느냐에 따라 표본이 대표하는 모집단의 성격이 변화하기 때문

3) 한국여성개발원(2006), “여성가족패널조사 제1차 기획자문위원단 회의”자료

이다.

추적원칙은 KLoWF가 개인패널과 가족패널의 복합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면에서 더욱 중요한 이슈가 된다. 현재 기획되고 있는 설문서설계를 고려할 때 동 조사는 여성을 중심으로 가족을 부차적으로 조사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 정태적으로 가족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의 문제와 동태적으로 가족해체와 가족형성의 경우에는 가족의 개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모두 추적원칙과 관련되어 중요한 이슈가 된다.

KLoWF는 여성과 가족의 전반적인 사회·경제활동을 조사하는 다목적조사이며, 현재로는 특정한 항목에 대하여 상대적인 우선순위가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표본추출의 일반적인 형태는 가장 중요한 조사목적에 해당되는 항목에 대하여 허용오차를 설정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경우 가장 중요한 조사항목 중의 하나가 지역별 실업률이라고 할 때 지역별 실업률의 표본오차를 지역별로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할 수 있도록 표본을 추출하게 된다. 그러나 KLoWF는 다목적조사이므로 특정 항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어렵다. 또한 다목적조사의 특성상 세부주제별 연구, 예를 들면 여성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에 관한 연구, 여성노인 단독가구의 복지수요연구 등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일정한 수 이상의 표본이 요구된다. 따라서 허용오차를 기준으로 표본을 설정하는 방식보다는 세부 분석 단위별 또는 주제별 표본수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학문적인 연구를 시행하기 위한 자료로서 활용된다는 관점에서 볼 때 KLoWF의 표본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추출되어야 하고, 또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표본추출과정이 개별 연구자들을 포함한 외부에 전면적으로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적인 수요를 충족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과학적인 표본추출뿐만 아니라 가중치의 문제도 매우 과학적으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KLoWF에 대한 정책적인 수요가 가중치문제가 덜 심각한 인과관계의 추정이나 해석보다는 관심의 대상이 되는 집단의 규모 추정, 예를 들어 30대 가구주인 경우에 가족 해체로 인해 빈곤층으로 전락한 가구의 규모 추정문제 등에 더욱 집중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III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외국의 관련 패널조사에서의 표본추출방식과 관련 이슈를 점검해 본다. 다음으로 한국에서 실시하는 표본조사의 표본추출방법에 대하여 검토한 다음 표본추출 시에 기본적으로 고려할 요인 들 중에서 표본추출단위와

추적원칙, 목표 표본 수 그리고 가중치에 대하여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검토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KLoWF 표본추출의 기본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2. 해외 여성가족관련 패널조사의 표본추출 현황과 시사점

PSID, BHPS, GSOEP 등의 전통적인 가구패널조사에서의 표본추출방법은 강석훈 외(1994)를 참고할 수 있다⁴⁾. 여기에서는 KLoWF와 보다 관련이 깊다고 여겨지는 NLS, HILDA, WHA, AFPS를 중심으로 표본추출과정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KLoWF의 표본추출에 미치는 시사점을 도출해 본다.

가. NLSW(National Longitudinal Surveys - Mature Woman & Young Woman)

장년여성 표본(Mature Woman Sample)은 첫 조사 시점인 1967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30~44세인 여성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코호트(cohort)는 미국 센서스국(Census Bureau)이 1964년 초부터 1966년 말까지 수행하였던 매월노동력조사(Monthly Labor Survey)의 1,900개 1차 표본틀(PSU: primary sample unit)로부터 추출된 다단계 확률표본이다.

PSU는 표준 대도시 지구(SMSAs: standard metropolitan statistical areas), 카운티(counties), 카운티의 일부(parts of counties), 독립 도시들(independent cities)로 구성된다. 485개 카운티와 독립도시들을 포함하는 총 235 표본지역들은 모든 카운티와 Columbia 특별구를 대표하여 선택되었다. 235개 표본지역(strata)은 사회경제학적 특성에 따라 상대적으로 동질적인 한개 이상의 PSUs로 생성되었으며, 최종적으로 각 PSU에서 가구 단위의 확률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하기위해 표집되었다.

장년여성코호트를 위한 조사는 30~44세 여성 5,388명을 대상으로 표본은 약 5,000명

4)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PSID는 www.isr.umich.edu/src/psid/
 BHPS는 www.irc.essex.ac.uk/bhps/index.php
 GSOEP는 www.diw.de/gsoep/
 SLID는 www.statcan.ca:80/english/sdds/3839.html 참조

의 응답자(非白人 1,500명과 白人 3,500명)로 계획되었다. 여성은 주로 백인 조사구에 있는 白人, 주로 非白人 조사구에 있는 非白人, 주로 非白人 조사구에 있는 白人, 주로 백인 조사구에 있는 非白人 등 4개 형태로 추출되었다.

흑인 응답자에 대한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를 위해, 총 인구 기대비율의 두 배로 흑인을 초과표집하였다. 주로 非白人 조사구에 있는 가구들의 표본추출 비율은 주로 백인 조사구에 있는 가구들의 3~4배였고, 1967년 첫 조사 시 5,393명의 계획된 여성 중 94.3%인 5,083명이 조사되었다.

청년여성표본(Young Woman sample)은 첫 조사 시점인 196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4~24세인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청년여성코호트를 위한 조사는 14~24세 여성 5,533명을 대상으로 표본은 약 5,000명의 응답자(非白人 1,500명과 白人 3,500명)로 계획되었으며, 1968년 첫 조사 시 5,533명의 계획된 여성 중 93.2%인 5,159명이 조사되었다. 그 밖의 사항은 장년여성표본과 동일하다.

나. PSID(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PSID의 최초 표본은 횡단면 전국 표본(미국 civil noninstitutional population의 층화 다단계 집락에 기초한)과 저소득가구의 전국 표본으로 구성되어 있다.

횡단면 표본은 미시간 대학의 서베이연구센터(Survey Research Center)에 의해 추출되어, 흔히 SRC표본이라고 불린다. 동 표본은 48개주에 있는 가구 3,000가구에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의 표본추출확률은 모두 동일하다. 실제, 1968년 이 표본에서 2,930개의 면접이 행해졌다. 두 번째 표본은 인구조사국에 의해 수행된 경제적 기회조사(Survey of Economic Opportunity, 이하 SEO) 표본에서 수집되었다. SEO표본으로부터 60세 이하의 가장이 있는 2,000개의 저소득 가족을 추출하였으며, 이 중에서 1,872가구가 성공적으로 조사되었다. SEO표본은 남부지역의 SMSAs(표준대도시 지구)와 non-SMSAs로 한정되었으며, 추출확률이 동일하지 않은 확률표본이다.

결국 PSID 표본은 SRC표본과 SEO표본의 결합표본이며, 두 표본들 모두가 확률표본이므로 이들의 결합 또한 확률표본이다. 그러나 결합한 값은 非 동일추출확률을 가지며, 추정 시 보완적인 가중치가 필요로 된다.

최초의 PSID 표본은 한 집단 혹은 소수집단으로서의 라틴아메리카인 가구를 거의

포함하지 않았다. 게다가 1968년 이후 미국으로 전입하는 라틴 아메리카인들은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과 함께 거주하지 않으면 PSID 표본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점을 줄이기 위해 1990년 초 2,043개 라틴아메리카계 가구들이 PSID표본으로 추가되었다.

다. HILDA(Household, Income and Labour Dynamics in Australia)

HILDA의 표본 단위는 가구와 가구구성원이며 표집된 가구의 모든 구성원이 표본의 구성원으로서 정의되는 반면, 개인 조사는 15세 이상가구원만을 대상으로 한다. 15세 이하의 가구원에 대해서는 가구의 성인 구성원을 통해 제한된 정보를 조사한다⁵⁾.

표본가구는 다단계집락 추출방법을 사용하여 표집되었다. 우선 호주전역에서 488개 Census Collection Districts(CDs)가 표집되었다(한 CD당 200~250가구로 구성됨). 그 다음, 이들 CD로부터 그 지역의 기대 응답률과 거주율을 고려하여 22~34개 주소가 표집되었다. 각 CD의 모든 주소를 정리한 다음 최종적으로 각 주소에서 존재하는 가구 중 최대 3가구까지를 임의추출방식으로 표집하였다.

1차 웨이브의 원표본은 7,682가구 19,914명이다. 2차 년도 부터 혼인이나 입양, 출산으로 원표본가구원에 추가된 모든 가구원도 원표본가구원이 된다. 그 이외의 이유로 원표본가구원과 주거를 같이 하는 모든 사람들은 임시표본가구원이 된다. 원표본가구원은 무기한 추적 조사하며 임시표본가구원은 원표본가구와 주거를 공유하는 동안만 조사된다. 2차 년도의 원표본가구원은 19,944명, 임시표본가구원은 898명이었으며 3차 년도는 각각 19,987명과 1,341명이었다.

특정집단에 대해 초과표본을 추출할 경우 전체 표본수를 크게 늘려야 하므로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특히 빈곤층을 초과표집 할 경우) 표본 탈락률이 높아지며 빈번히 패널을 갱신해야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특정 인구집단에 대한 초과

5) 1차 웨이브 조사결과 7,682개의 표본가구 내에 19,914명의 개인이 있었으나 (가구당 평균 26명), 이들 중 4,787명은 15세 미만이어서 1차 웨이브 조사대상이 되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15,127명의 표본 중 13,969명이 개인 설문지에 응답하였다.

표집은 하지 않았다.

라. WHA(Woman's Health Australia, The Australia Longitudinal Study on Women's Health)

WHA에서는 의료데이터베이스(Medical database)를 이용하여 세 개의 연령그룹(18~23세, 45~50세, 70~75세)의 여성을 표집하였다⁶⁾. 이들 여성에게 건강 및 건강 서비스 사용 연구에 대한 참여의사 확인을 위해 편지를 발송하였는데, 4만명 이상의 여성들이 20년 동안 동 사업에 참여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들 세 그룹은 여성의 건강과 웰빙에 결정적인 생애 단계를 고려하여 표집되었다.

- 청년여성그룹(Younger age group): 청소년기 말에서 성인으로 이행하는 초기단계(18~23세)에 있는 여성이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대부분은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거나, 사회생활을 하며, 어머니가 된다.
- 중년여성그룹(Mid-age group): 중년층의 갱년기 이행과 사회적, 개인적 변화를 검토하기 위해 45~50세의 여성을 표집하였다.
- 노년여성그룹(Older age group): 여전히 활동적이고, 사회와 연계된 노년 여성의 고용을 위해 70~75세 여성을 표집하였다. 이들 여성은 노후 생활의 지속적인 웰빙과 독립성을 예측하기 위한 정보 획득 목적으로 조사된다.

모집단으로부터의 표본추출은 각 연령그룹 내에서 임의로 추출하였으며, 농촌벽지의 여성은 도시 여성 비율의 두 배로 표집되었다. 이렇게 농촌벽지의 여성을 초과표집한 이유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환경과 건강을 통계적으로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표본을 얻기 위함이다.

6) 호주의 의료데이터베이스(Medical database)는 건강보험국(Health Insurance Commission)에 의해 지원되는 데이터베이스이며, 여기에는 모든 호주 시민 및 영주권자의 세부사항이 기록되어 있다.

마. AFPS(Australian Family Panel Survey)

AFPS는 교체 없이 한 표본을(고정된 간격으로) 조사하는 무기한 생애 패널로서 조사는 2년 마다 행해진다. AFPS는 호주의 모든 가구를 대표하는 표본을 대상으로 하지만, 구체적인 표본추출은 동 조사가 CATI(Computer Assisted Telephone Interviews)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전화번호가 있는 가구 만에 한정하여 추출하였다. 1996년 9월 현재 호주에서는 약 97%의 가구가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머지 3%는 임대주택거주자, 실업자, 청년 저소득가족, 막 도착한 이민자들, 편모가구, 1인 가구 등으로 추정되며, 이들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편향은 가중치를 통해 조정된다.

특정집단에 대한 초과표집은 비용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초과표집에 따른 가중치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다. 표본은 층화표본추출방법을 사용하였으며, 표본추출에 사용된 층화변수로는 지역적 위치를 고려하였다.

바. 시사점

해외의 여성관련 패널조사의 표본추출현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먼저, NLS와 WHA와 같은 패널조사에서는 특정 코호트를 지정하여 표본으로 추출하는 방안을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패널조사는 전국을 대표할 수 있도록 표본을 설계하는 대표표본패널조사와 특정한 코호트를 대표할 수 있도록 표본을 설계하는 코호트표본패널조사로 구분할 수 있다. 대표표본패널조사는 전 세대를 대표하는 표본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특정 코호트를 중점적으로 연구할 때 표본수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다. 코호트표본패널조사의 경우 특정한 코호트에 대하여 추적조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전 세대를 대표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외국의 예를 보면 개인패널조사의 경우 코호트패널조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향후 KLoWF가 여성가족패널로서 안정화단계에 접어드는 경우 특정코호트를 대상으로 한 코호트패널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표본추출과 관련하여 특정집단에 대한 초과표집여부는 조사목적에 따라 달라지며, 현실적인 요인도 고려요인이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NLS나 PSID, WHA의

경우에는 각각 흑인과 빈곤층을 초과표집하였으나, HILDA나 AFPS의 경우에는 다양한 검토 후에 초과표집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HILDA에서는 특정집단에 대해 초과표본을 추출할 경우 전체 표본수를 크게 늘려야 하므로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특히 빈곤층을 초과표집 할 경우) 표본 탈락률이 높아지며 빈번히 패널을 갱신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특정 인구집단에 대한 초과표집은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AFPS에서는 특정집단에 대한 초과표집은 비용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초과표집에 따른 가중치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KLoWF에서는 비용요인 뿐만 아니라 모집단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인해 특정 집단에 대한 초과표집을 계획하지 않고 있다.

셋째, 외국의 표본조사에서는 다양한 표본추출틀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호주의 경우에는 Census Collection District, 의료데이터베이스, 전화번호부 등을 사용하여 조사목적에 부합되게 전국 대표표본을 추출하였다. 한국에서도 장기적으로 조사목적에 따라 다양한 표본틀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국내 패널조사의 표본추출방법과 시사점

한국에서의 전반적인 패널조사의 표본추출현황은 국민연금연구원(2005)을 참조할 수 있다.

국내에서 가구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대표표본을 추출하는 방안으로 행정구역자료 등을 이용하여 전국표본틀을 구축하는 방안과 전국 전화번호부를 이용하는 방안 그리고 통계청의 ED를 사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전국표본틀을 구축하는 방안은 대우경제연구소의 한국가구패널조사에서 사용한 바가 있으나,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현실적인 시간제약을 고려할 때 사용하기가 어렵다. 전국 전화번호부를 이용하는 방안은 조사목적이 비교적 단순한 횡단면조사에는 부합될 수 있는 방안이지만, KLoWF와 같은 다목적패널조사에 사용하기는 부적절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전국대표표본을 추출하는 유일한 방안은 통계청의 ED를 사용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통계청의 ED를 사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던 한국고용정보원의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와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의 표본추

출방식을 살펴보고, 동일한 표본틀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통계청 가계조사의 표본추출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이 세 가지 조사의 표본추출방안을 살펴보는 이유는 첫째, 한국고용정보원의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는 1995년 통계청 ED를 활용한 대표적인 조사이며, 둘째,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는 2000년 통계청 ED를 활용한 대표적인 조사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통계청의 가계조사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통계청 자체내에서 활용하는 2000년 통계청 ED를 활용한 조사로서 통계청 자체 활용 ED는 외부 공개 ED에 비해 상세한 조사구 정보를 담고 있어서 표본추출방안 모색에 중요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가. 한국고용정보원의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⁷⁾

추출틀(sampling frame)은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결과로 한다. 표본규모는 2,500개 조사구, 약 6만가구로 하며, 조사결과의 추정은 전국단위(사업소분류, 직업세분류)로 하되 산업, 직업별 종사자수가 가장 잘 추정될 수 있도록 한다. 시도별로는 산업대분류별(20개) 종사자수를 감안하여 표본을 설계한다.

산업·직업별 고용구조 파악을 위한 승수(확대계수)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동일시점조사결과를 사용할 계획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표본을 설계한다.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는 이번에 처음 실시되는 조사이므로 이와 유사한 통계조사들에 대한 조사결과의 분석을 통하여 장·단점을 파악하고 현실 반영도를 높일 수 있도록 표본추출방법, 시도별 표본규모 결정, 추정방법 및 표본관리 등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표본설계에 반영토록 하였다. 표본설계시 우선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기존조사의 경우 표본오차를 분석하여 표본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이 조사는 처음 실시되는 조사이므로 이와 유사한 조사의 표본오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시 직업·산업부문조사는 10%표본조사구 지역에서만 조사되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표본조사구를 추출하였으며, 추출조사구내에서는 일률적으로 표본가구를 25가구씩 추출하였다.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 이후 신도시 개발 및 재건축 등으로 대규모의 아파트신축지역이 많이 발생하였으므로 별도로 신축아파

7) 이 부분은 대한통계협회에서 작성한 한국고용정보원의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의 표본추출보고서를 요약한 내용이다.

트지역 표본을 선정 추가하였다.

표본설계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다.

- ① 전국단위의 산업소분류, 직업세분류별 종사자수와 임금추정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 ② 시도별 산업대분류별 종사자수를 감안하여 표본을 설계한다.
- ③ 기존의 노동통계와의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 ④ 표본의 규모를 2,500조사구, 6만가구 수준으로 설계하되 목표정도를 10%미만으로 하였다⁸⁾.

조사구명부의 구체적인 작성과정은 다음과 같다.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10%표본조사구 중에서 시설단위 조사구와 섬지역 조사구를 제외한 22,029개의 보통조사구를 추출단위로 하여 각 조사구별로 거처의 종류 및 크기, 산업(농림어업, 광공업,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별 그리고 행정구역수준으로 기초자료를 집계하고 이와 관련된 분류지표를 작성하였다(10%표본조사구는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구 설정결과를 이용하여 전국의 보통조사구와 섬조사구를 행정구역순으로 나열한 후 계통추출한 10%표본조사구의 보통조사구이다). 추출단위 조사구명부는 1997년 3월 1일 현재의 행정구역에 따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7대 도시와 각 도의 동부, 읍면부로 구분하여 25개 지역층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다.

조사구를 분류하기 위하여 25개 층별로 주택의 특성, 산업별(농림어업, 광공업,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 취업자수, 행정구역 등 각종 기초자료를 집계하여 분류

8) 현재 실시 중에 있는 조사의 경우에는 과거조사의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층화변수, 분류지표 등의 연구를 통하여 표본규모를 줄이거나 정도를 제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의 경우에는 처음 실시하는 것이므로 직접적인 검토가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이와 유사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고용구조조사”결과를 참고로 하여 간접적인 정도분석을 실시하였다. 표본조사를 결정할 때에는 대부분의 표본설계가 유사하며 조사결과 공표항목의 표본오차를 고려하여 그 중에서 가장 표본오차가 큰 항목을 변수로 하여 집계단위별 허용오차를 조정하면서 표본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위의 두 조사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을 쓰고 있지만, 표본오차가 가장 큰 실업자 항목을 변수로 하여 표본규모를 결정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앞에서 살펴본 두 조사와 성격이 거의 유사하고 집계단위도 전국단위로 대부분 집계되며, 특히 표본규모에 있어서도 경제활동조사보다는 훨씬 크고, 고용구조조사와는 표본규모(조사구 기준)가 비슷하기 때문에 표본규모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표를 산출하였으며, 서울 등 7대 도시와 각도의 읍면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사구를 분류한 다음 이 분류순서대로 조사구명부를 작성하였다.

동부의 경우에는 주택의 특성에 따라 30평 이상 대형아파트 조사구, 30평 미만 중소형아파트 조사구,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조사구, 단독주택조사구, 기타조사구의 순서로 1차 분류하였다. 각 1차 분류 내에서는 도시지역의 경우 농어업종사비율이 낮기 때문에 농어업이 골고루 뿔힐 수 있도록 농림어업종사율(0%, 1~10%, 11~20%, 21~30%, 31~100%)에 의해 2차 분류하였다. 각 2차 분류 내에서는 도시지역인 경우 서비스업보다는 광공업종사비율이 낮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기 위해 광공업종사율(0%, 1~10%, 11~20%, 21~30%, 31~100%)에 의해 3차 분류하였고, 마지막으로 각 3차 분류 내에서 행정구역순으로 분류하였다.

읍면부의 경우에는 도시지역과 같이 주택의 특성에 따라 30평 이상 대형아파트 조사구, 30평 미만 중소형아파트 조사구,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조사구, 단독주택조사구, 기타조사구의 순서로 1차 분류하였다. 각 1차 분류 내에서 동부의 3차 분류와 같이 광공업종사비율이 낮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기 위해 광공업종사율(0%, 1~10%, 11~20%, 21~30%, 31~100%)에 의해 2차 분류하였다. 농촌지역의 경우 서비스업종사율이 낮은 것을 잘 반영하기 위해 서비스업종사율(0%, 1~10%, 11~20%, 21~30%, 31~100%)에 의해 3차 분류하였고, 마지막으로 행정구역순으로 4차 분류하였다.

표본조사구는 7개 대도시와 각도의 동부와 읍면부의 총 25개 지역별로 작성된 추출 단위 조사구명부에서 각 시도별 표본조사구의 가구수 규모의 크기에 비례하는 확률비례계통추출법을 적용하여 추출하였다. 각 조사구별로 그 조사구의 진입로를 기준으로 거쳐번호가 인접하도록 표본가구를 선정하였고 취업자가구만을 조사대상가구로 선정하여 조사구당 25가구를 선정하였다. 또한 조사불능 가구의 경우에는 당초 선정된 가구와 산업, 직업 특성 및 소득 수준이 유사한 다른 가구로 대체하도록 하였다.

나.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에서의 표본추출⁹⁾

국민연금연구원의 노후보장패널조사는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를 이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모집단자료는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10%표본조사결과 중 가계수지와 연관성이 높은 주택유형별 소유현황과 경제활동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산업별 취업자비율을 감안한 조사구의 특성자료를 활용하여 분류한 조사구명부로 하였다. 표본의 규모는 일반표본 500조사구와 신축아파트표본 34지역에서 추출한 약 5,300가구로 하였다. 조사결과의 추계는 전국, 동부, 서부 및 16개 시도별로 독립추계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국민노후생활보장조사의 표본설계를 위하여 가계수지구모와 50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모집단자료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이러한 자료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유사통계의 분석을 통하여 현실 반영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모집단분석을 실시하여 표본설계방향을 결정하였다.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시 직업 및 산업 등 주요 특성에 관한 조사는 10% 표본조사구에서만 실시되었기 때문에 이를 추출틀로 하여 확률비례추출법(Probability Proportional to Size Sampling)을 활용하여 표본조사구를 추출하였다. 표본교체를 위하여 예비표본 100조사구를 당초의 표본(500조사구 및 신축아파트조사구)과는 독립적으로 추출하였다. 따라서 이 표본은 차기년도에서 표본교체에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금년도 조사 진행 중 신도시개발, 재개발 및 재건축 등으로 표본조사구에 변동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표본조사구를 대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 조사의 표본설계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다.

- ① 인구의 고령화를 대비한 50세 이상 국민의 노후 및 퇴직준비실태조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설계한다.
- ② 시·도별 동부 및 읍·면부로 분류하여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 ③ 표본규모는 2000년 센서스시 설정된 조사구를 1차 추출단위로 하여 추출된 조사

9) 이하의 내용은 대한통계협회가 작성한 국민연금연구원의 노후보장패널조사 표본추출보고서를 요약한 내용이다.

구에서 30가구를 추출하고 추출된 표본가구 중 50세 이상 가구원을 포함하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다.

④ 주요항목의 목표정도를 5%로 한다.

표본조사의 목표정도란 추정 값의 허용오차를 통계이용가치의 관점에서 정한다는 뜻이다. 이번 표본설계의 허용오차는 주요항목 기준으로 약 5%로 정하였다. 여러 가지 항목의 표본오차를 동시에 고려해야하는 표본설계에서는 주로 상대표준오차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오차의 단위와 관계없이 상호비교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현행 가계조사의 표준오차(CV_1)를 이용하여 국민노후생활보장조사의 예상표준오차(CV_2)를 다음 공식에 의하여 구하여 보았다.

$$n_1 CV_1^2 = n_2 CV_2^2$$

여기서 n_1 은 가계조사 표본규모, CV_1 은 가계조사결과의 상대표준오차, n_2 는 국민노후생활보장조사의 표본규모, CV_2 는 국민노후생활보장조사의 예상표준오차를 의미한다.

이번 표본설계의 모집단은 전국의 모든 일반가구가 되지만 실제로는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10%표본조사구중 섬조사구와 시설단위조사구를 제외한 24,995개의 일반조사구(1,420,299가구)를 副次母集團으로 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추출단위 조사구명부는 2005년 5월 1일 현재의 행정구역에 따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7대 도시와 각 도의 동부, 읍면부로 구분하여 25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다. 조사구를 분류하기 위하여 25개 지역별로 주택의 특성, 산업(농림어업, 광공업,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별 취업자 수, 행정구역 등 각종 기초 자료를 집계하여 분류지표를 산출하였으며, 서울 등 7대 도시와 각 도의 동부, 읍면부에 대하여 <표 Ⅲ-1>과 같이 조사구를 분류한 다음 이 분류순서대로 조사구명부를 작성하였다.

표본조사구의 선정은 조사구의 크기에 비례하여 추출하는 확률비례추출법에 의해 추출하였다. 계통추출에 있어서 추출단위를 임의로 배열하였을 때 보다 어떤 특성에

의해 배열한 후 추출하면 층화의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표본의 대표성을 더욱 제고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분류지표의 종류가 너무 많으면 각 계층별 추출단위가 주기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으므로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적은 수의 주요지표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 III-1>의 분류기준을 적용하여 추출한 표본조사구의 시·도별 분포는 <표 III-2>와 같다.

그리고 추출된 표본조사구에서는 일률적으로 조사구당 30가구를 선정한다. 이때 연령분포를 감안하지 않는데 따른 편향의 발생이 우려되나 모집단 조사구의 규모가 60가구 내외이므로 조사구를 1/2 크기로 분할하여 그 중 1개의 구역(segment)을 추출하는 것이 되므로 편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한편 2000년 11월 1일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이후에 아파트가 약 106만호가 신축되었다. 물론 이들 아파트 입주자가 모두 새로이 발생한 가구가 아니라 기존 조사구에서 전출하여 신축아파트로 전입된 가구가 대부분이므로 표본추출에서 제외할 수도 있으나 이들 신축아파트 입주자들은 기존 조사구내의 거주자와는 그 특성이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번 표본설계에 추가하도록 하였다.

<표 III-1> 층화를 위한 분류지표

(1) 동부

주택 관련		
1 : 동부	1 : 주택	1 : 30평 이상 아파트 2 : 30평 미만 아파트 3 : 연립 및 다세대주택 4 : 단독주택 5 : 기타
농어업 취업인구		
1 : 동부	2 : 농어업	1 : 10%미만 2 : 10%~30%미만 3 : 30%이상 4 : 농어업 취업인구가 없는 경우
광공업 취업인구		
1 : 동부	3 : 광공업	1 : 10%미만 2 : 10%~30%미만 3 : 30%이상 4 : 광공업 취업인구가 없는 경우

(2) 읍면부

주택 관련		
2 : 읍면부	1 : 주택	1 : 30평 이상 아파트 2 : 30평 미만 아파트 3 : 연립 및 다세대주택 4 : 단독주택 5 : 기타
농어업 취업인구		
2 : 읍면부	2 : 광공업	1 : 10%미만 2 : 10%~30%미만 3 : 30%이상 4 : 광공업 취업인구가 없는 경우
기타산업(SOC 및 서비스업) 취업인구		
2 : 읍면부	3 : 기타산업	1 : 10%미만 2 : 10%~30%미만 3 : 30%이상 4 : 기타산업 취업인구가 없는 경우

<표 III-2> 시도별 표본조사구 분포

시 도	표본조사구	시 도	표본조사구
전 국(계)	534	경 기(계)	103
동 부	420	동 부	80
읍면부	114	읍면부	23
서 울(계)	113	강 원(계)	19
동 부	113	동 부	11
읍면부	-	읍면부	8
부 산(계)	42	충 북(계)	17
동 부	41	동 부	10
읍면부	1	읍면부	7
대 구(계)	28	충 남(계)	23
동 부	26	동 부	9
읍면부	2	읍면부	14
인 천(계)	28	전 북(계)	23
동 부	27	동 부	14
읍면부	1	읍면부	9
광 주(계)	16	전 남(계)	23
동 부	16	동 부	9
읍면부	-	읍면부	14
대 전(계)	15	경 북(계)	32
동 부	15	동 부	15
읍면부	-	읍면부	17
울 산(계)	11	경 남(계)	36
동 부	10	동 부	21
읍면부	1	읍면부	15
		제 주(계)	5
		동 부	3
		읍면부	2

주: 위의 표본조사구수에는 2000년 11월 1일 이후 2004년 10월 30일까지 신축아파트 1,039,946호가 건설되었기 때문에 이의 1/1000에 해당하는 약 1,000가구(34지역×30가구)를 추출하기 위하여 34개 신축아파트지역을 선정 포함하였다.

다. 통계청의 가계조사 표본추출개요¹⁰⁾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10%표본조사구 중 섬조사구 및 시설단위조사구를 제외한 24,998개의 아파트 및 보통조사구를 추출단위로 하여 추출단위조사구별로 70개 특성에 대하여 기초자료를 수집하였다. 특성지표 적용은 실업자수 및 가구소득과 특성 항목간의 ANOVA분석에 의해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 30개 항목을 특성지표로 삼았다.

표본추출단위 조사구명부의 작성과정은 다음과 같다. 2002년 3월 1일 현재의 행정구역에 따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과 각 도의 동부와 읍면부를 구분하여 25개 지역별로 각각 작성하였다. 이 때 인구주택총조사 가구수를 5로 나누어 반올림한 결과를 크기의 척도로 부여하였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과 각 도의 동부와 읍면부에 대해서 다음의 <표 III-3>과 같이 분류한 다음 이 분류 순서대로 조사구 명부를 작성하였다.

<표 III-3> 가계조사에서의 분류기준

구 분	1차분류	2차분류	3차분류	4차분류	5차분류
분류기준1	주택특성 1.아파트 2.단독가구 3.다가구, 연립 및 기타	산업특성 1.농림어업 2.광공업 3.서비스업	승용차 및 컴퓨터보유율 1.평균이상 2.평균이하	행정구역 및 조사구번호	
분류기준2	주택특성 1.아파트 2.단독가구 3.다가구, 연립 및 기타	산업특성 1.농림어업 2.광공업 3.서비스업	승용차 및 컴퓨터보유율 1.평균이상 2.평균이하	실업자수 1.실업자비율 층별 평균이상 2.실업자비율 층별 평균이하	행정구역 및 조사구번호

자료: 통계청(2005), 가계조사연보

표본조사구는 각 층별로 구해진 표본수 만큼을 크기에 비례하는 비율로 추출하는 방법인 확률비례추출법에 의해 추출하였다. 그리고 각 표본조사구에서 가구수가 균등

10) 이하의 부분은 통계청의 가계조사연보에서 밝히고 있는 통계청 가계조사의 표본추출방법을 요약하고 있다.

하도록 크기의 측도와 같은 수의 구역으로 분할하고 이 중 경제활동조사는 각 조사구 별로 4개의 인접지역을 표본으로 추출하였다. 가계조사 조사구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4개 조사구역 중 첫 번째 구역과 두 번째 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이 구역 내에서 단독가구, 농가 등이 제외된 적격가구만을 조사대상가구로 하였다. 결과적으로 16개 지역별 표본추출률은 서로 다르지만 같은 지역 내에서는 동일한 지역별 자체가중표본이며, 평균표본추출률은 1/1,430로 999개 조사구에서 약 7,500가구(부적격가구제외)가 표본으로 추출되었다.

라. 시사점

이상에서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를 이용하여 통계청과 대한통계협회가 사용하는 표본추출방법을 살펴보았다. KLoWF의 경우에도 대한통계협회에 의뢰하여 표본을 추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 2005년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를 이용하게 되는 바,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나 국민노후생활보장조사와 같이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시점(2005년)과 KLoWF의 조사시점(2007년)이 차이가 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 때에는 2년 동안의 변화 상황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이용하여 추출된 표본의 표본추출확률과 신축아파트를 이용하여 추출한 표본의 표본추출확률이 상이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층화변수의 선택문제이다. 현재로서는 표본틀로서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10%표본조사구를 이용하게 될 지, 아니면 10%표본조사구를 제외한 90%조사구를 이용하게 될 지 명확하지 않다. 10%표본조사구를 이용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표본조사구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가용하므로 이를 바탕으로 KLoWF의 조사목적과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를 층화변수로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¹¹⁾. 나머지 90%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조사구에 대한 정보가 적기 때문에 효율적인 표본추출이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에는 인구주택총조사의 변수이외에 다른 외부정보를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표본조사구의 개수와 개별 조사구에서 추출할 가구수는 추후에 논의한다.

11) 보다 구체적인 층화변수에 대해서는 가용한 자료를 보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4. 표본추출단위와 추적원칙, 목표 표본수 그리고 가중치

KLoWF의 표본 설계와 관련된 이슈로서 표본추출단위, 표본추적원칙, 목표 표본수 그리고 가중치문제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 표본단위와 추적원칙

KLoWF의 경우 조사목적이 여성과 가족의 사회·경제활동이라는 점에서 표본단위를 개인으로 할 것인가, 가족 또는 가구로 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가 발생한다. 이 때 표본단위란 여성가족패널의 추적원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잠정적으로 결정된 여성가족 패널의 표본추출단위는 가구이며, 표본단위는 표본가구 내 일정 연령 이상의 여성들을 의미한다.

KLoWF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개인패널의 추적원칙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가족을 동시에 조사한다는 점에서 가구패널의 추적원칙을 원용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가구패널조사에서 표본추적원칙은 PSID, BHPS방식과 GSOEP, SLID방식으로 구분될 수 있다. PSID와 BHPS방식은 1차 웨이브에서 추출된 원표본가구원과 원표본가구원이 속한 가구를 추적 조사하는 방식인 반면, GSOEP나 SLID방식은 원표본가구원과 임시가구원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가구원을 추적 조사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KLoWF에서 표본추적원칙은 잠정적으로 다음과 같이 PSID와 BHPS방식을 따르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다¹²⁾. 1차 웨이브에서 추출된 표본가구내의 모든 여성 가구원은 원표본여성이 된다. 이 때 여성 가구원 중에서 일정한 기준 연령 이상의 경우에만 적격조사대상(eligible respondent)이 되며, 기준 연령에 미달되는 경우 원표본여성이 되지만 당해 웨이브에서는 적격조사대상이 되지 않는다¹³⁾. 웨이브가 진행됨에 따라

12) PSID추적원칙을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GSOEP추적원칙을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도 사전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초의 가구패널조사인 PSID가 PSID식의 패널추적원칙을 정립한 구체적인 이유는 대체로 비용요인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KLoWF의 경우 웨이브가 지남에 따라 표본이 탈락하는 현상이 가장 우려되는 사항 중의 하나라고 볼 때 이를 타개하는 방법으로 GSOEP의 추적방식을 따르는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13) 논의의 편의상 적격조사대상이란 개인에 대하여 직접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할 조사대상을 의미하기로 한다. 또한 편의상 일반조사대상이란 개인에 대하여 조사를 시행하되, 본인에게 직접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조사하는 대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다.

원표본여성이 기준 연령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부터 적격조사대상이 된다.

1차 웨이브에서 추출된 표본가구에서 남성가구주가 있고, 가구주의 여성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구주의 여성배우자가 원표본여성이 된다. 이 때 남성 가구주의 경우에는 여성배우자에 관한 자료를 수집한다는 차원에서 설문을 실시하는 일반조사대상이 된다.

2차 웨이브 이후부터는 기본적으로 원표본여성을 추적하여 원표본여성이 속한 가구를 조사한다. 따라서 만약 1차 웨이브에서 미혼이었던 원표본여성이 2차 웨이브에서 결혼 등의 이유로 인하여 새로운 가구를 형성한 경우 새로운 가구에서 원표본여성과 원표본여성의 남성배우자를 조사하게 된다. 이 때 개념적으로 원표본여성의 남성배우자는 일반조사대상이 되지만 원표본가구원은 아니다. 만약 3차 웨이브에서 2차 웨이브 때 신규로 가구를 이루었던 원표본여성이 이혼 등의 이유로 인하여 가구를 분리한 경우 원표본여성이 속한 가구는 추적 조사하지만, 2차 웨이브에서 원표본여성의 남성배우자였던 사람은 더 이상 추적하지 않는 비조사대상이 된다.

이와 같은 원칙은 1차 웨이브에서 원표본여성이었던 가구원이 2차 또는 2차 이후 웨이브에서 이혼 등의 사유로 인해 원래의 배우자와 분리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¹⁴⁾.

한편, PSID와 BHPS방식에 따르면 2차 웨이브 이후부터 원표본가구에 신규로 진입한 여성가구원은 적격조사대상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2차 웨이브에서 어떤 여성이 원표본가구의 남성가구원과 결혼하여 원표본가구의 가구원이 된 경우에도 이 여성은 적격조사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전통적인 가구패널과는 달리 KLoWF의 경우 표본단위로서 가구보다는 가족이 보다 중요해진다. 일반적으로 가구란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침, 취사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이 때 가구의 종류에는 ①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② 가족과 가족이외의 사람들이 함께 사는 경우, ③ 혼자서 살립하는 1인

비조사대상이란 적격조사대상이나 일반조사대상이 아닌 경우를 의미한다.

14) 이러한 추적원칙은 미국의 PSID, 영국의 BHPS 그리고 한국의 KLIPS 등의 대표적인 가구패널조사에서 사용하는 추적원칙과 기본적으로 유사하다. 다만, 전술한 가구패널들은 여성패널이 아니라 가구패널이이기 때문에 1차 웨이브에서 추출된 모든 가구원을 원표본가구원으로 정의하고, 이들이 속한 가구를 모두 추적함에 비하여 여성가족패널에서는 여성가구원만을 원표본여성으로 정의하고 추적조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가구, ④ 혈연관계가 없는 남남끼리 함께 사는 비혈연가구 ⑤ 집단시설가구 ⑥ 외국인 가구 등이 있다¹⁵⁾¹⁶⁾. 통계청의 가계조사에서는 주민등록 등재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실상 한 가구에서 함께 살고 있는 구성원을 가구원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가구원에는 혈연관계, 비혈연관계가 모두 존재하며,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주로 같이 생활하지 않는 경우를 가구원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¹⁷⁾.

표본의 개념을 가족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가구로 할 것인가는 1차 웨이브에서 원표본여성을 선택하는 기준 및 향후 추적원칙에서 중요한 함의점을 갖는다. 만약 가족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면, 1차 웨이브에서 추출된 가구에서 현재 동거하지 않는 여성 가족구성원을 원표본여성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원표본가구에 있었고 현재에는 분리하여 거주하고 있는 기혼 여성의 경우에는 모두 원표본여성으로 간주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 학업을 위해 다른 가구에 거주하는 학생이나, 취업을 위해 타지역에서 1인 가구를 구성하여 생활하는 여성가구원도 모두 원표본여성이 된다. 이렇게 되면 가구를 표본추출단위로 사용할 때 중복표본추출(double sampling)의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실제 조사 현장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는 두 개 이상의 가구를 조사하여야 하므로 많은 비용이 수반된다. 또한 가족의 개념을 사용한다면 배우자와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원표본여성이 만약 현재 남성배우자가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남성배우자는 조사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외국에 나가 있는 남성배우자는 현실적으로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먼 거리에 떨어져 살고 있는 남성배우자가 있는 경우 이 사람을 조사해야 하므로 역시 많은 조사비용이 유발된다. 또한 가족

15) 통계청(2003), 가계조사지침서

16) 통계청 가계조사에서는 1인 가구, 음식점, 여관, 하숙업 등을 경영하는 겸용주택내의 가구, 가구원 중 영입용 사용인이 2인 이상 동거하는 가구, 비혈연 가구원으로 구성된 가구, 집단시설가구, 외국인가구를 제외하고 조사하고 있다.

17) 보다 구체적으로 통계청 가계조사에서의 가구원수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가구원수란 조사대상 기간(1개월) 동안 조사대상가구의 구성원으로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수를 말한다. 혈연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비혈연관계에 있는 사람, 가사사용인, 2인 미만의 영입용 사용인이라도 가구원의 정의에 부합되면 가구원에 포함한다. 단, 조사대상 기간 동안 출생, 사망, 혼인, 이혼, 군입대 및 제대, 취업, 학업 등의 이유로 인하여 가구원수의 변동이 있을 때는 그 가구원이 대상가구에서 같이 생활한 기간(15일)을 기준으로 가구원수 포함여부를 결정한다. 단, 조사대상가구에서 살다가 현재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입원기간을 불문하고 가구원수에 포함한다. 출가한 딸이 산후 몸조리를 위해 친정에 와 있는 경우 조사대상기간 중 15일 이상을 같이 살았다면 가구원수에 포함한다. 다만, 이때 딸의 수입과 지출내역은 조사하지 않는다. 타 지역에서 자취(하숙)를 하는 자녀가 일주일에 2~3일 본가에 와서 생활한 경우에는 해당월 중 본가에서 생활한 기간이 통산 15일 미만이면 가구원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관계에 대한 정의도 필요하다. 법률적인 가족관계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 또는 사실적인 가족관계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비하여 표본의 개념을 가족이 아니라 가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원의 개념정립이 중요해진다. 1차 웨이브에서 추출된 가구가 2명의 비혈연여성 가구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두 여성 모두가 원표본여성이 된다. 1차 웨이브에서 추출된 가구에서 통상적인 성인부부 및 2명의 아동자녀, 그리고 비혈연 여성가구원(또는 아주 먼 친척인 여성가구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비혈연 여성가구원도 원표본여성이 된다.

가족과 가구의 개념은 추적원칙에서도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2차 년도에 원표본 여성이 어떤 배우자와 함께 원표본가구가 아닌 곳에서 동거를 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 때 가구의 개념을 사용하면, 이 배우자는 일반조사대상이 되지만, 가족의 개념을 사용하면 비조사대상이 된다. 1차 웨이브에서 비혈연 여성가구원이 있는 경우 2차 웨이브 이후부터 만약 가족의 개념을 사용하면 추적조사대상이 되지 않지만, 가구의 개념을 사용하면 추적조사 대상이 된다.

이와 같이 여성가족패널의 경우에는 표본단위가 가족인가, 아니면 가구인가에 따라 원표본여성의 개념이나 추적 방법 등이 상이해 진다. 현실적으로 가족을 단위로 한 표본틀(sample frame)이 부재하며, 통계청의 표본틀이 가구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가구를 표본추출단위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 다만, 추출된 가구를 통해 가구개념으로 접근할 것인가, 가족 개념으로 접근할 것인가의 문제는 조사목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만약 여성가족패널이 여성 개인뿐만 아니라 그 여성이 속한 가족 동학(family dynamics)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목적이 있는 경우 가족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다만, 가족 개념을 사용할 때는 먼저 포함되는 가족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으며, 실사과정 시에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조사목적에 부합된다는 관점에서 명확히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하에서는 가구단위로 표본을 추출하되 가족단위로 조사한다는 기본적인 전제 하에서 논의를 전개한다.

나. 목표 표본수와 추출 표본수

목표 표본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기존에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이 존재하는 상황 하에서 새롭게 여성가족패널을 만들려는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다. 가장 중요한 동기는 역시 여성가족패널에서 조사하려는 내용이 다른 패널조사에는 조사되지 않거나, 조사되더라도 조사항목이 불충분하여 심층적인 분석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점이 조사주제와 관련된 문제라면 표본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여성가족패널조사를 실시하는 중요한 동기 중의 하나가 기존 패널자료에서 여성을 분석하기에 충분한 표본수가 확보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KLIPS의 경우 6차 웨이브를 기준으로 볼 때 전체 조사대상 개인은 11,543명이며, 이 중에서 여성은 5,760명이다. 그런데 이 들 중에서 임금근로자의 표본수는 1,685명이며, 비임금근로자의 표본수는 772명, 그리고 미취업자의 표본수는 3,303명이다(<표 III-4> 참조). 따라서 KLoWF의 경우 최소한 KLIPS에서 나타나는 여성의 수보다는 많은 수의 표본을 확보해야 한다.

<표 III-4> KLIPS에서의 여성표본현황

구분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전체	
	개인표본수	여성표본수	개인표본수	여성표본수	전체표본수	여성표본수
1차 웨이브	4,012	1,488	2,415	1,000	13,321	6,847
2차 웨이브	3,975	1,574	2,258	917	12,039	6,152
3차 웨이브	3,741	1,440	2,072	818	11,205	5,681
4차 웨이브	3,845	1,507	1,982	797	11,051	5,570
5차 웨이브	3,975	1,578	1,980	772	10,966	5,494
6차 웨이브	4,213	1,685	2,000	772	11,543	5,760

자료: 남재량 외(2005)를 재정리.

초기 표본규모를 설정할 때 고려해야 할 또다른 요소는 표본탈락률(panel attrition rate)이다. 통상적으로 패널조사에서는 웨이브가 진행됨에 따라 표본탈락이 발생하게 된다. KLoWF의 표본탈락률을 사전적으로 예상할 수는 없으나, 다른 패널조사의 탈락률 사례를 참조할 수는 있을 것이다. 먼저 일반적인 가구패널조사에서의 표본탈락률은 2차 웨이브에서 탈락률이 비교적 크게 나타나고 3차 웨이브부터는 소폭 수준으로 안정화되는 경향이 있다(<표 III-5>참조).

<표 III-5> 가구패널조사에서의 표본유지율(%)

구분	PSID	GSOEP	BHPS	KHPS	KLIPS
2차	89	90	88	79	88
3차	86	86	83	68	81
4차	84	85	79	62	77
5차	81	81	75	60	76
6차	79	79	74	-	77

자료: 강석훈(2005).

<표 III-5>가 가구패널에서의 표본탈락률이므로 개인패널과 가족패널의 혼합형태인 KLoWF의 탈락률을 예상하기 위해서는 개인패널조사의 탈락률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III-6>은 개인패널조사인 NLS의 표본유지율을 보여주고 있다. NLS여성의 경우 가구패널과는 달리 2차 웨이브에서의 표본탈락률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없으며, 매년 3~4%내외의 표본탈락률을 기록하고 있다. NLS여성패널의 경우 10차년도에 표본유지율은 장년여성의 경우 73.1%, 청년여성의 경우 70.8%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미국의 조사환경이 한국과는 상이하고, 또한 NLS여성패널이 조사방식이 면접과 우편, 전화조사 방식을 혼용하여 사용하였으며, 또한 매년 조사한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동 조사결과를 KLoWF의 경우에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LS의 경우 개인패널의 표본유지율이 10년 후에 약 70%를 기록한다는 점은 참고할 만한 숫자라고 판단된다.

<표 Ⅲ-6> NLS의 응답률과 유지율

연도	장년여성				청년여성			
	조사 형태	총조사 인원	유지율	응답률 (생존응답자)	조사 형태	총조사 인원	유지율	응답률 (생존응답자)
1967	면접	5,083	100.0	100.0	-	-	-	-
1968	우편	4,910	96.6	97.0	면접	5,159	100.0	100.0
1969	면접	4,712	93.3	83.3	면접	4,930	95.6	95.6
1970	-	-	-	-	면접	4,766	92.4	92.5
1971	면접	4,575	91.1	91.1	면접	4,714	91.4	91.6
1972	면접	4,471	89.2	89.2	면접	4,625	89.6	90.0
1973	-	-	-	-	면접	4,424	85.8	86.1
1974	전화	4,322	86.8	86.8	-	-	-	-
1975	-	-	-	-	전화	4,243	82.2	82.7
1976	전화	4,172	84.2	84.2	-	-	-	-
1977	면접	3,964	80.2	80.2	전화	4,018	79.6	80.1
1978	-	-	-	-	면접	3,902	75.6	76.1
1979	전화	3,812	77.7	77.7	-	-	-	-
1980	-	-	-	-	전화	3,801	73.7	74.2
1981	전화	3,677	75.5	75.5	-	-	-	-
1982	면접	3,542	73.1	73.1	전화	3,650	70.8	71.4
1983	-	-	-	-	면접	3,547	68.7	69.4
1984	전화	3,422	71.3	71.3	-	-	-	-
1985	-	-	-	-	전화	3,720	72.1	72.9
1986	전화	3,335	70.3	70.3	-	-	-	-
1987	면접	3,241	68.7	68.7	전화	3,639	70.5	71.5
1988	-	-	-	-	면접	3,508	68.0	69.0
1989	면접	3,094	66.5	66.5	-	-	-	-
1991	-	-	-	-	면접	3,400	65.9	67.1
1992	면접	2,953	65.1	65.1	-	-	-	-
1993	-	-	-	-	면접	3,187	61.8	63.1
1995	면접	2,711	61.3	61.3	면접	3,019	58.8	60.0
1997	면접	2,608	61.0	61.0	면접	3,049	59.1	61.1
1999	면접	2,467	59.2	59.2	면접	2,900	56.2	58.4
2001	면접	2,318	57.9	57.9	면접	2,806	54.4	57.0
2003	면접	2,237	62.2	62.2	면접	2,857	54.4	59.0

자료: BLS(2005).

한국에서의 개인패널조사의 탈락률은 한국고용정보원(舊 중앙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동 조사는 15~29세 사이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과정을 추적조사하는 개인패널조사이다. 1차 년도에서 표본가구로 선정된 10,000가구 중 15~29세 사이의 청년층이 존재하는 가구는 6,487가구로 나타났다. 6,487가구에 거주하는 총가구원수는 23,426명이었고, 이 중 만 15~29세에 해당하는 청년층은 전체 가구원의 47.3%에 해당하는 11,047명이었다. 이 중에서 8,268명이 응답하여 초기년도 응답률은 74.9%를 기록하였다.

한편, 청년패널의 경우에는 표본유지율이 2차 년도에는 71.8%, 3차 년도에는 61.6%, 4차 년도에는 60.3%를 기록하였다(<표 III-7>참조). 2차 년도의 탈락률이 다른 년도에 비하여 높은 점은 가구패널조사에서 나타났던 패턴과 동일하지만, 절대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동 패널조사에서는 3차 년도에서도 탈락률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4차 년도부터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4차 년도의 표본유지율은 60.3%로서 NLS-청년여성의 4차 년도 패널유지율 89.6%보다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청년패널조사에서의 경험으로부터 한국에서의 개인패널조사가 미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어려우며, 가구패널조사보다 탈락률이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¹⁸⁾. 또한 패널조사에서 응답자관리에 따라 탈락률이 유의한 변화를 보일 수 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¹⁹⁾.

18) 물론 청년패널조사가 가구패널과는 달리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비교는 한계가 있다. 한편, 이 같은 결과는 가구패널조사에서와는 달리 청년패널조사와 같은 개인패널조사의 경우 해당하는 개인이 응답하지 않으면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결과라고 하겠다.

19) 한편, 이와는 별도로 청년패널조사를 통해 청년층의 분가현상에 대한 개략적인 정보도 얻을 수 있다. 다음의 <부표 1>은 웨이브가 진전됨에 따라 발생한 분가가구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부표 1> 청년패널의 조사 가구수 변동

(단위: 가구)

구 분	원가구	분가가구	보류가구
1차년도	6,694	-	-
2차년도	4,958	71	130
3차년도	4,157	41	162
4차년도	2,859	95	341

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05), 2004 청년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표 III-7> 청년패널의 표본유지율²⁰⁾

(단위: 명, %,가구)

구분	조사표본수	표본유지율	응답률	조사가구수	실사기간
1차(2001)	8,296			6,694	9~11월
2차(2002)	5,956	71.8	71.8	5,159	10~12월
3차(2003)	5,113	61.6	85.8	4,360	8~12월
4차(2004)	5,001	60.3	84.0	4,295	7~11월

주: 1) 표본유지율은 1차 조사 당시 원표본이었던 8,296명 중 해당년도에 조사 성공한 청년패널의 비중임. 여기에는 군입대, 어학연수 등의 이유로 해당년도에 조사가 보류된 패널도 포함됨(보류자는 3차 년도에 289명, 4차 년도에 485명이었음).

2) 응답률은 해당년도에 조사를 실시하려고 했던 표본(즉, 이전조사에서 응답한 표본) 중 조사된 표본의 비율임.

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05), 2004년 청년패널기초분석보고서

다. 가중치 종류 및 부여 방안

PSID, BHPS, GSOEP에서의 가중치 부여방법에 대해서는 강석훈(2003)을 참조할 수 있다. 여기서는 최근에 조사를 실시한 HILDA의 가중치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를 통해 KLoWF의 가중치 부여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해 본다.

HILDA에서 제공되는 가중치의 종류는 다음의 <표 III-8>에 요약되어 있다²¹⁾.

-
- 20) 가구원 중에서 적격가구원이 모두 응답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도 1명의 적격가구원만 응답하면 (가구용설문서가 조사된 경우에) 조사가구수에 포함된다.
- 21) 구체적인 가중치선출과정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분석자가 어떤 경우에 어떤 가중치를 사용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HILDA manual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HILDA표본을 이용하여 호주전체인구의 빈도나 교차표(cross table)를 만들려고 하는 경우 가중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만약 2차 웨이브에서 수집된 자료만을 이용하는 경우 (가구차원이던, 개인차원이던) 2차 웨이브의 횡단면가중치를 사용하면 된다. 만약 1차 웨이브에서 수집된 자료만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1차 웨이브의 횡단면가중치를 이용하면 된다. 1차 웨이브와 2차 웨이브 사이의 변화를 추정하려면 종단면가중치를 사용하면 된다. 다음은 몇 가지 예이다.
- o 2002년 현재 임대가구의 비율은 얼마인가? 2차 웨이브의 횡단면가중치를 사용하여 가중추정치(weighted estimate)를 구한다.
 - o 2002년 현재 얼마나 많은 개인들이 빈곤가구에 살고 있는가? 우리는 어떠한 특성을 가진 가구에 속한 개인의 수에 관심이 있다. 이 때는 2차년도 기록가구원가중치를 사용하여 빈곤가구에 속해있는 가구원수를 계산하면 된다(이 때 개인은 응답한 개인으로 국한할 필요가 없으며, 일정 연령 이상의 개인으로 국한한 필요도 없다).
 - o 2002년 현재 전문직 종사자의 평균봉급은 얼마인가? 이 질문에는 2차 웨이브의 응답개인가중치를 사용하여야만 대답할 수 있다. 전문직종사자라고 응답한 개인들의 봉급을 가중평균하여 사용한다.
 - o 2001년과 2002년 사이에 가장 빈곤한 10%의 가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탈출하였는가? 각 웨이브에서 가장 빈곤한 10%의 가구들을 정의할 수 있다. 이 때 종단면기록개인가중치를

보다 구체적인 가중치산출과정은 <참고 1> HILDA에서의 가중치산출과정과정에
서 설명하고 있다. 외국패널조사에서의 경험과 KLIPS, 그리고 HILDA의 경험으로
볼 때 KLoWF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종단면가중치와 횡단면가중치를 동시에 제공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개인가중치와 가구가중치가 동시에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
와 같은 기본적인 가중치이외에도 KLoWF의 경우 특정계층에 대한 규모추정에 빈번
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HILDA나 BHPS에서와 같이 기록개인가중치를
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용하여 각 웨이브에서의 가장 빈곤한 10%에 속한 개인들의 합을 구할 수 있다.

- 2001년과 2002년 사이에 고용상태가 바뀐 사람들의 비율은 얼마인가? 이 질문에는 1차 웨이브와 2차 웨이브에서 모두 응답한 사람들을 이용하여야만 응답할 수 있다. 이 때에는 종단면 응답개인가중치를 이용하여 1차 웨이브에서 고용상태에 따라 인원수를 기록한 교차표를 구하고, 2차 웨이브에서 동일하게 작성한 교차표와 비교한다.

여러 개의 웨이브에 걸쳐 분석하면서 종단면 가중치를 사용할 때, 연구자는 1차 웨이브로부터 균형패널(balanced panel)자료로서 2,3,4차 웨이브를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2차와 3차 사이의 변동을 고려하고 싶다면, 표본을 3차 웨이브까지 균형패널자료로 제한하고 종단면 가중치를 사용한다. 이렇게 하면 2,3차 웨이브에서는 응답하였지만, 1차 웨이브에서는 응답하지 않은 사람은 제외된다. 이 경우 특정한 분석목적에 맞게 재설계된 가중치를 이용하는 것 보다는 일정 정도 비효율적 추정치를 얻게 된다. 이상적으로는 2차 및 3차 웨이브에만 적용되는 종단면가중치를 다시 산출하여야 하지만 개별 연구자가 이러한 가중치를 분석목적에 맞게 재설계하려면 추가적인 비용이 따르므로 약간의 비효율성을 감수하고, 제공된 종단면가중치를 사용하는 것이다.

<표 III-8> HILDA에서 제공되는 가중치

파일	가중치변수명	설명
가구 파일	_hhwth	해당 웨이브에서 응답한 모든 가구의 횡단면모집단가중치 가구 가중치. 가중치의 합은 여기에 해당되는 모집단의 전체가구의 합과 같음
	_hhwthrs	횡단면모집단가구가중치를 재조정하여 전체합이 각 웨이브에서의 표본수와 같게 만든 가중치. 통계패키지에서 가중치의 합이 표본수와 같아야 하는 경우 사용하는 가중치
	_hhwte01 to _hhwte04	기록가구원가중치로서 가구파일과 개인파일에 모두 제공됨. 아래의 설명 참조
	_rwh01 to rwh04	가구 모집단 재생가중치(replicate weight)
기록 개인 파일	_hhwte	해당 웨이브에서 응답한 가구에 속한 모든 기록가구원(아동, 무응답자, 응답자를 모두 포함)에 대한 횡단면모집단개인가중치. 이 가중치의 합은 여기에 해당되는 모집단의 전체 개인의 합과 같음.
	blnwte	1차 및 2차 웨이브에서 동시에 기록된(응답한) 모든 가구 구성원의 종단면개인가중치. 이 가중치는 응답가구 내에 있는 아동이나, 무응답자, 일시적 거주자, 전 웨이브 응답자가 모두 포함됨.
	clnwte	1차, 2차 및 3차 웨이브에서 동시에 기록된(응답한) 모든 가구 구성원의 종단면개인가중치. 이 가중치는 응답가구 내에 있는 아동이나, 무응답자, 일시적 거주자, 전 웨이브 응답자가 모두 포함됨.
	dlnwte	1차, 2차, 3차 및 4차 웨이브에서 동시에 기록된(응답한) 모든 가구의 구성원의 종단면개인가중치. 이 가중치는 응답가구 내에 있는 아동이나, 무응답자, 일시적 거주자, 전 웨이브 응답자가 모두 포함됨.
	_rwe01 to _rwe30	기록가구원의 횡단면모집단 재생가중치
	_rwlne01 to _rwlne30	기록가구원의 종단면모집단 재생가중치
응답 개인 파일	_hhwtrp	해당 웨이브에서 응답한 모든 개인의 횡단면모집단개인가중치. 가중치의 합은 해당되는 모집단의 수와 같음.
	_hhwtrps	해당 웨이브에서 응답한 모든 개인의 횡단면모집단개인가중치의 크기를 재조정하여 가중치의 합이 해당되는 웨이브의 표본수와 같게 만든 가중치. 이러한 가중치를 요구하는 통계패키지를 이용할 때 사용함.
	blnwtrp	1차 및 2차 웨이브에서 모두 응답한 개인의 종단면 모집단가중치
	clnwtrp	1차, 2차 및 3차 웨이브에서 모두 응답한 개인의 종단면 모집단가중치
	dlnwtrp	1차, 2차, 3차 및 4차 웨이브에서 모두 응답한 개인의 종단면 모집단가중치
	_rwrp01 to _rwrp30	응답가구원의 횡단면 모집단개인가중치
	_rwlmr01 to _rwlmr30	응답가구원의 종단면 모집단개인가중치

자료: Melbourne Institute(2006), HILDA user manual-release 4.0,

5. KLoWF의 표본설계방안과 관련 쟁점에 대한 제언

KLoWF의 경우 구체적인 표본규모는 사전적으로 7,000가구로 결정되어 있다. 또한 특정 코호트를 대상으로 하는 패널조사가 아니라 대표표본을 대상으로 하는 표본조사로 기획되었다.

현실적으로 KLoWF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를 사용하여 표본을 추출하는 방안이 거의 유일하며, 이러한 과정을 대한통계협회에 의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표본추출 전과정에서 대한통계협회와 KWDI의 연구진과 밀접한 의사전달채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다. 특히 층화변수의 선정과정에서 밀접한 의견교환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10%표본조사구를 사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며, 이 때 인구주택총조사시점과 KLoWF의 조사시점의 차이를 효율적으로 극복하는 방안이 사전적으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가장 현실적인 질문으로서 몇 개의 ED를 사용하느냐의 이슈가 있다. 이미 사전적으로 결정된 KLoWF의 표본수가 7,000가구이므로 만약 동일한 ED에서 7가구를 선정하는 방식을 사용한다면 1,000개의 ED를 추출하여야 하며, 14가구를 선정하는 방식을 사용한다면 500개의 ED를 추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선택의 문제는 이론적으로 볼 때 ED내의 동질성과 ED간의 이질성문제이다. 만약 ED내의 가구가 거의 유사한 가구들이고 ED간 가구들의 차이가 크다면 동일한 ED내에서 추출하는 가구수를 가능한 한 줄이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만약 ED내의 가구들의 특성이 차이가 많고 ED간의 가구특성의 차이가 적다면 동일한 ED에서 많은 가구수를 추출하는 방안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동일 ED내에서 추출할 가구수의 문제는 이론적인 최적치를 구체화하여 산출하기는 어려우며, 조사비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선정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관련하여 볼 때 KLIPS에서는 표본규모가 약 5,000가구인 상황에서 동일한 ED에서 5~6가구를 추출하였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다. 또한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와 국민노후생활보장조사에서는 각각 25가구와 30가구를 추출한 바 있다.

KLoWF의 추적원칙으로는 현재 PSID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으나, GSOEP 방식을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양한 패널조사의 과거 경험치를 바탕으로 목표탈락률을 설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가중치 부여 과정에서 개인이나 가구와 같은 통상적인 가중치 이외에 기록개인가중치를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고 1> HILDA의 가중치산출과정

(1) 1차 웨이브에서의 가중치

1차 웨이브에서의 가중치는 복합서베이의 횡단면가중치이다. 최초의 가중치는 추출확률로부터 도출되며, 여기에 모든 추출가구(응답가구와 무응답가구 모두 포함)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조정되고, 최종적으로 알려진 모집단의 일부 정보와 일치하도록 최종 조정한다. 개인차원의 가중치는 가구차원의 가중치를 기초로 하여, 응답가구에 속한 모든 개인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조정한다. 이 개인가중치도 모집단 개인의 알려진 정보와 일치되도록 최종 조정한다.

전반적인 가중치부여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가구가중치의 경우 표본추출을 반영한 디자인가중치를 기초로 한다. 이 가중치에 실제조사에서 수집된 응답가구와 비응답가구의 정보를 이용하여 가구차원의 무응답을 반영한 중간단계의 가중치를 산정한다. 이 가중치에 호주 전체 모집단가구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최종가구가중치를 산정한다.

기록가구원 가중치는 최종가구가중치를 기초로 한다. 이 가중치에 호주 전체 모집단개인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최종기록개인가중치를 산정한다. 응답개인가중치도 최종가구가중치를 기초로 한다. 이 가중치에 실사과정에서 수집된 응답가구내의 응답가구원과 무응답가구원의 정보를 반영하여 무응답조정가중치를 산정한다. 이 가중치에 호주 전체의 모집단 개인에 대한 정보를 반영하여 최종응답개인가중치를 산출한다.

① 가구가중치

먼저, 디자인가중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디자인가중치는 표본추출확률에 의존하는데, 표본추출확률은 다음에 의해 결정된다.

- 센서스의 특정 CD(Collection District)가 추출될 확률
- CD가 주어진 경우 특정 블록이 추출될 확률
- 블록이 주어진 경우 특정 주거단위(dwelling)가 추출될 확률

- 주거단위가 주어진 경우 특정 가구가 추출될 확률

디자인가중치는 특정 가구의 표본추출확률의 역수로 주어진다. 디자인가중치는 무응답을 반영하여 재조정된다. HLIDA에서는 두가지 정보가 이용가능하였다. 먼저, 면접원들은 응답가구이던 무응답가구이던 간에 추출된 모든 가구에 대하여 약간의 기본적인 정보들을 조사하였다. 두 번째로는 센서스 CD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들이었다²²⁾. 이러한 정보들을 이용하여 응답확률을 로짓모형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문이 잠겨있거나 위험한 개가 있는 경우, 안전 창(security doors), 정크메일금지라는 표지판이 있는 가구 그리고 열악한 주거단위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응답확률이 낮았다. 거주지역의 인구밀도가 높을수록, 영어이외의 언어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실업자의 비율이 낮을수록 응답확률이 낮았다. 그러나 그 지역에 거주하는 가족의 형태, 지역 내에 거주하는 개인들의 중간값 연령, 평균가구크기, 지역의 주거단위 형태 등은 모형의 예측력을 높여주는 변수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 모형의 설명변수에서 제외되었다. 주별로 응답률이 상이하고, 주내에서도 대도시지역과 시골지역의 응답률이 달랐다. 이 응답확률의 역수를 디자인가중치에 곱하여 중간단계의 가구가중치를 산출하였다.

최종단계는 알려진 모집단의 성질과 일치시키는 과정이다. 이 때에는 주별 그리고 일부 주에서는 주를 세분화했을 때의 총가구수, 광역지역별로 성인개인과 아동개인의 수를 기준으로 한 가구형태라는 두 가지 벤치마크를 사용하였다. GREGWT를 이용하여 캘리브레이션 방식으로 두가지 벤치마크에 동시에 부합되도록 가구가중치를 조정하였다²³⁾.

다음의 <부표 1>은 각각의 단계에서 가중치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22) 면접원들이 조사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주거단위의 종류/주거단위의 외부적인 상태/주거단위의 안전관련 사항(security features)/지역 내의 고층빌딩 현황. 한편, 센서스CD에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지리적 위치/가족 및 가구형태의 종류별 비율/지역에 거주하는 개인들의 중간값 연령/지역의 인구밀도(1제곱 킬로 당 인구)/영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비율/주거단위의 종류별 비율/개인들의 고용상태의 종류별 비율/평균가구크기/주당소득의 중간값

23) GREGWT는 호주통계청(ABS)에서 개발한 SAS매크로의 이름임.

<부표 1> 단계별 가중치의 변화

구 분		평균	최소	1분위	중간값	3분위	최대
가구	디자인가중치	964	150	867	927	1,002	2,609
	무응답조정	964	176	835	908	1,020	3,646
	벤치마크조정	964	166	802	913	1,052	3,820
기록 개인	기록가구에 대한 최종가구가중치	955	165	769	906	1,057	3,801
	벤치마크조정(ERP)	955	141	753	906	1,084	3,992
	벤치마크조정(ERP&LFS)	955	134	749	907	1,086	3,914
응답 개인	응답가구에 대한 최종가구가중치	1,082	183	896	1,028	1,191	4,218
	무응답조정	1,082	173	858	996	1,204	6,005
	벤치마크조정(ERP)	1,082	144	833	1,000	1,226	6,300
	벤치마크조정(ERP&LFS)	1,082	137	830	1,001	1,232	6,276

② 개인가중치

1차 웨이브에 참여한 7,682가구 중에서 10.5%에 해당되는 가구에서 면접대상이 되는 성인 중에 적어도 한명 이상이 면접조사를 완성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개인차원에서는 응답자와 무응답자 그리고 이동을 모두 포함하는 기록가구원가중치와 응답한 개인에게 주어지는 응답개인가중치의 두 가지 가중치를 작성하였다. 응답가구의 통상적인 가구원은 모두 기록개인가중치를 부여하였다. 면접조사에 응한 가구원은 모두 응답개인가중치를 부여하였다.

가구가중치와 개인가중치의 일관성을 위해 최종가구가중치를 기초로 개인가중치를 작성하였다. 실제로 개인이 추출될 확률은 가구가 추출될 확률과 동일하기 때문에 개인가중치의 디자인가중치는 가구가중치의 디자인가중치와 같다. 응답가구의 무응답가구원의 정보를 이용하여 응답개인가중치를 조정하는데 사용하였다. 무응답조정은 기록개인가중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차원의 응답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지리적 위치/성/연령그룹/결혼상태/고용상태/영어가능 여부/장기질환 유무/가구내의 어른과 아이의 수/주택거주 형태/주거단위의 구조 등의 요인을 고려하였다. 실제 응답확률은 로짓모형으로 추정하였으며, 응답가구에서 15세 이상 응답적격가구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었다. 로짓모형 추정결과에 의하면 시드니에 살거나, 전시간 근로자이거나, 남자이거나, 연령이 20~44세이거나, 3인 이상의 어른이 사는 가구이거나, 가구 내에 아동이 없거나, 미혼이거나

동거하거나,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응답확률이 낮아졌다.

이러한 모형으로 추정한 응답률의 역수를 최종가구가중치에 곱하여 중간단계의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이 응답확률이 낮을 수록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받으며, 이는 무응답자와 비슷한 특성을 가진 응답자의 기여분을 증가시키는 것과 같다. 가구 내에서 적격응답가구원이 1명인 경우에는 응답확률을 적용시키지 않았다. 분포의 극단 부분에서 작은 케이스로 인해 가중치가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응답개인가중치의 응답률조정가중치는 최초개인가중치 크기의 1.8배로 제한하였다. 13,969명의 개인 중에서 36케이스가 이 경우에 해당되었다.

최종단계에서는 알려진 모집단의 정보와 일치시키는 과정을 거쳤다. 두개의 벤치마크가 사용되었다.

벤치마크 1: 주별, 주의 세부 부분별, 성과 연령에 따른 사람수

벤치마크 2: 주별 고용상태에 따른 사람수.

(2) 2차 웨이브에서의 가중치

전반적인 가중치부여과정은 다음의 <부표 2>와 같이 요약된다.

<부표 2> HILDA에서 2차 웨이브의 가중치 부여과정

가구	최초가구 가중치 (w1의 최초가구 가중치)	새로운 진입 가구 조정	보완된 가구 가중치	W1과 W2에서의 응답 및 무응답 가구정보	중간단계 의 가구 가중치	W2에서 호주가구 모집단 전체 정보	최종가구 가중치			
기록 개인							W2에서 호주전체 의 개인정보	최종기록 가구원가 중치		
응답 개인							W1과 W2에서 응답가구 내에 있는 응답, 무응답개 인정보	중간단계가 중치	W2에서 호주 전 체의 개인정보	최종 응답 개인 가중치

(계속)

종단면 기록 개인	W1 최종 기록개인 가중치	W1과 W2에서 응답 및 무응답 가구정보	중간단계 의 기록 개인 가중치	W1에서 호주 전체의 개인정보	최종기록 개인종단 면가중치					
종단면 응답 개인	W1의 최종 응답개인 가중치	W1과 W2에서 수집된 응답 및 무응답 개인정보	중간단계 의 종단면기 록 개인 가중치	W1에서 호주전체 의 개인 정보	최종응답 개인 종단면 가중치					

가중치를 부여하기 위해 추적법칙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HILDA의 추적원칙에 따르면 최초 선택된 가구원은 물론이고, 추출된 가구에서 태어나거나 입양되는 아동, 가구구성의 변화로 인해 새롭게 추가된 가구구성원은 표본조사대상이 된다. 최초표본 사이에 아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신규진입가구원은 영구적인 추적조사대상이 된다. 기타의 모든 신규진입자는 임시거주자로서 추적조사에서 제외된다. 다른 추적원칙은 일반적인 PSID추적원칙에 따른다.

① 횡단면 가구가중치

새로운 가구원이 있기 때문에 가구와 개인가중치는 달라져야 한다. 다음의 예를 보자. 개인 a가 있는 가구가 1차 웨이브에서 추출되었다고 하자. 2차 웨이브에서 이 가구에 b가 신규로 들어왔다. 만약 1차 웨이브에서 b를 포함하는 가구를 추출했다면, 2차 웨이브 표본에서 이 가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a와 b가 있는 가구의 2차 웨이브 횡단면 가중치는 이러한 다중 경로가 있음을 반영하기 위해 낮게 조정될 필요가 있다. 만약 2차 웨이브의 횡단면가구가중치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신규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수를 과대하게 추정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가구들의 활동을 분석한 결과에 편향이 생길 것이다.

다음의 보정단계를 걸쳐서 이와 같은 점을 반영하였다.

1단계: 새로운 가구원이 진입한 가구들을 판별한다.

2단계: 새로운 가구원이 진입한 가구들의 중요 개인(reference person)을 판별한다.

3단계: 신규진입가구원이 있는 가구들의 ‘유사표본추출확률’을 예측하기 위해 회귀모형을 설정한다.

3-1: 중요 개인을 선정한다.

3-2 1단계의 최종가구가중치의 역수를 취하여 ‘유사추출확률’을 계산한다. 이 추출확률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변수를 생성한다.

$$P_{hh, w1} = 1/w_{hh, w1}$$

$$y = \ln \left[\frac{P_{hh, w1}}{1 - P_{hh, w1}} \right]$$

3-3: 2차 웨이브의 중요개인의 정보와 가구정보를 설명변수로 하고, y 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을 설정한다²⁴⁾.

3-4 이 모형을 이용하여 신규진입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1차 웨이브에서의 ‘유사추출확률’($\hat{P}_{fi, u1}$)을 예측한다. y 에 대한 회귀모형에서 신규진입가구원이 있는 가구 및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y 의 예측치(\hat{y})를 구한다. \hat{y} 를 다음과 같이 변환하여 i 번째 신규진입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진입확률을 구한다.

$$\hat{P}_{fi, w1} = \frac{\exp(\hat{y})}{1 + \exp(\hat{y})}$$

4단계: 2차 웨이브에서 조사대상이 되는 다양한 경로를 반영하기 위해 2차 웨이브에서 보완된 가구가중치를 작성한다. 구체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다.

$$w_{hhvrsd, u2} = 1/[1 - (1 - \hat{p}_{hh, u1}) * (1 - \hat{p}_{f1, u1}) * \dots * (1 - \hat{p}_{f1, u1})]$$

$\hat{p}_{hh, u1}$ 는 기존 가구그룹의 ‘유사선택확률’이고, $\hat{p}_{f1, u1}$ 는 신규진입가구 i 의 ‘유사선택확률’로 추정된다. 2차 웨이브에 아무도 응답하지 않은 신규가구그룹에 대하여 1차 웨이브 ‘유사선택확률’은 0이 된다²⁵⁾²⁶⁾.

24) 구체적으로 가구변수 중에는 가구구성(어른수, 아동의 수)과 지역, 주거단위의 종류, 가구이동 등과, 개인변수 중에는 성, 연령, 결혼상태, 가구에서의 관계, 출생지, 영어사용여부, 교육, 고용 상태 등을 설명변수로 사용하였다.

25) 이 조정과정은 GSOEP 접근방법과 유사하다. HILDA에서 GSOEP에 비하여 개선된 점으로는

2차 웨이브에서의 무응답조정이 가장 많은 가중치의 변화를 가져왔다. 응답확률은 로짓모형을 사용하였고 다음의 <부표 3>에서 제시한 설명변수를 사용하였다.

<부표 3> 무응답조정에 사용된 설명변수

구 분	변 수
1차 웨이브에서의 가구정보	위치/원거리 위치/장애정도의 SEIFA 지수/주거지 형태/주거지의 상태/1인당 침실의 수/가구에 전화한 횟수/부분응답 여부/가구원수/어른수/아이수/가구형태/거주형태/가구에 사회보장수혜자 존재유무/작년의 가구소득/가구소득의 결측치 여부/면접조사 시간/면접조사시간을 모르는 경우
1차 웨이브에서의 개인정보	성/연령/연령제곱/65세 이상 여성/결혼상태/영어의 능숙도/고용상태 및 근로시간/중요 개인이 가진 아이 수/출생국가/학력/가구주와의 관계/건강상태/이사갈 가능성/지난 10년간 이사횟수/1차 웨이브에서의 면접시간/1차 웨이브에서의 면접시간을 모르는 경우/1차 웨이브에서 SCQ의 완료여부/중요 개인이 1차 웨이브에서 면접을 실시한 여부
2차 웨이브에서 수집된 정보	1차 웨이브에서 가구 분할 여부 1차 및 2차 웨이브사이의 이사여부

2차 웨이브에서 분리된 가구의 경우 별도로 취급하였으며, 합쳐진 가구는 하나의 가구로 취급하였다. 중간단계의 가구가중치는 보완된 최초의 가구가중치에 가구가 응답한 가구로 남은 확률의 역수를 곱하여 작성하였다. 이는 가구 중에서 응답확률이 가장 낮은 가구의 경우에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가구의 가중치가 지나치게 높게 나타나는 것을 막기 위해 남아 있을 확률이 0.3이하로 추정된 경우에는 0.3으로 고정하였다. 이에 해당되는 가구는 21가구였다. 이렇게 계산된 가중치는 다시 호주 전체의 가구모집단과 동일한 성질을 갖도록 재조정되었다. 사용한 벤치마

가구그룹을 정의하고, 그들이 가구로 함께 이동한다고 가정한 점, 가구, 개인수준 정보를 모두 이용하여 신규참여자가 있는 가구의 1차 웨이브 가구추출확률을 예측한 점, 결합추출확률을 반영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GSOEP방법은 추출확률모델에서 개인수준 정보만을 사용하여 신규 진입자들을 각각 독립적으로 처리하고, 결합추출확률은 무시한다(0으로 둬).

- 26) 신규진입자의 포함을 조정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BHPS에서 사용하고 있는 ‘fair shares approach’이다. 이 방법 하에서는 무응답을 조정한 후 1차 웨이브 가구구성원 가중치의 합이 2차 웨이브 가구구성원에서 동등하게 나뉜다. 이는 BHPS방법이 신규진입자가 기존 가구구성원과 유사하다는 것을 가정하는 것이다. GSOEP-type approach은 좀 더 정확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BHPS방법은 극단적인 가중치를 덜 발생시킨다는 장점이 있다.

크와 추정방법은 1차 웨이브와 동일하다.

② 횡단면 개인가중치

1차 웨이브에서와 같이 기록개인가중치와 응답개인가중치를 작성하였다. 이는 모든 적격응답자가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차 웨이브에서 응답한 7,245가구 중에서 응답적격개인인면서 응답하지 않은 가구원이 있는 경우가 9.7%였다. 개인차원으로 보면 7.1%에 해당된다. 1차 웨이브에서와 같이 가구가중치와 개인가중치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최종가구가중치를 기초로 하여 기록개인 및 응답개인가중치를 작성하였다.

먼저 응답가구원에 한하여 무응답조정을 실시하였다. 응답가구내의 응답개인과 무응답가구원의 정보를 이용하여 무응답조정을 실시하였다. 15세 이상인면서 두 명 이상의 적격응답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만 로짓모형을 이용하여 응답확률을 추정하였다. 모형에 사용된 설명변수로는 2차 웨이브의 개인특성 중에서 성, 연령, 연령제곱, 65세 이상 여성, 가구 내에서의 관계를 사용하였으며, 2차 웨이브 가구 특성 중에서 지역, 원거리 위치, SEIFA장애지수, 주거지형태, 1인당 침실 개수, 전화한 횟수, 가구원수, 2차 웨이브에서 3인 이상의 어른이 있는 경우, 아이들 수, 가구형태, 주거형태, 2차 웨이브에서 분리여부, 1차 및 2차 웨이브 사이에 이사여부, 신규가구원이 있는 경우, 가구를 떠난 가구원의 존재유무, 신규가구원과 떠난 가구원의 동시 존재 여부 등의 변수를 사용하였으며, 1차 웨이브 가구 특성 중에서 가구내에 사회보장수혜자가 있는 경우, 가구소득이 결측치인 경우, 작년의 가구소득, 가구면접 시간, 가구면접 시간을 모르는 경우 등의 변수를 사용하였다.

최종가구가중치에 응답확률의 역수를 곱하여 응답개인가중치를 산출하였다. 극단적인 가중치를 피하기 위해 응답확률이 0.5이하인 경우 0.5로 고정하였다. 전국모집단 개인과의 일관성확보는 1차 웨이브와 동일하게 실시하였다.

③ 종단면 개인가중치

1차 및 2차 웨이브에서 모두 응답한 개인들은 종단면응답개인가중치를 부여했으며, 1차 및 2차 웨이브에서 모두 기록되어 있는 개인들은 종단면기록개인가중치를 부여했다. 종단면응답개인 및 기록개인 가중치는 1차 웨이브의 응답개인 및 기록개인가중

치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다.

중단면응답개인가중치는 두 웨이브사이의 표본탈락을 보정하여 작성하였다. 2차 웨이브의 응답확률은 로짓모형을 통해 작성되었다. 이 때 사용된 설명변수는 가구의 응답확률을 계산하는 모형에서 사용한 변수와 유사하다. 최초의 중단면응답개인가중치에 개인의 응답확률의 역수를 곱하여 중간단계의 가중치를 작성하고, 여기에 호주 전체의 개인모집단의 성질과 일치시키는 과정은 최초 웨이브와 같다. 기록개인가중치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응답개인가중치와 유사하게 작성될 수 있다. 다만, 이 때 응답확률은 개인이 아니라 가구의 응답확률이다. 기타 과정은 응답개인가중치의 경우와 동일하다.

<참고 2> HILDA에서의 표본오차

실제 통상적인 통계분석프로그램에서는 표본오차를 계산할 때 서베이에서의 집락, 층화, 비동등가중치 등을 감안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²⁷⁾.

- SPSS 사용자의 경우 version12에서부터 이용가능한 복합서베이명령어(complex survey command)를 이용한다.
- STATA 사용자의 경우 'svyset'을 이용하여 집락이나 층화,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다. 'svy' 명령어를 사용하여 다양한 요약통계량을 산출할 수 있다. 'svy jackknife' 명령어를 사용하려면 재생그룹(replicate group)이 필요하다.
- SAS사용자의 경우 GREGWT 매크로(macro)를 사용한다. 이 매크로는 잭나이프(jackknife)방법을 이용하여 표준편차를 계산한다. 이를 이용하려면 재생그룹(replicate group)이 필요하다.

HILDA에서는 표준오차의 계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1차 웨이브에서의 지역, 재

27) 상이한 통계패키지는 상이한 방법으로 표준오차를 계산한다. 주로 (1) 선형근사(linearization), (2) 균형반복재생(balanced repeated replication)과 잭나이프(Jackknife)를 포함한 재생기법을 사용한다. 선형근사방법은 SPSS, SAS, STATA 등에서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항에 준거한다. (1) 표본단위의 선형결합으로 이루어진 통계량의 표준오차는 계산하기가 상대적으로 쉽다. (2) 대부분의 서베이통계량은 선형이 아니지만, Talyor 확장방법을 통하여 선형통계량으로 근사할 수 있다.

생그룹(replicate group), 층화변수를 마스터파일에 제공하고 있다. 새롭게 가구에 진입하는 가구원에 대해서는 원표본가구원과 같은 정보를 지정하였다.

재생기법의 기본 아이디어는 단순임의표본에서 반복되는 표본의 가변성(이 가변성이 분산을 정의한다)은 최종표본에서 임의적지만 불편성을 가진 하위표본을 반복적으로 추출하고, 이러한 표본들의 가변성을 측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서베이에 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재생기법은 균형반복재생과 잭나이프이다.

균형반복재생은 층화리스트에서 1차 표본단위(PSU)가 선택되고, 각 층에서 두개의 PSU가 선택되는 경우에 사용될 수 있다. 많은 전국단위의 일반국민서베이는 층화 지역리스트에서 지역단위를 하나의 PSU로 사용하므로 균형반복복사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각 층마다의 두개의 PSU로부터 한 개의 PSU를 반복적으로 추출하여 재생치로 사용한다. 추출과정이 모두 임의적이지는 않지만 균형된 재생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안된 1과 0의 직교행렬로부터 재생치를 설정한다.

잭나이프추정방법에서는 데이터셋으로부터 한번에 하나씩의 PSU를 제거하고 이러한 제거효과를 감안하기 위하여 가중치를 조정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계산된 각각의 재생평균은 모평균에 대하여 불편추정량을 제공하며, 재생평균 간의 분산은 표본평균의 참값에 대한 추정치를 제공한다. 잭나이프방법은 특정한 표본디자인에만 적용할 수 있는 기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반복재생기법보다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 가능하다.

재생기법은 사후층화에도 적용가능하다. 또한 재생가중치는 한번 계산하면 데이터셋과 함께 배포하여 모든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다. 이는 데이터셋에서 PSU를 제공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한다.

대개의 재생방법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단계를 거친다. 먼저 서베이의 디자인특성으로부터 반복가중치의 집합을 만들고, 이 가중치를 사용하여 서베이의 모든 변수를 분석(표준오차의 계산)하는데 사용한다. 반복가중치가 있는 경우 연구자들은 서베이 디자인의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알 필요가 없게 된다.

<부표 4> HILDA에서의 표본디자인 변수

변수	설명	표본 디자인요소
AHHRAID AHHMSR AHHREPGP	임의화된 지역 ID 주요 통계적 지역 재생그룹	집락 층화 재생그룹

IV

여성가족패널의 조사내용

1. 여성가족패널 조사내용 구성도	37
2. 여성과 가족(family dynamics)	74
3. 여성과 일(labor dynamics)	80
4. 여성과 여가	84
5. 여성가족패널조사의 주요 설문 항목 구조	88

1. 여성가족패널 조사내용 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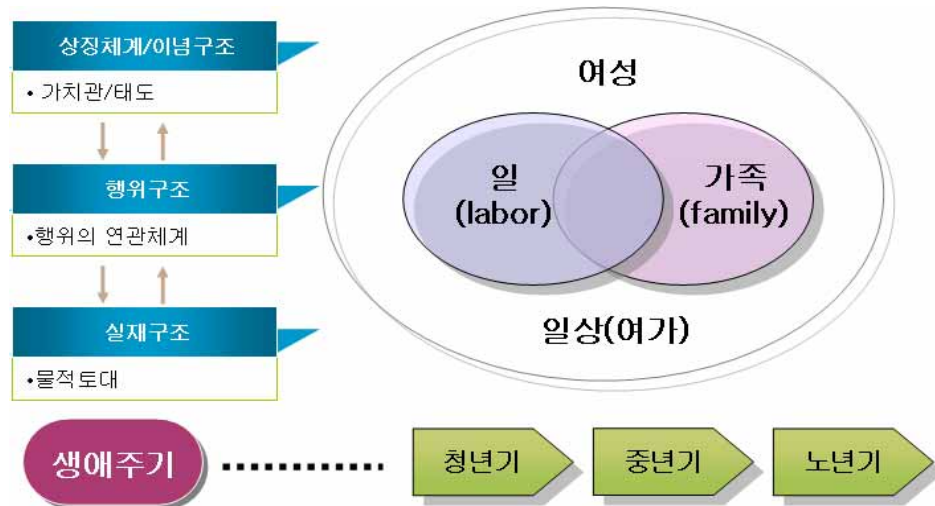
가. 여성가족패널조사 영역의 개념화

‘여성가족패널’조사의 영역은 다음 <그림 IV-1>과 같이 개념화될 수 있다.

우선 여성개인을 둘러싼 환경을 크게 일(경제활동), 가족, 그리고 더 큰 범주의 일상생활(여가)로 나눌 수 있으며, 이 세 가지 영역 속에서 자신의 삶의 방식을 다양하게 꾸려가는 여성집단의 생활세계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한다. 예컨대 여성 개인에 있어서 ‘일(경제활동)’을 주로 하는 집단, ‘가사노동을 주로 하는 집단’, ‘일과 가사노동을 비슷한 비중으로 하는 집단’, 나아가 이런 집단을 기·미혼에 따라서 혹은 연령이나 지역에 따라서 다시 세분화할 수 있을 것이며, 각 집단별로 의식과 행위양식, 가족관계의 변화 요인과 흐름을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활동과 가사노동을 뺀 나머지 일상에서의 여성의 여러 활동들 또한 여타의 영역에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는 의미 있는 생활영역이다.

세 가지 영역은 여성의 일생을 지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변형되고 재구조화되는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여성의 생애주기(life cycle) 이동을 패널조사의 한 축으로 삼는다. 여성의 삶의 방식은 출생시기부터 시작하여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남성과 다른 신체적, 환경적 특성을 가지고 구성되며, 특히 결혼과 출산, 양육, 부양 등 여러 생애 사건들(life events)에 의하여 큰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여성의 생애주기에 있어 중요시기(critical period)나 사건을 고려한 조사 항목들을 추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이러한 삶의 영역들과 양식들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행위 구조와 양식은 기본적으로는 개인의 물질 토대에 의하여, 다른 층에서는 이념이나 가치관 등에 의하여 영향을 상호 역동적으로 주고받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영역과 생애사건들이 동일 개인의 생애에 있어서 어떠한 변화와 역동성을 보이는지, 나아가 세대를 지나가면서 누적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가를 볼 수 있는 것도 추적조사에서 포착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그림 IV-1> 여성가족패널 조사 내용의 개념도

나. 여성가족패널조사의 주요 영역

여성가족패널조사의 영역별 조사 내용을 추출하기 위한 정당화 방법으로 여성가족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주요 정책쟁점이 무엇인지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관련 선행 문헌 및 각종 관련 주요 국가정책들-‘여성정책기본계획’, ‘가족정책기본계획’, ‘여성인력종합개발계획’,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에 대한 검토의 기반 위에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주요 핵심 영역을 설정하였다.

각 영역에 대한 현재 주요 정책쟁점을 검토하고, 향후 ‘여성가족패널’ 조사를 통하여 추적 분석할 수 있는 주요 연구주제를 설정하였다. 나이가 각 쟁점에 대하여 패널 조사를 통하여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학술적 측면을 검토하였다.

2. 여성과 가족(family dynamics)

가. 가족정책의 필요성

- 가족을 둘러싼 환경 변화와 가족 자체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이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장기적 정책 기제로서의 가족정책 필요

- 개별가족의 기능적 과부하와 모순적 상황의 해결기제로서의 가족정책 필요
- 복지서비스의 확대 및 질적 제고 방안으로서의 가족정책 필요
- 한국사회의 지속적인 성장기제로서의 가족정책 필요

나. 주요 정책 쟁점

1) 가족과 가족구성원에 대한 국가 및 사회의 지원 강화

- 가족에 대한 다양한 지원 확립
 -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강화(아동수당제도, 이혼 후 아동양육비 확보방안, 가족의 빈곤 예방)
 - 가족 지원 서비스의 다양화와 확대(다양한 가족 유형의 사회적 통합방안, 한부모 가족에 대한 서비스, 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지원)
- 안전한 가족생활 보장
 - 임신·출산의 사회적 보호 기반 확립(태아와 임산부에 대한 안전환경 조성, 산전후휴가 의무시행, 산전후휴가 대상자 확대와 지원 확립)
 - 생애주기별 가족건강의 증진(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의 건강 지원, 가족건강을 위한 생활환경 조성)
 - 가족원의 폭력 예방 및 안전한 가족환경 조성(가정폭력 및 학대의 예방, 가정폭력 및 학대 피해자 보호, 가정폭력 및 학대 가해자에 대한 개입 확대)

2) 민주적 가족문화의 조성: 열린 가족문화 조성

- 평등한 가족관계 증진(새로운 신분등록제도 정착 기반 마련, 가족유대 강화를 위한 제도 기반 마련, 건강한 가족 여가문화 확립)
 - 가족 내 가사분담이 공평하게 이뤄지는 가족문화 조성
 - 가족구성원이 가족 내 의사결정과정에 동등하게 참여하는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 다양한 가족문화 수용(다양한 가족의 통합, 전업주부의 사회적 연계 제고)
 - 다양한 가족에 대한 편견 불식 및 사회적 수용력 제고
 - 전업주부 등을 중심으로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노동이동과정에 대한 정책적 개입

- 가족, 성역할 및 섹슈얼리티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 가족관계, 성역할에 대한 태도의 변화와 사회교육의 필요성
 - 결혼, 출산, 섹슈얼리티 등 성에 관한 태도의 변화와 사회교육의 필요성
 - 다양한 가족형태, 외국인 이민자 가족 등에 대한 태도의 변화와 사회교육의 필요성

3) 일과 가족의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 및 여건 조성

- 돌봄노동의 사회분담체계 구축
 - 가족의 양육책임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및 민간보육시설의 공공성 강화,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서비스 확충, 방과 후 보육서비스 확대 및 질적 제고 방안 마련)
 - 가족 돌봄의 사회적 지원제도 마련(가사 및 간병·수발 지원, 가사 및 돌봄 노동 가치평가)
- 돌봄노동의 성별 공유
 - 돌봄의 성별 공유 지원제도의 확립(아버지 출산휴가 도입과 육아휴직제도 개편을 통한 부모시간 확대, 취업주부의 경력단절 극복 장치의 제도화)
-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 가족 친화적 기업환경 조성(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기반 조성, 직장 내 가족친화 프로그램 개발)
 - 가족 친화적 지역환경 조성(돌봄의 지역 네트워크 구축, 가족단위 자원 봉사활동 활성화)

다. 주요 연구주제

1) 가족의 불안정성 증대 및 다양한 가족의 출현은 가족 변화의 동태적 측면 부각

- 가족의 형태, 가족구조 변화 유형에 대한 종단적 조사의 필요성 제기
- 가족구성원리, 가족의 범위, 가족관계, 가족가치의 변화에 대한 종단적 조사 필요

2) 가족구조의 다양화로 인한 한부모가족 등 취약가족집단의 증대

-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 가족생활 지속을 위한 복지제도 필요성 증대
- 가족형태별로 세분화된 취약집 구명 및 맞춤형 지원 제도 필요

3)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대와 이중부담의 고착화에 주목

- 일·가족생활 양립을 위한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정착 필요성 제기
- 일·가족생활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 정착 필요성 제기
- 일·가족생활 양립을 위한 돌봄노동(주로 자녀양육)의 사회화 정착 필요성 제기
- 전체 여성의 경력단절(M 곡선) 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 고학력 여성의 비경제활동자로서의 고착화(L 곡선)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4) 돌봄노동(주로 노인수발, 환자수발 영역) 실태 파악 및 지원방안 연구

- 돌봄노동의 내용, 시간사용, 경제적 지원 규모 등 실태 파악
- 돌봄노동 제공자의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현황 파악
- 돌봄노동 수혜자의 건강 상태, 만족도 등 실태 파악
- 돌봄노동 수행 주체와 객체 및 돌봄노동 내용의 변화상 추적

5) 가족 관련 의식과 태도의 변화 실태 파악 필요

- 가족가치, 성역할(gender role)에 대한 태도, 성(sexuality)의식, 다양한 가족(외국인 가족 포함)에 대한 태도 등 가족생활 관련 의식 및 태도의 실태와 변화를 추적 조사할 필요성 제기
- 가족관련 의식과 태도 변화에 대한 국제비교를 함으로써 한국사회 가족가치의 정체성 규명 필요
- 가족관련 의식과 태도가 개인의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할 필요가 있음
- 가족관련 의식과 태도의 세대간, 계층간 차이를 밝힘으로써 우리 사회 갈등양상의 한 축을 규명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바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라. 정책적·학술적 기여

1) 가족의 불안정성 증대 및 다양한 가족의 출현

- 비혼가구, 이혼가구, 노인가구, 편부모가구, 조손가구, 재혼가구, 동거가구 등 다양한 가족의 출현으로 기존 가족 개념 및 가족정책의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
- 정책적 기여: 정책대상집단에 대한 구체적 실태 및 변화 동향 파악, 요보호가족 뿐만 아니라 일반가족 및 개인에 대한 포괄적인 정책 수요 파악
- 학술적 기여: 결혼, 출산, 이동 등 인구변동의 실증 자료 구축, 개인의 생애주기 유형 파악, 가족/가구 유형 및 변동에 따른 빈곤화 과정 추적, 가족갈등 및 해소의 변화과정 추적

2) 가족구조의 다양화로 인한 취약가족집단의 증대

- 한부모 가정에 대한 양육비 지원, 이혼시 아동양육비 청구제도 도입의 검토, 빈곤집단에 대한 생계비보조, 자활지원사업 등 다각도의 정책으로 빈곤예방과 탈출을 지원하고 있음.
- 정책적 기여: 여성빈곤가구에 대한 문제 파악, 정책 지원의 수혜 여부와 영향 분석
- 학술적 기여: 추적조사자료를 통하여 어떤 요인이나 경로에 의하여 여성빈곤이 야기되고, 어떠한 경로로 빈곤에서 탈출, 이행하게 되는지를 분석할 수 있음.

3)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 가족구성원의 평등한 관계 조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의 가족문화지원,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기업유도 정책,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돌봄노동의 성별 공유를 위한 제도 도입 노력, 구성원의 평등의식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
- 정책적 기여: 각종 가족친화적 사회정책 노력과 일-가정 양립지원정책 등의 수혜여부와 그것이 가족구성원간의 시간 및 역할분담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
- 학술적 기여: 추적자료를 통하여 가족 구성원간의 의사결정, 역할 분담, 관계, 시간 사용 등에 있어 평등지향성이 여성의 노동참여와 출산력간에 어떠한 인과관계를 가지게 되는지를 분석(노동참여의 증가, 자녀수가 많아지면서 평등관계가 구성되는

지, 평등관계 형성 가족내에서 여성의 출산과 노동참여가 증가하는지).

4) 돌봄노동(주로 노인수발, 환자수발 영역) 실태 파악 및 지원방안 연구

- 공공 보육시설의 확대 및 보육비에 대한 지원확대, 방과 후 보육 강화, 가사 및 간병, 수발지원 시설의 확충 정책 등의 점진적 도입으로 돌봄노동의 사회적 분담체계를 강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
- 정책적 기여: 아동양육 및 돌봄노동 부담을 가지고 있는 집단의 경제적, 복지 여건에 대한 실태파악과 장기적으로 이러한 정책 효과가 가족관계 개선과 노동시장 참여에 정적효과를 가져오는지를 평가
- 학술적 기여: 보육 및 돌봄노동 관련 비용 부담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러한 부담이 여성의 삶의 질과 가족구성원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나아가 노동시장 참여와 이탈에 미치는 정, 부정적 효과를 분석할 수 있음.

5) 가족생활 관련 의식과 태도의 변화 실태 파악

- 2005년부터 5년 주기로 가족실태조사를 계획하여 전국적인 규모에서 가족생활 관련 의식과 태도를 파악하려고 함. 그밖에 다양한 가족, 열린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자 다양한 홍보 프로그램 등을 구상하고 있음.
- 정책적 기여: 가족정책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의 기초가 되는 사회의식의 실태 및 변화에 대한 기초 자료 구축, 가족관련 의식과 태도의 변화는 매우 근본적이어서 이를 기반으로 세대간, 계층간 갈등 파악 및 사회통합의 단초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함.
- 학술적 기여: 가족관련 의식과 태도의 변화와 행위의 상관성 규명, 한국사회 가족관련 의식과 태도의 국제비교를 통해서 국가수준의 거시적 영향 관계를 분석할 수 있음.

⇒ 일-가정 양립 지원을 통해 여성의 노동권, 부모권, 사회권 회복

3. 여성과 일(labor dynamics)

가. 여성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정책의 필요성

-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에 따른 경제활동인구의 부족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포괄적 인력활용 정책에서 여성인력 활용이 중점적으로 제기됨.
- 국민소득 2만 불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질 높은 여성인력'에 대한 관심 증가
- 양극화와 여성빈곤층 증가에 따른 여성빈곤대응 방안으로 여성인력활용과 취업제고 정책이 중요하게 요구됨.

나. 주요 정책쟁점

1)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제고

- 2004년도 경제활동참가율 50%에서 탈피, OECD 수준으로 제고
※ OECD 평균 60.1%, 미국 69.2%, 스웨덴 76.6% 등
- 여성의 경력단절 완화: 임신, 출산으로 인한 단절 후 복귀(M 곡선), 고학력 여성의 단절 후 미복귀(L 곡선) 등의 극복의 과제

2) 여성노동의 질적 수준 제고

- 여성근로자의 직업지위 제고 필요
- 전체 여성근로자 중 비정규근로자의 비중이 약 60%이상으로 이들의 근로조건 개선 필요
-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판매직, 단순노무직 집중현상의 완화

3) 교육성과와 노동시장의 연계 강화

- 여성의 고학력화가 노동시장 성과로의 연계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 개선 요구
- 노동시장 수요에 걸맞는 여성인력 양성 문제
- 청년층 집단의 노동시장진입과 안착을 가능하게 하는 직업진로지도 활성화, 직업정

보제공과 활용성 제고

4)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

- 재직여성 및 비정규직 여성의 직업훈련 기회 확대를 통하여 여성의 능력개발 지원, 노동시장 근착도 제고
- 경력단절 여성의 직업훈련 지원 및 고용기회 확대

5) 여성취업인프라 구축

- 모성보호 제도의 실효성 강화
- 육아지원을 위한 보육시설의 근접성을 제고하고 여성 근로자가 가용할 수 있는 다양한 보육시설 제공
-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 고용상태에 따른 불평등 해소(비정규근로자의 임신, 출산과 관련된 고용상의 지위 보장)
- 양성평등한 양육의 책임

6) 노동시장 차별개선 및 적극적 조치

- 고용상 차별의 적극적 개선
-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여성진출 제고
- 여성의 관리직 비율 제고를 위한 유리천정깨기

다. 연구주제

1) 여성의 생애사에 따른 일의 변화 파악

- 여성의 생애사와 관련된 사건과 일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조사의 필요성 제기.
- 혼인, 출산과 육아와 일의 동학을 파악해야함.

2) 여성의 취업과 경력단절, 복귀에 대한 다양성의 파악

- 여성의 노동시장 이행, 경력개발, 취업단절, 노동시장 재진입 등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 직업훈련 등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

3) 여성의 근로실태에 대한 다각적인 이해

- 여성이 근로하고 있는 작업장 환경에 대한 파악을 통하여 여성근로자에게 친화적인 근로환경, 기업문화, 정책적 제도적 뒷받침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여성의 근로와 이를 둘러싼 가족내 돌봄노동 및 가사부담에 대한 실태, 가족 가치관과의 연결고리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여성의 취업을 둘러싼 2인 부양모델의 검증: 가계경제의 상황, 여성근로빈곤

4) 여성의 일과 사회제도에 대한 이해

- 일과 관련된 사회보험, 각종 제도와 여성의 일과의 관련성을 규명할 필요가 있음.

5) 여성의 일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의식 및 가치관 분석

- 여성의 일에 대한 가치관 정립, 노동권에 대한 의식 확립으로 노동시장 근착도 제고
- 여성의 가계부양의식, 여성의 일에 대한 필요성
- 가계구성원의 여성 일에 대한 의식의 제고

라. 정책적·학술적 기여

- 정책의 주요기조를 지원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의 확보: 여성의 경제활동 전반을 이해하고 이를 지원하는 정책발굴의 기초자료로 사용. 중단적 연구를 가능하게 하여 정책의 결과, 변화하는 여성의 일 양식 파악, 여성 경력단절 현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
- 학술적 기여로는 여성 경력단절자의 진입과 퇴장에 대한 명확한 파악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발굴, 직업훈련의 특성과 결과 분석을 통한 여성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점검, 비정규근로의 다양성과 여성친화적 비정규근로 형태의 발전 가능성 모색 등이 가능할 것임.

1) 여성의 생애사에 따른 일의 변화 파악

- 정책적 기여: 여성의 혼인, 출산, 육아 등과 여성의 일의 양태 변화를 파악하여 여성의 생애사건들이 일에 미치는 영향을 세분화함으로써 여성 생애주기상 특징들을 부각하는 정책과제를 개발할 수 있을 것임.
- 학술적 기여: 회고자료가 가지는 사건시의 배경변수 부족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여성의 생애주기사건과 풍부한 설명변수를 이용한 다양한 분석이 가능할 것임. 가족변수나 인구학적 사항에 따른 생애사적 사건, 일의 관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임.

2) 여성의 취업과 경력단절, 복귀에 대한 다양성의 파악

- 정책적 기여: 충분한 표본수를 이용한 대표성 있는 자료를 이용하여 여성의 경력단절과 낮은 근속년수 등 문제점을 집단별로 파악하여 이에 대한 보다 차별화된 정책을 개발할 수 있음. 정부의 일자리창출정책 성과, 재취업지원정책 성과 등에 대한 거시적 자료 제공.
- 학술적 기여: 전공선택 및 진로지도의 노동시장 성과분석, 직업훈련프로그램 참여와 성과, 경제활동 규모가 동일집단에 의한 것인가 다수집단의 진입퇴장에 따른 것인가, 이러한 변화의 원인에 대한 파악이 가능함.

3) 여성의 근로실태에 대한 다각적인 이해

- 정책적 기여: 확대된 표본수로 인하여 여성의 저임금, 종사상 지위, 근로계약 및 사업장 내용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파악을 가능하게 할 것임.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정책이 종사상지위나 근로실태별로 개발될 수 있을 것임.
- 학술적 기여: 미래지향적인 근로형태 다양화에 대한 연구들이 가능할 것임. 가족구조나 가구의 경제적 사항, 인구학적 사항 등에 따른 근로형태의 선호도를 분석할 수 있을 것임. 여성의 가계경제기여도, 빈곤화 등의 연구가 수행될 수 있을 것임.

4) 여성의 일과 사회제도에 대한 이해

- 정책적 기여: 여성의 일을 지원할 수 있는 바람직한 사회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할 수 있음. 사회보험제도가 포괄하는 여성근로자를 확대시키는 방안 등 사회정책부문에 대한 정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임.

- 학술적 기여: 취업과 연계된 사회보험의 일에 미치는 영향, 여성개인의 일과 가구의 사회보험제도의 관계 등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임.

4. 여성과 여가

가. 정책의 필요성

- 여성의 여가시간은 시장노동, 가사노동, 돌봄노동 등에 밀려 그 비중이 미미할 수밖에 없으며, 그나마 있는 여가시간도 주로 가족 공동의 여가시간으로 할애되고 있어 여성 개인의 여가시간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함. 여성의 여가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여가의 내용과 질도 매우 열악하여 전반적으로 여성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음.
- 이와 같은 여가생활의 부족에 따라 여성은 상대적으로 지역사회 참여,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등을 통하여 사회자본을 축적할 기회가 별로 없고, 그로 인하여 많은 여성관련 정책들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수 있음.
- 따라서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여성인적자원개발이나 여성의 세력화 증진, 사회 참여 증진 등과 같은 여타 여성정책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서 여성의 여가확충과 사회자본 축적을 위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함.

나. 주요 정책쟁점

-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10대 핵심과제 중에서 여가 및 사회자본 관련 정책과제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 여성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확대

- 여성문화 현황 파악, 여성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 기초자료 구축
- 여성의 지역문화활동 활성화

- 여성참여 문화-예술-체육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확대

2) 여성 자원봉사 활성화

- 여성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전문영역 프로그램 개발, 보급
- 전국 여성자원활동센터 설치, 운영
- 자원봉사 네트워크 구축
- 자원봉사활동의 전문적인 활동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3) 여성의 시민운동(평화, 환경 분야), 단체활동 참여 활성화

- 여성 평화네트워크 구축 지원
- 여성 환경 NGO 및 여성 환경 전문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환경정책 참여 확대

4) 여성의 평생교육 참여 여건 강화

- 여성평생교육 지원 인프라 구축
- 여성평생교육기관의 차별화 및 특성화

5) 여성 건강증진 대책 강화

- 여성건강에 관한 주기적 실태조사
- 여성특화 질병에 관한 체계적 연구지원 강화
- 인공임신중절수술 예방대책 강화
- 제왕절개술 남용 방지 내실화
- 여성근로자의 직업병 예방 및 관리프로그램 도입
- 여성 농어민을 위한 보건의료체계 강화

다. 주요 연구주제

- 앞서 제시한 정책 이슈들을 구체화하고 정책화하기 위해서는 크게 여성의 여가시간

활용양태, 사회적 연결망 형성을 위한 투자, 그 결과로 인한 사회자본 축적의 규모와 특성, 여성의 건강 등에 관한 연구주제를 규명해야 함.

1) 여성의 여가 동태와 삶의 질

- 오늘날 여가는 시장노동, 가사노동, 돌봄노동과 같은 일의 세계에서 벗어난 자연인으로서의 여성의 삶을 구성하는 부문으로서, 여성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적 구성요소임. 따라서 이에 대한 실태와 변화 추이 파악의 필요성 제기.
- 여가시간 길이와 여가활동 유형 및 여가시간 만족도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여성이 어느 정도의 여가시간을 무엇을 하면서 누리고 있는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양상의 시간적 변화에 관한 정보까지 추가하여 여성의 생활세계 모습과 변화에 관한 객관적 상 정립 필요.

2) 여성의 사회연결망과 사회자본

- 사회 연결망(social networks)의 형성과 그것을 통한 사회자본(social capital)의 축적은 사회적 기회구조 속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구조적 위치를 좌우함으로써 개인이 사회로부터 제공받는 자원이나 기회에의 접근 방식에 차등적인 제약을 가함.
- 따라서 여성의 자기중심 연결망(ego-network)의 구조적 특성과 사회자본의 축적 정도는 여성의 인적자원개발과 노동시장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변수로 학문적, 정책적 관심의 대상이 됨.

3) 여성의 건강

- 건강과 질병은 개인의 생리적, 신체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며, 개인이 처한 사회경제적 지위와 그에 따른 자원과 기회가 양극화됨에 따라 건강권의 향유도 양극화될 수 있음.
- 여성의 건강이나 질병이 남성의 건강이나 질병과 어떤 차이를 지니는지, 여성의 불리한 사회경제적 위치로 인해 여성이 남성보다 건강의 위협을 더 많이 받고 있는지, 여성의 건강권이 남성에 비해 현저히 제약되고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여성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주요 질병들은 어떤 추세와 변화를 겪으면서 여성의 삶에 영

향을 미치는지 등은 여성의 건강권 증진을 둘러싼 주요 연구 주제가 될 수 있음.

라. 정책적·학술적 기여

1) 여성의 여가 동태와 삶의 질

- 여가시간 길이와 여가활동 유형 및 여가시간 만족도 등에 대한 조사는 근로자나 어머니 혹은 아내로서의 여성이 아닌 자연인으로서의 여성의 생활세계의 모습과 변화에 관한 객관적 상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여성의 여가의 양과 질에 대한 동태적 규명은 여성의 삶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중대한 학문적 기여임.
- 구체적으로, 여성의 여가 영역을 “시민운동, 단체활동 참여”, “자원봉사”, “문화예술 활동 참여”, “평생교육 참여”로 나누어 각각의 실태 및 욕구 등을 종단 조사하는 것은 여성의 공익적 사회참여 강화, 문화예술분야 여성참여 확대 및 여성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평생교육기회 확대를 통한 자아개발 지원 등과 같은 정책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점검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임.
- 특히 평생교육 참여 여부 및 불참 이유, 평생교육 내용에 대한 수요 등을 종단조사함으로써, 일과 가족 의무로 인해 여가활동에 큰 제약을 받거나 여가를 통해 자신의 자아개발을 도모할 기회를 차단 당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통해 여가활용과 자아개발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수 있다고 봄.

2) 여성의 사회연결망과 사회자본

- 개인적 연결망과 사회자본의 축적에 관한 종단적 조사는 우리에게 여성이 사회적 연결망과 사회자본의 축적을 얼마나 중요시하고 있으며 그것을 위해 어느 정도의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 결과 어떤 구조적 특성을 지니는 사회적 연결망을 형성하고 어느 정도의 사회자본을 축적하는지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제공해줌으로써 여성의 사회적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한 축에 대한 생생한 종단면 상(像)을 보여줌.
- 나아가 이렇게 구축된 종단자료는 축적된 사회자본이 노동시장 및 가족 영역에서 여성의 삶의 궤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줄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여성의 사회자본 육성 정책과 보다 더 효과적인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바탕이 됨.

3) 여성의 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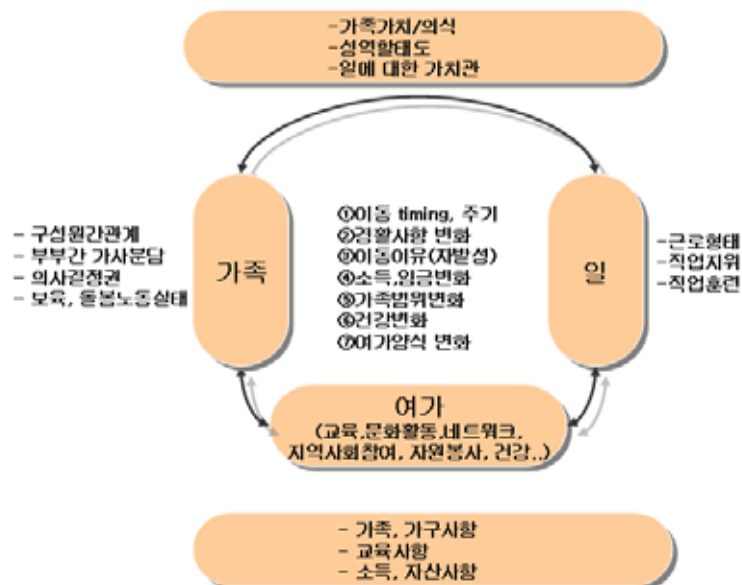
- 여성의 주관적·객관적 건강 상태, 스트레스·무력감 등의 심리적 장애 등에 대한 중단적 정보는 “여성 건강권 확보” 등과 같은 정책과제의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남녀간 사회경제적 지위의 차이로 인한 건강 불평등의 존재를 밝히고 그 구체적 원인을 규명하는 학술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함.

5. 여성가족패널조사의 주요 설문 항목 구조

여성과 가족, 여성과 일, 여성과 일상 및 여가의 세 가지 영역에서 추출되어지는 주요 설문 항목은 다음<그림 IV-2>와 같이 구조화될 수 있다.

이 세 가지 영역은 상호 관계 속에서 영향을 받으면서 여성 개인과 가족 구성원들의 행위양식에 다양성을 부여할 것으로 본다.

1차년도 조사(WAVE1)에는 결혼, 출산, 취업에 대한 회고적 조사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조사대상의 전반적인 생애사를 파악하고 1차년도 조사결과와 종단적 성격을 확보한다.



<그림 IV-2> 주요 설문 항목 구조

V

NSFH(National Survey of Families & Households)와 가족연구의 쟁점

1. 구축배경 및 운용체계	Ⅸ
2. 조사내용	97
3. 표본과 관계된 쟁점들	Ⅱ7
4. 표본설계	118
5. NSFH 자료를 사용한 선행연구	Ⅱ7
6. 여성가족패널에 주는 시사점	Ⅱ2

1. 구축배경 및 운용체계

NSFH는 다양한 학문분야에 다양한 영역의 가족생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조사는 1차 1987~1988년, 2차 1992~1994년, 3차 2001~2003년으로 3차에 걸쳐 실시되었다.

NSFH 1차의 주응답자는 한 가구에 1명으로 무작위로 선택하였으며 설문조사시간은 평균 1시간 40분 정도 소요되었다. 1차에서는 생애사 정보를 수집하였다. 생애사 정보는 응답자의 유년기 가정사, 부모집을 떠난 것과 돌아온 것, 결혼사, 동거, 교육, 출산력, 고용, 결혼관계, 양육관계, 친척과의 접촉, 경제적, 심리적 복지 등을 포함한다.

가. NSFH의 설계와 내용(제1차)²⁸⁾

1) 표본

표본은 9,643개의 가구와 흑인, 푸에르토리코인, 멕시코어메리칸과 최근에 결혼한 사람들을 2배로 표집한 것이다. 가구 중 어른 한 명이 주응답자로 무작위 추출되었다. 1차 조사 때 2차 조사를 계획하고 있었지만 이때는 연구비가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다. 2차 조사 때도 마찬가지로 3차 조사까지 생각하고 있었지만 연구비가 확정된 상태는 아니었다.

1차 조사 때 5년 후의 후속조사를 생각하여 설계를 하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생애주기 전환에 대한 경험, 성격, 태도의 효과분석이 가능할 것을 예상하여 NSFH를 설계하였다.

2) 구축배경

미국가족의 구조와 기능을 잘 이해하기 위하여 아동건강 및 인력개발부의 인구조사 센터(the Center for Population Research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Child

28) Sweet, Bumpass and Call의 1988년도 The Design and Content of the National Survey of Families and Households Center for Demography and Ecology,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NSFH Working Paper #1을 참고하였음.

Health and Human Development)는 “변화하는 미국가족구조의 원인과 결과를 보기 위한 내용과 전략으로 NSFH에 대한 자료구축”의 제안서를 요청하였다.

1983년 6월 가족과 생활주기사건의 원인과 결과 등 가족의 경험을 다양한 관점에서 보기 위한 범국가 연구에 동의하게 되었으며 참여한 교수들은 Larry Bumpass, James Sweet, Maurice MacDonald, Sara McLanahan, Annemette Sorensen, and Elizabeth Thomson 등 가족사회학, 인구학, 사회심리학, 가족경제학 등의 다양한 학문분야 교수들이다. 1988년 1차 자료를 수집하기 5년 전부터 다양한 학문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NSFH에 대한 구상을 하였으며 1984년 1월에 첫모임을 가졌다.

위스컨신 연구팀은 계속적인 주중모임을 가졌으며 특정한 제목에 대한 초안을 개발하기 위한 책무들이 주어졌다. 주로 기존 설문조사연구의 설문지문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과 새로운 문항을 만드는 것에 대한 장, 단점을 논의하였다. 구성원들 간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논의가 계속되었으며 1984년 5월 말에 대부분의 하위영역의 설문 지도구에 대한 초안이 작성되었다.

1984년 10월까지 주중모임이 계속되었으며 교정작업이 계속 진행되었다. 1984년 여름에 인터뷰 초안을 위한 소규모 예비조사가 위스컨신 설문조사연구실(Wisconsin Survey Research Laboratory)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예비조사는 문항의 배열이라든가, 시간배정 등에 좋은 경험이 되었으며, 예비조사의 경험을 통하여 설문지를 간소화하고 우선순위가 낮은 문항들을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게 되었다.

3) 비용

1985년 6월 Bumpass와 Sweet가 아동건강 및 인력개발부(the 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and Human Development)에 연구과제를 제출하였으며 3년의 연구비는 \$4,800,000(약 48억원)이 예상되었고 연구비는 1986년 1월부터 집행되었다.

4) 진행과정

NSFH의 구체적인 진행과정을 알기 위해서 일정과 조사자 훈련과정 등을 모두 포함하였다.

1986년 4월 설문조사조직을 템플대학의 설문연구센터(Institute for Survey Research: ISR)에 설치하였다. William Aquilino와 Allan Walters가 설문을 지휘, 감독하였고, 5월에 Vaughn Call이 연구협조자(Project Associate)로 연구팀에 합류하였다. 7월 ISR은 인터뷰계획의 첫 번째 사전검사를 하였다. 10월, 11월, 12월에 걸쳐 사전검사를 하고 그 결과로 설문도구와 과정을 수정하였다.

① 면접원훈련:

1987년 2월23일 설문조사 책임자를 위한 훈련을 실시하였다.

3월 처음 3주 동안 미국의 11개의 중요도시(Atlanta, Boston, Chicago, Detroit, Houston, Los Angeles, New York, Philadelphia, San Francisco, St. Louis)에서 면접원훈련이 개최되었으며 530명의 예비면접원이 참석하였고 훈련일정은 3일간 진행되었다. 그 훈련내용은 아래와 같다.

- ▶ 표준화된 ISR 인터뷰과정에 대한 논의
- ▶ 질문내용에 대한 교육
- ▶ 모의 인터뷰상황을 이용한 심층훈련
- ▶ 면담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러한 유사훈련은 기본이며 Bumpass, Sweet 혹은 Call 중 한사람이 훈련과정에 참여하였다.

② 추가 면접원훈련 및 과정:

3월 마지막주에 인터뷰가 처음 시작되었으며 작업은 모든 지역에 걸쳐서 신속히 진행되었다. 약 1,800개의 인터뷰가 4월과 5월에 진행되었다. 5월말 진행과정을 재조사 후 추가로 면접원이 필요한 곳이 확인되었다. 6월말경 면접원 훈련과정이 St. Louis, Los Angeles, New York에서 추가로 실시되었으며 가을에는 Chicago, Los Angeles, New York, Philadelphia, St. Louis에서 추가로 면접원훈련이 실시되었다.

1988년 2월29일 면접원들은 끝내지 못한 작업들을 ISR에 돌려주도록 했으며 ISR 연구진들은 작업이 더 필요한 곳의 주소지와 접촉하기 위해 100명의 면접원들을 할당하였다. 추가 면접원훈련이 3월25일 St. Louis에서 실시되었으며 40명의 조사원이 훈련을 받았다. 설문조사는 1988년 5월2일자로 끝났다. 1차의 설문조사에 걸린 시간은

1987년 3월 마지막 주부터 1988년 5월 2일까지로 약 1년과 한달 반이 걸렸다. 월별로 인터뷰한 숫자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V-1> 월별 인터뷰 수

월	인터뷰 수
1987년 3월	322
4월	1,767
5월	1,846
6월	1,421
7월	1,515
8월	1,246
9월	1,067
10월	1,035
11월	967
12월	468
1988년 1월	404
2월	449
3월	116
4월	354
5월	40
계	13,017

③ 자료 수집후의 코딩과정:

1987년 3월 인터뷰 시작과 함께 ISR은 코딩과 자료 입력을 시작하였다.

6월까지 주인터뷰의 전체항목 코딩과 자료 입력작업이 진행되었으며 그 후에 다양한 자기기입식 문항의 코딩과 자료 입력이 시작되었다. 진행된 자료는 위스컨신에 batch mode로 보내져서 파일이 다시 포맷되었으며 다양한 부분들이 합쳐졌고, 변인들이 다시 코딩되었으며 계속적인 확인 작업이 진행되었다.

④ 설문개발에 고려되었던 다른 중요한 사항들:

연구진은 가족구조, 과정, 관계 등 포괄적인 연구에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여러 가지 주제들이 설문연구에서 분석할 수 없거나 적절한 질문을 고안하여 타당성있는 자료를 수집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두 가지 예를 들면 유아들을 양육하는 문제와, 부부공동소득이나 분리소득에 관한 것이다.

설문개발 전 과정을 통하여 항상 염려했던 것은 인터뷰의 길이와 설문 응답률이다.

⑤ 설문시간:

NSFH 인터뷰와 자기기입식 설문지는 매우 길다. 주인터뷰 스케줄은 161페이지며 671개의 질문을 포함하고 있고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주응답자의 자기기입식 설문지는 64페이지다. 설문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평균설문시간을 1시간 30분으로 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중요한 인터뷰 시간의 적정선을 유지하기 위해 처음의 질문을 많이 삭제하거나 줄였다. 예비검사의 중요한 기능이 인터뷰의 여러 부분에 소요되는 실질적인 시간을 평가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더 많은 추가질문들을 개발했지만 인터뷰시간을 1시간 30분으로 유지하기위해 포함시키지 않았다.

나. NSFH 2차 프로젝트에 대한 개괄

1992년 7월 시험연구(pilot study)로 인터뷰가 시작되었고 1994년 5월까지 3주기와 자료 클리닝과정을 거쳤다. ISR의 전화인터뷰는 1992년 12월에 시작하였고 부모와 자녀와의 인터뷰는 1994년 8월에 끝났다. 2차에 소요된 시간은 2년 2개월이다. 2차는 미국보건연구소(The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특히 아동건강 및 인력개발부와 고령연구소(the National Institute on Child Health and Human Development and the National Institute on Aging)가 연구비를 지급하였다. 주연구자는 위스컨신대학의 Dr. James Sweet와 Dr. Larry Bumpass다.

NSFH 2차 인터뷰는 14개월 동안 이루어졌는데 그 이유는 NSFH 2차 조사는 5년 후의 후속연구로 NSFH 1차 조사의 인터뷰 유형과 비슷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NSFH 2차 조사는 NSFH 1차 조사 13,014명에 대한 자세한 종단적 자료를 제공한

다. NSFH 1차의 3명의 응답자는 설문조사를 계속할 경우에 발생할지 모르는 가정폭력 때문에 주 연구자의 요청에 의해서 제외되었다.

인터뷰의 내용은 1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방대하다. 1차 자료수집 후의 가정사를 업데이트 하는것, 배우자/파트너와의 관계의 질, 자녀양육과 부모자녀관계, 부모와 거주하지 않은 미성년자녀와의 관계, 부모와 성인자녀와의 관계, 건강과 복지, 친척과 사회적 지지, 가족의 삶에 대한 태도와 의견, 경제적인 상황들을 포함하고 있다.

2차 조사에서는 CAPI(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를 사용하였다.

다. NSFH 3차 조사

NSFH 3차 조사는 NSFH 1차 조사대상을 CATI(Computer-Assisted Telephone Interviewing)로 재조사 하였다. 3차 조사의 대상숫자는 주응답자, 배우자, 핵심아동을 포함해서 모두 9,230명이다. 또한 주응답자가 사망했거나 질병 때문에 응답할 수 없는 경우 924명의 대리면접이 이루어졌다. 설문은 2001년 1월31일 시작하여 2003년 6월 16일에 끝났다.

NSFH 3차 조사의 주응답자:

예산상의 문제로 NSFH 1차의 응답자의 일부만 재인터뷰에 선택되었다.

NSFH 3차의 주응답자에 포함된 사람들은

- ① NSFH 1차 조사 주응답자 중 NSFH 3차 조사의 핵심아동자격이 되는 사람으로 NSFH 2차 조사의 핵심아동에도 자격이 되었던 사람들은 NSFH 3차 조사의 핵심아동에도 자격이 된다. 핵심아동의 연령은 3차 조사 때 18~34세, 2차 조사 때 10~24세, 1차 조사 때 5~18세다.
- ② NSFH 1차 조사의 주응답자로 2001년 1월1일 현재 45세 이상인자(중년이나 노년)다. 연구비 제약으로 인하여 NSFH 1차 조사의 주응답자 중 45세 이하면서 자격이 되는 핵심아동이 없는 사람들은 제외되었다.

①, ②의 경우 모두 선택된 주응답자가 NSFH 1차 조사 때 배우자나 파트너가 있

었다면 배우자나 파트너가 NSFH 3차 조사 인터뷰에도 선택되었다.

3차 조사의 샘플은 NSFH 2차 조사나 3차 조사 때의 새로운 배우자나 파트너는 포함되지 않았다. NSFH 2차 조사에 인터뷰를 하지 않았더라도 자격이 되는 주응답자, 배우자, 핵심아동을 주대상으로 한다.

대리인터뷰:

대리인터뷰는 주응답자가 사망했거나 너무 아파서 인터뷰를 할 수 없는 경우 NSFH 1차 조사의 배우자나 파트너가 없을 경우 시행되었다. 배우자의 파트너와 인터뷰를 할 경우 주응답자의 죽음이나 질병에 대한 대리인터뷰의 질문 등이 사용되었다.

두 가지 예외로 대리인터뷰가 사용된 경우는 NSFH 1차 조사의 배우자나 파트너가 사망했거나 인터뷰를 하기에 너무 아픈 경우나, 혹은 부부나 커플이 2차에 같이 있지 않았을 경우다.

2. 조사내용

가. 설문지 종류

설문지는 다섯 가지로 이루어져있다.

- 1) 주인터뷰: 면접자에 의한 주응답자의 면접
- 2) 주응답자의 자기기입식 설문지
- 3) 남편/부인 설문지(제2응답자):
 - 주응답자의 남편이나 부인에 의해 작성된 자기기입식 문항
- 4) 파트너설문지(제2응답자):
 - 주응답자의 동거파트너에 의해 작성된 자기기입식 설문지
- 5) 제3응답자 설문지:
 - 주응답자가 세대주의 성인 아들 혹은 성인 딸이거나 친척일 경우 세대주가 작성하는 자기기입식 설문지

나. 주요 변수들

NSFH의 설문지는 위스컨신대학팀에 의해서 개발되었다. 일부 척도는 다른 설문조사에 사용한 것을 NSFH에 필요한 항목이므로 그대로 사용하였고 필요에 따라 표준화된 척도를 조금 수정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예 CES-D, 자긍심).

1) NSFH 1차 조사에 사용된 척도

자기기입식 설문-2

- ◆ 항목 1: 삶의 질의 총체적인 긍정적 영향: 미시간 대학의 사회연구소(Measures Global Positive Affect from Quality of Life: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at Michigan)

▶ 문항: 다음은 당신이 당신 자신과 당신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첫째, 모든 것을 함께 고려해 볼 때, 요즘 형편이 어떻다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매우 불행하다								매우 행복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항목 2: Radloff의 우울증에 관한 척도를(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CES-D)(Radloff, 1977) 조금 수정하였다.

문항: 아래의 질문은 당신이 지난주에 느꼈거나 행동한 것에 대한 목록입니다. 지난 주에 며칠 동안 당신은:

- a. 보통 당신을 성가시게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 성가시게 느꼈습니까?
(날짜): (a에서 L까지 모두 0일에서 7일중 하나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0일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 b. 먹고싶지 않았다; 당신의 식욕이 나뻐습니까?
- c. 가족이나 친구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우울한 기분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고 느꼈습니까?
- d. 하는 일에 집중하기 힘들습니까?
- e. 우울감을 느끼십니까?
- f. 하는 일마다 힘들게 느껴집니까?
- g.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 h. 잠을 푹 자지 못합니까?
- I. 보통 때 보다 말을 적게 하십니까?
- J. 외로움을 느끼십니까?
- k. 슬픔을 느끼십니까?
- L. 일이 잘 안된다고 느낍니까?

◆ 항목 11: 기능적 건강평가로 일상생활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Katz et al., 1983)과 기능적 건강척도(Rosow-Breslau, 1966)를 측정한다.

▶ 문항: 당신의 신체적, 정신적 상황이 아래의 능력을 제한합니까?

- a. 옷 갈아입기, 식사하기, 목욕탕가기 등 자신의 일상을 돌보는 것 ① 네 ② 아니요
- b. 집안에서 움직이는 것 ① 네 ② 아니요
- c. 수입을 위해서 일하는 것 ① 네 ② 아니요
- d. 매일 가사일을 합니까? ① 네 ② 아니요
- e. 한층의 계단을 오릅니까? ① 네 ② 아니요
- f. 여섯 불력을 걷습니까? ① 네 ② 아니요

자기기입식 설문 9, 10, 12, 13:

여기에 사용한 척도는 대부분 위스컨신 대학팀이 기존의 설문조사에 근거하여 개

말한 것이다. 성역할에 관한 것은 기존의 다른 설문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상당히 표준화된 척도다. 가족과 친척에 관계된 항목은 위스컨신 대학팀이 만든 것이다.

자기기입식 설문 13:

자기효능감은 미시간 대학의 사회조사연구소 것을 사용하였다.

문항: 아래의 내용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지 표시하십시오.

나의 삶이 항상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될 것이라고 상당히 확신한다.

매우 동의	동의	동의하지도 않하지도	동의안함	매우 동의안함
①	②	③	④	⑤

자극심 (Rosenberg, 1965)

문항1.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매우 동의	동의	동의하지도 않하지도	동의안함	매우 동의안함
①	②	③	④	⑤

문항2. 대체로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만족한다.

매우 동의	동의	동의하지도 안하지도 않음	동의안함	매우 동의안함
①	②	③	④	⑤

문항3.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 할 수 있다.

매우 동의	동의	동의하지도 않하지도	동의안함	매우 동의안함
①	②	③	④	⑤

2) NSFH 2차 조사에 사용된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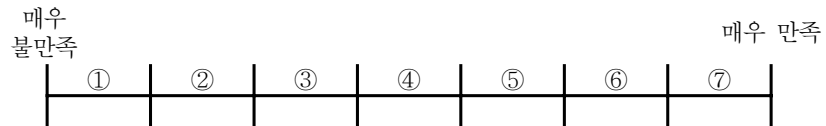
자기기입식 설문 2:

◆ 항목1: 삶의 질의 총체적인 긍정적 영향: 미시간 대학의 사회연구소(Measures Global Positive Affect from Quality of Life: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at Michigan). 1차와 동일하다.

◆ 항목2: 삶의 질 조사(미시간 대학의 사회연구소)

▶ 문항: 일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합니까?

a. 당신의 가정



b-k까지 a와 같은 척도

- b. 이웃?
- c. 시나 사는 마을?
- d. 재정상황?
- e. 레저로 보내는 시간의 양?
- f. 건강?
- g. 외모?
- h. 우정?
- I. 성생활?
- j. 가정생활?
- k. 현재 직업?

◆ 항목 5: 기능적 건강평가²⁹⁾

2차의 신체기능평가는 1차의 문항과 조금 차이가 있고 응답 스케일도 조금 차이가 있다.

1차는 당신의 능력을 제한하는 신체적 혹은 정신적인 상태가 있습니까? 로 응답은 1. 네, 2. 아니오의 두 범주 6문항이나 2차는 얼마나 신체적, 정신적 상태가 당신의 능력을 제한합니까?로 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2차문항은 a-e, g는 1차문항내용과 같으나(일부단어수정) f는 다른 것을 추가하였다.

a. 목욕, 옷입기, 식사 혹은 화장실가기 등의 개인적인 필요의 돌봄

① 전혀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② 조금 제한을 받는다. ③ 많이 제한을 받는다.

b-g까지는 a와 같은 세 개의 응답범주다.

b. 집안에서 움직인다.

c. 매일 집안일을 한다.

d. 한층 계단을 오른다.

e. 여섯 불럭을 걷는다.

f. 눈을 치운다거나 집안청소 등의 힘든 일을 한다.

g. 당신이 돈을 벌기위해 하는 일의 양과 종류.

(f와 g가 1차와 다른 부분이다.)

◆ 항목 6: 우울증과 적개심 문항이 같이 포함되어있다. 우울증은 Radloff의 우울증 (CES-D, Radloff, 1977)을 조금 수정한 것으로 1차보다 문항이 더 많다. 적개심 문항(Aquilino and Marks,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은 1차에는 없고 2차와 3차에는 포함되어있다.

29) Katz et al.,1983, Rosow and Brelsau, 1966)

- ▶ 문항: 다음은 지난주에 당신이 느끼거나 행동한 것의 목록입니다. 지난주에 며칠 동안 당신은:

m. 흥분하거나, 싸울 것 같거나, 논쟁할 것 같았습니까?

0 전혀아니다	1	2	3	4	5	6	7

n-0까지 같은 응답범주

- n. 다른 사람을 책망하고 싶었습니까?
- o. 한번에 여러 시간 화가나고 적개심을 느꼈습니까?

◆ 항목 7, 8, 9: 장기 우울증

- ▶ 문항: 작년에 당신은 2주 혹은 그 이상 슬프게, 비관적으로, 우울하게 느끼던지 혹은 보통 관심을 갖고 즐겼던 일에 모든 흥미를 잃었습니까?

- ① 네 ② 아니요

- ▶ 문항: 작년에 상당히 많은 기간동안 우울감을 느끼고 슬펐습니까?

- ① 네 ② 아니요

- ▶ 문항: 당신이 때로는 팬찮기도 했지만 당신의 삶 중 2년 혹은 그 이상 우울감을 느꼈습니까?

- ① 네 ② 아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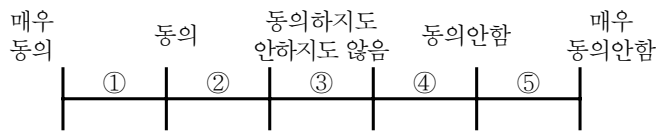
◆ 항목 10: 자긍심 (Rosenberg, 1965), 통제력 (Pearlin et al., 1981), 자기효능감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사회적 책임(Larry Bumpass,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네가지 항목을 설문지에는 문항을 섞어서 배열하였다. 1

차와 2차에서 Rosenberg의 자긍심 문항을 축소해서 3문항만 사용하여 내적일관성 신뢰도가 낮게 나오고 있다.

▶ 문항: 다음 문항에 동의 혹은 동의하지 않는지를 표시하십시오.

자긍심:

A. 내자신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만족한다.



A-J 응답범주는 모두 같고 자긍심과 통제력의 문항이 섞여있다.

F.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 할 수 있다.

I.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통제력:

C. 내가 마음 가운데 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나 할 수 있다.

G. 때로는 나는 삶주위에 떠밀려 있다고 생각한다.

H. 어떤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J. 나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 통제력이 없다.

자기효능감:

B. 나는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

1차의 자기효능감과 같다.

자기책임:

D. 나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만큼의 시간과 돈을 주어야 한다고 느낀다.

◆ 항목 11-14: 알콜과 약물남용의 수정본

▶ 문항11: 지난 30일 동안 당신은 술을 마셨습니까?

- ① 네 ② 아니요

문항12. 지난 30일간 며칠 동안 술을 마셨습니까?

1일	2일	3일	4일	5~9일	10~14일	15~19일	20~24일	25~30일

▶ 문항13. 지난 30일 동안 보통 술을 마시면 하루에 얼마나 많은 양을 마셨습니까?
(문항12와 같은 응답 척도)

▶ 문항14. 지난 며칠간 얼마동안 같은 용무로(한꺼번에 혹은 각각 몇 시간 주기로) 다섯 번이나 그 이상의 술을 마셨습니까? (문항12와 같은 응답 척도)

▶ 문항15-16: 건강면담설문(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

▶ 문항15. 청소년기 때, 즉 16세 될 때 까지 음주문제가 있는 사람이나 알콜중독자와 같이 살았습니까?

- ① 네 ② 아니요

▶ 문항16. 당신은 음주문제가 있거나 알콜중독자와 결혼하거나 그런 파트너와 동거한 적이 있습니까?

- ① 네 ② 아니요

▶ 문항17-18: 심리적 복지(Carol Ryff: University of Wisconsin Well-Being Scales)

▶ 문항17. 아래의 문항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지 표시하시요.
A. 나는 나의 성품의 대부분을 좋아한다.

매우 동의	적당히 동의	조금동의	조금동의하지 않음	적당히 동의하지 않음	매우 동의하지 않음
①	②	③	④	⑤	⑥

(A-H 모두 같은 응답 척도)

- B. 나는 당신이 당신 자신이나 세계에 대해 생각하는 것에 도전을 주는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C. 매일 삶에 대한 요구가 나를 피곤하게 한다.
- D. 친밀한 관계유지가 어렵고 나를 좌절시킨다.
- E. 나는 강한 의견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다.
- F.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더라도 나 자신의 의견에 대한 확신이 있다.
- G. 나는 한번에 하루를 살며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
- H. 나는 다른 사람과의 따뜻하고 신뢰하는 많은 관계를 경험하지 않았다.

▶ 문항18. 아래의 내용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지 표시하시오.

- A. 내 삶을 볼 때 일이 되어지는 것을 보면 기쁘다.
(문항17과 같은 응답 척도)
- B. 여러 방면으로 나의 삶의 성취에 대해 실망을 느낀다.
- C. 사람들은 나를 베푸는 사람으로, 나의 시간을 다른 사람을 위해 나누려고 한다고 한다.
- D. 나는 오래 전부터 내 삶에서 커다란 개선이나 변화를 만드는 것을 포기하였다.
- E. 일반적으로 나는 내가 살고있는 상황에 책임이 있다고 느낀다.
- F. 나는 가끔 마치 내가 나의 삶에서 해야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느낀다.
- G. 나는 매일의 내 삶에 많은 책임들을 아주 잘 관리한다.
- H. 어떤 사람들은 삶을 목적없이 방황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 I. 나에게 삶은 지속적인 학습, 변화, 성장의 과정이다.
- J. 나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의해 나 자신을 판단하지, 다른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에 의해 판단하지 않는다.

자기기입식설문 9:

세대관계와 가족결속력

5개항목 중 3개는 Rossi & Rossi(1990)의 세대관계와 가족결속력으로부터 뽑은 것이다.

우리가족은 즐거움을 함께 나눈다.

우리 가족은 팀으로 일을 잘한다.

가족구성원은 서로 관심과 사랑을 보여준다.

3) 자기기입식 설문지의 중요한 내용들

주인터뷰에서 면접대상자들이 직접 설문에 기입하도록 한 이유:

- (1) 인터뷰 중 민감한 부분들은 자기기입방법을 통하여 프라이버시가 존중되므로 자료의 질을 높일 수 있다.
- (2) 특정한 질문형들-성역할과 가족의 태도 혹은 역할수행의 의미론상의 구분 등-은 자기기입방법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 (3) 어떤 면접대상자들에게는 자신들이 다양한 점수범주를 실질적으로 보고 대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4) 긴 인터뷰에서는 자기기입식과 인터뷰를 혼용할 경우 인터뷰의 단조로움을 꺾 수 있어 응답자의 사기를 높일 수 있다. 또한 면접원에게 휴식시간을 주기도 한다.

4) 자기기입식 설문

1차의 자기기입식 설문은 13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세부분은 모든 응답자들이 대답하는 것이고 나머지 열부분은 타당한 경우에만 응답하게 되어있다-예, 응답자가 결혼했거나, 성인자녀와 함께 살거나, 동거일 경우 등.

<표 V-2>와 <표 V-3>은 1차 조사와 2차 조사의 자기기입식 설문의 내용으로 차이가 있다.

<표 V-2> NSFH 1차 주응답자 자기기입설문 영역

	내용	응답대상	전체 샘플 중의 비율
1	가사 부담	모든 응답자(기숙사/막사에 사는 17개 경우만 제외)	99.9
2	웰빙, 역할수행, 건강, 사회적 지지, 사회참여	모든 응답자	100
3	부모와 동거시의 느낌과 계획	부모와 같이 사는 성인 주응답자	5.6
4	이혼, 별거 경험	지난 10년 동안 이혼이나 별거경험	19.2
5	결혼이나 동거에 대한 느낌	35세 이하의 미혼, 비동거 응답자	19.9
6	동거 관계: 결혼이나 동거에 대한 느낌	동거하고 있는 응답자	5.4
7	결혼 관계	결혼한 응답자	52.9
8	출산 계획	40세 미만 여성, 40세 미만의 배우자/파트너가 있는 남성 혹은 배우자/파트너가 없는 45세 이하의 남성	56
9	부모 역할	5세 미만의 자녀/양자가 거주하면서 5~18세 자녀/양자가 거주하지 않는 경우	11.4
10	부모 역할	5~18세 사이의 자녀나 양자가 거주하는 경우	33.8
11	성인 자녀가 있는 경우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와 거주하는 경우	7.7
12	자녀나 양자와의 관계의 질	자녀나 양자와 사는 경우	75.6
13	부모, 형제와의 관계; 일반적 태도나 의견	모든 응답자	100

<표 V-3> NSFH 2차 주응답자 자기기입식 설문 영역

	내용	응답대상
1	가사 부담	모든 응답자
2	웰빙, 역할 수행, 건강	모든 응답자
3	이혼, 별거경험	1차이후 이혼, 별거를 경험한자
4	결혼이나 동거에 대한 느낌	35세이하의 미혼, 비동거응답자
5	동거 관계: 결혼과 동거에 대한 느낌	현재동거하고 있는 응답자
6	결혼 관계	현재 결혼한 응답자
7	아동의 행동과 부모의 기대	5~17세의 아동이 있는 부모
8	아동의 행동	3~4세의 아동이 있는 부모
9	부모 역할	0~18세까지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응답자
10	아동 발달	0~3개월짜리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응답자
11	아동 발달	4~6개월짜리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응답자
12	아동 발달	7~9개월짜리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응답자
13	아동 발달	10~12개월짜리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응답자
14	아동 발달	13~15개월짜리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응답자
15	아동 발달	16~18개월짜리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응답자
16	아동 발달	19~21개월짜리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응답자
17	아동발달	22~47개월짜리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응답자
18	가족에 대한 태도, 사회참여, 직장	모든 응답자

3차 조사에서는 자기기입식 설문문항을 따로 만든 것이 아니라 주인터뷰에 포함시켰다.

<표 V-4> 3차 주응답자 자기기입식 설문 영역

	2차의 자기기입식 내용	응답자
1	가사부담	모든 응답자
2	웰빙, 건강	모든 응답자
3	이혼, 별거경험	1차 이후 이혼, 별거를 경험한자
4	미혼 관계	35세이하의 미혼, 비동거응답자
5	동거 관계	현재 동거하고 있는 응답자
6	결혼 관계	현재 결혼한 응답자
7	포함 안됨	5~17세의 아동이 있는 부모
8	포함 안됨	3~4세의 아동이 있는 부모
9	포함 안됨	0~18세까지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응답자
10	포함 안됨	0~3개월짜리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응답자
11	아동 발달	4~6개월짜리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응답자
12	아동 발달	7~9개월짜리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응답자
13	아동 발달	10~12개월짜리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응답자
14	아동 발달	13~15개월짜리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응답자
15	아동 발달	16~18개월짜리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응답자
16	아동 발달	19~21개월짜리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응답자
17	아동 발달	22~47개월짜리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응답자
18	가족에 대한 태도, 사회참여, 직장	모든 응답자

5) 차수변화시의 주요 조사내용

① 1차 조사 주응답자에 포함되어 있으나 2차 조사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

- 가족구성에서 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에 대한 것
- 가족구성원에게 수발이나 도움을 주는가

- 다른 곳에 사는 친척에게 수발이나 도움을 주는가
- 첫번째 배우자에 대한 사회적 배경:

② 자기기입식의 구체적인 차이: NSFH 1차 조사에만 있는 것

- 자기기입식 3: 부모와의 동거에 대한 느낌과 계획
- 자기기입식 8: 출산에 대한 고려
- 응답자가 여성 39세 이하, 미혼남성 44세 이하, 또는 결혼한 남성으로 배우자나 파트너가 39세 이하.
- 자녀를 낳으려고 할 때나 다른 자녀를 낳으려고 할 때 고려하는 사항(16문항)
 - 1) 본인의 나이
 - 2)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본인의 능력에 대한 불확실
 - 3) 자녀를 양육하는 스트레스와 염려
 - 4) 중요한 것을 살 수 있는 능력
 - 5) 집을 사거나 더 좋은 집을 살 수 있는 능력
 - 6) 레저활동이나 사회적인 활동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
 - 7) 부모님께 손자녀가 있게 하는 것
 - 8) 자녀에게 형제/자매를 있게하는 것
 - 9) 본인이 늙었을 때 자신을 돌볼 사람을 갖는 것
 - 10) 사랑할 사람을 갖는 것
 - 11) 무엇인가 할일이 필요하다
 - 12) 적어도 아들 하나 딸 하나는 있어야 한다.
 - 13) 본인의 직업을 위한 시간과 에너지를 갖는 것
 - 14) 배우자나 파트너가 직업을 위한 시간과 에너지를 갖는 것
 - 15) 본인의 결혼생활이나 관계가 계속될지에 대한 불확실
 - 16) 자녀를 갖는 것에 대한 배우자나 파트너의 의견 불일치

자기기입식 11:

함께 거주하는 성인자녀에 대한 느낌

응답자의 성인 아들이나 성인 딸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

- 1) 자녀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느낌
- 2) 자녀와의 식사
- 3) 자녀와 시간 보내기: a. 레저활동
b. 놀이를 함께한다
c. 사적인 대화
- 4) 만일 자녀가 이주한다면 인지한 삶의 변화
- 5) 부모와 동의하지 않는 영역 10가지
- 6) 자녀와 즐겁거나 어려운 시간의 빈도
- 7) 자녀의 미래계획에 대한 응답자의 인지
- 8) 의견 불일치의 극복
- 9) 신체적 충돌

자기기입식 13:

부모, 친척, 일반적 태도: 모든 응답자

- 1) 어머니에 대한 정보
- 2) 아버지에 대한 정보
- 3) 양부모에 대한 정보
- 4) 형제와 남매/자매
- 5) 동서
- 6) 태도

③ NSFH 2차 조사에서 NSFH 1차 조사 이후의 변화를 묻는 내용: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 이후의 변화를 묻는 내용을 새로 많이 추가하였다.

○ 부모님과과의 관계:

- 부모님과과의 동거: 1차 조사와 2차 조사에 대한 것을 모두 문의
- 예: 1차 조사와 2차 조사에 모두 부모님과 동거함
1차 조사에는 동거, 2차 조사에는 동거 안함
1차 조사에는 동거 안함, 2차 조사에는 동거함

1차 조사와 2차 조사 모두 동거 안함

- 형제자매에 관한 것
- 조부모 역할에 대한 것
 - 새 배우자의 성격에 관한 것: 1차 이후에 새 배우자를 가졌을 경우
- 결혼, 동거, 데이트, 과부:
 - 1차 조사 이후에 결혼, 별거, 이혼, 과부가 된 날짜
 - 1차 조사 이후에 모든 동거를 시작한 날과 끝난 날
 - 1차 조사 이후에 결혼한 파트너에 관한 배경(나이, 교육, 종교 등)
 - 1차 조사 이후에 배우자 상실:
 - 사망의 주된 원인
 - 사망 1년 전의 입원한 기간, 양로원 거주기간, 회복기 요양소 거주기간
 - 사망한 배우자의 친척이나 친구를 사망 전보다 만나는 빈도의 차이
 - 사망한 배우자가 1차의 응답자가 아니었을 경우, 교육, 직업
- 출산: 1차 조사는 출산에 대한 “고려”나 2차 조사는 출산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이다. 대상은 여성나이 50세 미만, 남성은 배우자나 파트너의 연령이 50세 이하다.
 - 1차 조사 이후의 자녀수, 출생년도
 - 임신 전에 아이를 원한 것이 출생으로 이어짐(응답자, 배우자/파트너)
 - 원한 것보다 임신이 빨리 되었나, 늦게 되었나, 원하는 그때에 되었나(응답자, 배우자/파트너)
 - 1차 조사 이후 입양: 입양날짜 및 입양아동의 나이
 - 현재 임신했는지, 출산 예정일
 - 임신 전에 (응답자, 배우자/파트너) 자녀를 원했는지?
 - 원했다면 임신이 빨리 되었나, 늦게 되었나, 원하는 그때에 되었나(응답자, 배우자/파트너)
 - 더 의도했나, 얼마나 가지려고 했는가 혹은 얼마나 가질지 몰랐는가, 의도했던 전체 자녀수는, 몇 명을 확신했는가?
 - 응답자나 배우자가 1차 이후 피임을 했는가? 날짜

○ 거주지에 대한 것: 1차 조사 이후에 다른 주소나 다른 시: 시내에서 이사, 낯짜, 시, 주, 주소

○ 교육에 대한 것:

- 1차 조사 때 고등학교이하의 학력이었으나 그 후에 고졸
- 1차 조사 이후의 군복무

○ 직장:

- 1차 조사 때의 직장을 아직도 갖고 있나?
- 1차 조사 때에 직장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직장을 찾았나?
- 1차 조사 때에 직장을 갖고 있지 않았지만 그 이후로 일을 하였다면 일을 찾기 시작한 날짜
- 1차 조사 이후에도 계속 일을 하였다면 1차 때에 1주일에 일한 시간은?

○ 수입:

- 1987년 이후에 공공부조를 받았는가?

○ 집소유:

- 1차 조사 이후 처음 집을 소유한 때

○ 유산 상속:

- 1차 조사 이후에 \$1,000이상 유산을 상속하였는가? 누구에게, 얼마나, 언제

④ 3차 조사의 변화된 주요내용:

○ 3차 조사 도구:

- 2차 조사의 주응답자의 설문도구가 조금의 수정 외에 3차 조사의 근간이 되었으며 배우자/파트너 도구는 2차 조사와 3차 조사가 같다. 자기기업식 문항이 따로 없고 주인터뷰 하나로 이루어져있다. 전체 내용은 2차 조사보다 많이 축소되었으나 3차 조사의 내용은 2차 조사와 거의 동일하다. 1차 조사,

2차 조사의 자기기입식과 겹치는 부분은 가사업무, 전반적인 행복감, 삶의 만족감, 우울증, 자기효능감, 심리적 복지 등으로 주인터뷰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우울증은 3차 조사에서는 15문항과 3개의 연속적인 우울증으로 이루어져 있다. 출산력에 대해서는 2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1차 조사에서 문의한 출산에 대한 고려는 없고 이전 인터뷰 후에(1차 조사나 2차 조사) 자녀출산이나 입양에 대한 문의와 미래의 자녀출산계획에 대한 문항만 있다.

○ 2차 조사에 있으나 3차 조사에 없는 것:

- 배우자사별의 경력에 관한 것

○ 3차 조사에 새로 추가되었거나 조금 변경된 것:

- 19세 이상의 성인자녀에게 도움을 제공하거나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한 문항이 구별 되었다.
- 1차 조사와 2차 조사에는 성인자녀와 부모, 친구, 친척에 대한 도움제공과 도움 받는 것을 구분하지 않고 사회적 지지자원이 한 문항에 모두 나와 있으나 3차 조사에는 성인자녀에 대한 것을 구분하였다.

- 문항: 당신의 19세 이상의 자녀(남편이나, 아내 혹은 파트너의)에게 도움이 나 지원을 주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 당신이 도움을 준 것에 대해서만 응답하십시오

- 지난 달 자녀에게 물건사기나 심부름 혹은 교통편을 제공하였습니까?
- 어떤 자녀에게 물건사기, 심부름 혹은 교통편을 제공하였습니까?
- 지난 달 당신의 19세 이상의 자녀(남편이나, 아내 혹은 파트너의)에게 집안일, 마당일, 차수선 혹은 집안의 다른 일을 도와주었습니까?
- 어떤 자녀에게 집안일, 마당일, 차수선 혹은 집안의 다른 일을 도와주었습니까?
- 지난 달 당신의 19세 이상의 자녀(남편이나, 아내 혹은 파트너의)에게 충고와 격려, 도덕적, 정서적 지지를 하였습니까?
- 어떤 자녀에게 충고와 격려, 도덕적, 정서적 지지를 하였습니까?

- 지난 달 당신의 19세 이상의 자녀(남편이나, 아내 혹은 파트너의)가 일하는 동안 육아에 도움을 주었습니까?
- 어떤 자녀의 육아에 도움을 주었습니까?
- 지난 달 당신의 19세 이상의 자녀(남편이나, 아내 혹은 파트너의)의 직장 일로 인한 일 외에 육아에 도움을 주었습니까?
- 어떤 자녀의 육아에 도움을 주었습니까?
- 도움을 준 것을 전부 합하여 일주일에 평균 몇 시간 당신의 19세 이상의 자녀를 도와줍니까?
- 도움을 준 위의 문장과 같은 내용의 자녀에게 도움을 받은 것이 포함되어 있다.

○ 1차 조사와 2차 조사의 핵심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3차 조사에 새로 추가된 문항:

- 성인 핵심아동과의 관계:

- 시간을 같이 보내기
- 개방적인 논쟁
- 특정한 형태의 토론편에 대한 대화회피
- 전반적인 관계
- 어떻게 논쟁을 해결하는가?
- 관계의 질
- 자녀의 학교, 관계, 직업으로 인해 얼마나 행복한가?
- 자녀와 어떻게 대화하는가?
- 자녀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려고 노력하는가?
- 자녀가 함께 생활한다면 어떤가? 방값과 식비는 지불하는가? 비용은?
- 응답자가 지불하는 비용은?

3. 표본과 관계된 쟁점들

가. 조사단위

NSFH의 조사대상은 엄밀히 말해서 가족이나 세대라기보다는 개인이 조사대상이다. 개인이 조사대상이면서 개인이나 가족 또는 세대의 가정사를 조사할 수가 있었는데, 파트너나 배우자, 지금의 환경, 관계와 태도 및 그들의 경험들이 그 예이다. 그러나 항상 조사대상 개인의 입장에서 미국의 각 세대의 환경, 가족, 결혼 등을 조사할 수 있었다.

나. 조사대상자

조사대상자는 19세 이상 성인으로 세대에 살면서 영어나 스페인어를 할 수 있는 자로 한정했다. 논리적인 측면과 비용을 고려하여 기관이나 집단거주자들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다. 기타 자료수집의 쟁점들

응답자에 대한 비용지불:

처음 연구가 고안되고 예산이 책정되었을 때는 응답자에 대한 비용지불은 계획되지 않았다. 그러나 설문조사과정에서 조그마한 비용지불에 의해 응답자의 협조가 촉진된다는 면접원들과 코디네이터의 의견에 따라 1987년 7월 29일부터(인터뷰가 거의 중간단계에 이른 시기) 주응답자에게 \$10을 지불하였다. 그러나 제2, 제3의 응답자에게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

라. 종단적 조사설계

초기샘플의 일부 혹은 대부분이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이러한 변화가 변화되기 이전의 성격이나 경험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기위해 다시 사용될 것이다. 5년 뒤의 대상자들을 다시 인터뷰할 목적으로 5년 뒤에 응답자들과 다시 접촉할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 아래의 정보들을 수집하면서 후속조사를 준비하였다.

- ① 응답자 성명
- ② 주소와 전화번호
- ③ 생년월일
- ④ 고용주
- ⑤ 중등학교 이후에 모든 학교이름
- ⑥ 5년 후에 응답자가 이사를 했을 경우 응답자의 거처를 알려줄 수 있는 친척 3명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 ⑦ 배우자/파트너의 이름
- ⑧ 여성의 경우 부모님의 성(한국에는 해당사항 없음)
- ⑨ 배우자/파트너의 생년월일
- ⑩ 응답자의 거주지를 찾기 위한 메모

우편을 보내는 것을 통해 우체국의 주소확인 서비스를 받는 것이 가능하므로 모든 응답자들의 현주소에 대한 정보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우편을 보냈다. 첫 해에는 감사의 편지를 보냈고, 2년차에는 연구에 대한 보고서를 보낼 계획이며 반송우편을 통해 주소지 확인 요청도 계획하고 있다.

4. 표본설계

가. 대상자 추출방식

NSFH는 미국의 10,000가구의 확률표본이다. 특히 특정한 가구형태나 가족유형 3,000가구를 과표집하였다; 1) 흑인 가족, 2) 히스패닉 가족, 3) 편부모 가족, 4) 양부모 가족(step-parent) 5) 소년소녀가장 가족 6) 1982년 1월1일 이후에 결혼한 가족.

그 외에 자기기입식 응답을 한 제2응답자로는 같은 집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배우자와 동거하는 파트너, 그 외 비배우자나 비동거파트너인 성인이다.

표본 가구에서 모두 3명까지 면담을 할 수 있다.

- 1) 주응답자의 대면 인터뷰
- 2) 주응답자의 배우자나 동거파트너의 자기기입식 응답
- 3) 다른 비배우자 성인의 자기기입식 응답

NSFH 설문조사의 디자인 전략은 간단하다. ISR의 국가들의 100개의 1차 대상자 단위(Primary Sampling Unit)를 사용하여 같은 선택확률로 세대의 다단계 지역확률 표본을 사용하였다. 그런 후에 무작위로 반으로 나누었다. 그 중 처음 받은 주표본으로 명시되었으며 선택된 가구에 특별한 자격요건은 필요하지 않았다. 주표본의 모든 가구는 주응답자와 제2의 응답자를 선택할 수 있다. 표본의 다른 반은 과표집으로 특별한 가구형태나 가족유형을 과대표표(overrepresent)하는 데 사용되었다. 과대표집 세대에서는 주응답자나 제2의 응답자는 세대가 하나나 두 가지의 과표집 성격을 나타낼 때만 선택되었다. 과표집된 세대가 과대표집의 성격을 띠고 있지 않을 때는 인터뷰가 실행되지 않았다.

표본디자인에는 다섯 단계가 사용되었다:

- 1단계) 한 개 혹은 여러 개로 구성된 PSU(Primary Sampling Unit)가 비례층화표집에 의해 선택되었다. 100개의 PSU가 1985년의 인구추계에 의해 비례표집으로 추출되었다.
 - 2단계) SSU(Secondary Sampling Unit)는 block 그룹이나 선거인 명부작성지역(enumeration district)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통 각각의 PSU에서 17개의 SSU가 인구추계에 근거하여 독립적으로 추출되었다.
 - 3단계) 각각의 SSU에서 LA(a single listing area)가 추출되는데 1980년에 LA에는 적어도 44개의 housing unit이 포함되어있으며 인구추계에 근거한 비례확률 표집방식(probabilities proportional)이 사용되었다.
 - 4단계) 단위가구(housing unit)가 각각의 LA로부터 동일확률표집(overall equal probability sample)에 의해서 추출되었는데 각각의 LA에서 20개의 단위가구(housing unit)가 선택되었다.
- 1,700개의 LA이므로 모두 34,000 단위가구(housing unit)가 선택된 것으로 이중 무작위로 반으로 나뉜 다음 각각이 주응답군과 과표집응답군의 근간이

되었다.

5단계) 1명 이상의 자격이 되는 성인이 세대에 거주할 경우 1명의 성인이 주응답자로 무작위로 추출되었다. 세대 내에서 한명의 주응답자만이 선택되었으며 대리는 가능하지 않다.

샘플링디자인 단계에서 동질성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층의 범주가 형성되었다. 첫 번째 사용된 층은 지역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 안에서 도시화의 정도, 경제성장비율, 인종구성, 히스패닉의 비율 등이 고려되었다.

국가표본들은 4,000개의 LA를 포함하는데 NSFH의 설문조사를 위해 1,700개의 LA가 선택되었다. 과표집 성격을 띠고 있는 세대에 뽑힐 확률은 일반세대에 뽑힐 확률보다 두배나 높다.

나. 대상자 추적

1) NSFH 2차 표본에 대한 추적

위스컨신대학의 설문조사 연구원들은 NSFH 표본의 95%를 추적하고자 하였다. 응답자 추적은 연구의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추적에 실패한 응답자는 1,285명으로(5.8%) 기대했던 것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1987년의 인터뷰부터 응답자를 추적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사용되었다. 참고인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에 고용, 교육정보, 결혼상태, 군복무를 했는지, 복지혜택을 받았는지 등이다. 1987~1988년의 주응답자 중 90%는 한 명의 참고인의 성명과 주소를 주었고 71%는 2~3명의 성명과 주소를 주었다.

2) 차수별 응답률

가) 1차 조사 응답률

주응답자의 74%와 주응답자의 배우자/파트너의 74%다. 1차 조사의 경우 친자, 양자(step-child 혹은 adopted child), 혹은 파트너의 자녀로 1차 조사 때 함께 살고 있는 아동이 한 명 있을 경우 주응답자의 핵심아동으로 선택되었고, 주응답자가 한 명 이상의 아동이 있을 경우 무작위로 핵심아동을 한 명 선택하였다. 핵심아동을 선택한

이유는 자녀양육에 관한 자세한 질문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인터뷰에 응한 주응답자는 9,643명(인터뷰대상자 12,962의 74.4%)이며 인터뷰에 응한 과표집응답자는 3,749명(인터뷰대상자 4,342중 77.7%)이고, 1차 조사의 표본수 13,017명은 17,304명의 인터뷰대상자 중 75.2%다.

나) 2차 조사 응답률

1차 조사 세대 10,007명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다. 2차 자료는 주응답자의 배우자 혹은 파트너와의 대면면담, 주응답자의 부모와 전화상담, 주응답자의 5살이상 된 핵심아동과의 전화상담을 포함하고 있다.

만일 주응답자가 1차 조사 때의 배우자나 파트너와 관계가 끝났을 경우에는 현재 주응답자와 함께 살고 있는 새로운 배우자나 파트너와 면접을 하였다.

2차 조사에 랩탑 컴퓨터를 사용한 CATI방식으로 모든 대면면담이 이루어졌다. 2차 조사에는 1차 조사의 주응답자 중 93.9%의 추적이 가능했고 이중 87%가 응답하여 전체 응답률은 81.7%다. 현재의 배우자 중 87%, 이전 배우자 중 71%를 면담하였다.

2차 조사의 인구학적인 변인에 따른 응답률(NSFH 2차 조사/NSFH 1차 조사)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V-5> 2차조사의 응답률

나이	25세 이하	25~34	35~44	45~54	55~64	65+	잘모름 (DK)	계
n	1,298	2,978	2,248	1,260	1,045	1,175	4	10,008
%	77.7	81.9	83.4	85.5	84.2	77.0	100	81.7

<표 V-6> 2차조사의 결혼상태 응답률

결혼 상태	결혼	별거	이혼	사별	미혼	해당사항 없음	계
n	5,488	473	1,362	836	1,848	1	10,008
%	83.4	78.6	82.0	78.6	79.0	100	81.7

<표 V-7> 2차조사의 성별 응답률

성별	남	여	계
n	3,873	6,135	10,008
%	79.6	83.2	81.7

<표 V-8> 2차조사의 교육 응답률

교육	0~8	9~11	12	13~15	16+	잘모름	계
n	822	1,190	3,817	2,250	1,898	31	10,008
%	71.1	77.5	81.0	84.7	89.0	62.0	81.7

면접원들이 면담을 제대로 했는가에 대한 확인:

각각의 응답자에게 연구에 참여한 사례비와 함께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에는 응답자에게 인터뷰에 대한 아홉 가지 질문을 하고 있다:

대면 인터뷰를 했는지, 그때 컴퓨터를 사용했는지, 자신들이 자기기입식 질문지에 직접 입력했는지, 인터뷰 시간, 응답자의 인터뷰 및 면접원에 대한 의견 등을 포함하고 있다.

다) 3차 조사 응답률

3차 조사에서 모든 면접은 CATI방식을 사용한 전화상담으로 이루어졌다.

1차 조사의 표본 중 핵심아동이 없고 45세 이상인 사람들이 3차 조사의 면접에 포함되었으며 1차 조사의 주응답자의 배우자와 파트너도 면접대상이 되었다.

3차 조사의 전체응답률은 57%(2차 조사 응답자의 68%와 2차 조사 응답자의 23%)다. 주응답자와 배우자의 면접도구는 동일하다. 핵심아동에게는 짧은 면접이 실행되었다. 주응답자와 배우자의 인터뷰 내용은 상실한 자녀모듈을 제외한 것 등 약간의 수정을 한 것 외에는 2차 조사와 같다.

전반적으로 인터뷰에 걸린 시간은 주응답자/배우자 인터뷰는 71.66분이며, 핵심아동이 없고 배우자가 없는 주응답자의 인터뷰 시간은 43.13분이다. 핵심아동의 인터뷰는 52.69분 걸렸다.

라) 응답률을 높이기 위한 관리

① 3차 조사 샘플추적 의정서(Tracing Protocol)

3차 조사의 표본추적 의정서의 12단계에 걸친 추적방법을 살펴보면 한국과 시스템이 다르기는 하지만 철저한 방법을 통하여 대상자를 추적하여 조사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V-9> 추적단계

1단계	주소 미확인으로 반송된 우편에 대하여 미국 우체국의 website를 통해서 주소 수정 확인
2단계	다른 응답자로부터 얻은 정보 확인(예: 지방아동을 돕기위한 주응답자나 배우자로부터의 정보)
3단계	idplus 전화 확인. (idplus는 인터넷을 통한 주소와 전화 데이터베이스)
4단계	전화번호를 전혀 찾을 수 없을 경우 지역번호해독기를 사용
5단계	idplus 주소 확인
6단계	idplus 도시/주/연방정부차원의 확인-이름에 근거하여 지역 확인,
7단계	사망록 확인-응답자의 사망일 확인
8단계	연락자와의 주소 확인
9단계	전화번호부 확인(전화번호디스크 확인)
10단계	전화번호안내 확인
11단계	신용평가국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안전망 확인
12단계	1차와 2차에 명시한 연락자와 통화

② 사전에 우편물 발송

3차 조사를 시작하기 1년 전에 모든 주응답자와 배우자에게 NSFH의 제3라운드이자 마지막 설문조사가 곧 시작될 것이라는 우편을 발송하였다. 반송우편을 동봉하여 응답자가 전화번호와 주소에 대한 정보를 최신 것으로 하도록 하였다.

각 가정의 가족구성원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위해 각각의 응답자에게 전화상담원과 인터뷰 1주일 전에 편지를 보냈다. 편지의 내용은 연구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과 3차 인터뷰가 전화로 시행될 것에 대한 설명이다.

③ 응답자 사례비

2001년 1월부터 2002년 7월까지 모든 응답자(주응답자, 배우자/파트너, 핵심아동)는 인터뷰에 응한 감사의 표시로 \$20의 수표를 받았다. 2002년 8월1일부터 아직 응답을 안한 응답자의 참여를 높이기위해서 응답자의 인센티브는 \$40로 올랐다.

다. 가중치

NSFH의 표본은 가중치가 주어진 것인데 이유는 표본의 기술적 통계가 미국의 성인 인구를 대표하기 위한 것이다.

가중치는 다음의 상황들을 고려한 것이다.

- ◆ 소수인종과 특정한 가족유형의 구성원을 과표집한 디자인
 - ◆ 주어진 표본세대 내에 성인의 수에 따른 선택의 다양한 확률 고려
 - ◆ 다양한 검사반응비율
 - ◆ 주어진 검사반응비율 중 다양한 반응비율
 - ◆ 1988년 3월 인구조사에 근거한 연령, 인종/민족, 성, 지역에 의한 가중치 분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계층조정(stratification adjustment)을 하였다.
- 가중치의 합은 13,017로 가중치는 응답한 비율이 아니라 전체 표본 중의 비율이다.

1) NSFH 1차 조사

가) 최종가중치

NSFH의 최종가중치는 네 요소를 곱한 것이다.

- ① 기본 표본 가중치
- ② 조사
- ③ 면접의 무응답 가중치
- ④ 계층화후 가중치

① 기본 표본 가중치:

응답자를 선택할 확률과 같은 것으로 세대 내의 어른의 숫자와 응답자가 주응답자

인지, 과표집응답자인지의 선택확률을 조정한 것이다.

② 조사와 ③면접의 무응답 가중치

지역적인 하위영역의 다양한 응답률을 조절한 것이다.

④ 계층후 가중치

1987년의 인구조사(Current Population Survey)에서 얻은 지역, 성별, 인종/민족, 나이의 모집단에 대한 표본분포를 조정한 것이다.

최종 가중치의 범주는 0.2에서 5.00다.

나) 추적 가중치

NSFH 1차 조사의 3개 사례가 제외되었고 NSFH 1차 조사에서 NSFH 2차 조사 사이의 사망자 763명을 포함하여 776명이 제외되어 NSFH 1차 조사 응답자 중 NSFH 2차 조사에 응답가능대상자는 총 12,241명이다. 그러나 이들 모두를 추적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아 추적 가중치를 계산하였다. 12,241사례 중 11,473만이 추적 가능하여 추적비율은 93.7%다. 추적 가중치의 평균은 1.06다.

다) 인터뷰 무응답 가중치

인터뷰는 추적할 수 있고 사망하지 않은 모든 가능한 응답자를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인터뷰 무응답자의 가중치가 계산되었다.

10,008명은 1987년의 응답자 중 추적 가능한 응답자 11,473명의 87.2%다. 인터뷰 무응답 가중치의 평균은 1.15다.

라) 계층화후 가중치

1993년 3월의 인구조사에 근거하여 미국의 4개 지역(북동, 중서부, 남, 서)과 성별, 인종/민족(백인, 흑인, 히스패닉), 나이(25-37, 35-44, 45-59, 60이상)으로 계층화시켰다. 계층후가중치의 평균은 1이다.

마) 최종 가중치의 평균은 1이다.

2) NSFH 2차 조사

어떠한 설문조사건 하위집단 선택의 동등하지 않은 확률을 보정하기위해 또한 모집단에 대한 표본분포를 일정하게 하기 위해 조정이 필요하다. 2차 가중치는 1차에서 13,017명이던 것이 2차에 10,008명이 된 것(personal level weights: final weights)을 설명한 것으로 1993년 2차의 각각의 응답자에게 주어진 최종가중치는 아래의 4가지를 곱한 것이다.

1993년의 최종가중치=1987년 1차의 최종가중치 x

1993년의 추적가중치 x

1993년의 면접 무응답 가중치 x

1993년의 계층후 가중치(poststratification weight)

3) 추적을 위한 준비 및 연구

패널의 탈락률을 줄이기 위해서 응답자가 이주하였을 경우 거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콜(Call)은 NSFH 1차 조사 응답자가 이사를 갔을 경우 추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친구나 친척의 이름과 주소를 문의하는데 협조한 자들의 선행조건들을 파악하였다. 응답자 중 제한된 가족지지망을 가진 자들은 많은 가족지지망을 가진 자보다 친지의 연락처를 남기는 확률이 적었고 이혼, 미혼, 소수인종도 연락처를 남기는 확률이 적었다. 인터뷰에 응하는 설문면접원들에게 연락처가 부족한 대상이 어떠한지의 극복전략을 미리 교육시키므로 추적률을 높일 수 있다.

친척은 응답자들을 추적하는 중요한 자원이 되므로 NSFH에서는 응답자들의 추적을 위하여 그들이 어디로 이사했는지 알 수 있는 친구와 친척의 이름을 적도록 요청하였다. NSFH에서 87%가 형제들이 살아있었고 98%가 만나든지 편지나 전화연락을 하고 있다. 횡단적 연구에서 응답자들은 설문내용에 대한 막연한 기여로 참여하지만 패널에 대한 설문에는 자신의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때에 다시 응하게 된다.

추적을 위하여 응답자들에게 질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것은 계속 진행되는 연구입니다. 약 5년 후 다시 접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3개

의 질문은 비밀을 유지하며 당신이 이사했을 경우 연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5년 후 당신이 어디로 이사했는지 알 수 있는 친척 3명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나 아내, 부모, 형제, 자매, 성인자녀 혹은 연락을 자주하는 친척, 이중 당신이 어디로 이사했는지 알 수 있는 친척 3명은 누구입니까”

설문면접원은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배우자 이름, 응답자와의 관계를 기록하였다. 만일 응답자가 친척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았을 경우 설문면접원들에게 응답자들이 이사했을 경우 알 수 있는 친구나 아는 사람을 조사하도록 하였다. 노인의 경우에는 성인자녀와 손아래 형제, 자매들의 이름을 요청하도록 훈련시켰다. 이때 같은 주소지에 사는 사람은 전화번호가 다르지 않는 한 목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설문에 관심이 있는 응답자는 평균보다 많은 접촉자의 연락을 제공하였다.

Call의 연구에 의하면 인구학적인 특성, 친척의 숫자, 설문조사에 대한 흥미가 접촉 대상자를 알려주는 중요한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 설문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면 접촉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주려는 의지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5. NSFH 자료를 사용한 선행연구

구축배경에서도 설명되었듯이 NSFH 자료는 다양한 이론적 입장에서 분석을 가능하게 하므로 가족이나 가족의 변화에 대한 연구 뿐 아니라 정신건강의 변화, 성역할에 대한 연구 등 NSFH에 포함된 다양한 변인들이 여러 학문분야의 연구자들에 의해서 다방면으로 연구되었다. 특히 NSFH 자료는 3차에 걸친 종단적 연구로 기존의 횡단적인 연구에서 연구할 수 없는 대표적인 특성인 시간의 흐름에 대한 변화를 연구할 수 있는 것이다.

가. 거주형태의 변화

윌머쓰(Wilmoth, 1998)의 연구는 1차의 거주형태를 기본으로 하여 2차에서 결혼상태의 변화와 자녀의 변화를 통하여 거주형태의 변화를 살펴본 연구로, 노년기 초기에 혼자 살거나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거주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전기노인 거주형태의 변화는 동거를 통하여 나타나며 후기노인의 거주형태의 변화는

양로원 등에 입소하거나 사망한 경우다.

나. 성역할 변화

로스 등(Ross & Mirowsky, 1988)의 결혼하거나 동거하고 있는 성인의 성역할에 대한 수도권지역과 비수도지역 거주자의 비교연구에 의하면 1차에서 비수도지역의 거주자들이 성역할에서 수도권지역 거주자들보다 더욱 보수적임을 보이고 있으며 양성평등에 대한 태도는 느리며 2차의 성역할 영역에서도 전통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종단적 연구를 통한 가족이나 가구의 변화는 아니더라도 주응답자의 거주지역에 따른 성역할 변화를 볼 수 있다.

다. 차수 진행과정의 변화

NSFH와 같은 패널데이터는 횡단적 연구와는 달리 진행되는 과정의 변화에 대한 연구도 가능하다. 종단적 연구를 통해서 1차와 2차가 시행되는 중간에 그들의 삶의 사건으로 인한 변화를 경험한 경우(예: 배우자사망이나 이혼)에 삶의 사건의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조사가 가능하다. 즉 배우자 생존했을 때와 사망 후, 결혼상태와 이혼 후의 상황 등의 비교가 가능하며 개인의 중요한 삶의 사건의 영향력 등의 파악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맥키버(McKeeber & Wolfinger, 2001)의 연구는 1차에서 2차로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이혼한 여성의 경제적인 비용을 조사하는 연구다. 이혼 전과 이혼 후의 경제상태를 비교한 연구결과에 몇 년 전의 연구보다 이혼 후의 경제상태가 훨씬 적당한 것을 통하여 노동시장에의 참여와 인적자원에 기인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라. 가족의 변화

White(2001)의 연구는 16~85세의 안정성, 접촉, 지지제공과 지지수혜 이상의 네 영역에서 형제/자매관계의 변화를 조사한 것이다. 초기성인기에는 형제, 자매관계의 네 영역이 모두 줄어들지만 인접성이나 접촉은 중년기에는 안정적이며 더 줄어들지는 않는다. 그리고 형제자매와의 교류는 70세 이후에 조금 증가한다.

마. 조부모와 손자녀관계

미국은 비교적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발할 뿐더러 이혼의 증가로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가 많으며 연구결과에 의하면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이 점점 증가추세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플러-톰슨 등(Fuller-Thomson & Minkler, 2001)의 연구는 NSFH 2차 자료를 사용하여 조부모가 손자녀의 돌봄에 시간을 할애하는데 대해 조사한 것으로 3,260명을 대상으로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를 다섯 영역으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6개월 이상 대리부모의 역할을 담당하며 손자녀를 보호하는 조부모와, 전혀 돌보지 않는 조부모, 조금 돌보는 조부모(1~9시간), 가끔 돌보는 조부모(10~29시간), 많이 돌보는 조부모(보통 1주일에 30시간 이상 혹은 1년에 90일 저녁을 돌보는 경우)를 비교한 것이다. 7%의 조부모는 상당히 많은 양의 시간을 손자녀를 돌보는데 할애하였으며 5.3%의 조부모가 대리부모역할을 감당하며, 40.4%는 전혀 돌보지 않는 유형이며, 24.2%가 조금, 23.3%가 가끔 돌보는 유형이다.

이 연구는 NSFH 2차 자료만을 사용한 것으로 변화를 볼 수 없지만 3차의 조부모의 영향에 대한 것을 조사하여 변화를 본다면 가족구조의 변화가 조부모의 역할에 미치는 영향 등의 파악이 가능할 것이다.

바. 결혼생활의 불공정성 및 만족도

많은 연구가 결혼상태에 대한 것으로 결혼청산, 결혼생활의 인지한 불공정성에 대한 인지, 결혼의 갈등구조, 결혼만족도에 대한 연령별 비교 혹은 은퇴와 결속력과의 관계 등 NSFH를 이용한 결혼연구는 수도 없이 많다.

보이다노프 등(Voydanoff & Donnelly, 1999)의 연구는 본인과 배우자의 수입을 위한 일, 집안 일, 자녀돌봄의 인지한 불공정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와 결혼의 질을 연구한 것으로 수입을 위한 일, 집안 일, 자녀돌봄에 걸린 시간을 측정하였다. 대상은 NSFH 2차에 자녀가 10~17세인 아빠와 엄마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엄마의 경우 불공정하다고 느낄수록 심리적 복지가 떨어지고있으며 엄마와 아빠의 경우 모두 불공정을 느낄수록 결혼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 특히 재혼했거나 양성평등의 사고를 가진 엄마의 경우 집안일의 불공정을 느끼는 경우 집안일에 걸리는 시간이 많을수록 심리적 디스트레스와 결혼생활의 논쟁이 컸다.

범퍼스 등(Bumpass, Martin & Sweet, 1991)의 연구는 결혼생활의 청산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미국의 다양한 가족의 쟁점에 대해 조사한 NSFH가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연구에 의하면 남성들은 결혼생활에 대한 분열을 적게 보고한다. 결혼생활의 청산에 관한 위협은 여성의 경우 결혼당시의 연령이 어릴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동거경험이 있을수록 배우자가 결혼했던 경험이 있을수록 높았다. 종교와 교육의 차이와 남성의 실직상태는 결혼의 안정을 감소시켰다.

부왈라 등(Bookwala & Jacobs, 2004)는 연령에 따른(20~39세의 초기성인기, 40~59세의 중년, 60세이상이 노년기의 세 집단) 결혼과정과 디스트레스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결혼과정의 공정성은 집안 일, 수입을 위한 일, 돈의 지불과 자녀돌봄에 대한 느낌으로 측정하였다. 노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은 수입을 위한일이나 자녀돌봄은 제외되었다. 불화의 수준은 일곱 개의 다른 영역에서 측정되었다(집안일, 돈, 함께 시간보내기, 성생활, 자녀를 갖는 것, 배우자의 가족과의 관계, 자녀)다. 그러나 나이에 맞지않는 항목 등은 제외되었다. 갈등해결전략도 사용되었는데 4개의 영역으로 이루어져있다. 대립과 건설적인 전략(문제해결)과 파괴적 전략(무관심 혹은 공격)이다. 구체적인 전략내용은 1. 자신의 의견을 자신이 간직한다(낮은 대립, 파괴적), 2. 자신이 반대하는 것을 조용히 의논한다(낮은 대립, 건설적), 3. 논쟁하거나 서로 언성을 높인다(높은 대립, 파괴적), 4. 서로 치거나 물건을 던진다(높은 대립, 파괴적)

결혼만족도는 모두 합해서 당신의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1. 아주 불행 ~ 7. 아주 행복으로 7범주

우울증은 CES-D가 사용되었다. 연구결과는 나이별로 보면 노년기는 청년기나 중년보다 그들의 결혼에 만족하였다. 역할의 불공정이 청년세대보다 노년세대에 결혼만족도의 중요한 예측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갈등해결방법으로의 불일치의 수준이나 조용한 토론은 중년보다 청년기의 우울증의 중요한 예측요인이 되고 있다. 나이에 따른 결혼만족도가 우울증에 기여하는 요인이 다양하다. 결혼만족도는 청년기와 비교해서 노년들의 경우 우울증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

부왈라(Bookwala, 2004)의 연구는 종단적 연구의 특성인 나이에 따른 변화를 본 것이 아니라 초기성인, 중년, 노년기집단의 결혼과정에 대한 만족도와 우울증 등을 비교한 것이다. 세집단은 부정적 결혼과정에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노년집단은 초기성인이나 중년집단보다 높은 결혼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비례확률표집을 통한 층분

한 샘플수로 초기성인, 중년, 노년기의 결혼에 대한 만족도와 부정적인 과정들의 비교가 가능하였다.

NSFH를 이용한 한 연구인 은퇴가 결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데이비 등(Davey & Szinovacz, 2004)의 연구는 결혼의 갈등과 결혼의 결속력이 은퇴라는 삶의 사건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가에 관한 연구로 결혼의 갈등구조는 남편이나 아내의 은퇴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종단적으로 볼 때 아내의 계속된 고용은 결혼의 갈등과 연관이 있다. 남편과 아내의 결혼결속력에 대한 구성은 서로 다르다. 아내의 은퇴에 의해서는 영향을 받지 않지만 남편의 은퇴로 인한 시간을 같이 보내야하는 변화로 인해 이혼의 잠재적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 연구는 은퇴로 인한 영향만을 보기위한 것으로 1차, 2차 모두 결혼상태에 있는 50세 이상의 남편이 은퇴한 대상과, 부인이 은퇴한 대상을 조사하였다.

사. 출산률

토어(Torr & Short, 2004)의 연구는 NSFH 패널자료가 가사일 분담과 출생률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하고 있다. 1차의 인구학적인 성격과 결혼의 성격, 출생률, 교육, 고용역사, 성역할에 대한 태도와 가사분담 등을 측정하였고 2차에서는 1차 이후의 출생률역사를 포함하고 있어 가사분담을 포함한 5년 전의 상태가 5년 후의 출생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 등의 연구가 가능하다. 토어 등(Torr & Short, 2004)의 연구는 둘째아이의 출생에 대한 전환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샘플의 대상은 2차 때 까지 둘째아이가 있거나 임신한 경우까지다. 또한 맞벌이 부부로 가사노동의 분담에 관한 것을 연구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결과에 의하면 배우자와의 가사노동의 분담은 출산률에 영향을 미쳤다. 전반적으로 부부의 가사분담이 동등한 범주일 때 대부분의 부인들은 둘째아이를 갖고있거나 임신상태에 있다. 그러나 둘째아이의 가능성은 가사분담에 따라 다양하다.

6. 여성가족패널에 주는 시사점

가. 표본설계

1) 철저한 사전 준비

스위트 등(Sweet & Bumpass, 1987)는 1980년의 미국 인구조사에 기초한 “American Families and Households”에서 미국의 가족과 세대에 대한 분석을 하며 오래 전부터 NSFH 자료수집을 구상하였다. 한국도 처음 가족에 대한 패널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사전에 충분한 준비작업을 거쳐야 여러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여성가족패널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2) 추적과 응답률

비례표집을 해야 대표성이 있으며 패널조사는 시간이 지날수록 무응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응답자의 추적과 응답률을 높이기위해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NSFH의 경우 우선 응답자가 조사에 흥미를 갖도록 하였고 장시간 설문조사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항목만을 취사선택하여 설문지 문항을 작성하였다. 또한 응답자의 응답률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로 사례비를 지급하였으며, 응답률에 대한 분석이 차기 설문조사 때 응답률을 높이기 위한 자료로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설문면접원의 사전교육은 응답자의 응답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필수적이며 전체응답률은 높다고 하여도 개개항목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특정 방향에 대한 연구에 결측치(missing case)를 늘리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응답자가 인터뷰에 응하는 문제 뿐 아니라 개개 항목에 정확히 모두 기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설문면접원의 사전교육을 통한 올바른 설문조사에 대한 준비가 절실히 요청된다. 또한 NSFH에서도 사용하였지만 설문면접원들이 제대로 인터뷰를 하였는지의 확인절차도 중요하다.

3) 다양한 가족형태의 과대표집

급격히 변화하는 한국의 가족행태 및 가구구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NSFH와 마찬가지로 수적으로 열세인 특정한 가구형태나 가족유형을 과대표집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NSFH에도 포함되어있는 편부모 가족, 양부모 가족(step-parent), 소년소녀가장

가족 뿐 아니라 우리나라 가족만의 특유한 형태라고 할 수 있고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자녀교육 때문에 파생된 기러기 가족, 여성의 사회참여로 인하여 부부가 같은 거주 지역에서 직장생활을 못하는 경우의 주말부부 가족, 고령화사회에 걸맞는 독거노인가구, 혹은 미혼자녀가 독립하여 가구를 이루고 있는 1인가구 등 한국의 특수상황에 맞는 다양한 가구형태를 연구의 목적에 맞게 포함시키되 이들 소수가족형태를 과표집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4) 표본설계

NSFH의 표본 추출방식은 5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나라의 도, 군, 읍, 면의 단위나 시, 구, 동의 단위 등의 행정단위를 하위영역으로 내려가면서 비례확률표집(probabilities proportional: pps)에 의해서 샘플을 추출한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이다. 단 처음에는 비례층화표집으로, 그다음부터는 비례확률표집방식을, 가구의 선택에서는 동일확률표집방법(equal probability sampling)이, 마지막으로 세대 내에서의 주응답자는 무작위로 추출하였다.

5) 추적조사 근거 마련

NSFH는 5년 뒤의 후속연구를 위한 응답자들과 재접촉을 하기위하여 응답자의 주소지 등이 바뀌었을 때 추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들은 친척 3명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에 근거하여 설문조사 대상자들을 추적하였다. 여성개발원의 패널연구는 매년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적은 NSFH보다는 쉬울 것으로 보이나 대상자가 이사를 갔을 경우 추적이 가능한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NSFH에서 사용한 친척 3명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에 의한 설문대상자의 추적은 패널자료를 구축할 때 연구자들이 신경쓰고 응답자를 추적하기 위해 사용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NSFH는 주응답자의 거주지를 확실히 하여 5년 후의 2차 조사에서의 응답률을 높이려고 노력하였다.

설문조사 내용은 연구의 목적에 부합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NSFH는 5~7년 간격으로 3번에 걸쳐 종료된 것이지만 여성패널은 매년 하는 것으로 10년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응답자들이 매년 설문조사하는 것을 귀찮게 생각할 수도 있

으나 응답자를 추적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1년 단위이므로 응답률이 어느 정도씩 줄어들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또한 처음 구축하는 자료인 만큼 과정을 NSFH와 같이 일일이 기록화하여 다음에 어떠한 영역에서 어떠한 목적으로 자료를 구축하더라도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 조사항목

표준화된 척도의 사용:

대부분의 설문내용은 NSFH의 목적에 합당한 문항만을 사용하였고 기존의 연구나 다른 자료구축에 사용된 표준화된 척도를 사용하였거나 필요에 의해서 연구자들이 문항을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조사시 문항을 새로 만들 경우 신뢰도를 측정하여 문항의 사용가능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중요한 항목은 NSFH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신뢰도가 높은 표준화된 척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척도에 따라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많은 경우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사용목적 등을 소개하고 허가를 받으면 될 것으로 사료된다.

1) NSFH에 사용된 척도에 대한 의견

NSFH에 사용된 표준화된 척도(예: 우울증, 자기효능감, 자긍심, 통제력, 심리적 복지등)는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무난한 듯하다. NSFH에 사용한 사회적 지지 척도는 표준화된 것을 사용하지 않아 신뢰도가 낮고, 사회참여 항목도 표준화된 도구를 사용하지 않아 신뢰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편이다. 자긍심(self-esteem)은 지나치게 축소하여 사용하여(3문항) 신뢰도가 낮으며 신뢰도가 낮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구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NSFH는 차수가 변화할 때 기본틀의 사용은 같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른 필요에 의해 새로운 문항의 첨가, 삭제 혹은 응답방법의 변경으로, 변화를 보기 위한 연구일 경우 같은 항목에 대해 차수별로 내용이나 척도가 변경된 경우 정확한 변화를 보기 힘들다. 예를 들어 NSFH 경우 사회적 지지의 수혜와 제공에 있어서 1차와 2차의 제공자와 내용이 조금씩 달라 연구자가 새로 변인을 구성해서 사용하는 번거로움 뿐 아니라 정확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신체적 기능의 특성은

NSFH의 가족 변화 등의 문항은 아니라 할지라도 1차에서는 “당신의 능력을 제한하는 신체적 혹은 정신적 상태가 있습니까?”의 6문항으로 응답이 “네” “아니오”의 범주나 2차에서는 1차와 문항의 내용이 다르고 한 문장은 조금 수정하였으며 응답범주가 3개로 이루어져 있다(전혀 제한을 받지 않는다. 조금 제한을 받는다. 많이 제한을 받는다). 이와 같이 같은 항목이라도 응답범주가 다를 경우 변화에 대한 연구는 어려운 상황이다. 원래 Radloff의 CES-D는 20문항이나 1차는 12문항으로 2차는 16문항으로 1차와 2차를 비교해야 할 경우 2차에서 1차 12문항과 같은 내용만 사용할 수 있다.

우울증이나 기능적 건강평가, 사회적 지지 등 차수에 따라 문항이 조금 변하고 응답범주가 변하는 것으로 인해 연구자들이 종단적 연구를 하여 응답자들의 변화를 조사할 때 문항을 다시 구성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따른다.

2) 가족구조의 변화에 대한 쟁점

가족구조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출산력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에서 1차에 출산에 대한 기록이나 고려에 대한 문항 즉 출산력, 원하지 않은 출산, 피임, 앞으로의 출산에 대한 의도 등의 내용을 통하여 1차의 출산에 대한 의도가 실질적으로 2차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의 영향력 확인 연구가 가능하다. 또한 NSFH 1차의 출산력에 대한 고려나 2차, 3차에 출산력을 조사하는 것을 통하여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인들의 파악이 가능하여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저출산률을 해소하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정책수립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패널자료에도 유용한 항목이라고 사료된다.

NSFH의 조사를 위해 5년 전부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계속적인 모임을 갖고 설문조사내용과 설문문항 등을 논의한 것을 통하여 여성개발원의 가족패널연구는 사전 연구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되었다고 보고 설문지 작성 후 예비조사를 한 후 수정해야 할 사항, 특히 문항 등의 충분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중요한 것은 종단적인 연구에서 탈락률을 줄이기 위해서 응답자들이 설문조사에 대해서 흥미를 갖게 하는 것-문항의 내용도 중요함-이므로 너무 지루하게 길게 질문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연구의 목적에 맞는 문항을 집어넣어야 하지만 응답자들이 연구에 협조할 수 있는 흥미로운 질문으로 너무 길지 않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NSFH의 응답시간은 1시간 30분인데 응답자가 응답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여 문항을 작

성하여야 한다고 사료된다. NSFH가 높은 응답률을 얻기 위해서 예비조사 때 한 중요한 기능은 인터뷰에 소요되는 시간을 합리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꼭 필요한 문항만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NSFH는 통틀어서 연구의 기본적인 디자인과 가능한 질문문항을 개발하는데 18개월이 소요되었다. 여성가족패널조사의 경우도 10년을 계속할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사전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3) NSFH 자료의 시사점

가) 소득에 대한 것

1차에 많은 경우 응답을 잘 하지 않았으나 2차에서는 응답률이 1차보다는 훨씬 높았다. 2차에서는 1차의 낮은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면담자가 각별히 신경을 쓴 것 같고 또한 자료를 검증하고 관리하는 연구원들이 소득을 다방면으로 측정하기 위해 변인을 새로 구성하였다.

설문지의 위치에서도 같은 내용의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위치가 달라 문항의 비교나 변화 등에 대한 연구를 할 경우 자료가 위낙 방대하여 연구자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점도 있다.

나) 조사대상

차수 변화에 대한 설문내용을 보면 1차 때는 넣지 않았지만 2차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1차와 2차의 상황을 모두 비교하는 것을 넣었다. 그러므로 동일문항을 사용하여 비교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존의 차수로부터 변화한 내용에 대해 질문하는 설문문항의 사용도 가능하다고 본다.

다) 응답률

패널을 위한 설문에서는 자신의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때 설문에 응하기 때문에 설문의 내용이 응답자의 흥미에 맞도록 고려하는 것이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상당히 중요하다. 한국여성개발원의 경우 해마다 설문조사를 하게 되므로 추적은 훨씬 용이할 수 있으므로 추적면에서 생각한다면 응답률이 높을 수도 있겠지만 똑같은 내용을 해마다 되풀이 한다는 측면에서 귀찮게 느껴 응답률이 낮아질 가능성

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설문면접원들이 응답자 추적을 위해서 응답자의 친척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중요한데 정확한 정보 획득을 위한 설문면접원의 훈련도 중요하다.

VI

NLSW(National Longitudinal Surveys of Women)와 여성연구 쟁점

1. NLS(National Longitudinal Survey)
의 역사(略史) 11
2. 장년여성과 청년여성에 대한 전국종단
조사(NLSMW와 NLSYW) 13
3. 자료의 활용 사례: 미국 여성의
출산력과 노동시장 참여 14

1. NLS(National Longitudinal Survey)의 약사(略史)

NLS(National Longitudinal Survey)는 미국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과 노동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 미국 전역의 다양한 연령집단의 남녀들이 겪는 노동시장 경험에 관한 정보를 조사한 종단조사이다. 최초 조사는 1966년에 실시되었으며 은퇴, 전업주부의 노동시장 복귀, 학교-직업 이행 등과 같은 노동시장 이슈들을 연구하기 위해 설문이 구성되었다. 설문내용은 조사가 거듭되면서 광범위한 주제들을 아우를 수 있도록 점차 확장되었다.

1966년에는 당시 45세에서 59세 사이의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장년 남성코호트(NLS of Older Man)와 14세에서 24세 사이의 청년 남성 코호트(NLS of Young Men)가 조사되었으며, 그 이듬해인 1967년에는 당시 30세에서 44세 사이의 장년 여성 코호트(NLS of Mature Women)와 14세에서 24세 사이의 청년 여성 코호트(NLS of Young Women)가 추가되었다. 이로써 NLS는 총 네 코호트로 이루어진 전국적 종단조사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각각의 코호트에는 흑인이 과대표집되었으며, 처음에는 5년간만 조사하기로 하고 출범하였으나 높은 표본 유지율과 연구자들의 폭넓은 관심 때문에 조사가 연장되었다. 1977년 NLS 자료 사용자들과 패널 전문가들의 회의를 거쳐 최초 4개 코호트에 대한 조사를 최소한 5년 더 연장하여 실시한다는 것과 젊은 층 남녀에 대한 새로운 종단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이 결정되었다. 이 새로운 종단조사는 1966-7년의 청년 남녀 코호트의 복사판으로서 1977년 포괄적고용훈련법안(CETA)의 수정에 의해 도입된 청년 고용 및 훈련 프로그램들의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이러한 목적 하에 1978년 현재 14세에서 21세 사이의 미국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 전국 규모의 확률 표본이 추출되었고, 흑인, 히스패닉, 및 빈곤층이 과대 표집되었다. 여기에 미 국방부의 예산지원으로 군대에 복무하는 청년층이 표본에 추가되었다. 이것이 바로 전국종단청소년조사79(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 1979, NLSY79) 코호트이며 1979년 첫 조사가 이루어져 2006년 현재까지 총 22차례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1986년에는 NLSY79 코호트에 속하는 여성들의 자녀들(0세에서 14세 사이)이 추가로 조사되기 시작했고(NLSY79 Children), 1994년부터는 15세 이상 자녀들에 대한 조사가 추가되었다(NLSY79 Young Adults). NLSY79 코호트

에 속하는 응답자들이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또 다른 중단조사가 시작되었는데, 1996년 12월31일 현재 12세에서 16세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노동시장 행동에 대한 정보를 조사한 NLSY97청소년조사가 그것이다. 최초 샘플수는 8,984명이었으며 청소년의 교육경험, 가족 및 지역사회 배경, 학교-직장 이행 등의 주제들에 관한 설문으로 구성되었다. 이 조사는 2006년 현재 9차 조사가 이루어졌다. 다음 <표 VI-1>은 NLS의 여러 코호트들에 대한 간략한 정보이다.

NLS는 미 노동부 산하 노동통계국이 주관하고 있으며, 노동통계국은 인구조사국(Census Bureau)과 오하이오 주립대학(Ohio State University)의 인적자원연구소(Center for Human Resource Research)에 용역을 주어 조사관리, 설문지 기획, 자료 배포, 면접조사 등을 실시해하고 있다. 한편 NLS 기술자문위원회(Technical Review Committee)가 구성되어 연 2회의 회의를 통해 설문지 설계, 조사주제의 발굴, 자료 활용, 방법론적 쟁점, 자료배포, 사용자 서비스 등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표 VI-1> NLS 코호트

코호트	연령	연령 기준	최초 표본 크기	조사시점 (시작/최근)	조사 횟수	현재 상태
Older Men	45~59	1966. 3.31	5,020	1966/1990	131)	종결
Mature Women	30~44	1967. 3.31	5,083	1967/2003	20	종결
Young Men	14~24	1966. 3.31	5,225	1966/1981	12	종결
Young Women	14~24	1967.12.31	5,159	1968/2003	21	종결
NLSY79	14~21	1978.12.31	12,686	1979/2006	22	계속
NLSY79 Children	0~14	-	2)	1986/2006	11	계속
NLSY79 Young Adults2)	15이상	-	3)	1994/2006	7	계속
NLSY97	12~16	1996.12.31	8,984	1997/2006	9	계속

주: 1) 1966~1983년 기간 사이에 12번의 조사 실시. 1990년 조사는 가구원 및 고인의 친척에 대해 이루어졌음.

2) NLSY79 Young Adults는 초기에는 NLSY79 Children 표본의 일부로서 조사되었으나 1994년부터 15세 이상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조사되었음. 1988년 21세 이상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음.

3) NLSY79 Children 과 NLSY Young Adults의 표본크기는 NLSY79 응답자의 가정에 태어난 아동들의 수에 따라 달라짐. 이 아동들의 수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 표본크기는 생략하였음.

자료: CHRR(2006), NLSMW User's Guide

2. 장년여성과 청년여성에 대한 전국종단조사(NLSMW와 NLSYW)

NLSMW와 NLSYW는 1966~7년에 시작된 NLS의 네가지 코호트들 중 여성을 대표하는 코호트로서, 장년여성 코호트는 노동시장에 재진입하여 주부, 어머니, 직장인으로서 역할 갈등을 겪는 장년 여성들의 고용과 노동시장 행동에 관한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년여성코호트는 학교를 졸업하고 직업 및 경력, 혹은 결혼과 관련한 선택에 처음 직면한 여성들에 관한 연구를 가능케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각각 선정되었다.

NLSMW와 NLSYW는 1967년부터 2003년까지 조사되었으며, 2003년도 조사를 끝으로 예산상의 제약 때문에 중단되었다. 초기에는 2-2-1 방식, 즉 매 2년 마다 두 차례 전화조사를 하고 1년 후에 면접조사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1987년부터는(NLSYW는 1988년) 전화조사가 없어지고 격년 면접조사 방식으로 바뀌었다. 1995년부터는 전통적인 종이설문지 방식(PAPI)에서 탈피, 컴퓨터를 이용한 면접조사나 전화조사 방식(CAPI, 혹은 CATI)으로 전환하였다. 이 때부터 NLSMW와 NLSYW는 동일한 설문지를 사용하게 되었고 격년제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구체적인 주요 설문 내용은 크게 응답자의 취업상태와 취업력, 직업훈련 경험, 정규 교육, 가족소득 및 자산, 신체적 복리, 주거지 사항, 가족과 가구 구성, 결혼력, 출산력, 일과 가족에 관한 태도, 배우자나 파트너의 노동시장 지위, 건강, 여가생활과 자원활동, 차별경험, 자녀 양육-보육, 환자나 고령자에 대한 돌봄, 연금, 노후계획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1997년과 2001년도 조사에서는 장년여성과 그 부모들 사이의 금전적 시간적 이전(money and time transfer)에 관한 설문, 1999년과 2003년도 조사에는 장년여성과 그 자녀들 사이의 금전적 시간적 이전에 관한 설문이 각각 추가되었다. 이처럼 다양하고 폭넓은 질문 문항들과 긴 조사기간을 통해 NLSMW와 NLSYW는 광범위한 분야의 연구자들에게 청소년기에서 장년기를 거쳐 노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여성이 겪게 되는 삶의 형태 변화에 대한 다양한 학문적 관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었다.

3. 자료의 활용 사례: 미국 여성의 출산력과 노동시장 참여

다음 논문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종단면 조사인 NLSMW와 NLSYW가 여성의 출산력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에 대한 입체적 동태적 분석에 활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 논문은 두 자료가 출산력의 추세뿐만 아니라 출산력 저하의 원인과 그것이 여성 노동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횡단면 분석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효과적인 저출산 대책 마련을 위한 분석적 지침을 제시할 수 있게 해준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수세기 동안 거시경제학자를 위시로 한 경제학자들은 경제성장을 기술변화와 거시 및 미시경제적 정책 환경,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인구 증가 과정이 반영된 과정으로 파악하였다. 인구 증가에 관한 논의는 ‘인구 폭발,’ 그리고 넘쳐나는 인구 압박(pressures of population)이라는 맥락에서 제기되었다. 대부분의 대중매체는 전 세계적으로 출산력(fertility)이 낮아지고 있다는 불편한 사실은 파악하지 못했다. 전 지구적 출산력 저하의 원인은 숨겨져 있는 반면(끝없는 추측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그 결과는 잘 알려져 있다. 과밀인구(over-population)에 대하여 셀 수 없이 많은 기사를 양산해 내던 대중매체는 최근에 이르러서야 전 세계적 출산력 저하가 초래할 결과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인구학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러한 현상을 감지한 것도 불과 20년 전 일이다).

이 논문은 여성의 노동력, 출산력, 자녀양육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러한 요인들 서로 간의 상호작용에 주목할 뿐만 아니라 이 요인들이 지난 반 세기 동안의 주요 경제 사회적 문제들과 어떻게 상호작용 해왔는지에도 주목한다.

가. 연구의 배경

노동력 공급은 노동경제학자들의 기본적인 연구주제이고, 남성의 노동시장 참여율(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s)과 노동시간이 여성의 그것보다 높기 때문에, 노동력 공급 결정에 있어서는 여성이 더 큰 주목을 받아왔다. 전문가가 아닌 사람에게는 이런 현상이 모순으로 느껴지겠지만, 노동경제학자에게는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노동시장 진입률이 낮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여성의 행동 연구가 더 흥미롭고, 더 많은 관심을 유발한다. 남성과 여성의 노동력 공급에 대한 임금 탄력

성 연구에서의 전형적인 해답은 남성의 임금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다. 반면 여성의 임금 탄력성은, 임금 변화가 노동시장참여율에 미치는 영향과 직장 여성의 근로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1에 가까운 것으로 측정되었다. 여성의 경우 노동공급의 임금 탄력성이 축소되고 있다는 증거(Bradley T. Heim, 1979~2003)는 여성 노동력 공급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증폭시킨다. 이러한 임금 탄력성 하락에 대한 이유로는 이혼의 증가, 다양한 생애주기 단계(예를 들어, 자녀가 어린 경우)에서 이전 세대의 여성보다 현대 여성의 노동시장 퇴장률이 낮은 점, 결혼률 감소, 학교를 떠난 직후 뿐 아니라 출산 이후에도 취업과의 연결고리가 더 강해진 것-이 모든 추세들은 결혼의 연기와 전반적인 출산력 저하에 의해 가능해졌다-등이 꼽히고 있다.

이렇게 높은(감소 중이기는 하지만) 여성 노동공급의 임금 탄력성은 노동력 공급의 전반적 경향 속에서 그에 대응하는 짝을 찾을 수 있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20세기 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늘어났고, 어린 자녀가 있는 결혼여성의 경우 30년 동안 5배로 늘어났다. 동일한 기간 동안, 16세 이상 남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소폭 감소하였으며, 65세이상 남성의 참여율은 가파르게 떨어졌다. 1990년 이래, 모든 남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완만한 감소를 보이는 반면, 여성의 참여율은 2000년 초반까지 서서히 증가하였고 이후로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라틴계 인구의 경우, 노동시장 참여율은 경기변동에 더 민감한 것으로 보인다. 라틴계 남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2001년 경기둔화 시기까지 줄어들다가 2005년부터 시작된 경기회복세와 더불어 증가로 돌아섰다. 라틴계 여성의 경우 이러한 변화는 다소 완화된바, 2001년 경기둔화 시기의 노동시장 참여율 감소세는 더 완만했고 2005년 경기회복기의 증가세는 더 느리지만 더 현저했다.

뒤에서 다시 논의하겠지만, 여성의 노동시장 경력은 지속적으로 남성과 유사한 패턴으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몇 가지 주요 영역에서 여성의 행위 양상도 남성과 유사해지고 있다. 즉,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강화되고 전 생애에 걸쳐 더 안정화되고 있다. 아이가 청소년기에 진입하고 자동차, 의복, 대학학비 등이 가계에 부담을 주게 되면서, 출산과 육아 필요성이 줄어들고 가계를 위한 추가 수입이 필요해질 때만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주변적’ 노동자 경로를 따르는 여성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청년층 사이의 결혼률 감소와 이혼의 위험 역시 졸업 후 취업에 실패한 여성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였으며, 여성들로 하여금 결혼이 파탄으로 끝날 경우의 대비책으로(그리

고 동시에 십수년 전만 해도 결혼의 종말 여부와 상관 없이 남편들로부터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던 자원들을 대체할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욕구의 발로로) 출산 후에도 계속 노동시장에 남아있으려는 유인을 갖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둘 때, 히스패닉이 새로운 ‘주변적’ 노동시장 유입인구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경제적 기회를 찾아 북쪽으로 인구가 유입되었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종교적이거나 문화적인 이유로 인하여 히스패닉 여성이 전통적 성역할을 더 견고하게 고수함으로써 가정에서 여성으로서의 전통적 역할을 수행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보다 더 전통적인 성향 때문에 그들은 생애 주기에 걸쳐 경제적 기회의 증가나 가계 부담의 변화에 따라 노동시장을 들락거리는 “표류적” 노동자가 될 확률이 높다.

여성이 반세기 전 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열의 있는 노동자가 되었다는 점은 노동시장의 규모와 구성 뿐 아니라 사회가 아이들을 키우고 양육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영향은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즉각적 영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덜 주목 받고 있다. 그러나 아이들은 부모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부모를 대신하여 노동시장을 채우게 되기 때문에, 자녀 양육에 미치는 영향이 장기적으로는 사회나 노동시장에 더 중요하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여성은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지속적으로 거기 머물러왔다. 그것은 (1960년대 이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급증에서 드러나듯이) 중년 여성의 경우에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남성에 비해 여성의 교육 수준이 점차로 높아지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공식적 노동시장에 대한 여성의 태도에 있어서도 그러하다.³⁰⁾ 그 결과, 임금 뿐 아니라 노동시간 측면에서도 여성과 남성의 소득 격차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좁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여성과 남성 간의 상대적인 소득력(earning power) 차이 보다는 미래 세대의 소득력의 전반적 추세이다. 자본-노동 비율이나 이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자본 흐름과 같은 변수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국가의 부는 결국 국민에게서, 즉 그들

30) 지난 수년 동안 노동력으로 유입된 최연소 연령층의 경우, 여성의 교육수준이 평균적으로 남성의 그것보다 높다. 40년 전에는 대학에서 여성의 겪는 불이익이 관심 거리였으나, 현재는 남성이 겪는 불이익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많은 흑인 남성들에게 있어 법적 문제에 휘말려 드는 것이 그들의 학업과 고소득 경력개발에 미치는 치명적 악영향과 사회적 타격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 재능, 기술, 사회에 성공적으로 통합되는 능력,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는 재능과 기술을 가진 새로운 세대를 생산해내는 능력에서 나온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새로운 세대를 생산하고 양육하는 데 있어서의 여성의 역할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린이의 불평등은 새로운 세대의 성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뒤쳐진 어린이가 하나도 없게 하자(No Child Left Behind)” 프로그램의 가장 우선적인 동기는 정상분포의 하위 꼬리 부분에 대한 심각한 우려였다. 무엇보다도, 잘 교육 받고 유복한 부모 아래 태어난 아이는 독립적인 생애를 구축하고자 애쓰는 과정에서 안내나 후원의 부족을 경험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반면, 불리한 환경의 아이들은 학교에서 중도 탈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이 탈락에서 오는 손실을 만회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만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해가 소요될 것이다). 사실상, 만약 청소년이 임신이나 수감생활 때문에 학교에서 중퇴당하면, 이들은 이로 인해 상실한 기회들을 영원히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법적인 문제에 얽힌 젊은 흑인남성에 대한 자료들은 그들 자신의 입장에서 뿐 아니라, 여성의 입장에서도 암울하기 그지 없다. 여성의 경우, 자녀를 낳아 기르기 위해서는 아버지-그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긍정적 역할 모델이자 성인이 되기까지 2-30년 동안 곁에서 지켜줄 장본인인-가 없이 자녀를 키우게 될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다음에 논의하게 될 자녀수의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여성의 노동력 참여나 혼인 행위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모름지기 여성의 모성적 특성이 어떻게 다음 세대의 근로자인 자녀의 사회적, 정서적, 인지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의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한편, 출생한 자녀의 수와 이들의 학교에서 일자리로의 성공적 이행은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대단히 난감한 정책적 문제이다. 이 문제는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 거의 모든 선진 산업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가장 시급한 정책 과제는 아마도 고령자들의 소득 지원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한국이나 일본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은 이들 국가의 출산력이 갈수록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는데 비해 기대수명은 놀랄 만한 정도로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더 심각하다.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인구학적 변화는 정부 기금 형태의 퇴직 및 고령연금에 대하여 재원 고갈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 원형적 중첩세대모델(prototypical overlapping generations model)은 일종의 정태 모델(a steady state model)-이 모델 하에서는 투자의 증가

속도가 일인당 자본 스톡을 유지할 만큼 신속하다(따라서 각 세대가 자본 스톡에 대한 금리를 지불하는 것으로써 부모 세대를 부양할 수 있어 일인당 소득의 유지가 가능하다)-을 창출한다. 그래프 등(Graf & Schattenber, 2006)는 최근 논문에서 출산율이 대체출산율에 못미칠 경우 연금제도가 갖는 시사점에 관해 논의했다.³¹⁾

수 세기 동안 감소해 온 미국의 출산율은 20 수준에서 안정화된 반면, 독일은 지난 수년간 여성 1명 당 1.4명의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출산율은 1.2명 정도이다. 출산율이 더 급격하게 낮아짐에 따라 연금제도의 이상징후는 더더욱 심각할 것이다. 미국의 인구 변화 과정(population process)을 살펴 볼 때, 이후 수세기 동안 미국의 경제 정책과 사회 정책에 가해져야 할 수정은 서유럽이나 한국과 일본 등 출생률(birth rates)이 극도로 낮은 국가가 겪어야 할 변화에 비하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미국은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인구 문제에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적응하는 지를 멀리서 관찰할 수 있는 여유를 갖고 있다.

물론 인구 이동(flows)은 출산력 감소로 인한 변화를 상쇄(또는 악화)시킬 수 있다. 서구 문화의 전형적인 자민족 중심주의로 인해, 우리는 흔히 미국이나 여타 제1세계 국가들로의 인구 유입에 초점을 맞춘다(중미에서 미국으로, 또는 동구에서 서구로의 인구 유입에 대해 혀를 차면서), 편한 대로 낙관적으로나 비관적으로 상황을 채색하여 전달하는 주류 언론은, 노동력 증가를 안정화함으로써 현행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³²⁾을 향상시키는 이민의 효과는 대체로 무시하면서 새로운 노동자의 출현으로 인한 경쟁³³⁾에만 초점을 둔다. 이러한 분석은 또한 인구이동이 모국에 미치는 영향도 편리하게 무시한다. 사실상 인구학적 붕괴 직전인 러시아와 같은 나라에서, 서구로의 인구 이동은 심각한 결과를 야기할 것이다. 경제와 제도의 자유화를 아직 경험하지 못하여

31) 가임기 이전 여성의 사망률을 고려하면 대체출산율은 여성 1인당 자녀 2.0명이 아니라 2.05명이 된다.

32) 기업이 미숙련 노동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고용정책을 채택한 후, 이로 인해 실업율이 높아지고 사회적 혼란이 심화된 유럽 국가도 있다.

33) 인구이동은, 재화 및 서비스 이동과 마찬가지로, 거래가능한 재화를 생산하는 부문에 활용되는 노동력에 똑같은 영향을 미친다. 최근들어 세계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것은 대륙간 텔레코뮤니케이션 비용의 급격한 절감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때문에 과거에 시장거래의 대상이 아니었던 재화와 서비스들 중 많은 부문이 거래 가능한 재화와 서비스로 바뀌어 경쟁의 논리에 더 많이 노출되기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반영한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대중매체는 원주민주의와 고립주의라는 주제 - 미국역사의 전 과정에 걸쳐 부침을 거듭해왔던 주제 - 로 회귀했다.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³⁴⁾에서는 인구유출(emigration)을 인구 증가 압력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체제에 환멸을 느낀 사람들의 자발적 대량 망명)을 막아주는 안전판으로 간주하고 있다.

간단히 말해, 우리는 장기적 관점의 도입 필요성을 제시하고, 여성 노동공급과 출산력 상의 최근 변화를 살펴보면, 이러한 변화가 자녀 양육의 과정과 어떤 관련을 갖는지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했다. 우리는 이 문제들은 다음에서 더 상세히 다룰 것이다.

나. 여성 노동력의 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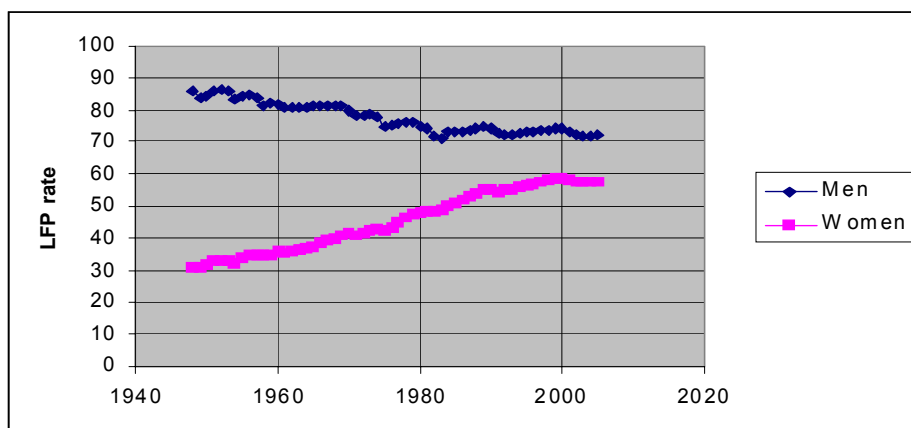
20세기 후반부의 여성 노동력의 공급은 미국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난 200년 간에 걸친 가장 크고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변화를 보여주었다. 세계 제2차대전³⁵⁾의 여파로 세계는 인구, 정치, 사회, 경제, 그리고 문화 면에서 대규모의 혼란을 겪었다. 2차대전이 이후의 급격한 변화(특히 여성의 경제적 지위와 노동시장에서의 위치 측면에서 발생한 변화)를 촉발하였다고 간주한다면, 전쟁이 유발한 이러한 변화가 전 인구와 경제에 속속들이 파급된 데는 반세기가 걸렸고, 노동시장이 안정된 상태에 근접하는 데는 그 후로도 3세대가 더 걸렸다.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을까? 여성을 새로운 균형으로 옮겨가게 한 것은 2차대전 이후에 발생한 몇 가지 변화들이었다. 첫 단계는, 말하자면, 한 발 후퇴였다. 전쟁 이전에, 미국 경제를 결정판 사건은 대공황(the Great Depression)이었다. 실업률은 25%에 달했고, 전쟁 발발 전날에도 여전히 15% 수준이었다. 유럽은 미국보다 훨씬 먼저 대공황을 극복했었다. 뉴딜(New Deal) 정책이 대공황에 대한 성공적인 경제적 대응책이었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전쟁과 동원만이 미국을 경기침체로부터 구해낸 것이었다. 종전이 또 다른 경기침체를 불러올 것이라는 두려움과, 소집해제로 인해 군인들이 집으로 돌아와 퇴역군인법(GI bill)에 의해 학교에 입학하거나 여성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가정으로 돌아간 후 남은 빈 일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널리 퍼져 있었다. 이런 우려를 표하던 사람들 중 하나이자 저명한 경제학자인 사

34) 20세기 후반 출산력 저하는, 비록 초기 수준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지만, 전세계적인 추세이다. 그래서 세계적 전반적 저출산 추세를 감안하여 '상대적으로'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다.

무엘슨은 종전 후에 경기침체가 다시 올 것이라는 대답하고 명확한(그러나 잘못된) 예측을 내놓은 것으로 유명하다. 전후 여성이 가정으로 복귀하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경기침체가 올 것이라는 우려에는 엘리트와 대중의 의견이 일치했다. 무엇보다도, 가구당 단 한 명만 직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대공황 기간 동안 압도적인 정서였다. 사실, 아내가 직장에 다니는 젊은 부부 중에는 이 규범을 공개적으로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결혼했다는 사실을 숨기기도 했다. 미국이 군인들을 소집해제하고 남성들이 집으로 떠서 돌아옴에 따라, 여성은 전시의 생산활동으로부터 가정으로 돌아와 남성을 위해 노동시장에 자리를 내 주어야 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전후 15년간, 전무후무한 정도로 출산력이 증가하고 결혼이 성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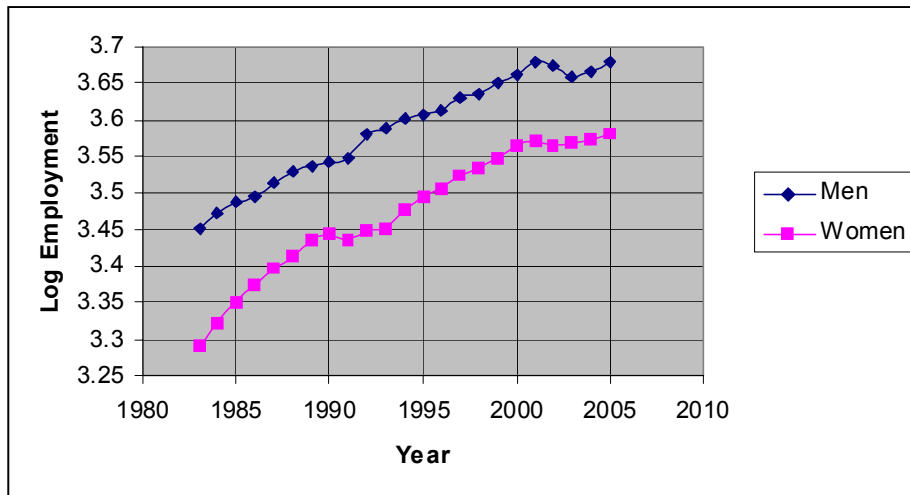
인구동태조사(Current Population Survey)가 시작된 것은 불과 1948년이므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전후 시기 여성의 노동시장 행동을 추적할 포괄적인 자료 소스는 존재하지 않는다. 노동시장에 진입한 여성에 대한 일화적 증거(의심할 바 없이 정확한)는 풍부하지만, 10년 주기로 행해지는 이 두 센서스 사이의 시기에 일어났던 일들을 계량화할 역량은 매우 제한적이다. 그러나 골딘(Claudia Goldin, 1991)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전쟁의 최고조기에 30% 정도에서 40%에 육박하도록 상승하였다가 종전과 함께 다시 원래대로 감소하였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증거를 발견하였다. 1948년에는 32% 정도의 여성이 노동시장에 있었으며, 이 비율은 1990년 말에 현재 수준으로 정착할 때까지 계속 증가하였다.



<그림 VI-1> 20세 이상 남녀의 노동시장 참여율, 1948~2005

<그림 VI-1>에서 보이는 것처럼, 전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의 성장 패턴은 몇 군데의 소폭 돌출을 제외하면 놀랄 정도로 단조롭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남성의 참여율은 더 비정규적이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남성 참여율이 2001년에서 2003년 사이의 경기둔화 시기에 크게 상승하면서, 여성과 남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사이의 격차가 좁아지는 현상은 1990년대 후반에 종료되었다. 남성 노동시장 참여율의 변화 폭에 근거하여 볼 때, 이러한 패턴은 남성의 고용이 경기변동과 함께 등락한다는 점에서 남성이 '부차적' 노동자에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암시한다.

전후에 발생한 사건 중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영향을 미칠 만한 더 주목할 만한 현상의 하나는 1960년대 초반에 경구 피임약이 등장한 것이다. <그림 VI-2>에서 볼 수 있듯이, 1960년대에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변화가 발생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것은 크게 놀랄 일은 아니다. 우선, 더 효과적인 피임도구는 출산을 전반적으로 감소시키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하지 않는 출산이나 시기가 부적절한 출산은 줄일 것이다. 물론 출산결정의 효과는 일생에 걸쳐서 천천히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경구 피임약이나 질내삽입 피임도구 등 이후에 발전한 피임법의 도입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새로운 피임기술과 여성의 사회적 역할, 즉 여성해방에 대한 사회적 규범의 변화는 젊은 여성이 다양한 경력 경로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 1960년대 후반에 이렀을 때, 대졸 여성은 교육, 간호, 사회복지, 또는 숙련 비서나 사무직 경력을 쌓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1983년에서 2005년 사이에, 전문직 및 기술 서비스 산업에서 남성의 성장률은 68%였지만 여성의 비율은 거의 2배로 증가하였다(<그림 VI-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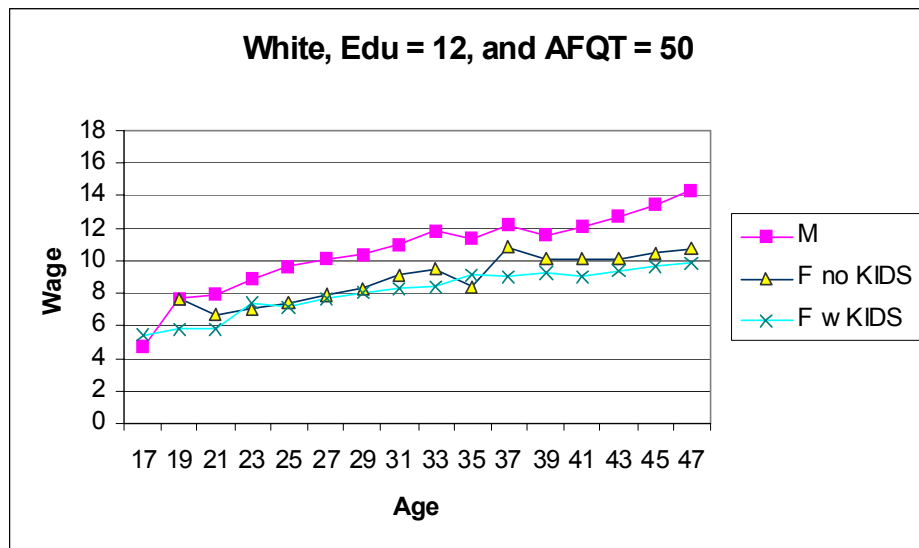
<그림 VI-2> 전문직 및 기술 서비스 종사인력 로그값, 1983~2005

이 자료는 연령을 불문한 자료이기 때문에, 여성의 성장 폭이 더욱 더 두드러지게 보인다. 구세대 여성들은 전문직 및 기술 서비스직에서 일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사실은 곧 이 부문에서의 여성의 고용 증가가 젊은 여성에게서 더 두드러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이 부문에서의 남녀간의 격차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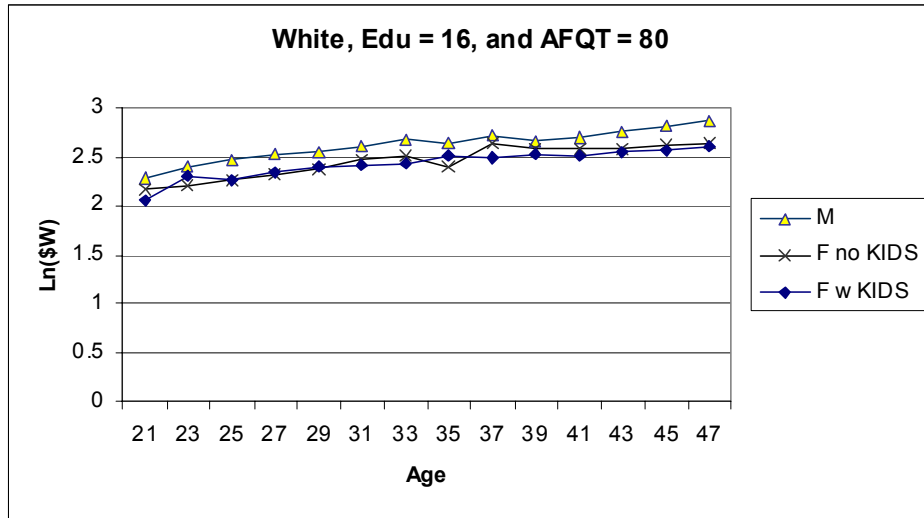
June O'Neil은 여성 대 남성의 임금 비교 연구에서 2차대전 이후에 출생한 코호트에 속하면서 아이를 출산한 적이 없는 여성이 받는 임금은 아이가 있는 여성보다 남성의 임금에 더 근접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시장 노동 지향적인 삶을 살아온 여성은 임금 문제에 있어서는 덜 차별 받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 효과는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성과 남성 간의 임금격차가 좁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자녀가 있는 여성의 소득력은 자녀가 없는 여성의 소득력을 매우 밀접하게 뒤따르고 있다. <그림 VI-3>은 1957년에서 1964년 사이 출생자의 임금 변화를 비교하여 보여준다. 청년전국종단조사97(National Longitudinal Surveys of Youth 1979: NLSY79)로부터 구한 이 자료는 진정한 코호트 자료이며, 따라서 동일한 사람의 생애를 매년 추적한 것이다. NLSY79의 경우, 응답자는 1957년에서 1964년 사이에 출생했고, 이들을 1979년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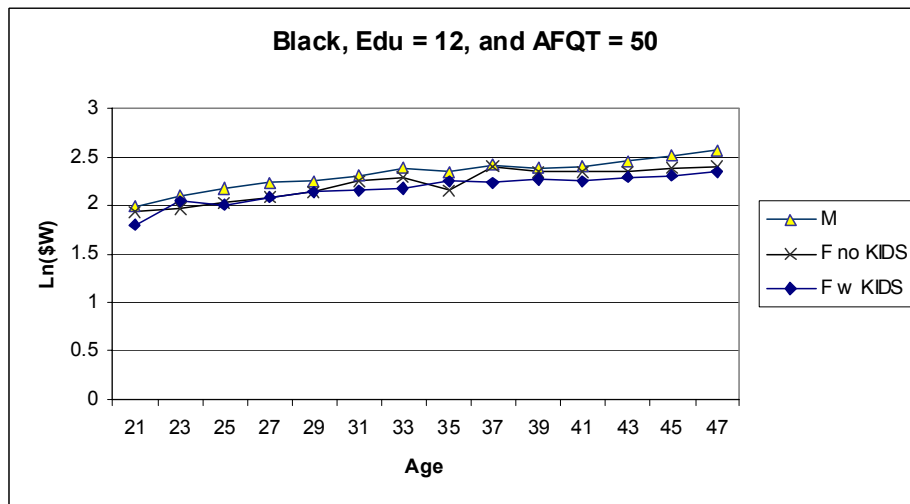
1994년까지는 매년, 그 후로는 2년마다 면접조사하였다. 이들은 피임법이 일반화되고, ‘여성이 있을 곳은 가정’이라는 사회적 규범이 과거에 비하여 상당히 평등한 방향으로 변화했으며, 이혼율이 증가하는 시절에 키워졌다. 이러한 경향은 여성이 경력개발을 위한 계획을 갖는 것을 용인하고 바람직하다고 간주하도록 만들었다. 여기서 우리가 이혼율의 증가를 언급한 것은, 결혼이 덜 안정적일수록 아이가 있는 여성의 경우 경제적 자립을 추구할 가능성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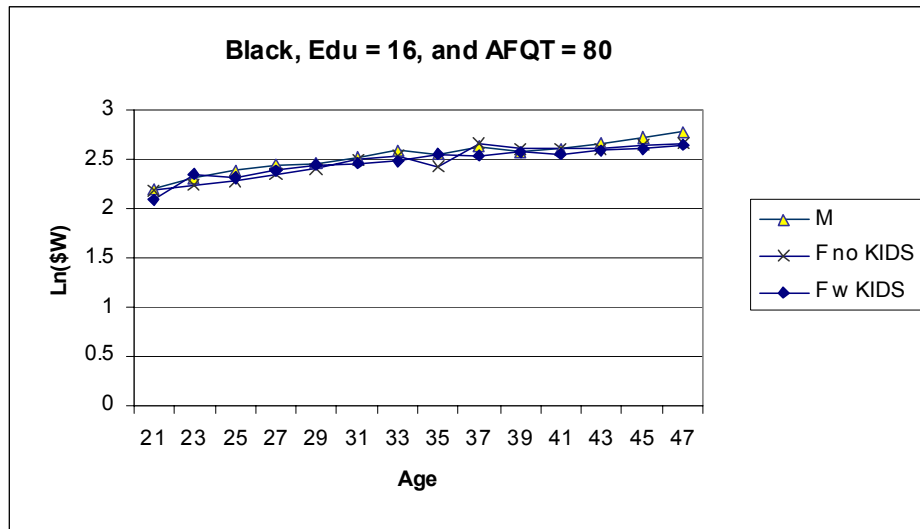
<그림 VI-3> 남성, 출산 경험이 없는 여성, 자녀가 있는 여성의 임금 변화 비교(백인, 고졸자, 군입대자격시험(AFQT) 50점(100점 만점))



<그림 VI-4> 남성, 출산경험이 없는 여성, 자녀가 있는 여성의 임금 변화 비교. 백인, 대졸자, AFQT 80점



<그림 VI-5> 남성, 출산경험이 없는 여성, 자녀가 있는 여성의 임금 변화 비교(흑인, 고졸자, AFQT 5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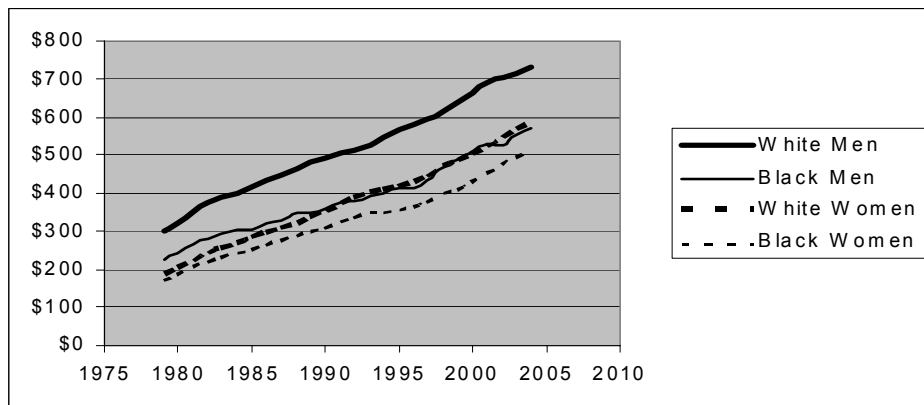
<그림 VI-6> 남성, 출산경험이 없는 여성, 자녀가 있는 여성의 임금 변화 비교(흑인, 대졸자, AFQT 80점)

고졸 학력과 평균적 능력을 갖춘 백인의 경우, 1957~1964 코호트의 임금 변화는 여성과 남성 간 격차가 점진적으로 더 커지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출산 경험이 없는 여성은 47세가 되면 아이가 있는 여성보다 8% 더 높은 임금을 받는 한편, 남성에 비하면 34% 적은 임금을 받았다. 학력과 능력이 더 높다면 여성이고 아이가 있기 때문에 겪는 불이익이 감소한다. 노동시장에 지속적으로 남아있던 남성은 47세가 되면 27년 정도의 경력을 쌓게 된다. 18세에서 40세까지 여성들의 근로시간은 남성의 80% 수준에 그친다. 47세까지 일한다고 하면, 여성은 남성보다 5년 가량 경력이 부족하게 될 것이다. 경력에 대한 수익률(return to experience)이 평균 3% 정도라면, 이것이 남성 대 여성의 소득 차이의 상당 부분을 설명할 것이다. 물론, 일하는 여성은 일하는 남성에 비해 더 적은 시간을 일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관찰되는 임금격차를 경력연수나 근로시간으로만 전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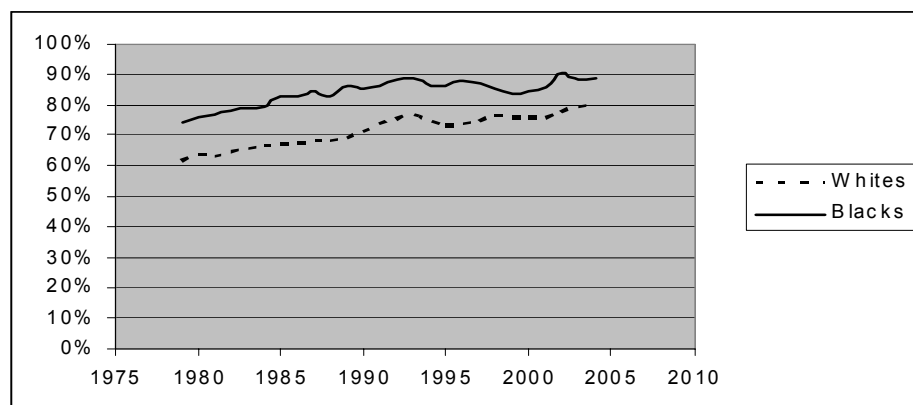
백인 대졸자의 경우, 47세까지의 근로경력의 차이는 3년 내외가 될 것이고, 따라서 남녀간 임금격차(출산경험이 없는 여성의 경우)는 약 8%포인트 만큼 더 줄어들 것이다. 이는 3~4% 범위 내에서의 근로경력 효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흑인의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평균적 능력을 가졌지만 교육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무출산경험 여성은 남성보다는 20% 적은 임금을, 아이가 있는 여성보다는 6% 더 많은 임금을 받는다. 대학을 졸업하고 평균 이상의 능력을 갖춘 흑인 중에서는 이 두 가지 유형의 격차가 각각 13%와 2%로 줄어든다. 이것은 흑인 여성이 흑인 남성 대비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다는 사실에 의해 설명된다.

<그림 VI-7>은 1979년 이래 전일제로 일해 온 남성과 여성의 주간 중위소득을 현재의 달러 가치로 보여준다. 격차가 줄어드는 것이 분명하게 보인다. <그림 VI-8>은 동일한 격차를 백분율로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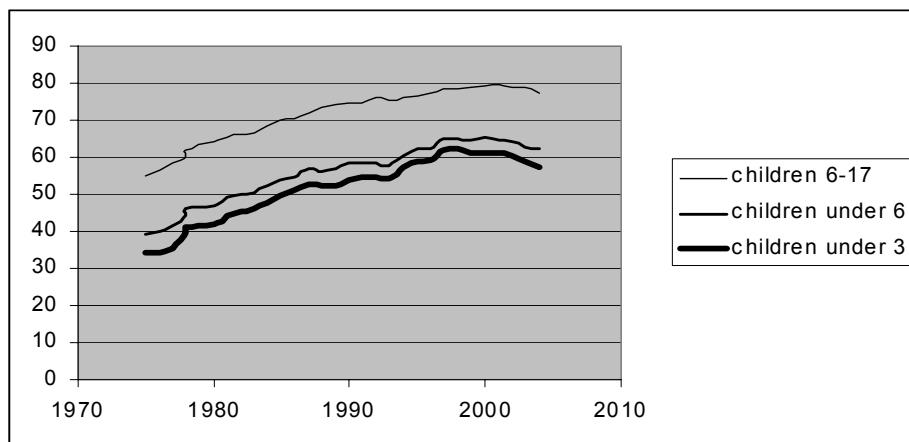
<그림 VI-7> 전일제 근로자의 주간 중위소득



<그림 VI-8> 인종별 전일제 남성 수입에 대한 여성 수입의 비율

20세기 초에 태어난 여성의 경우, 아이가 있고 없음에 따라 임금 격차가 넓게 벌어 지는데 반하여, 1957년에서 1964년 사이에 출생한 여성 중 아이가 없는 여성이 갖는 비교우위는 낮은 편이다. 사회적 규범이 변함에 따라 여성의 교육훈련이 더 노동시장 근로 지향으로 변모하고, 여성, 특히 아이가 있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증가가 노동시장에 대한 애착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으로 반영되면서, 여성은 점점 더 일 관성 있게 전 생애과정에 걸쳐 노동시장을 떠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여성은 더 이상 첫 아이가 태어남과 함께 직장을 떠났다가 막내가 중등학교나 대학에 들어갈 때 노동시장에 재진입하지 않는다.

<그림 VI-9>는 자녀 연령 별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의 1979년 이래 동향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도 동일한 경향이 뚜렷하게 보인다. 자녀의 연령이 높은 여성 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증가했다. 물론, 자녀가 어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낮은 수준에서 시작하고, 따라서 노동시장 참여율의 상승폭이 더 가파르다.



<그림 VI-9> 자녀 연령에 따른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여기서 요점은 자녀양육 때문에 생기는 경력 단절에 대해 여성과 노동시장이 적응해가는 것 처럼 보인다는 사실이다. 아이를 가진 여성은 아이가 없는 여성이 받는 것과 유사한 수준의 보상을 받고 있으며, NLSY79를 통해서 여성임금의 변화를 추적했

던 햇수로 판단해 보건대 아이가 있는 여성의 노동시장 애착은 아이가 없는 여성의 그것 만큼 강하다. 노동시간 상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는 새로운 균형에 다가가는 것처럼 보인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게 되면서, 2차대전 이후의 전반적 상승세는 종말을 고한 것처럼 보인다. 가정과 가족 지향적이어서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었던 구세대 여성은 이미 노동시장에서 퇴장하였고, 젊은 세대는 중등학교 입학에서 대학졸업 사이에 경력 기대가 완전히 역전된 문화적 환경에서 태어난 베이비 붐 세대 여성들과 거의 동일한 노동시장 애착을 보이고 있다.

여성은 여전히 아이를 가지면 노동시장을 떠나는 경향을 보이지만, 3세 미만의 아이를 가진 여성의 60% 정도는 지속적으로 일한다. 이는 1975년의 수치에 두 배까지는 미치지 못하지만 1948년보다는 6배가 넘는 비율이다. 여성의 출산력(다음 절의 주제)은 더 저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있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더 이상 증가하기를 멈춘 것으로 보인다. 어린 아이를 가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 수준을 유지하게 된 것은 아동 발달에 유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는 것일 것이며, 이 주제는 이 논문의 3절에서 다룰 것이다. NLSY79의 여성 응답자들의 취업 기간을 살펴보면, 아이가 있는 여성과 아이를 가진 적이 없는 여성의 취업 기간이 거의 같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남성의 취업기간은 여성에 비해 6% 더 길었다. 아이가 없다는 점은 노동시장에 대한 더 강한 애착을 더 이상 설명하지 못한다.

세계대전이나 여성의 역할에 관한 사회적 규범의 역전 등과 같은 예기치 못한 충격이 사회에 또다시 가해 지지 않는 한, 이상과 같은 급격한 변화가 다시 있으리라고 예상하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그동안 비서구 사회가 서구의 문화적 규범들을 계속해서 받아들여왔다는 것을 감안하면, 미국 노동시장에서 발생한 이러한 느린 속도의 변화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여타 전통사회로 전파될 가능성이 더 높다.

다. 여성의 출산력

노동시장 참여와 마찬가지로, 20세기 전반에 걸쳐 미국 여성의 출산력도 큰 변화를 겪었다. 미국으로의 이민, 즉 미국 밖에서 태어난 인구의 유입이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출산력이 노동력의 장기적 변화를 야기하였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민에 관한 논의

는 이 논문의 주제로부터 상당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양한 국적을 가진 숙련·미숙련 이민노동자에게 시기에 따라 다양한 정도로 혜택을 주는 복잡한 법적·정치적 제약요인의 영향 하에 이민이 발생하였다는 점만 간단히 언급할 것이다. 최근에는, 불법 이민자로 인해 이민자의 수가 엄청나게 증가하였다. 이는 미국에서 “비교역 재화”의 생산³⁵⁾에 고용되는 미숙련 노동력이 해외로부터의 경쟁에 과거보다 더 크게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미국 내에서 생산되고 활용되었기 때문에 ‘비교역 재화’였던 제품과 서비스가, 텔레코뮤니케이션 비용이 전 세계적으로 낮아지고, 전 세계를 연결하는 웹이 등장하면서 기업이 광대역 인터넷 연결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노동자를 연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제는 ‘교역 재화’로 바뀌게 되었다. 이러한 정보화의 힘들은 대중매체의 단골 메뉴가 되었지만,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과 남성의 노동시장 참여 및 유자녀 여성의 노동시장 유입에 있어서의 주요 변화는 미국 노동시장을 이민 노동력에게 개방하고 미숙련 사업 서비스직을 아웃소싱하기 훨씬 이전에 발생하였다.

35) 비교역 재화란 수입될수도 없고 수출될 수도 없어, 국제무역에 의해 해당 재화에 대한 균형가격이 형성되지 않는 재화를 말한다.

<표 VI-2> 미국 여성의 출생 코호트별 연령별 출산력

Birth Cohort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1866-70						3.99	4.00
1871-75					3.69	3.76	3.77
1876-80				3.10	3.43	3.52	3.53
1881-85			2.33	2.90	3.23	3.32	3.32
1886-90		1.48	2.25	2.79	3.07	3.13	3.14
1891-95	0.62	1.47	2.20	2.66	2.88	2.93	2.93
1896-1900	0.60	1.45	2.08	2.45	2.63	2.67	2.68
1901-05	0.62	1.37	1.91	2.23	2.40	2.44	2.44
1906-10	0.58	1.21	1.70	2.06	2.25	2.28	2.29
1911-15	0.51	1.13	1.71	2.12	2.31	2.35	2.35
1916-20	0.50	1.24	1.91	2.33	2.53	2.57	2.57
1921-25	0.57	1.44	2.18	2.64	2.83	2.86	2.86
1926-30	0.69	1.70	2.49	2.92	3.06	3.08	3.08
1931-35	0.85	2.01	2.78	3.10	3.19	3.20	3.20
1936-40	0.96	2.07	2.65	2.88	2.94	2.95	2.95
1941-45	0.88	1.73	2.21	2.40	2.46	2.47	2.47
1946-50	0.68	1.37	1.81	2.04	2.11	2.13	2.13
1951-55	0.56	1.14	1.61	1.88	1.98	2.01	2.02
1956-60	0.50	1.08	1.57	1.87	1.95	1.97	
1961-65	0.48	1.05	1.57	1.88	1.99		
1966-70	0.48	1.06	1.58	1.90			
1971-75	0.53	1.08	1.59				
1976-80	0.53	1.08					

미국의 출산력의 변화를 더 큰 맥락 안에서 살펴보려면 장기적 관점을 가져야 한다. <표 VI-2>은 여성의 출생 코호트에 따른 실제 출산율을 보여준다. 각 행(row)은 5년 주기로 구분한 여성의 출생 코호트에 대한 실제 출산율을 보여주며, 열(column)은 해당 연령대에 달한 코호트의 실제 출산율을 보여준다. 각 행의 마지막 셀은 각 코호트에 속하는 50대 초반의 여성들의 실제 출산율 혹은, 2005년을 기준으로 한³⁶⁾ 실제

36) 각 출생 코호트 중에서 50~54세 열에 해당하는 케이스는 해당 코호트에 속하는 여성들의 총 출산율이 된다. 왜냐하면 이 연령 대 이후의 출산은 무시해도 좋을 만큼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1966년 이후에 출생한 여성 코호트에 대해서는 최종 출산율을 제시하기가 아직 이른다. 이들 각 행의 마지막 숫자는 2000년 기준으로 이들 코호트 각각에 대한 실제 출산율 자료를 업데이트하는데 사용된 연령별(age-specific) 출산율에 근거를 두고 산출된 것이다. 이 표에

출산율을 나타낸다.

다른 자료에 의하면, 1950년대 초반에 출생한 여성 코호트에서는 8회차 이상의 출산이 이 코호트 총 출산의 0.5%도 안되는 반면 1891년에서 1895년 사이에 출생한 여성 코호트에서는 8회차 이상의 출산이 이 연령대의 여성이 출산한 아이들의 거의 75%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5번째에서 7번째 아이의 출산으로 인해 발생한 이들 두 코호트 간의 출산율 격차는 8번째 이상의 자녀출산의 경우 발생하는 격차만큼 크지는 않지만, 반세기 이상에 걸친 출산율 저하가 대규모 가족의 감소에 기인한다는 것은 여전히 사실이다. 다자녀 가족의 감소는 한 세기에 걸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증가와 부합한다. 이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다자녀 가족의 부모는 가정내 “생산”을 위해 상당한 정도의 감독, 조직화 노력, 시간 등을 쏟아야 하기 때문이다.

<표 VI-2>이 출산의 시기에 있어서 두드러진 패턴을 보인다는 점에 주목할 만 하다. 1911년에서 1920년 사이에 태어난 여성 코호트 중 20세에서 24세 사이의 연령층의 실제 출산율은 1936년에서 1940년 사이에 태어난 여성이 동일한 연령대에 달했을 때의 실제 출산율의 절반에 불과하다. 그러나 1976년에서 1980년 사이에 출생한 여성 코호트의 20세~24세 출산율은 1911~1920년 출생 코호트가 동일한 연령대였을 때의 수치로 되돌아간다. 이들 코호트의 완료 출산율(이 코호트들 중 최연소 그룹은 아직 재생산 능력이 있다)은 일반적으로 동일한 방향으로 변화하지만, 변화의 양이 동일한 것은 거의 아니다. 20세기 초반 출산율은 생애주기의 초반에 백분율 단위로 변화하였지만 지금은 그 방향이 역전된 것으로 보인다. 생애 주기 초반에 출산율의 변화는 베이비붐 세대의 공식 출산율이 왜 3.5를 넘어서는지-<표 VI-21>에서 보듯이 1900년 이후 출생 코호트에서는 그같이 높은 출산율을 기록한 경우가 한번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를 설명해준다. 즉 총 출산율은 합성 코호트(synthetic cohorts) 자료를 사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특정 코호트의 여성들은 현재 20세인 여성의 출산율과 동일한 출산율로 아이를 낳고 이 동일한 여성들이 30세가 되면 현재 30세인 여성들과 동일한 출산율로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특정 연도의 연령별 출산율을 이용하여 총출산율을 추정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연령별 출산율이 상

나오는 수치들 중 일부는 추산치나 다른 자료에 근거한 예상치이다.

수(constant)라면 총 출산율이 훌륭한 추정치가 되겠지만, 주지하는 바와 같이 출산율은 상수가 아니라는 점이 문제이다. 출산율이 생애주기 초반에 변화하면 합성 코호트 방법은 출산율을 과대평가하게 될 것이며, 반면 생애주기 후반에 출산율이 달라지면 합성 코호트 방법은 출산율을 과소평가하게 될 것이다. 베이비 붐은 1920년대와 1930년대에 태어난 고 출산율 여성들로 하여금 높은 출산율로 옮겨가도록 만들었다.

여성이 정규 직장에서의 경력에 대비하게 되면서, 출산은 여성의 생애주기에서 뒤로 밀려나게 되었지만, 25세에서 29세 사이의 출산이 한 코호트의 출산의 반을 차지하는 특성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출산은 지연되고 다자녀 대규모 가족은 점점 더 줄어들었다. 이 두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덕분에 여성들은 교육을 받고, 경력을 쌓고, 출산을 전후하여 잠시 노동시장에서 물러났다가 다시 되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 여성이 40대에 이르면, 같은 연배의 남성들보다 경력에 있어서는 3년에서 5년 뒤처지지만, 여전히 직장과 관련하여 다양한 선택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미국에서 출산력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유럽, 러시아, 한국, 일본이나 대만에서 관찰되는 바와같은 출산율 붕괴의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노동력의 규모에 대한 시사점 뿐만 아니라 고령자 사회보장 제도와 같은 사회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시사점 때문에도 중요하게 주목해야 한다.

<표 VI-3> 연령에 따른 출산율

Age-Specific Fertility Rates									
Year	10~14	15~17	18~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1995	1.3	35.5	87.7	107.5	108.8	81.1	34.0	6.6	0.3
1996	1.2	33.3	84.7	107.8	108.6	82.1	34.9	6.8	0.3
1997	1.1	31.4	82.1	107.3	108.3	83.0	35.7	7.1	0.4
1998	1.0	29.9	80.9	108.4	110.2	85.2	36.9	7.4	0.4
1999	0.9	28.2	79.1	107.9	111.2	87.1	37.8	7.4	0.4
2000	0.9	26.9	78.1	109.7	113.5	91.2	39.7	8.0	0.5
2001	0.8	24.7	76.1	106.2	113.4	91.9	40.6	8.1	0.5
2002	0.7	23.2	72.8	103.6	113.6	91.5	41.4	8.3	0.5
2003	0.6	22.4	70.7	102.6	115.6	95.1	43.8	8.7	0.5
2004	0.7	22.1	70.0	101.8	115.5	95.5	45.4	9.0	0.6
2005	0.6	22.0	69.2	101.2	115.6	96.0	47.0	9.2	0.6

<표 VI-3>을 보면 최근 수년간 사실상 저연령대에서는 출산율이 낮아지고 고연령대에서는 출산율이 높아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독신모에 대한 획일적 급여로서의 현금 지급을 폐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복지제도 개혁이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어, 처음에는 다수의 주에서 단계적으로 시행되다가 1996년에 국가 정책으로 확립되었다. <표 VI-3>은 이러한 급여의 폐지가 저연령 여성의 출산을 감소시키고, 경력이 더 안정화되는 이후 연령대까지 출산이 연기되는데 기여하였다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복지제도 개혁을 추동한 목시적 동기는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의존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부양할 능력이 안되거나 자녀세대로 하여금 복지수혜 대상에서 벗어나도록 해줄 자원을 제공해줄 수 없는 저연령 여성의 출산이 장려되는 결과가 초래될 경우 발생하는 ‘빈곤의 순환(cycle of poverty)’을 단절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 논문의 마지막 절은 아동발달에서 어머니가 갖는 역할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청소년기의 출산이 자녀에게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친다는 공감대에 기반하여 저연령기의 저출산 추세를 부추기는 사회적 분위기를 이해하기 위한 절이 될 것이다.

이 절에서 살펴본 내용은 앞 절에서 다룬 노동시장 참여 패턴의 다른 측면이다.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은 출산 및 육아로부터의 퇴장을 반영하고, 여성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자녀양육의 시점이 조정되었다. 성에 따른 학업 성취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다. 1971년에는 25세에서 29세 사이 남성 20.4%와 여성 13.8%가 대졸이었다. 2004년에 이르면, 이 비율은 각각 26.1%와 31.4%로 변화한다. 여성의 교육기회 확충과 노동시장으로의 지속적 유입의 놀라운 증가는 10대와 20대 초기 여성의 출산력 저하라는 ‘비용’(expense)을 치르고 얻어진 성과이다. 이러한 세 가지 광범위한 전반적 추세들이 함께 작용하여, 2차대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여성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가능할 수 있었다. 많은 문화권에서는 아직도 남성이 상대적으로 교육도 덜 받고 소득력도 낮은 여성과 ‘낮추어 결혼(marry down)’하는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점도 사실이다. 성별 대졸자 교육통계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문화적 규범이 사라지거나, 여성이 ‘하향 결혼’을 해야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결혼을 자체가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세 가지 현상이 모두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결혼시장에서의 매칭 문제에 대한 고려는 훗날의 연구를 위해 남겨두어야 할 것이다.

라. 여성의 교육과 아동 발달

여기까지는 여성이 노동시장 지향으로 변화함에 따른 노동시장 참여, 출산력, 그리고 여성의 교육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았다. 사회에서의 여성의 역할은 근로나 출산에만 그치지 않는다. 노동시장이 육체적 힘보다 기술의 가치에 더 의존하게 되고, 화이트 칼라나 핑크 칼라 직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블루 칼라 직업의 임금이 감소함에 따라, 교육이 더욱 더 중요해진다.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때 대학 교육을 강조하였듯이, 양질의 초중등 교육은 대학에 들어가고 대학에서 성공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되었다. 이 절에서는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기대에 대한 또 하나의 주요 주제인 아동 발달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과 관련하여, 부모는 엄마의 취업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우려하게 된다. 육아 대신 일하는 데 시간을 쓰는 일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되는 한편으로, 노동시장에서 더 큰 역할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성이 교육에 더 큰 투자를 하게 된다는 점도 중요하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받는 교육은 앞으로 살펴보게 되는 바와 같이 아동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 문제를 살펴보기 위한 자료의 원천은 NLSY79의 부가조사 형식으로 실시되었던 NLSY79 자녀조사(the Children of the NLSY79) 자료이다. 이 자료는 NLSY79에 참여한 여성의 생물학적 자녀들을 대상으로 아동발달 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4세에서 14세 어린이의 인지능력 및 그 발달과정을 검사하는 표준설문지를 정기적으로 배포하였다. 4세에서 14세라는 연령대는 아동의 교육발달 과정에서 핵심적 연령대이다. 14세가 되면 대부분의 아동들은 대학을 갈 수 있는 부류와 그렇지 못한 부류로 나뉘게 되고, 그 중 일부는 낙제의 길에 들어서게 되어 학교를 조기에 떠남으로써 발생하는 온갖 부정적 결과들을 함께 감수하게 된다.

아동 발달에서 어머니의 중요성을 이해하려면, 어머니와 아이 모두에 대한 변수들을 신중하게 측정할 필요가 있으며, NLSY의 자료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키는 유일한 자료이다. NLSY는 1979년 이후로 어머니들을 추적해왔으므로, 어머니와 가족 단위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확보하고 있다. 여기에는 1980년에 대부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행한 인지력 검사 설문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어머니의 행동과 속성이 아동 발달의 많은 부분을 설명하므로, 아동의 교육 성과를 연구

하면서 어머니 관련 변수들을 피상적으로만 취급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뒤에 첨부한 <표 VI-4>에서 <표 VI-7>은 이 요점을 간략하게 설명한다. <표 VI-4>은 변수의 정의에 관한 것이다. <표 VI-5>는 4세 아동의 기억력 테스트 점수(Digit Span Memory Test)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이 기억력 테스트는 여타 테스트에 비해 인종효과가 적고 가정내 어휘구사 보다는 기억력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좋은 “능력”테스트로 간주될 수 있다. 회귀분석 결과는 어머니의 특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모든 회귀분석 결과는 표준 선형 회귀분석 절차인 일반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s)를 사용한 것이다. <표 VI-6>은 주로 4세 전후에 실시되는 조기 어휘력 테스트(Peabody Picture Vocabulary Test, PPVT) 점수의 결정요인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PPVT점수는 0에서 100점 까지 백분위수로 측정된다. 어머니의 입대자격시험(Armed Forces Qualifications Text, AFQT)의 어휘력 점수가 5퍼센트 포인트 증가할 때마다 그 자녀의 PPVT 점수는 1점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어휘력은 자녀의 기억력테스트 점수에도 다소 약하지만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교육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어머니의 1년 교육과 AFQT 직무능력 10점은 아동의 PPVT 점수에 미치는 미치는 상대적 효과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10,000의 가계 소득(1999 달러 기준)과 같은 가치가 있다. <표 VI-7>은 아동의 독해력 점수(PIAT Reading Comprehension)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보여준다(6세경에 실시되는 최초 테스트점수와 연간 점수변동 및 14세 경에 치러지는 마지막 테스트 점수에 대해 각각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함). 취학 이전에 기억력 점수와 PPVT 점수가 좋았던 어린이가 학교에 들어간 후(취학의 효과는 크고도 심각함)에도 좋은 점수를 받는다는 사실은 전혀 놀랍지 않다. 더구나 아동의 PPVT 점수와 어머니의 어휘력 점수는 독해력 점수의 연간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4세 때의 유리한 점들은 1학년 때의 순위 상승으로 이어질 뿐 아니라, 그 유리한 효과는 14세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커진다. 초기 아동기에 어머니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어린이가 중등학교로 진학한 뒤에도 계속 중요하리라는 것은 당연하고 하겠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자들이 NLSY를 검토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알려진 바 있다. 최근, 어린이 비만을 조사하기 위해 이 자료를 이용한 연구자들은 임신 전의 모체 비만

이 어린이 비만의 전조가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모계 효과(maternal effects)를 다른 변수와 혼동하는 일을 피하려면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어린이 연구를 설계해야 한다는 점이 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일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추정 모델을 통하여 우리는 모친의 출산시 연령, 모친의 교육정도, 모친의 능력 등이 아이의 교육성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엄마가 교육에 투자하는 시간은 두 번에 걸쳐 소기의 효과를 발휘한다. 한번은 노동시장에서이고 다른 한번은 가정에서이다. 뒤에 제시된 회귀분석 결과는 아이가 어릴 때는 엄마가 집에 있어야 한다는 전통적 ‘삶의 지혜(folk wisdom)’를 수량화하여 보여준다. 아동기의 인지력은 어머니의 속성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아동기의 인지력은 다시 아동이 학교에 들어갔을 때의 순위 및 동년배와 비교한 상대적 순위 상승 속도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어머니가 직장 생활로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아동의 학업 성취가 감소하는 반면, 취업으로 인한 소득 증가는 아동의 학업성취를 증대시킬 것이다. 고소득 모친의 경우 소득증가로 인한 학업성취 증대 효과는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주는 학업성취 증대 효과보다 더 클 것이다. 그 이유는 아마도 소득이 높으면 더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충분한 교육을 받고 노동시장에서 활발하게 일하는 여성은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할 수 있다. 교육은 여성에게, 아무리 남성보다 근로 경력이나 근로시간이 짧다고 하더라도, 경력으로 통하는 문을 열어준다. 자녀 수는 적겠지만 자녀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에 더 나은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런 여성의 아이들은 초·중·고등학교에서 유리하다. 이것은 이 아이들이 훌륭한 교육을 받고 노동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큰 이점이 된다.

물론 이면에는 불평등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표 VI-7>은 사립학교의 효과가 거의 무시할 만한 수준인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의 특성(school attributes)이 아이의 학습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다른 연구 결과와 질적으로 유사하다. 어머니의 영향이 너무 커서 학교 특성의 효과는 실질적으로 미약하기 때문에, 교육수준이 낮고 성취도가 낮은 어머니를 둔 것으로 인한 불이익을 극복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사회-인구학적 지위 척도의 하단에 위치한 사람들은 이러한 불이익을 안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고 살아갈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 아무도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여성의 교육과 역할에서의 변

화는 유리한 배경을 가진 사람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하며,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잡을 만한 정책으로서 정치적으로 수용될 수 있을 만한 것을 상상하기는 쉽지 않다.

<표 VI-4> NLSW의 변수정의

변 수	정 의
출산시 어머니 연령	아이 출산시 어머니의 연령. 출산 지연은 아이에게는 이점으로 작용(inure to the advantage to the child)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코호트의 여성은 40세 이후의 출산이 갖는 높은 위험에 직면해야 할 만큼 나이가 많지는 않다.
흑인	0이나 1의 값을 가지며 0인 경우 어머니가 흑인이다. NLSY79에서 흑인 히스패닉은 흑인이 아니라 히스패닉으로 간주된다.
히스패닉	0이나 1의 값을 가지며 0인 경우 자신이 히스패닉이라고 응답한 사람을 가리킨다.
어머니 HGC	1986년 현재 어머니가 완료한 최고 학년(highest grade)
성	1이나 2의 값을 가지며 2인 경우 여자 아이를 가리킨다.
출생순서	한 어머니의 다른 형제자매와의 관계에서 본 아이의 출생순서. 아이가 적어도 한 동안은 다른 아이와 함께 어머니의 관심을 나누어 가지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첫 아이가 이점(advantage)을 갖는 것으로 예상된다.
AFQT-AR	Armed Forces Qualifying Test 점수에서 수리능력 요소(arithmetic reasoning component). 0에서 100까지의 percentile points로 표현된다.
ARQT-WK	Armed Forces Qualifying Test 점수에서 어휘지식 요소. 0에서 100까지의 percentile points로 표현된다.
AFQT-PC	Armed Forces Qualifying Test 점수에서 문단 독해 요소. 0에서 100까지의 percentile points로 표현된다.
AFQT-NO	Armed Forces Qualifying Test 점수에서 숫자 운용 요소(numerical operations compoment). 0에서 100까지의 percentile points로 표현된다.
수입	1만불 단위에서 본 순 가계수입의 총액
어머니 근무시간	주당 35시간 근무의 fraction으로 표현된, 일정 기간 동안 어머니의 평균 근무시간
아버지 부재	일정한 기간 동안 아버지가 어린이가 거주하는 가구(child's household)에 있지 않은 경우에 대한 등가를 갖는 더미 변수(dummy variable equaling one)
장애	학교나 숙제에 대하여 집중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어린이의 물리적, 정신적 상태를 가리키는 더미 변수
아버지 존재	일정한 기간에 걸쳐 아버지가 가정에 존재하지 않았던 해수의 퍼센트(percent of years)로 0에서 1까지의 값을 갖는다.
학교	일정한 기간에 걸쳐 어린이가 학교에서 보낸 해수의 퍼센트(percent of years)
사립학교	일정한 기간에 걸쳐 아이가 (종교적이거나 다른 유형의) 사립학교에서 보낸 해수의 퍼센트(percent of years). 이 변수는 '학교' 변수에 추가하여, 학교에서 보낸 총 시간과, 사립학교에서 보낸 시간에 대하여 측정되는 영향을 보여준다.
가정척도 (Home Scale)	깔끔함이나 읽을거리의 존재 등의 요인에 대한 가정환경을 측정하는 percentile scale로 0에서 100까지의 값을 갖는다.

<표 VI-5> 아동의 기억력 테스트 점수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변 수			
상수	28.39(5.96)	24.46(5.04)	49.28(28.81)
출산시 어머니 연령	-0.16(-0.87)	-0.10(-0.53)	
흑인	1.45(1.04)	2.86(2.01)	-2.94(2.81)
히스패닉	-3.42(-2.52)	-2.79(-2.03)	-8.28(7.15)
어머니 HGC	1.02(3.25)	0.80(2.52)	
성	2.27(2.34)	2.17(2.22)	2.32(2.58)
출생순위	0.01(0.02)	0.44(0.76)	-1.33(2.91)
AFQT-AR	0.01(0.19)	0.02(0.69)	
AFQT-WK	0.14(4.69)	0.14(4.66)	
AFQT-PC	-0.00(-0.01)	-0.01(-0.50)	
AFQT-NO	-0.02(-1.06)	-0.03(-1.31)	
소득	1.77(3.99)	1.19(2.62)	
어머니 근무시간	-1.48(-1.14)	-1.35(-1.03)	
Never Father	2.15(1.57)	3.23(2.32)	
장애	-12.60(-7.44)	-12.03(-6.99)	-12.75(8.24)
가정 척도		0.11(5.41)	

괄호 안은 t-값

<표 VI-6> PPVT 점수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변 수			
상수	11.18(3.57)	6.22(1.76)	51.70(40.75)
출산시 어머니 연령	0.47(4.14)	0.52(4.56)	
흑인	-17.12(-17.31)	-14.54(-14.46)	-26.60(33.31)
히스패닉	-11.55(-11.91)	-10.81(-11.13)	-19.17(21.68)
어머니 HGC	0.87(3.95)	0.53(2.40)	
성	2.01(2.93)	1.17(1.70)	1.14(1.69)
출생순위	-4.09(-10.55)	-3.35(-8.58)	-4.72(14.23)
AFQT-AR	0.07(2.93)	0.08(2.77)	
AFQT-WK	0.18(8.83)	0.19(7.62)	
AFQT-PC	-0.01(-0.46)	-0.03(-1.34)	
AFQT-NO	0.01(0.96)	-0.00(0.97)	
소득	1.00(6.32)	0.98(3.35)	
어머니 근무시간	-3.23(-3.64)	-2.80(-3.16)	
Never Father	-2.31(-2.33)	-1.58(-1.59)	
장애	-5.11(-3.71)	-4.50(-3.28)	-6.46(4.86)
가정 척도		0.19(13.37)	

괄호 안은 t-값

<표 VI-7> 아동의 PIAT 점수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변수	최초 테스트	연간 증가	최초 테스트	연간 증가
상수	22.03(7.19)	-3.41(-2.80)	20.29(6.41)	-3.46(-2.73)
First BPI	-0.03(-2.83)	-0.00(-1.88)	-0.02(-1.88)	-0.01(-1.84)
기억력점수	0.22(17.66)	-0.00(-0.82)	0.21(17.11)	-0.00(-0.75)
어휘력점수	0.21(14.29)	0.01(2.26)	0.20(13.50)	0.01(2.35)
출산시 어머니 연령	0.44(3.76)	0.02(0.39)	0.48(3.97)	0.02(0.54)
흑인	4.25(4.39)	-1.26(-3.61)	4.76(4.81)	-1.31(-3.64)
히스패닉	1.45(1.51)	0.30(0.85)	1.51(1.55)	0.29(0.82)
어머니 HGC	0.19(0.86)	0.01(1.06)	0.00(0.02)	0.32(0.40)
성	4.42(6.62)	-1.24(-5.13)	4.38(6.47)	-1.21(-4.87)
출생순위	-3.28(-7.57)	-0.17(-1.04)	-3.10(-7.00)	-0.23(-1.40)
AFQT-AR	0.02(0.77)	0.00(0.44)	0.02(1.02)	0.00(0.33)
AFQT-WK	0.04(2.02)	0.01(1.93)	0.04(1.65)	0.02(2.03)
AFQT-PC	0.04(1.97)	-0.01(-0.97)	0.04(2.09)	-0.01(0.99)
AFQT-NO	0.06(3.61)	0.01(1.05)	0.06(3.53)	0.01(1.08)
소득	0.44(1.29)	0.13(1.38)	0.22(0.61)	0.15(1.53)
어머니 근무시간	-0.05(-0.05)	-0.07(-0.69)	-0.08(-0.09)	-0.02(-0.06)
Never Father	-1.35(-1.59)		-1.073(-1.24)	
Father Presence(%)		-0.07(-0.23)		-0.15(-0.48)
장애훈	-9.83(-8.04)	-0.19(-0.45)	-9.40(-7.98)	-0.10(-0.22)
재학했수(%)		2.55(4.53)		2.56(4.44)
사립학교 재학했수(%)		-0.20(-0.38)		-0.28(-0.52)
가정 척도			0.06(4.37)	-0.01(-1.53)
R-squared	0.27	0.04	0.27	0.04
F	99.60	8.74	93.09	8.08
괄호 안은 t-값				

괄호 안은 t-값

VII

향후 일정

1. 2차년도 여성가족패널조사 추진 사항
및 향후 계획 173
2. 3차년도 여성가족패널조사 추진 사항
및 향후 계획 174

1. 2차년도 여성가족패널조사 추진 사항 및 향후 계획

가. 2차년도 과제 수행 내용

- ☐ 2차년도 초기에 1차년도 예비조사 결과 분석
- ☐ 본 조사 설문지 내용 수정·보완 및 확정
- ☐ CAPI 설문 프로그램 개발 및 예비조사 실시
: 연구진들이 확정한 종이설문내용을 CAPI 방식에 맞게 재구조화하는 프로그래밍
작업 및 설문 flow에 대한 예비조사 2회 이상 실시.
- ☐ 1차년도 표본추출 및 조사대상의 탈락 등 문제점을 보완한 조사방식 확정
- ☐ 패널 표본 선정과 본 조사 실시(7월~10월 예정)
- ☐ data cleaning 작업
- ☐ 기초분석 보고서 발간
- ☐ 여성가족패널조사 결과 DB 구축 방안 연구 수행 및 업체 선정
- ☐ 「여성가족패널 브리프」 정기적으로 발간
- ☐ 패널관리를 위한 패널소식지 등 홍보물 제작·배포
- ☐ 패널에 대한 이동 사항 확인 등 중간 점검

나. 연구 방법

- ☐ 기획자문위원단 운영
- ☐ 패널포럼 진행
- ☐ 질문지 전문가 워크숍 운영
- ☐ 패널조사연구기관 연구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 해외 패널조사연구기관 방문, 자료수집 및 협동연구 모색

2. 3차년도 여성가족패널조사 추진 사항 및 향후 계획

가. 3차년도 과제 수행 내용

- ☐ 조사된 자료에 대한 외부 release를 위한 준비작업
: code-book, user-guide 마련 등
- ☐ 관련 연구자 및 학회 등과 공동 학술대회 개최
 - 본 연구결과는 여성인력과 가족에 대한 국내 최초의 대규모 조사이며 각 웨이브가 지속될수록 변화하는 여성과 가족의 실태를 파악하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본 자료의 이용을 활성화하여 연구자로부터 자료의 문제점과 한계를 파악하여 각 년도에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관련 학회와 공동으로 여성가족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 ☐ 1차 조사검토를 통한 2차 패널조사 준비
- ☐ 2차 웨이브 조사시에 추가될 부가설문문항 중심으로 설문지워크숍 진행 및 2차 설문지 확정
- ☐ 2차 설문지에 대한 예비조사 실시
- ☐ 2차 본 조사 실시
- ☐ data cleaning 작업
- ☐ 기초분석 보고서 발간
- ☐ 이용자 편의적인 패널조사 결과 구현을 위한 DB 프로그램 개발
- ☐ 「여성가족패널 브리프」 정기적으로 발간
- ☐ 패널관리를 위한 패널소식지 등 홍보물 제작·배포
- ☐ 패널에 대한 이동 사항 확인 등 중간 점검

나. 연구 방법

- ☐ 기획자문위원단 운영
- ☐ 패널포럼 진행
- ☐ 질문지 전문가 워크숍 운영
- ☐ 여성가족패널 학술대회 개최

- ☐ 패널조사연구기관 연구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 해외 패널조사연구기관 방문, 자료수집 및 협동연구 모색

참고문헌

- 강석훈, 금재호, 홍영립, 정영주, 이정열(1995), 한국가구 경제활동 연구, 대우경제연구소
- 강석훈(2003), KLIPS에서의 가중치 부여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강석훈(2005), 한국에서의 패널조사: 이론과 실제, 한국조사통계연구회 통계의 날 기념 워크샵 자료
- 국민연금연구원(2005), 국내외 패널 및 주요 사회조사 동향분석, mimeo
- 김태홍, 김영옥, 양승주, 문유경(1997), 여성의 취업실태조사, 한국여성개발원
- 김태홍, 김미경(2002), 제4차 여성의 취업실태조사, 한국여성개발원
- 남재량, 김지경, 성재민, 이상호, 최효미(2005), 제6차년도 한국가구와 개인의 경제 활동-한국노동패널 기초분석보고서, 한국노동연구원
- 노미혜, 주준희, 조현옥, 정해숙, 김명숙(1986), 여성의 취업실태조사: 기혼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여성개발원
- 노미혜, 김태홍, 김영옥, 양승주, 문유경(1992), 여성의 취업실태조사, 한국여성개발원
- 보건복지부(2006), (1차)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2006-2010
- 여성가족부(2005), 가족정책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
- 여성가족부(2006a),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
- 여성가족부(2006), 여성인력종합개발계획('06-'10)
- 통계청(2003), 가계조사 지침서
- 한국고용정보원(2005), 2004년 청년패널 기초분석보고서
- 한국교육개발원(2005), 한국교육중단연구 2005(I) -예비조사 보고서-
- 한국여성개발원(1997), 여성의 취업실태조사
-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0), 청년층 교육훈련 패널자료 구축사업(I)
-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3), 한국 교육 고용 패널 조사
-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4), 한국 교육 고용 패널 조사(2004)
-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5), 한국 교육 고용 패널 조사(2005)

BLS(2005), NLS Handbook

- Bookwala, Jamila & Jacobs, Jamie(2004), Age, marital processes, and depressive Affect, *The Gerontologist*, 44(3), 328-338.
- Bradburn, N. M., M. Frankel, E. Hunt., J. Ingels, A. Schoua-Glusberg, M. Wojcik, and M. R. Pergamit.(1991), "A Comparison of Computer-Assisted Personal Interviews(CAPI) with Personal Interviews in the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Labor Market Behavior - Youth Cohort.", NLS Discussion Papers, 92(2)
- Bradley T. Heim(미간행), *The Incredible Shrinking Elasticities; Married Female Labor Supply, 1979-2003.*
- Bumpass, Larry L., Martin, Teresa Castro & Sweet, James(1991), The impact of family background and early marital factors on marital disruption, *Journal of Family Issues*, 12(1), 22-42.
- Collins, M., W. Sykes, and C. O'Muirheartaigh(1998), "Diffusion of Technological Innovation: Computer Assisted Data Collection in the UK.", in Couper *et al.*
- Couper, M. P. and W. L. Nicholls II(1998), "The History and Development of Computer Assisted Survey Information Collection Methods.", in Couper *et al.*
- Couper, M. P., R. P. Baker, J. Bethlehem, C. Z. F. Clark, J. Martin, W. L. Nicholls II, J. M. O'Reilly *eds.*(1998), *Computer Assisted Survey Information Collections*, New York: John Wiley & Sons.
- Davey, Adam & Szinovacz, Maximiliane E(2004), Dimensions of marital quality and retirement, *Journal of Family Issues*, 25(4), 431-464.
- Fuller-Thompson, Esme & Minkler, Meredith(2001), American grandparents providing extensive child care to their grandchildren: Prevalence and profile, *The Gerontologist*, 41(2), 201-209.
- Goldin, Claudia D(1991), "The Role of World War II in the Rise of Women's Employ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81: 4 September , 741-756.
- Graf, Bernhard & Schattenberg, Mard(2006), "The Demographic Challenge;

- Simulations with an Overlapping Generations Model” Deutsche Bank Research, may.
- Johnson, Nan E(1999), Nonmetropolitan sex-role ideologies: A longitudinal study, *Rural Sociology*, 64(1), 44-65.
- Katz, S., L. G. Branch, M. H. Branson, J. A. Papsidero, J. C. Beck, and D. S. Greer(1983), “Active life expectancy”,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09: 1218-1224.
- Kim, Meeryoung(2001), Widowed older adults and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heir well-being--longitudinal study.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 McKeever, Matthew & Wolfinger, Nicholas H(2001), Reexamining the economic costs of marital disruption for women. *Social Science Quarterly*, 82(1).
- NSFH Content Outlines
- NSFH Sample Design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3), 385-401.
- Rossi, A., & Rossi, P. 1990. *Of Human Bonding*, NY: Aldine de Gruyter.
- Rosow, I., and N. Breslau. “A Guttman health scale for the aged” *Journal of Gerontology* 21: 556-559.
-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ing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1069-1081
- Sweet & Bumpass(1996). *The National Survey of Families and Households-Waves1 and 2: Data Description and Documentation*. Center for Demography and Ecology,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 Sweet, Bumpass & Call(1988) *The Design and Content of the National Survey of Families and Households* Center for Demography and Ecology,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NSFH Working Paper #1.

- Sweet, Bumpass(2002). The National Survey of Families and Households- Waves 1, 2, and 3: Data Description and Documentation. Center for Demography and Ecology,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 Sweet, James A., & Bumpass, Larry L. American Families and Households. Russell Sage Foundation.
- Torr, Berna M. & Short, Susan E. (2004). Second births and the second shift: A research on gender equity and fertilit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0(1), 109-130.
- Voydanoff, Patricia & Donnelly, Brenda(1999). The intersection of time in activities and perceived unfairness in relation to psychological distress and marital qual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 739-751.
- WAVE1 code book, content
- WAVE2 code book, content
- WAVE3 code book, content
- Wilmoth, Janet M. (1998). Living arrangement transitions among America' older adults, The Gerontologist, 38(4), 434-444.
- Melbourne Institute(2006), HILDA user manual-release 4.0

<http://www.ssc.wisc.edu/nsfh/home.htm>

<http://www.bls.gov/nls/>

<http://www.ssc.wisc.edu/nsfh/>

<http://psidonline.isr.umich.edu/a>

<http://melbourneinstitute.com/hilda/>

<http://www.newcastle.edu.au/centre/wha/>

<http://www.aifs.gov.au/>

<http://www.nkps.nl/NKPSEN/nkps.htm>

http://psfd.sinica.edu.tw/index_e.htm



부 록

1. 기획자문단 좌담회	13
2. 국내외 여성가족패널관련 자료 구축사례 분석	188
3. 패널조사기관 출장 보고서(미국, 호주)	225
4. 여성가족패널 질문지 설문 항목	26

1. 기획자문단 좌담회

- 기획: 본원 고급여성인력혁신전략센터
- 일시: 2006년 4월 6일
- 사회: 민무숙(여성가족부 여성인력기획관)
- 토론³⁷⁾: 강석훈 교수(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김정석 교수(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김지연 이사(미디어리서치 사회조사본부)
 양정호 교수(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이명진 교수(국민대학교 사회학과)
 류한구 박사(직업능력개발원)
 장혜경 박사(한국여성개발원)
 정기선 박사(경기도 가족여성개발원)
 최은영 교수(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이계오 교수(한국갤럽)
 한 준 교수(연세대학교 사회학과)

○ 사회자: 2005년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확장됨에 따라 여성정책은 또 한 번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의 주관부처로 자리매김하게 됨에 따라 상호관련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하는 여성과 가족정책이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기반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포괄적인 여성 및 가족정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이 더욱 시급히 필요하게 되었으며 본 패널자료의 구축은 이러한 여성가족정책의 발굴과 정책 보완을 위한 중요연구로 자리매김 할 것입니다. 기존에 이루어진 각종 패널들은 주로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인력정책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두었으며, 가족구조의 변화와 여성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파악하는 데는 관심이 적었습니다. 그러나 견고한 가족주의로 특성화된 한국가족의 변화의 조짐이 명시적으로 포착되고 있음을 볼 때, 급격

37) 가나다 순임.

하고도 근본적인 가족의 변화를 여성을 중심으로 매해 추적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가족패널’은 여성집단을 중심으로 여성 개인과 가족의 변화를 종단적 자료형태로 조사·구축함으로써 급격한 변화의 중심에 있는 여성과 가족, 그리고 그 속에서의 여성노동과 일상의 변화실태를 가시화할 수 있는 학문적, 정책적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자합니다. 여성가족패널에 관한 조사대상 및 조사 대상 집단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논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양정호 교수: 여성가족패널의 조사 대상이 여성이 대상인데 가족이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패널의 중심이 여성개인인지, 가족인지 정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정부의 관심대상은 초기 진입연령대인 20~30대 여성부터입니다. 인구비례에 따라 선택할 경우 정책적 관심집단을 집중표집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면 젊은층20~30대는 과대표집, 50~60대는 축소표집하는 방식이 있을 것이고 코호트를 나누어 2년, 3년 주기로 새로운 젊은 층을 따라가는 방식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하나의 코호트만 할 경우 새로운 집단과 비교가 불가능 한 단점도 존재합니다.
- 류한구 박사: 조사대상을 여성으로 할 것인지, 가족으로 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성의 중요문제인 고용, 노동문제를 볼 때 노동패널과 중고원의 청년패널과의 중복성을 고려해야할 것입니다. 가족패널은 노동패널과 달리 가족구조, 관계를 볼 수 있는 조사 설계가 필요합니다. 여성이 조사의 중심이 될 경우 초기 조사단계에서는 가구가 대상이나 이후에는 개인이 조사대상이 되나(새로운 집단 유입이 불가능) 가구가 중심이 될 경우 조사 대상이 가구이며, 새로운 가구원의 유입, 가구의 분리가 끊임없이 발생할 것입니다. 표집탈락이 높은 경우, 표집 보충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까지 초기집단구성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정기선 박사: 설문 내용에 있어서 가치관, 태도부분 조사를 하는 것이 매년 필요한 것입니까? 가치관이나 태도 같은 것은 변화가 크지 않을 것이므로 매년 조사의 필요성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가족구조의 변화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 사회자: 가족구조의 변화는 개인을 추적조사하면서 속한 가구특성을 개인을 통해 조사함으로써 파악할 예정입니다.
- 정기선 박사: 가구수를 5,000가구로 고정할 경우, 여성/남성을 같이 하거나 여성만을 하거나 여성의 표본수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가족패널의 경우 여성만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기존의 취업실태조사와 노동패널간의 중복성 검토가 필요하며 가족중심이라면 19세 이상 가구원부터 조사하고, 생애주기가 중심이라면 가구 내 전연령을 모두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 이계오 교수: 패널조사에 있어서 1차년도 조사는 횡단조사와 같은 성격을 갖습니다. 우선적으로 조사설계시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패널의 특성이 부각되도록 초점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표본문제, 가중치 문제는 추후에 얼마든지 보정이 가능합니다. 특정 주제를 목적으로 패널자료를 구축한다는 것은 패널 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생각입니다. 패널자료는 특정 주제가 아닌 기초조사를 매년 하여, 그 변동상황을 연구자가 파악해 내는 것에 그 의의가 있는 조사입니다.
- 이명진 교수: 조사 대상을 정할 때 여성과 가족이 교집합인지 합집합인지 결정이 필요하며 가족과 여성이 겹쳐지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강석훈 교수: 조사의 기초 표본방법과 주제는 연구진의 몫입니다. 비교분석관점이 아니더라도 남성이 여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분을 포기할 수는 없기에 남, 여를 동시에 조사해야 할 것이며 주제관점에서 여성과 가족을 아우르기 위해서는 개인패널로 가서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가구와 가족의 개념을 동시에 고려하여 사용해야 하며, 추적방법은 19~30세 까지만을 표집하여 여성이 있는 가구(가족)을 조사하며, 원표본이 있는 가구를 향후 추적조사하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농촌지역의 경우는 소득파악의 어려움, 조사의 비용증가와 같은 문제가 있으니 조사 대상

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제시하고 있는 설문주제가 매우 광범위하며, 축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한준 교수: 전체가구에 대한 확률표집방식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40대 여성의 경우, 고용·가치관·행동들은 고정적이겠지만 건강면에서는 크게 역동적일 것이므로 전 연령대를 모두 추적해야 할 것입니다. 남성, 여성 모두 조사하는 것으로 하고, 남성에게는 간단한 사항만 확인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추적원칙에 있어서는 가구패널로서 전가구를 추적조사 하는 것이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기에 연구자 입장에서는 이를 추천합니다. 설문내용에 있어서는 종단연구를 위한 문항이 아닌 것들이 섞여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검증된 척도가 아닌 경우에는 향후 지속적으로 문항으로 할지 문제가 될 것이며 이에 대한 연구진의 연구가 필요합니다. 가치관, 태도와 관련된 내용은 부가조사로 하고, 건강관련 사항을 주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며 개인의 동의를 얻어 건강보험에서 개인건강자료를 Link시키는 방안도 자료의 질을 높이는 데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계오 교수: 조사를 하는 경우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는 패널 연구진의 적격가구, 부적격가구에 대한 기준을 토대로 하여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주관적인 가치관, 태도 문항은 배제하기 보다는 계량화 하여 질문하면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한준 교수: 이와 더불어 가족내 구성원들의 시간활용 또는 공간활용에 대한 문항이 필요합니다.
- 김정석 교수: 조사대상 및 방식에 있어서 정보를 얻는 사람은 여성으로 하고, 정보범위는 가족전체로 하여 여성의 관점에서 Her Story를 듣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가구조사시 1인여성가구역시 조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고, 설문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너무 많으니 연구진의 판단하에 적절히 분량을 조절할 것을 자문드립니다.

- 류한구 박사: 패널 조사는 일반 조사와 다르기 때문에 초기 계획단계시 패널조사를 위한 디자인을 해야 합니다. 즉, 변화를 포착할 수 있는 설문설계가 필요하며, 시점을 포착해서 물어보되, 변화상은 연구자가 직접 연구를 통해 포착하는 것이지 조사대상에게 이를 직접적으로 질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 이명진 교수: 실제 조사상황에서 다양한 가구형태 및 가족형태가 존재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가구와 가족에 대한 정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 최은영 교수: 일, 가족, 보육 관련 문항 구성시, 각 분야가 연결될 수 있는 설문구성이 필요하며 여가와 일상은 일과 가족 세계를 이을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주관적 척도,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넣어서 문항을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 장혜경 박사: 취업주기, 가족주기, 역동성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여성과 가족을 동시에 고려할 때 교집합 부분이 중시되어야 하고, 주제선정시 이 부분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 지위부분, 경제적 지위, 경제활동 지속성, 삶의 질 등 4개의 카테고리로 설문내용을 구성할 수 있겠습니다.
- 양정호 교수: 과대표집(Over Sampling)시 특정연령대에 특정항목을 설문하는 방법 고려해야합니다. 설문지의 주요 기본 항목이 있고, 이외에 집중대상에게만 특정 설문을 부가하여 조사하는 방법도 패널조사방법으로 타당한 방법입니다.
- 이계오 교수: 농촌 조사의 경우는 배제하기 보다는 확률 비비례 표집으로 하여 적정 가구수를 뽑아내는 방법으로 조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 강석훈 교수: 농촌 6~7%조사를 위해 투자비가 많이 들며 소득확인이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필요하다면 본조사내용에는 반영하지 않고 부가조사를 통해 자료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명진 교수: 도시여성이 농촌에 거주하는 가족을 지닌 경우 이때 가구관련조사를 하면 농촌을 대상으로 조사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패널조사에서 농촌까지 포함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농촌의 1인가구의 경우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등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사회자: 여성가족패널 조사대상은 전연령대를 대상으로 하되, 특정집단을 과대표집(Over Sampling)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조사의 중심은 여성으로서, 가구구성원 정보는 보완적으로 얻는 방식을 택할 것입니다.
 농촌지역 조사는 부가조사로 하되, 원 패널표본에서는 빠지는 방향으로 조사설계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예상되나 만약 농촌지역을 조사대상지역으로 포함할 경우 이에 대한 특성을 반영하여 조사설계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성가족패널 연구진의 지속적인 논의와 외부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하여 보다 체계적인 조사자료 구축을 위하여 힘쓸 것입니다. 여성가족패널의 기획자문단 회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말씀 드리며 이후 설문지 작업에도 많은 조언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국내외 여성가족패널관련 자료 구축사례 분석

1. 호주

가. HILDA(Household, Income and Labour Dynamics in Australia)

1) 개요(조사의 목적)

- 호주에는 여러 종단적 조사자료들이 있지만 전국적 대표성을 가진 자료는 없고, 전국적 대표성을 갖는 조사자료는 한결같이 횡단면 조사자료로서, 호주 국민 전체의 삶의 동학에 관한 종단적 분석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 이에 HILDA는 호주 국민들의 경제적·주관적 복리, 소득, 노동시장, 가족 분야의 동학에 대한 종단면적 조사연구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1년부터 시작됨. 호주 멜번 대학 멜

번 응용경제사회조사연구소(Melbourne Institute of Applied Economic and Social Research)에서 주관하여 1년 간격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2001년도에 첫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현재 2004년도 4차조사까지의 자료가 발간됨.

2) 표본설계

- 다단계 집락표집을 통해 7,682가구 표집. 1996년 센서스 자료에 의거 CD(collection districts, 한 CD는 약 200~250가구로 구성)를 표집(표집확률은 CD규모에 비례)하고, 표집된 각 CD의 가구 주소 리스트에서 가구를 최종적으로 random sampling함. 이렇게 선정된 원표본 가구의 가구원 중에서 15세 이상 성인 가구원을 면접조사함. 첫 웨이브의 원표본은 7,682가구 19,914명임. 이 19,914명이 원표본가구원이 되고, 2차년도 부터 혼인이나 입양, 출산으로 원표본가구원에 추가된 모든 가구원도 원표본가구원이 됨. 그 이외의 이유로 원표본가구원과 주거를 같이 하는 모든 사람들은 임시표본가구원이 됨. 원표본가구원은 무기한 추적 조사하며 임시표본가구원은 원표본가구와 주거를 공유하는 동안만 조사됨. 2차년도의 원표본가구원은 19,944명, 임시표본가구원은 898명이었으며 3차년도는 각각 19,987명과 1,341명이었음.
- 특정 인구집단에 대한 과대표집(Over Sampling)은 하지 않음. 과대표집을 할 경우 전체 표본수를 크게 늘려야 하므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특히 빈곤층을 과대표집할 경우) 표본 탈락률이 높아지며 빈번히 패널을 갱신해야한다는 문제 발생.

3) 조사방법

- 표본가구원 중 만15세 이상 가구원 전원을 조사함. 첫 웨이브에서는 1대1 면접조사를 실시하였고 두 번째 웨이브부터는 CATI 조사를 적용. 응답자와의 rapport 형성 등의 이유 때문에 초기에는 면접 타개식 조사가 유리함. 몇몇 민감한 질문에 대해서는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별도로 만들어 가구에 유치하고 작성 후 면접원이 거두어가는 방식을 취함.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경우에 대리응답을 허용하며, 면접원에 대한 교육과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면접원이 대리응답을 남용하지 않도록 함.

4) 조사내용

- 핵심적 질문사항은 변함없이 각 웨이브마다 연속적으로 질문하며, 그때 그때 새로운 정책적·학술적 관심사항이 대두될 때마다 부가적 질문항목으로 추가시킴. 핵심적 조사내용은 중저소득층 가구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에 대한 정책효과, 가족구조와 빈곤간의 상관관계, 가구의 경제적·심리적 복리(well-being) 등을 다루는 소득동학(income dynamics), 직업이동, 고용형태, 여성 노동시장 참여, 직장-은퇴 이행과정 등을 다루는 노동시장 동학(labour market dynamics), 가족형태,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소득지원과 가족형성 및 해체간의 관계 등을 다루는 가족동학(family dynamics)로 크게 나누어짐.
- 설문지는 가구용 설문지와 개인용 설문지, 그리고 개인용 자기기입식 설문지로 나누어짐. 가구용 설문지의 주요 문항은 육아와 거주관련 설문으로 나누어지며, 육아관련 설문으로는 가구내 육아책임자, 육아 프로그램 활용 여부, 연령별 아동 케어 담당자 투여되는 시간과 비용, 육아관련 지원이나 보조 수혜 현황 등의 항목이 포함됨. 거주관련 설문에는 현거주지, 주택소유형태, 주택가격, 생활비 등의 항목이 포함됨.
- 개인용 설문지의 주요 문항은 가족배경, 연령, 학력 등의 인구학적 변수에 대한 문항, 취업력, 고용지위, 구직활동, 퇴직후 계획, 직업안정성, 직무(직장)만족도, 소득 등의 노동시장 관련 변수에 대한 문항, 출산의향, 가족형성 및 해체, 파트너 관계의 형성 및 해체 유형 등의 가족 동학 관련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음.
- 개인용 자기기입식 설문지의 주요 문항은 음주, 흡연, 스트레스 등과 같은 건강관련 문항, 이웃·가족관계 등에 대한 만족도, 부모 역할로 인한 부담 정도, 직장-가정 양립가능성에 대한 인지 등 타 가구원의 입회와 편이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어 혼자 응답하는 것이 유리한 설문들로 구성됨.
- 전반적으로 설문 문항에는 객관적 사실과 더불어 응답자 개인의 주관적 평가와 가치관 태도 등에 대한 설문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대리응답을 최소화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할 것임.

5) 운영체계

- 호주 멜번 대학의 응용경제사회조사연구소가 호주 가족공동체부(The Commonwealth

Department of Family and Community Services)의 자금 지원을 받아 수행. 현재 8년차 웨이브까지의 자금을 확보한 상황.

- HILDA 프로젝트의 관리·운영은 멜번대학 응용경제사회조사연구소의 인력과 호주 통계국 파견인력으로 구성되는 서베이 매니지먼트 그룹(Survey Management Group)과 멜번대학 응용경제사회조사연구소, 호주 교육연구위원회(Australian Council of Educational Research), 호주 가족연구소(Australian Institute of Family Studies), 3개 기관 대표들이 참여하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그룹(Project Management Group)이 맡고 있음.
- 자문그룹으로는 각 대학 및 민간 연구소, 호주 통계국 등에서 일하는 교수 및 연구원들로 구성된 외부 자문단(External Reference Group)과 관련 정부부처(고용및노사관계부, 가족공동체부, 등), 조사기관, 호주통계국, 소속 인사들로 구성된 기술자문단(Technical Reference Group)이 있음.
- 실사는 조사전문 민간업체인 ACNielsen에 외주를 줌. ACNielsen는 필드워크와 자료 프로세싱을 맡음.

6) 여성가족패널에 대한 시사점

- 가족 동학에 관한 설문문항이 여타 해외 패널자료들에 비해 더 풍부하다는 점에서 HILDA는 여성가족패널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음. 특히 파트너 관계의 형성, 변화, 해체에 관한 설문은 전통 가족의 해체와 다양한 대안적 가족형태의 등장에 관한 실태, 그것이 여성의 삶의 경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여성가족패널에서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설문문항이라고 사료됨. 그러나 파트너 관계에 관한 설문을 비롯하여 여러 설문 문항들이 너무 세세한 분류항목을 내포하고 있어, 남녀 모두를 표집대상으로 하는 HILDA 자료의 성격상 여성의 삶의 경로를 파악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사례수를 각 세부 범주별로 모두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여성의 삶의 경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가족 형태, 다양한 생활상태, 다양한 고용지위, 다양한 직업군 등의 실태와 효과를 살펴보기에 충분할 정도의 사례수를 각 범주별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성만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패널구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나. WHA: Women's Health Australia(The Australian Longitudinal Study on Women's Health)

1) 개요

- 보건정책(health policy) 개발과 관련된 정보를 과학적으로 수집하여 '호주건강과 고령부(Commonwealth Department of Health and Ageing)'가 여성의 건강 정책과 실행에 기반이 되도록 정확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1995년도부터 재정지원을 시작함.
- 학문적으로는 여성의 건강과 다양한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생애패턴의 요소간의 인과관계를 밝히고자 함. 건강정책과 실행의 변화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함.
- 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영역을 평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짐.
 - 신체적, 감정적 건강
 - 건강시설사용
 - 건강관련 행위와 위험요인
 - 시간사용
 - 사회경제적 요인들
 - 생애단계별 건강 관련 주요 사건들

2) 표본 설계

- 각 연령집단내 무선표집 + 농촌벽지 지역은 도시지역보다 두배 추출
- 각 연령집단은 매 3년에 한번씩 조사
- 1996년 4월을 기점으로 보건의료정보에 수록된 전체 여성(시민, 영주권자)을 세 그룹으로 나눔. 그 후, 4만명에게 사업참여 의사 편지, 확인받음(20년간 참여의사)
- 집단을 세 개로 나누었음. 집단 구분 근거로는 여성의 생애주기에서 건강과 잘삶(well-being)에 핵심적 단계로 보이는 연령을 기준으로 하였음.
 - 1집단: 젊은층(younger group) 18~23세
 - : 청소년기말에서 성인으로의 이행시기
 - : 대부분 노동시장 진입/사회생활/어머니가 되기 시작하는 시기
 - 2집단: 중년층 (mid-age group) 45~50세

- ： 갱년기이행, 사회적, 개인적 변화시기
- 3집단: 고령층(older group) 70~75세
- ： 지속적인 복지, 노후의 독립성을 예측하기 위함

3) 조사 방법 및 진행

- 1996년에 세집단 모두 조사
- 1998~2000: 집단별로 2차시
- 2001~2003: 3차시
- 2004~2006: 4차시 (2015년까지 7차시 계획)

4) 조사내용

- 다음과 같이 5개 영역에서 추출함.
 - (1) 복지 서비스(wealth care services) 이용 및 만족도
 - 이용가능성, 접근성 및 활용도, 문화적 적절성, 돌봄서비스의 질에 대한 인식
 - (2) 생애단계와 주요 사건들(life stages and key events)
 - 주요 생애사건 이후 여성의 건강유지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주요 요소의 확인: 첫아이 출산, 이혼, 갱년기, 미망인시기, 주요질병, 이사, 직업전환, 노년기 falls, 치매, 사별
 - (3) 시간사용(time use)
 - 임금/비임금 노동과 돌봄노동에 드는 여성의 역할 지표, 사회적지지, 과부담, 독립, 여가, 포부 및 경제적 자원, feeling rushed
 - (4) 체중과 운동(weights and exercise)
 - 체중과 운동의 영향, 다이어트 식습관과 건강관계, 신체적 이미지에 대한 인식
 - 삶의 질에 대한 인식, 다이어트/체중변화인식
 - (5) 폭력(violence)
 - 신체적, 성적 폭력, 고령여성에 대한 심리적 사회적 학대

5) 운영체계

- 뉴캐슬대학의 ‘젠더와 건강연구소’(Reserach Center for Gender and Health, the Unviersity of Newcastle)와 퀸스랜드 대학(University of Queensland)의 연구진들이 협력하여 운영함.

6) 시사점

- 호주의 여성건강패널은 유일하게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거의 유일하게 여성패널이라고 볼 수 있어서 향후 구축하고자 하는 ‘여성가족패널’의 문제의식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보임.
- 본 패널에서는 여성집단을 생애주기에 따라 3개 집단으로 나누어 각 연령별로 특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파악하고자 하였고, 이는 본 패널이 계획처럼 20년간 장기간 지속된다면 매우 주목할 만한 추적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임. NLSW 패널에서도 여성집단을 젊은 집단과 중장년 집단으로 나누어 지속적으로 추적한 바 있는데 이와 유사한 사례임. 이와 같이 여성의 생애주기별로 조사 집단을 나누어 추적하는 방식은 예산확보의 문제만 보장된다면 ‘여성가족패널’에서도 시도해볼 만한 방법임.

2. 유럽(횡단면 조사)

가. FFS (Fertility and Family Surveys Project)

1) 개요

- 1987년 인구개발지역회의(부다페스트)에서 “가족형성, 가족계획 및 출산력 결정요인” 규명이 UNECE/PAU(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Population Activity Unit)의 과제로 결정됨.
- UNECE의 PAU는 1988~1999년간 FFS 프로젝트(Fertility and Family Surveys Project)를 23개 회원국 및 뉴질랜드와 공동으로 실시함.
- 2002년 PAU는 위 프로젝트를 보다 발전시키는 후속 프로젝트로서 새로운 자료수집 및 연구 프로젝트인 GGP 프로그램(Generation and Gender Programme)

을 실시함.

- FFS 프로젝트의 목적은 출산력 및 가족 자료의 수집, 처리, 분석 등을 통해 UNECE 회원국의 효과적인 출산 및 가족정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함.
- FFS 조사는 회원국의 공통 조사 항목들에 기초함으로써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자료를 구축함.
- FFS 연혁
 - 1960년대 UNECE Comparative Fertility Survey(CFS)
 - 1970년대 World Fertility Survey(WFS)
 - 1990년대 FFS로 발전
 - ※ FFS 참가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미국, 핀란드,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미국 등 24개국

2) 표본설계

- 국가 단위의 전국 조사로서 조사 대상은 가구 조사 및 가구원 개인 조사
- FFS 프로젝트 초기에는 여성만을 조사대상으로 표본 설계가 이뤄졌으나 연구가 진행되면서 가족 관련 조사에 남성의 응답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남성과 여성을 모두 포함한 가구원 조사(미국 제외)로 표본설계가 이뤄짐.
- 국가별 연령 범위: 하한 연령(15, 18, 20세 등), 상한 연령(44, 45, 49, 54세 등)이 각 국가의 상황 및 조사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설계됨.
 - 응답자: 가구당 1명(가구대표자로서 가구사항 응답) 및 모든 가구원
 - 표본 규모
 - 남성과 여성에 따라 다른 표본규모 설정
 -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성 과대표집(Over Sampling)
 - 예: 핀란드(2,040: 5,105), 프랑스(1,941: 2,944), 이탈리아(1,206: 4,824), 스웨덴(1,666: 3,318), 미국(0: 10,847)

3) 조사방법

- 전국 단위의 대표성을 지닌 가구 표본을 대상으로 가구별 면접설문조사 실시
- ‘출산력’보다 ‘가족’ 강조 조사: 가족형성정책 강화 차원 - 서구사회 가족 변화 반영

- 여성과 남성 모두 개별 조사, 모든 결혼 상태 포함, 비혼모 등도 포함
- 상한 연령: 여성 60세, 남성 65세(중래 여성만 49세)
- 개별적 접근: 의식 및 태도 변화 파악, 표본 설계에 있어서 연령에 따른 중단적 접근(출산관련 최초 의식이 태도 변화 및 환경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추적)
- 미시적, 거시적 접근 연계: 개인 상황 및 의식과 사회경제 변화 연계 노력.

4) 조사내용

- 현재 상태(current status): 혼인 상태, 경제활동, 가족관계, 출산력 및 가임력, 불임사항, 피임사항, 본인과 배우자의 관계
- Biographies: 이동, 파트너, 출생아 및 입양아 및 위탁 아동, 출산조절사항, 교육정도, 직업력(job history), 부모와의 분가 시기 등
- 의견 및 태도: 계획자녀수, 장래출산계획, 결혼관, 동거 및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태도, 가족생활관련 가치 및 신념, 정책 관련 의견 및 태도 등.
- ☞ ① 독일 조사가 다른 국가의 “가족 및 출산력 조사”의 모체가 되고 있음.
- ② 가족 및 출산 행위에 대한 실태 조사와 가치관 조사가 같은 비중으로 병행되고 있음.
- ③ 응답자의 사회관, 국가관, 종교적 성향 등 일반적 가치에 대한 조사도 포함하고 있음.
- ④ 응답자의 경제활동 상태 및 취업력에 대한 상세한 조사가 포함되어 있음.

5) 운영체계

- PAU는 11년에 걸친 23개국의 조사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 FFS 조사는 각 국가별로 이뤄지기 때문에 조사설문지의 개념 등에서 국가간 변이 발생 가능: 이를 최대한 보정하기 위해서 프랑스의 INED(Institut National d'Etudes Demographiques) 주관으로 23개국 조사 결과의 표준화 및 평가 작업이 진행됨
- 데이터클리닝, 조사결과 표준화, 코딩표준화, 조사결과 평가작업 등이 완료된 후 현재 진행되고 있는 90여개의 비교 연구가 공표될 것임.
- FFS 조사결과를 심화시키기 위해서 PAU는 GGP 프로그램을 출범시켜 광범위한

국제비교 자료를 구축하고 있음.

6) 시사점

- FFS는 기본적으로 유럽의 가족을 중심으로 형성, 발전 과정을 규명하고자 한 연구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의 다양성, 동태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가족형성과정, 가족유형의 변화상 포착에 매우 유용한 설문내용 포함
- 특히 유럽의 사회문화적 맥락상 개인을 분석의 기본 단위로 설정함으로써 개인이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 해체되는 가족변화상을 추적하기에 적합한 개인생활사, 가족사 문항 포함
- 남성과 여성의 노동권/부모권/생활권을 동등하게 전제하고 설문항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의 가족사항과 유사한 비중으로 경제활동 관련 사항 및 취업력 자료 포함
- 가족관련 정책 지향적인 설문항 포함(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비)

나. ISSP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1) 개요

- ISSP(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는 중요 국가적 문제들에 대한 국제비교연구를 위한 자료를 창출해내기 위하여 설립된 기구임.
→ 1983년 런던에서 시작: 기본적으로 최초 가입국가인 4개 국가의 횡단적 사회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현재 39개국 이 회원으로 가입한 상태임.
미국: General Social Survey(NORC)
영국: British Social Attitudes Survey(SCPR)
독일: Allgemeine Bevölkerungsumfrage der Sozialwissenschaften(ZUMA)
호주: National Social Science Survey(ANU)
- 우리나라는 2003년에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와 삼성경제연구소가 ISSP에 공동회원으로 가입하였음.

2) 표본설계

○ 국가별 전국표본조사

- 조사 대상은 ‘개인’: 18세 이상 성인 남녀
- KGSS: 전국 다단계층화표집
- KGSS: 목표 표본수: 2,000명(2003년), 최종 표본수: 1,315명(성공율: 65.8%)

3) 조사방법

○ 면접 설문조사

- ISSP는 각 국가의 일반사회조사에 부가되는 조사 내용을 중심으로 자료 구축. 즉 일반사회조사는 각 국가의 주요 구조적 구성요소들을 반복 조사하는 핵심설문(replicating core questions)과 국제비교연구를 위해 설립된 ISSP의 연차 주제모듈(ISSP annual topical module)을 통합하여 전국표본조사로 실시하는 것임.
- ISSP 모듈은 매년 정해진 주제에 대한 100여개의 문항으로 구성되며 세계 39개 회원국이 공동으로 조사하고 있어 국제비교연구에 매우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음.
- 1984년~2003년 주제 모듈: ‘정부의 역할’, ‘사회연결망’, ‘사회불평등’, ‘가족과 성역할 변화’, ‘노동지향’, ‘종교’, ‘환경’, ‘국가정체성’ 등

※ 최근 모듈

2003년: 국가정체성 II

2004년: 시민권

2005년: Work Orientation III

2006년: 정부의 역할 IV

2007년: 여가시간과 스포츠

4) 조사내용

- 여성가족패널조사와 관련하여 주목하는 ISSP 주제모듈은 ‘가족과 성역할 변화’임.
- “가족과 성역할 변화(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s)”모듈은 1994년, 2002년 두 차례에 걸쳐 설문지에 포함되어 조사되었음.
→ 주요 설문 내용: ‘여성취업에 대한 태도’, ‘성역할 태도’, ‘가족주기에 따른 기혼 여성 취업경력’, ‘결혼에 대한 태도’, ‘결혼만족도’, ‘여성고용과 승진 우선권에 대한 태도’, ‘유급출산휴가’, ‘자녀양육비보조’,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광범위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가족과 성역할 변화”에 대한 비교연구를 목적으로 2003년 한국 종합사회조사(KGSS)에 이 모듈이 부가되어 조사된 바 있음.
☞ FFS 조사에 비해서 실태 조사보다 의식 등 가치관 조사가 주를 이루고 있음.

5) 운영체계

- 각국의 조사결과 합성 및 아카이브 구축은 독일의 Zentralarchiv fure Empirische Sozialforschung, University of Cologne에서 시행함.
- 한국의 조사결과 구축: 성균관대 SRC에서 구축하여 ‘사회조사데이터아카이브’에서 관리함.

6) 시사점

- ISSP는 FFS에 비해서 가족과 관련한 의식, 태도에 중점을 두는 설문문항 포함.
- 가족의식, 가족가치의 실태 및 변화와 관련하여 국제비교 가능, 한국사회 내에서 2003년 KGSS 설문결과와의 변화상 비교 가능 → 조사 첫 해 결과를 바로 2003년 분석결과와 비교할 수 있는 장점
- 나름대로 표준화된 가족의식설문 내용 포함.

4. 한국

가. 노동패널

1) 개요

-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동과 함께 노동시장도 질적·양적 변화를 겪고 있음. 보다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노동정책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요 노동관련 통계 조사만으로는 역부족인 실정임. 노동시장 정책의 효과는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것도 있지만 그 효과가 장기적·지속적인 것도 있어 정책의 효과 및 효율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당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개인 및 가구의 경제활동을 관찰할 필요성이 발생함.
- 예를 들어 학교를 졸업한 청소년들의 노동시장 진입 및 이동과정이나 실업자들의 재취업과정 및 장기실업의 다이내믹스, 실업급여의 재취업효과, 개인의 의식구조와 노사관계의 변화, 육아장려금과 주부의 경제활동변화 등과 같은 연구들은 패널 자료의 분석을 통하여서만이 가능한 노동시장에 관련된 정책연구과제들임. 노동패널은 이러한 정책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사에 목적이 있음.
- 1998년 조사를 시작으로 현재 8차 조사까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남. 고용보험 기금이 지원하고 있어 보다 장기적인 웨이브를 가질 것으로 예상됨.
- 표본유지율은 원표본가구 기준으로 유지율은 2차년도(1999년) 88%, 3차년도(2000년) 81%, 4차년도(2001년) 77%, 5차년도(2002년) 76%, 6차년도(2003년) 77%인 것으로 나타남. 차수별 원표본 가구 탈락율은 1~2차 12%, 2~3차 7%, 3~4차 4%, 4~5차 1%로 안정화되다가 6차년도 조사와 7차년도 조사에서는 조사성공률이 오히려 1% 포인트씩 각각 증가했음.

2) 표본설계

- 한국노동패널조사는 1995년 인구주택 총조사의 10% 표본조사구 (전국 21,675조사구)를 모집단으로 하고 있음. 다만 1995년 인구 주택 총조사의 10% 표본조사구 중에서 5,000가구를 직접 추출하는 작업이 상당한 비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동시에 1997년 고용구조 특별조사의 결과와의 상호비교를 위하여 추출된 표본이 1997년 고용구조특별조사의 표본에 속하도록 하였음.

- 인구주택총조사의 10% 표본조사구인 21,675 조사구 중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도시지역만을 대상으로 이를 층화하였으며 층화의 기준은 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동일 지역 내에서는 1997년 고용구조특별조사의 층화방법을 채택하였음. 조사구의 추출방법은 계통추출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시·부만을 대상으로 1,000개의 조사구를 선정하고, 각 조사구 내에서는 1997년 고용구조특별조사의 조사대상가구 중에서 5가구를 Random Sampling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음(1997년 고용구조특별조사의 조사구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고용구조특별조사의 조사구에 포함되도록 조정하는 과정을 거쳤음).
- 조사구가 추출될 확률은 지역에 상관없이 5.3% 정도이며 서울지역과 경기도 시·부의 읍·면지역은 추출되어야 할 조사구의 숫자보다 1997년 고특의 조사구수가 적기 때문에 해당되는 모든 조사구를 포함시키고 조사구당 가구수를 5가구에서 6가구로 상향조정하였음.
- 이와 같은 방법으로 조사구를 선정한 후 각 조사구 내에서 1997년 고용구조특별조사에서 조사 성공한 가구들 중 임의추출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5~6가구를 선정하였음. 도시지역만을 대상으로 추출하였기 때문에 조사 결과가 전국을 대표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음(일례로 노동패널조사 표본의 광역시 이상 가구원 비중은 57.8%로 1998년 추계인구조사에서 광역시 이상의 가구원 비중이 48.8%로 나온 것에 비하여 9% 가량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3) 조사방법

- 면접원이 질문하고 그 응답을 면접원이 기록하는 면접타개식을 원칙으로 함. 심야 귀가 등의 원인으로 면접원이 조사대상자를 만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용 설문지에 한하여 유치조사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 실사기간 동안 유학, 출장, 여행, 입원, 실종, 행상 등의 이유로 함께 거주치 않아 면접조사에 응할 수 없는 가구 구성원에 대하여는 아래의 원칙에 따름.
 - ① 실사기간 중 가구로 일시 또는 완전 복귀하는 사람은 직접조사를 실시.
 - ② 가구로 복귀하지 않는 사람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전화조사를 실시.
 - ③ 전화면접조사가 어려운 경우, 조사일 현재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하는 가구원

- (예, 영내거주 군인 및 전투경찰, 취학으로 외지에 상주하는 가구원, 교도소, 소년원, 요양원 등 사회보호시설 수용자 등)은 개인용 설문지의 조사대상에서 제외. 단, 이들에 대한 연락처 및 인적사항 등은 가구용 설문지에서 질문.
- ④ 전화면접조사가 어려운 경우, 조사일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원(예, 취업으로 외지에 상주하는 가구원, 사업상 장기간 출타중인 사람, 아르바이트 학생, 영내거주 직업군인 및 경찰 등)에 대한 개인용 설문지는 해당 가구원에 가장 가까운 조사대상자가 대리응답. 또한 정신박약, 허약, 치매, 노환 등 정신적, 신체적 장애로 응답할 수 없는 성인은 가장 가까운 조사대상자가 대리응답
- 개인용 설문지는 조사대상가구에 속한 만 15세 이상의 모든 가구구성원을 조사대상자로 하고, 가구용 설문지는 조사대상가구의 가구주 혹은 가구주의 배우자를 응답자로 하되 가구주와 그 배우자가 응답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구에 관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할 수 있는 다른 가구구성원을 응답자로 함.
- 조사대상가구에는 “원표본가구”, “분가표본가구”, “분리표본가구”가 포함됨. 여기서 “원표본가구”는 제1차년도에 표본으로 추출되어 1차 조사완료된 유효 표본가구를 의미하며 “원표본가구원”은 제1차년도에 “원표본가구”에 속한 모든 가구원을 의미. 또 “분가표본가구”는 “원표본가구원”이 결혼이나 세대분리 등으로 “원표본가구”로부터 분가하여 독립적으로 형성한 가구 또는 분가하여 들어간 다른 가구를 말하며, 이 때 그 배우자와 자녀를 “분가표본가구원”이라고 함. “분리표본가구”는 “원표본가구원”의 배우자가 이혼, 별거 등의 이유로 원표본가구원과 분리되어 형성한 가구 또는 분리하여 들어간 다른 가구를 의미하며 본인을 포함하여 그 가구원(즉, 양육하는 자녀)은 “분리표본가구원”이라고 함.

4) 조사내용

- 가구용 자료의 내용은 가구원의 인적 사항, 변동 가구원 관련 사항, 가족관계와 세대간 경제적 자원 교류, 주거상태, 자녀교육과 보육, 가구의 소득과 소비, 가구의 자산과 부채, 가구의 경제 상태 및 가계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 항목 등의 내용을 포함함.
- 개인용 자료는 개인의 경제활동상태, 소득활동 및 소비, 교육 및 직업 훈련, 고용상의 특성, 근로시간, 직무만족 및 생활만족, 구직활동, 노동시장 이동 등을 포함함.

회고적(retrospective) 일자리를 포함한 개인의 모든 일자리 정보를 토대로 구성된 직업력 자료는 기업 형태 및 규모, 고용형태, 취업시기 및 퇴직시기, 업종과 직종, 종사상 지위, 근로시간 형태, 임금 및 소득 등 개인의 일자리 관련 정보를 제공.

- 부가조사는 한해에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3차, 4차, 6차년도에 각각 조사되었음. 우선 3차년도에는 만15세 이상 30세 미만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청년층 부가조사를 실시, 4차년도에는 만45세 이상의 개인을 대상으로 건강과 은퇴 부가조사를 실시, 6차년도에는 만50세 이상의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은퇴 및 노후생활과 관련된 부가조사를 실시하였음.
- 3차년도 청년층 자료는 학력, 자격증, 재학 중 직업훈련, 재학 중 취업 경험, 졸업 후 첫 일자리 등의 내용, 4차년도 건강과 은퇴 자료는 건강상태, 장애/장해 여부, 지병, 의료기관 이용, 부양과 피부양, 건강상의 문제와 근로, 은퇴와 노후 생활 등의 내용을 수록함. 6차년도 중고령자 부가조사 자료는 은퇴상태의 판별, 은퇴시기, 은퇴사유, 은퇴계획, 정년관련 사항, 생애에서 가장 주된 일자리의 산업, 직업, 종사상지위, 취업기간, 직장규모, 근로시간, 정년, 그만둔 사유, 임금(소득), 만 45세 당시의 일자리 특성, 현재의 소득원천, 연금 및 보험 납부액, 자녀 수, 자녀로부터의 경제적 도움, 가족에게 주는 경제적 도움, 부모님 부양 주체, 이웃과의 교류, 여가활동, 건강상태 등을 다루고 있음. 7차년도에는 근로시간과 여가라는 주제로 부가조사를 실시하였음.

5) 운영체계

- 현재 노동패널의 운영은 팀장(박사1인)과 4명의 연구원, 1명의 연구조원이 담당하고 있음. 초기년도 개발시에는 몇명의 박사 전담인력이 가담하였으나 현재에는 운영,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인원이 투입되고 있음. 팀장은 패널팀 총괄을 맡고 있으며 연구원들은 패널팀 총괄, 데이터업무 총괄 및 학술대회 간사, 실사 및 자료발간 담당, 데이터클리닝 및 가공담당 등으로 업무를 분장하고 있음.
- 조사설계부터 현장실사, 데이터클리닝, 가공, 자료의 분석 및 활용, 최종보고서 발간까지 총 2년 반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조사와 데이터 클리닝의 작업이 연중 지속되어 두 웨이브가 동시에 운영되는 형태를 띠고 있음.
- 조사설계에서는 지난해 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부가조사의 경우 사

전에 원내외에 부가조사 주제를 공모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실사는 ‘한국리서치’가 수행하고 있으며 4월에 면접원 교육, 5~9월에 실사를 진행함. 연간 총 70명의 면접원이 투입됨. 실사관리는 4차년도부터의 3만원 현금인센티브를 비롯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 성공을 높이하고자 하고 있음.
- 자료의 사용은 패널팀의 자체분석, 학술대회개최, 노동패널연구회 등을 이용하여 유저의 확대를 모색하고 있음.

6) 시사점

- 노동패널의 경우 가구사항에 대한 조사, 개인의 경제활동에 대한 조사 등이 폭넓게 이루어진 자료로 객관화된 가구사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자료가 여성과 가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포괄하기에는 여전히 제한적임
- 표본구성상의 한계
 - 6차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노동패널자료는 남성 5,283명, 여성 5,702명의 총 10,985명을 표본에 포함하고 있으나 이중 여성 취업자는 2,450명에 그쳐 취업하고 있는 여성의 전체 표본 중 비중은 22.3%에 그치고 있어 여성취업자의 다양한 상태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지역별로 여성취업자의 분포를 보면 서울 562명을 비롯하여 강원이나 충북지역에는 각각 48명만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세분화되어 들어갈수록 표본의 한계가 나타남.
 - 전국적으로 조사된 여자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는 약 1,650명, 비임금근로자는 419명, 무급가족종사자는 381명에 그쳐 각 취업상태별로 나타나는 특징을 파악하기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음.
- 개인설문내용상의 한계
 - 설문내용에서 노동패널자료는 근로와 관련한 매우 다양한 사항을 포괄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하지 않는 여성, 즉 비취업자에 대한 내용은 취업의사나 훈련, 구직 등 취업준비 사항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비취업여성의 다양한 생활 및 활동을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특히 비취업여성의 비취업원인 및 구직의 원인을 직접 질문하고는 있으나 그

배경이 되는 여성특수한 변인들에 대한 사항이 풍부하게 밝혀지지 않아 이들의 비취업원인, 향후 전망 등이 보다 단선적으로 나타나는 측면이 있음.

- 취업 및 비취업을 막론하고 여성의 생활은 취업 외에도 다양한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를 파악하지 않고서는 여성의 생애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특히 여성의 비취업활동 사항인 돌봄과 관련된 행위들, 임신 및 출산 등 여성의 생애사적 사건들 등 여성특수한 사항에 대한 이해는 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할 경우 파악하기 어려울 것임.

○ 가구설문내용상의 한계

- 가구설문의 내용을 보면 가구의 인구학적 사항 및 경제적인 사항에 관련된 매우 풍부한 정보를 담고 있음. 경제적인 사항은 소득, 소비 뿐 아니라 이전, 부채, 사교육, 보육 등 가계의 경제활동 전반을 포괄할 정도의 풍부한 질문을 담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생애를 파악하기 위하여 가족의 사항에 대한 보다 풍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특히 가족관계, 가족내부의 의사결정, 여성들이 주로 경험하는 가족사항 등이 가구설문에서 보다 폭넓게 다루어진다면 여성의 경제활동, 비경제활동 등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임.
- 다양한 가구타입에 대한 고려들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여성 단독가구나 여성가구주 가구 등은 전체 표본에서 나타나는 비중이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남. 다양한 여성들의 삶을 조망하기 위하여 보다 다양한 내용들이 설문에 구성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노동패널이 가지는 풍부한 자료내용이 보다 성인지적으로 구성되어 여성의 삶에 대한 보편성과 특수성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이점에서 여성가족패널의 향후 방향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나. 청년패널(Youth Panel)

1) 개요(조사의 목적)

- 청년층의 학교생활, 사회·경제활동, 가계 배경 및 학교-노동시장 이행(school to work transition)의 단계별 이동과정에 대한 상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층의

노동력 수급 불균형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청년실업 등 청년층 문제 관련 정책과제나 학술연구의 수행을 위해 널리 활용될 수 있는 미시자료를 축적하기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이 노동부의 예산지원을 받아 2001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패널조사. 특히 청년층의 노동시장 초기 진입 상태와 이동경로를 추적하여 청년관련 고용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주안점을 둬.

- 2001년도에 1차년도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현재 2004년도 4차년도 조사자료까지 발간.

2) 표본설계

- 2001년도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OES)의 부가조사 형태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OES 조사의 표본추출 틀을 그대로 따른다. OES조사는 인구주택총조사의 10% 조사구 중 섬지역과 시설단위 조사구를 제외한(제주도는 포함), 총 22,029개 조사구를 모집단으로 함. 조사구 내 가구규모에 비례하는 확률비례계통추출법을 통해 2,500개 조사구를 표집. 각 조사구에서 계통추출법을 통해 20개씩의 가구를 추출. 이렇게 하여 추출된 총 5만 가구가 OES의 표본가구가 됨. 이 중에서 청년패널조사는 20%인 1만 가구를 랜덤샘플링으로 추출(2,500개 조사구 별로 4개 가구씩). 이들 가구를 최종 면접대상으로 하여 조사에 착수했으며 그중 6천5백여 가구를 면접성공하여 총 8,296명의 청년을 조사했음. 이들이 청년패널조사의 원표본이 됨.
- 2차년도에는 1차년도 원표본 중 5,519가구 5,957명을 조사하여 71.8%의 원표본 유지율을 보였으며, 3차년도에는 4,198가구 5,112명을 조사하여 61.6%의 유지율을, 4차년도에는 4,295가구 5,001명을 조사하여 60.3%의 유지율을 각각 기록함.

3) 조사방법

- 표본가구원 중 만15세 이상 29세 미만의 청년 전원을 대상으로 조사함. 면접원이 조사대상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질문하고 응답을 직접 기록하는 면접타개식을 원칙으로 함. 가구용 설문지의 경우에는 유치응답이나 대리응답을 허용하지 않고 가구주나 그 배우자가 반드시 직접 응답하게 함. 개인용 설문지는 개별 면접을 기본으로 하되, 응답자를 만날 수 없거나 응답을 거부할 때는 설문지를 가구에 유치하

여 응답자가 직접 조사표에 기입하는 방식을 보충적으로 사용함.

- 실사단계에서 조사불응 가구 혹은 조사불능 가구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조사구 내의 이웃 가구로 대체함.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및 산업인력공단 지방 사무소의 직업 상담원 인력을 교육하여 실사에 투입. 데이터의 코딩 및 재코딩은 직업상담원과 중고원연구원이 담당하였으며 데이터 클리닝은 조사업체에 의뢰.

4) 조사내용

- 설문지는 가구용 설문지와 개인용 설문지로 나누어져 있고, 개인용 설문지는 다시 응답자의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중고등학생용, 대학생용/대학원생용, 취업자용, 미취업자용으로 나뉨. 개인용 설문지 중에서 어떤 것에 응답할지는 가구용 설문지의 몇 가지 선별문항에 의해 결정됨.
 - 가구용 설문지에서는 가구원 인적사항, 가구원간 관계, 주거상태, 소득, 가구원 연령 및 성별, 등의 기초 인구학적 변수들 이외에, 개인용 설문지 선정을 위해 가구원 중 15~29세 해당자에 대한 설문(동거여부, 비동거시 사유, 학생-직장인 여부, 실업-구직여부)등이 추가된다.
 -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대학원생 등 학생용 설문지에서는 개인신상, 학교현황, 아르바이트 경험, 직업관 및 앞으로의 희망진로, 직업훈련, 교육훈련, 자격증, 첫 직장, 부모관련 문항 등이 포함된다. 또한 각급 학교별로 과거 학교에 대한 회상 질문이 추가된다.
 - 취업자용 설문지에서는 중·고·대·대학원 시절에 대한 회상질문, 아르바이트 경험, 현재 재학여부(고·대·대학원), 첫직장 여부, 첫직장과 현직장의 직장유형-종사상지위-근무시기-근속년수-대우수준 등, 직업관, 향후 희망진로, 직업훈련 관련 설문 등이 포함된다.
 - 미취업자용 설문문항은 취업자용과 동일하며, 그 이외에 구직활동 여부, 구직활동 기간, 재취업노력 유형, 구직과정의 가장 어려움 점, 희망직종, 희망연봉 등이 추가된다.
- 전반적으로 볼 때, 청년층의 학교-직장 이행과 노동시장 초기 진입 상태와 이동과정을 밝히는 데 초점을 두고 설문지가 구성됨.

5) 운영체계

- 노동부 “인력수급 인프라구축 방안” 세부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예산지원을 받아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이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와 함께 통계청의 공식승인을 받아 수행함. 설문 내용과 조사 항목의 개발·확정을 위해 중앙고용정보원과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운영함.

6) 여성가족패널에 대한 시사점

- 여성 청년층을 대상으로 학교-노동시장 이행과 노동시장 초기진입 상태 및 이동경로의 동학을 파악하는 것이 여성가족패널의 목표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분야와 관련된 청년패널의 설문내용은 그대로 여성가족패널의 설문문항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됨. 그렇다면, 여성가족패널 조사 대상 가구의 여성 가구원의 응답 범위를 청년패널처럼 만 15세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또한 여성가족패널이 여성가구원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청년패널의 조사방법과 유사하게 가구를 먼저 추출하고 그 가구 내에서 일정 연령 이상의 여성가구원을 모두 면접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다만 가구에 편입되거나 가구를 떠난 여성가구원을 계속 추적할 것인지, 분가하거나 합가한 가구의 여성가구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개인과 가구에 대한 추적원칙은 별도로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다. KEEP(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

1) 개요

- 본 연구는 한국 교육 고용 패널(KEEP: 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 자료의 구축을 통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며 대표성을 갖는 청년층의 교육관련 정보를 충분히 생성하면서 교육과 노동시장간의 관계를 보다 밀도 있게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본 조사의 조사 대상 및 표본 수는 중학교 3학년생 2,000명,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생 2,000명, 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생 2,000명 총 6,000명임. 그리고 학생의 가구 6,000명, 교감 또는 교무 담당 교사 300명, 학생의 담임 교사 1,125명임.

2) 표본설계 및 조사방법

- 2003년 설문지 개발 및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차 본조사는 2004년 3월 24일에 시작하여 8월 10일까지 약 4개월에 걸쳐 진행되었고, 2차 본조사는 2005년 6월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에 걸쳐 진행되었음.
- 2004년 1차 본조사의 진행 과정에서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협조 공문을 조사 대상 학교로 발송하고, 2차례에 걸쳐서 학교를 방문함. 학교 1차 방문시에는 조사의 취지 및 과정을 설명하고 학교장과 담임 교사의 협조를 구함. 학교 2차 방문시에 실제 학생과 교사들의 조사를 시행하였음. 또 학생과 담임 교사의 동의 하에 가구를 방문하여 학부모 조사를 진행함.
- 2005년 2차 본조사의 진행 과정에서는 1차년도에 확보한 주소 및 연락처를 기반으로 추적 조사하였으며, 추후에 교육부 공문, 행자부 공문을 추가로 요청하여 조사의 성공을 높였음.
- 본조사 진행시 연구진은 면접원들과 함께 학교 현장을 동행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를 수정함.
- 주로 PDA를 이용한 대인 면접 조사를 실시하였고, 담임 교사 및 가구의 경우 PDA와 paper 조사를 병행하였음.

○ 1차년도 조사대상 표본수 및 조사 성공률

조사대상	목표 표본수	유효 표본수	조사 성공률(%)
학교(교감)	300	300	100.0
학급(담임)	1,125	1,116	99.2
학 생	6,000	6,000	100.0
가구(보호자)	6,000	5,829	97.2
계	13,425	13,245	98.7

○ 2차년도 조사대상 표본수 및 조사 성공률

- 2005년도 제 2차년도 조사의 원표본 대비 조사성공률은 90%를 넘었으며, 학생, 부모 매칭도 약 96%정도로 성공리에 조사가 완료된 상황임.
-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1차년도 자료는 2005년 12월 말에 공식 배포되었음.

- 최종 자료는 텍스트 자료와 더불어 SPSS용 및 SAS용 자료 유형으로도 제공
- 각각의 설문지별 자료 셋을 기본적으로 제공하며, 전체 자료의 통합 또는 부분적인 자료의 통합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제공
- 각 설문지별 및 부분적 통합 자료 등 다양한 유형의 자료 형태와 유저가이드, 코드북, 레이아웃, 설문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 CD를 제작 완료하였음.

3) 조사내용

○ 1차년도 설문내용 구성

학생 조사내용

범 주	조사 내용
학교생활	◦ 계열 및 계열선택 이유, 만족도(심리적, 물리적), 선생님에 대한 인식, 친한 친구의 특성, 친구와의 대화, 왕따 경험, 교내 동아리 활동, 임원 경험, 사회봉사 경험, 전학 경험, 휴학 경험
가정생활	◦ 만족도, 보호자 및 보호자 평가, 형제자매와의 대화, 가족과의 활동, 방과후 시간을 보내는 곳, 여가시간, 용돈, 독서량, TV 시청시간, 컴퓨터 활용
학업성취	◦ 교과목에 대한 인식, 사교육 현황, 학습시간, 수상경력, 자격증
진로계획	◦ 미래직업(선호직업, 직업정보, 역할 모델, 희망이유, 영향을 끼친 사람, 직업 인식, 근무형태, 이직 가능성, 미결정 이유, 교육수준), 졸업후 진로
진로지도	◦ 적성 파악 및 방법, 진로지도(학교, 가정), 진로정보 획득방법,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
재학 중 근로	◦ 근로 경험(종류, 시간, 보수, 이유, 구직 방법, 그만둔 이유)
자아관/직업관	◦ 인생에서 중요한 것, 자아인식, 자신을 믿고 격려해 주는 사람, 직업을 갖는 이유, 직업에서 성공하는 요인, 직업선택의 요인, 자아평가
일반현황	◦ 성별, 종교, 신장, 체중, 흡연/음주 여부, 이성친구, 성관계 경험, 기출경험, 건강 상태, 수면시간, 아침식사, 현재 고민사항, 지각/결석 회수, 징계 경험

학교 조사내용

범 주	조사 내용
일반현황	◦ 평준화여부, 수준별 이동 수업 실시 여부, 특기적성수업 실시여부, 학교행사, 부모/학생의 의견 수렴 정도, 생활지도나 규율 정도, 진로지도 운영 사항, 학교 환경, 졸업자수/취업자수/진학자수/자퇴자수/징계자수, 평균 출석률, 수업일수, 교원현황(기간제 교사 수, 교원단체 가입 수)
학생평가	◦ 학생별 지각정도, 결석정도, 징계 경험, 수상내역, 특성, 성적
담임교사 일반적 사항	◦ 성별, 연령, 담당과목, 교사자격증 취득과목, 학력, 교사경력 년수, 소속 교원 단체

가구 조사내용

범 주	조사 내용
가구원 현황	◦ 가구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혼인여부, 동거여부, 취업여부, 교육정도
생활환경	◦ 주택의 소유형태/종류/주거면적/시가, 학생방 유무, 정보통신기기 보유 현황, 정기구독지 현황, 도서 보유량, 가족과의 활동, 해외여행 경험, 가구원 입원 경험/장애 여부, 승용차 보유 유무
교육환경	◦ 대화시간, 학생과약 정도, 학생 평가, TV 시청시간, 학업 도움정도, 가정 내 규율, 진학 및 직업에 대한 전망 및 일치도, 부모의 직업관/인생관, 교육을 위한 유학고려/이사 경험, 학교방문, 교육정책에 대한 관심도, 특기적성교육 투자 의지
경제활동 및 자기개발	◦ 부모 및 형제(자매)의 경제활동상태(직장명, 고용형태, 직위, 월평균소득, 생활 수준), 부모의 교육(훈련) 경험/분야, 컴퓨터 사용 빈도, 인터넷 사용 빈도
가구소득	◦ 월평균 저축액/생활비, 부채, 문화생활비, 교육비용(사교육, 공교육), 교육비 지출내역

○ 2차년도 설문내용 구성

- 2차년도 설문지는 크게 중학생 설문지, 고등학생 설문지, 대학생 설문지, 취업자·비진학자 설문지, 가구 설문지로 구분됨.

○ 응답 대상별 설문지 변화

1차년도(2004년)	2차년도(2005년)	
중학교 3학년생	→ 중학교 3학년생, 일반고 및 실업고 1학년생	→ 취업자·비진학자
일반고 3학년생	→ 고등학교 3학년생, (전문)대학 1학년생	
실업고 3학년생		
가 구	→ 가구	

- 중학생 설문지는 1차년도에서 중학교 3학년이었던 학생이 건강이나 가 정상의 문제로 진학하지 못하여 휴학을 했거나 복학하여 여전히 중학 생에 머물고 있을 경우 해당하는 설문지임.

○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설문지 조사내용

범 주	조사 내용
휴학 및 복학	◦ 휴학 이유, 휴학 시기, 복학 여부, 복학 예정 시기
학교생활	◦ 학교명, 학교소재지, 일반계·실업계 선택이유, 학교 유형, 입학불합격 경험, 재학 중인 학교를 선택한 이유 등
가정생활	◦ 거주지, 남성보호자·여성보호자 동거여부 및 비동거 사유, 보호자 양육태도, 가정생활 만족도 등
여가생활	◦ 여가시간, 여가활동, TV시청 시간, 컴퓨터 사용 시간, 목적별 컴퓨터 사용정도, 독서량, 독서종류 등
사교육	◦ 과목별 사교육 경험 및 시간, 종류, 사교육 비용, 성적향상 도움정도
중3 시절 사교육	◦ 과목별 사교육 경험 및 시간, 종류, 사교육 비용, 성적향상 도움정도
재학 중 근로경험	◦ 근로 경험 여부, 종류, 기간, 근무 일수 및 시간, 소득, 근로 이유, 구직 방법, 그만둔 이유
진로계획	◦ 미래직업 결정 여부, 희망직업명, 직업정보, 역할 모델, 희망이유, 직업 미결정 이유 등
진로지도	◦ 적성 파악 및 방법, 진로지도(가정, 학교), 진로정보 획득방법,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
방학생활	◦ 방학 중 사교육 경험(과목별 사교육 시간, 종류, 사교육 비용), 혼자 공부한 시간 등
일반적 특성	◦ 건강 상태, 운동시간, 수면시간, 아침식사, 사귀는 사람, 현재 고민거리, 자살고민 여부 등

- 고등학생 설문지는 2004년 중학교 3학년 학생이었던 학생들이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1학년이 된 일반고, 실업고 학생들과, 진학하지 못하여 여전히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또는 휴학 상태인 학생들을 위한 설문지로 총 세 종류임.

○ 고등학생 설문지 조사내용

범 주	조사 내용
학교생활	◦ 학교명, 학교소재지, 일반계·실업계 선택이유, 학교 유형, 입학불합격 경험, 재학 중인 학교를 선택한 이유 등
가정생활	◦ 거주지, 남성보호자·여성보호자 동거여부 및 비동거 사유, 보호자 양육태도, 가정생활 만족도, 방과 후 시간을 보내는 곳 등
여가생활	◦ 여가시간, 여가활동, TV시청 시간, 컴퓨터 사용 시간, 목적별 컴퓨터 사용정도, 독서량, 독서종류 등
사교육	◦ 과목별 사교육 경험 및 시간, 종류, 사교육 비용, 성적향상 도움정도
중3시절 사교육	◦ 과목별 사교육 경험 및 시간, 종류, 사교육 비용, 성적향상 도움정도
재학 중 근로경험	◦ 근로 경험 여부, 종류, 기간, 근무 일수 및 시간, 소득, 근로 이유, 구직 방법, 그만둔 이유
진로계획	◦ 미래직업 결정 여부, 희망직업명, 직업정보, 역할 모델, 희망이유, 직업 미결정 이유 등
진로지도	◦ 적성 파악 및 방법, 진로지도(가정, 학교), 진로정보 획득방법,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
방학생활	◦ 방학 중 사교육 경험(과목별 사교육 시간, 종류, 사교육 비용), 혼자 공부한 시간 등
일반적 특성	◦ 건강 상태, 운동시간, 수면시간, 아침식사, 사귀는 사람, 현재 고민거리, 자살고민 여부 등

- 대학생 설문지의 경우 2004년에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학생들이 진학 하여 대학(교)에 들어간 경우에 해당하는 설문지이며, 대학의 종류나 특성과는 관계없이 한 종류임. 휴학이나 취업 여부와는 관계없이 학교에 등록을 한 경우도 대학생 설문지에 해당함.

○ 대학생 설문지 조사 내용

영역	조사 내용
학교생활	◦ 소속 학교명·학부명·전공명, 학년제, 주야간 여부, 학교소재지, 전형방법, 입학 유형 등
가정생활	◦ 거주 유형, 남성보호자-동거여부, 비동거 이유, 대화정도, 고교시절까지 양육 태도 등
여가생활	◦ 여가시간과 여가시간에 하는 일, TV시청, 컴퓨터 사용 시간 및 사용정도, 독서 현황 등
교육 훈련	◦ 영어, 제2외국어, 전공 관련 학습 여부, 시간, 비용, 취업 창업 교육훈련 경험 유무 등
재학 중 근로경험	◦ 근로경험, 총 소득, 가장오래한 일의 종류, 기간, 소득, 근무시간, 근무일수, 단위소득, 근로이유, 구직방법, 그만둔 이유
진로 계획	◦ 미래직업 결정유무, 미래직업명, 아는 정도, 희망이유, 전공과의 일치도, 미래 직업 미결정 이유 등
고3 시절 사교육	◦ 과외 및 학원 수강 여부, 시간, 종류, 사교육비 규모, 사교육의 도움 여부, EBS 수능 특강 시청 여부 등
현장실습 (실업고 졸업자)	◦ 현장실습 경험, 완료 여부, 중도탈락 이유, 한 일, 사업체 종류, 한 일의 종류, 규모, 참여일수, 일한시간, 현장실습 수당, 액수, 현장실습의 효과
일반적 특성	◦ 건강에 대한 판단, 운동 시간, 수면시간, 아침식사, 외모로 인한 차별 경험, 사귀는 사람 여부 등

○ 취업자·비진학자 설문지는 더 이상 진학하지 않고 노동시장으로 이행 하였거나 준비를 하고 있는 응답자, 또는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응답자, 중도탈락자 등을 모두 포함함.

○ 취업자·비진학자 설문지 조사내용

범 주	조사 내용
구직활동	◦ 구직활동 경험 여부·기간, 구직 실패 경험 여부·회수·이유, 직업훈련 참여/자격증 취득/취업 정보 검색/취업 부탁/방문 취업 부탁/면접훈련/직업적성 등
가정생활	◦ 현재 거주 형태, 현재 남·여성 보호자, 남·여성보호자와 동거 여부·비동거 이유, 남·여성보호자와 하루 평균 대화 시간, 중·고등학교까지의 주된 남·여성 보호자 등
여가생활	◦ 여가 시간, 주요 여가 활동, TV시청 시간, 컴퓨터 사용 시간, 목적별 컴퓨터 사용 정도, 독서량 등
교육훈련	◦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경험 여부, 교육·훈련 분야·기간·시간·총 비용 등
Job history	◦ 일자리 경험 여부·회수, 1개월이상 지속된 일자리 경험 여부·회수, 일을 시작한 시기 등
진로계획	◦ 현재 학력, 중학교 중퇴 이유, 중학교 복학 의사 여부, 고등학교 진학 계획 여부, 고등학교 진학하지 않는 이유, 고등학교 진학 예상 시기, 고등학교 중퇴 이유 등
2004년 사교육	◦ 사교육 경험 여부, 국어/언어/논술 사교육 경험 여부·시간·종류, 수학/수리 사교육 경험 여부 등
현장실습	◦ 현장실습 경험 여부·완료 여부·그만둔 이유, 남은 실습기간에 한 일, 현장 실습 등
일반적 특성	◦ 건강 상태, 운동 시간, 수면 시간, 아침식사 여부, 외모로 인한 차별 경험 여부 등
현재취업 상태	◦ 현재 취업 여부
현 일자리특징	◦ 현재 일자리 수, (임금근로자) 일자리 유형, 일을 시작한 시기, 직장 명·지역·설명, 직장에서의 하는 일·직책·직위, 상용직 여부, 비상용직인 이유 등
취업의사	◦ 지난 1주일간 일자리 경험 여부·구직활동 여부, 취업 의사, 취업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 하고 싶은 일, 최소 희망 월소득
취업준비	◦ 취업을 위해 보내는 시간(스스로 공부·학원, 직업훈련 기관·구직활동)

○ 가구 설문지는 2004년과 동일하게 학생 또는 취업자들의 가구 상황을 조사하기 위한 설문지임.

- 가구 설문지의 구성은 보호자 변동 사항, 남성 보호자의 경제활동 상태, 여성 보호자의 경제활동 상태, 가구소득, 자산과 부채, 가구 지출, 주거 상황 등으로 이루어짐.

4) 운영체계

- 설문 조사 시스템은 패널 자료 수집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조사 신뢰도 제고 및 자료 검증기간의 단축, 장기적으로 조사 관련 비용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함.
- KEEP 조사에서는 CATI(Computer-Assisted Telephone Interviewing)방식을 PDA 폰에 응용한 솔루션을 개발하여 종이와 연필을 이용한 조사시에 나타나는 단점을 극복하고자 하는 취지로 KISS(Krivet Information Survey System) 시스템을 개발하였음.
- KEEP에서 개발한 솔루션의 장점을 보면 다음과 같음.
 - 조사 기간 중 일일 단위 또는 매 시간마다 검증작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판단하여 부적절한 자료의 경우 신속하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음.
 - 조사기간 중 발생하는 문제 등에 대해 일일이 연락을 취하지 않더라도 면접원들에게 PDA의 공지사항을 통해 바로 바로 연락하여 조사의 원활함과 신속성을 기할 수 있음.
 - PDA 폰의 공지사항을 통해 지역별 면접원 전체나 개별 면접원에게 조사에 필요한 숙지 사항, 주의사항 등을 필요할 때마다 보내 Field Control을 실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또한 지역별로 상주 인원을 두지 않아도 면접원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 절감이 가능함.
 - PDA Solution을 통한 방식은 자료의 검증과 cleaning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data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특정 설문 항목이 응답자에게 필요치 않은 경우는 다음 문항으로 자동적으로 이동하게끔 하여 응답이 불필요한 문항에 대한 응답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함.
 - 응답자가 특정 항목에 대해 응답을 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코드화시켜(잘 모름, 해당 없음, 응답거절의 3가지 유형) 면접원이 입력하게끔 함으로써, 무응답의 사유에 대한 이해 및 분석이 가능하고, 결과적으로 설문 문항의 개선과 data의 질 제고에 기여함.

- 동일 설문내의 설문 항목간 모순된 응답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자료의 검증 및 cleaning 노력을 최소화하고 data의 신뢰성을 제고함. 예를 들어 학력을 고졸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직업을 의사로 답한 경우, PDA 상에서 경고문이 뜨고 면접원이 재차 확인하여 답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함.
- 다른 설문간에도 상호 모순된 응답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시점간 자료의 검증 및 cleaning 노력을 최소화하고 장기간의 패널자료에 일관성 부여가 가능함. 예를 들면 작년에는 고등학교 졸업으로 응답한 사람이 올해 최종 학력이 중학교 졸업이라고 응답할 경우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대답이므로 이 경우 어떤 것이 맞는지 확인하여 수정된 입력을 유도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
- 조사와 동시에 DB가 구축되며, 약간의 cleaning 과정만 거치면 곧바로 연구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조사부터 최종 data 생성까지의 소요 시간이 대폭 단축됨.
- PDA Solution의 구축은 비단 PDA를 이용한 조사뿐만 아니라 CATI 방식의 조사, 이메일을 통한 설문조사, 웹 화면에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 조사 등에도 활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조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임.

5) 여성가족패널에 주는 시사점

- KEEP조사는 교육과 노동시장에 초점을 맞춘 패널조사로서 현재 본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여성가족패널보다 그 분야가 좁고, 조사대상도 개인으로 한정된 패널조사이기 때문에 구조면에서 상이한 면이 많이 발견됨.
- 중학생, 일반고생, 실업고생의 3개의 코호트로 조사대상을 나누어 진행하는 것이 기존의 패널연구와는 다른 특이사항임.
- 학생 개인의 학업력, 취업력, 가구상황에 대하여 비교적 방대하고 질문하고 있으나, 1차, 2차년도 설문내용에서는 교육적인 측면이 대부분이며, 이후에 설문내용을 보강한다 하여도 개인의 취업력에 대하여 자세히 묻는 것 이외에는 다른 콘텐츠를 담을 수 없는 구조임. 따라서 초기년도에는 청년패널과의 중복성으로, 향후에는 노동패널과의 중복성 문제를 가지고 비판받고 있음.
- KEEP 조사의 운영체계는 국내 최초로 설문조사시스템을 도입하여 PDA조사를

실시하였다는 것인데, CAPI의 수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는 초기 시스템 구축 비용과 기간, 그리고 유지비용의 문제와 불안정한 시스템문제, 국내 면접원들의 시스템 사용미숙으로 인한 조사 오류와 같은 막대한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이고, CAPI조사를 포기하고 이전조사방식인 PAPI로 돌아갈 지도 모르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므로 결론적으로 현재 조사현실을 놓고 볼 때 여성가족패널에 CAPI 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판단됨.

- KEEP조사와 여성가족패널은 그 조사대상과 분야가 상이하나, KEEP조사는 조사 과정이 투명하고, 비교적 초기의 연구자들의 원칙을 충실히 지켜 실시한 조사로서 성공적으로 1차 조사를 마치고, 2차 조사 역시 90%에 이르는 유지율을 보이면서 현재 국내패널 중에 성공한 패널로 자리잡고 있음. 그 배경으로는 설문개발 이후의 본조사가 실시될 때 조사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를 통하여 조사의 질을 높이고, 지속적인 토의를 통한 즉각적인 상황대처능력 발휘와 같은 패널 팀의 헌신과 더불어 시의 적절한 홍보, 학술대회개최, 언론플레이와 같은 활동 있었기에 가능하였음.
- KEEP의 성공요인을 본받으면서, 동시에 타패널과의 중복성 문제를 초기부터 고려하면서, 연구진의 합의된 논의를 통해 도출된 논리 하에 설문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라. 여성 취업실태조사

1) 개요

- 여성의 취업실태조사는 14세 이상 65세 미만의 기혼여성인구를 모집단으로 하여 여성의 취업실태를 조사하고 본조사에서 제기된 여성취업의 문제점을 토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제안의 기반을 마련하며, 이를 통해 여성취업과 관련된 연구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되었음.
- 기존의 자료는 노동과 임금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 이외의 변수, 예컨대 가족, 혼인, 가구소득, 여성취업에 대한 사회 및 문화적인 관습과 의식 및 직업훈련 교육내용 등이 결여되어 여성정책 수립이 불가능한 상황임.
- 여성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연구뿐만 아니라 가족연구, 혼인관계연구, 출산연구 등

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연구, 그리고 여성의 취업과 가족, 여성취업과 혼인시장, 여성취업과 직업교육의 상관관계 등 학제간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기획되었음.

- 1986년도에 첫조사를 실시하여, 92년, 97년, 2002년에 걸쳐 4번의 조사가 실시되었음.
- 취업, 실업 및 비경제활동상태 등 여성의 경제활동상태별 특성 그리고 여성의 생애 주기에 따른 취업력 변화과정 등 여성의 취업실태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파악하고, 구체적인 여성인력관련 정책개발 및 중장기 수급계획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여성노동 및 인력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원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2) 표본설계

- 1차 조사에서는 기혼여성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나, 2차 조사에서는 학생을 제외한 미혼여성을 포함하였으며, 3차 조사에서는 15세 이상학생까지 대상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4차 조사에서는 학생의 경제활동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학생을 보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음.

조사년도별 표본수 및 완료율

년도	조사대상 가구	완료가구
1986	4,959(100%)	4,665(94.1%)
1992	3,200(100%)	3,128(97.8%)
1997	3,200(100%)	3,196(99.9%)
2002	5,000(100%)	4,646(93%)

3) 조사방법

- 표본추출에 의해 선택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대해 먼저 가구조사표를 이용하여 가구와 가구원의 특성을 조사한 뒤, 그 가구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65세 미만 여성의 취업실태를 조사하였음.

- 조사대상지역은 전국으로 하되 섬지역과 특수지역은 제외하였음

4) 설문내용

- 가구일반,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경제활동상태, 취업력 등을 핵심문항으로 질문지가 구성되었음
- 여성노동분석에 필수적인 고용, 인구, 가족학적 변인 등과 15세 이후부터의 교육, 직업훈련, 경험과 취업력을 조사함.
- 제 4차년도 여성의 취업실태조사 설문내용
 - 가족형태별 생활정도(가구특성), 인구학적 특성과 가족부양실태, 경제활동상태, 가구주의 특성 등(가구원의 특성), 취업 등 진로선택과정 및 남녀역할에 대한 태도 및 경제활동상태(조사대상자별 특성)
 - 취업자의 고용구조, 근로조건, 비정규직 경향 및 직업훈련현황 및 효과, 취업만족도와 전직희망, 취업자 종사상지위
 - 인적특성, 구직행위, 취업희망, 고용형태, 과거 구직행위, 취업희망고용형태 등
 - 가사, 육아 및 시장임금, 유보임금, 통근시간, 여성취업에 대한 남편의 태도 등
 - 취업력

5) 운영체계

-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여성의 취업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 및 여성인적자원의 개발 및 활용을 위한 고용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1986년 제 1차 여성취업실태조사 실시를 출발로 1992년에 제 2차, 1997년에 제 3차, 2002년에 제 4차 조사를 실시하였음.
- 4차년도 조사에서는 조사대상 및 항목을 다소 조정하고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노동시장구조 및 고용형태, 여성의 노동시장에서 수요·공급구조를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초점을 맞추고 있음.

6) 한국여성가족패널에 주는 시사점

- 여성의 취업실태조사는 패널조사가 아닌 횡단면 조사로서, 4차까지 설문이 진행이

된 상황이지만, 초기에 구축했던 설문문항과 표본이 회를 거듭할수록 조금씩 수정되어가면서 그 완성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임.

- 이 때문에 종단적인 분석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임.
- 여성의 취업상황 뿐만 아니라 가사, 육아, 가치관과 같은 문항도 포함하고 있으나, 여성의 생애별 취업유형과, 경력단절의 요인 및 배경, 가족형태 등과 같은 사항은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한국여성가족패널에서 다루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마. 가족실태조사

1) 개요

- 조사목적: 전국 규모의 가족조사를 통해 한국 가족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가족정책을 수립하기 위함.
- 조사근거:
 - 건강가정기본법 제20조(가족실태조사)
 - 통계법 제8조(정부승인통계 제15401호)
- 향후 조사계획: 건강가정기본법 제20조 ①항에 근거하여 5년 마다 실시
⇒ 가족이 안고 있는 현실적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가족구성원 모두가 보다 나은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족정책이 필요하며 가족실태조사는 이와 같은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임.

2) 표본설계

- 조사 대상: 전국 일반가구의 만 15세 이상 가구원 전체
- 모집단 규모: 전국 16개 광역시도, 일반가구(집단가구, 외국인 가구 제외) 14,311,807가구
- 표본추출방법: 시도별 지역별 주택유형별 층화집락계통추출
⇒ 표본조사 수행의 용이성을 위해서 한 조사지점당 6가구를 체계적으로 선정하여 조사하므로 추출 표본지점수는 500개였음.
- 표본 크기: 2,925가구 (가구원 5,973명)

3) 조사방법

- 조사 단위는 ‘가구’와 ‘개인’을 병행
- 일대일 방문 면접조사
- 면접원이 응답자가 응답한 내용을 직접 기입하는 타개식 조사를 원칙으로 함.
- 조사대상 가구원 부재시엔 유치조사를 통한 자기기입식 조사 실시후, 면접원 및 실사연구원이 사후검증 실시

4) 조사내용

- 가족실태조사는 엄밀하게는 가구(주거와 생활을 공유하는)를 구성하는 가족에 관한 조사임. 따라서 넓은 의미의 가족조사라기보다는 좁은 의미의 가족조사로 보는 것이 타당함.
- 가구 및 가구원의 일반적 배경 특성: 가족형태, 취업형태, 경제적 수준, 연령, 교육 수준, 출신지역, 개인의 취업유무, 직종, 건강상태 등
- 가족형성 과정: 현재의 혼인상태, 사별/이혼/별거 시기 조사, 가족 범위에 대한 인식 내용, 가구구성의 원리, 이상자녀수 및 향후 출산계획 등 자녀 관련 사항
- 가족의 경제활동: 가구소득, 저축, 지출, 생활수준, 주거환경, 노후 준비 관련 사항
- 가족관계(부부 및 부모자녀관계)와 가족생활(가구원의 가사참여 및 가족 여가 등):
 - 부부관계: 가정일과 관련하여 의사결정권이나 의사소통의 방식과 내용, 역할의 형평성 등 질문. 가사노동 전담자 여부, 가사노동시간 및 분담 영역 질문(식사준비, 설거지, 집안청소, 세탁, 시장보기 및 쇼핑, 자녀돌보기 등), 부부 갈등의 내용과 정도
 - 부모자녀관계: 자녀와의 물질적 교환을 통해서 부양 관계 질문, 노부모와의 관계에서 부계 또는 양계적 친족 관계 여부 파악, 의사소통정도, 갈등 상황, 15세 이상 자녀와의 여가 활동 내용과 정도 질문.
- 돌봄(아동과 노인 및 기타가족원 돌봄):
 -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로 성역할 태도도 급속히 변화함. 이런 측면에서 가족내 구성원 즉 아동과 노인, 기타 가족원에 대한 돌봄노동의 분배 정도와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증대함.
 - 12세 이하 아동과 관련해서는 보육시설 이용과 이용 시간, 이용 비용 그리고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의 돌봄 실태 파악

- 노인 및 기타 돌봄이 필요한 가족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돌봄대상자의 특징과 비용, 그리고 그로 인한 가족생활의 변화 등 파악

- 가족의식 및 가치관: 자녀와 가족, 부부, 개인에 대한 가치관, 혼인/이혼/재혼/동거/출산, 한부모가족과 자녀 양육, 성역할 등을 통해 관련된 사람들의 가치관과 행위의 변화 등이 포함.
- 정책 및 서비스 욕구: 가족정책의 내용과 범위를 살펴봄. 가족관련 정책의 우선순위 등. 예컨대 저출산 대응정책 및 양육휴가관련제도, 일과 가정 양립 지원제도, 가족의 노인부양 지원정책 및 서비스, 가족생활지원 관련제도 및 서비스, 이혼후 자녀양육문제에 대한 내용, 국제결혼가족 및 한부모가족관련 정책 등이 포함됨.

5) 운영체계

- 연구주체 운영체계: 연구단·가족조사 전문가풀·여성가족부 가족정책국의 지속적 인 업무협의
- 연구수행 체계: 조사기획 > 질문지 작성 > 통계청 통계작성 승인 > 조사 실시 및 분석 > 결과보고서 작성 > 통계청 공표 승인 > 최종보고서 작성

6) 시사점

- 가족의 실태, 의식과 관련하여 풍부한 문항 포함.
- 조사단위를 ‘가족’, ‘가구’로 설정했을 때의 애로점 등 선행 경험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장점
- 가족구조의 유형 파악, 유형변화 파악, 변화유형 파악 등으로 여성가족패널조사의 연구범위를 제한, 특화하는 것이 낫겠다는 연구진의 조언 → 이 점이 부각될 경우 여성가족패널의 조사대상자 샘플 및 샘플링 방법 연동, 결정해야 함.

3. 패널조사기관 출장 보고서(미국, 호주)

1. 미국 패널조사기관 출장 보고서

가. 출장지

1) University of Michigan, ISR

- PSID(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를 주관하는 ISR(Institute for Survey Research), 미시건대학(University of Michigan) 소재.
- 책임자 및 관계자:
Bob Schoeni(Director, Senior Associate Research Scientist)
Frank Stafford (미시건 대학 경제학, 전디렉터)
Kate, April(SAS programmer)
Dave(programmer: ORACLE), Jiny(SRO: Survey Research Organization)

2) Ohio State University CHRR

- 미국 여성전국종단면조사(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NLSW)를 주관하는 the Center for Human Resource Research(CHRR), 오하이오 주립대(Ohio State University) 소재.
- 책임자: Randall J. Olsen (오하이오 주립대 경제학과 교수, Director of the CHRR)
921 Chatham LN. Suite 100
Columbus, OH 43221-2418
olsen6.osu.edu/ 614 442 7348

나. 출장기간: 2006년 4월 25일 - 5월 3일

다. 출장자: 박수미 연구위원, 이택면 연구위원, 김승연 연구원

2. 출장내용

가. University of Michigan, ISR

* 일정 및 면담자

- 4월 25일: ex-director Frank Stafford와 인터뷰 - PSID에 관한 간단한 소개를 듣고 여성가족패널에 대해 소개함. 몇 가지 일반적인 이슈에 대한 질문.
- 4월 26일: Staff Meeting - Bob Schoeni(Director, Senior Associate Research Scientist) Frank Stafford 등과 instrument revision 회의 - 참관 : Blaise 및 전체 전산시스템에 대한 소개 - Kate April(SAS programmer), : Dave(programmer: ORACLE), Jiny(SRO: Survey Research Organization) 인터뷰
- 4월 27일: 실사기관의 역할 및 전체 시스템, 운영체계, 패널 연간 일정 등에 대한 논의: Jiny(SRO: Survey Research Organization) 등 인터뷰

1) sampling method and tracking rules:

PSID 표집방법 및 추적 원칙은 기본적으로 가구 표집 및 가구원 추적임.

- 여성가족패널 표집 방식에 대한 의견:

여성 개인을 원표본(original sample)으로 하는 가구단위 표집 및 개인 추적 방식, 원표본 여성을 중심으로 한 가구원 조사 병행 방식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표집의 문제는 없다고 봄. 다만 이혼여성 과대표집의 경우, 이들이 현 시점 이혼여성이지만 향후 다른 가구형태를 이룰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소득특성 등을 이혼여성가구의 특성으로 이해하면 곤란하다는 조언을 함.

2) 실사 과정 및 방법

- field work: ISR은 SRO라는 독립 실사조직을 갖고 있음. 원칙적으로 조사원 풀을 직접 가동하며 직접 실사 수행.
- 실사를 위탁할 경우 조사업체와의 지속적인 교류 및 연구진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함.

- ISR 연구진과 programmer 들이 실사가 끝난 후, 실사과정의 경험에 기반한 질문지 수정 워크숍에 함께 참여하며 연구내용의 구조와 내용 파악.
- Programmer와 SRO 연구자들은 데이터 클리닝, DB 구축과 관련하여 긴밀하게 업무 협조.
- nonresponse-households의 특성 파악을 위해 조사원의 노트 의무화.
- CAPI 조사는 매우 당연한 것. 호주의 경우도 CAPI를 권했으나,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고민하며 채택하지 못했다고 말함. 다만 비용의 측면에서 ISR은 CATI 방식으로 조사하고 있음. CHRR의 자원, 규모에 미치지 못함. 특히 SRO의 실사담당자들이 CAPI의 우수성에 대해서 강변.
- PAPI로서는 패널 조사의 반복되는 일정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함.

3) 설문지 워크숍

- 설문지 워크숍 참관: 부재자 전화 미팅까지 포함하여 실사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질문 항목 및 연구자들의 설문지 재검토 결과 수정이 필요한 질문 항목에 대한 brain storming 과정 정례화.
- SAS programmer 등이 함께 함으로써 질문의 구조, 그에 따른 자료 생산의 구조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또 의견을 제시함.
예) liquid asset에 대해서, 이것이 beverage냐? 일반인들에게 너무 어려운 단어, 질문의 길이가 너무 길어서 조사의 흐름에 방해가 되는 항목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짐.
- a longitudinal data survey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단순한 형태의 질문을 동일하게 반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함.
- 농가를 고려한 별도의 설문지 또는 질문 항목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
* 미국에서 농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10%이내로 다양한 다른 직종/산업의 하위 범주일 뿐. 따라서 PSID의 특성상 자세한 소득관련 질문이 있지만, 농가도 다른 자영업과 같은 범주의 하나로서 질문될 뿐, 특수하게 취급되지 않는다.
- 모든 질문 항목은 응답하기 쉽도록 구조와 내용, 표현을 고민해야 함. 전체 질문 시간을 위해 각 항목별 질문 시간 분배 중요
예) 자산 조사: 4~5분을 넘지 않도록!

- 패널조사의 특성상 가치관련 질문은 검증된 최소한의 척도 조사에 그치는 것이 바람직.
- 1차 조사에 회고적 조사항목도 최소화시킬 것. 이것 자체를 통해 종단적 자료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은 무리이며, 다만 현 시점 특성의 이해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 예를 들면 과거 청소년기 부모의 직업 상태 등과 같은 회고적 자료만 포함시킬 것.

나. Ohio State University, CHRR

* 일정 및 면담자

- 5월 1일: director Randall Olsen과 인터뷰 - NLS에 관한 간단한 소개를 듣고 여성가족패널에 대해 소개함. 몇가지 일반적인 이슈에 대한 질문.
: Staff Meeting - instrument revision 회의 - 참관
: the Designer 및 전체 전산시스템에 대한 소개 - the designer team의 연구원 Margaret 인터뷰
- 5월 2일: 설문지 작성의 실무와 유의사항 - 前 NLSW 설문지 설계 담당자 Patricia와 면담
: Randall Olsen과 전산시스템 사용계약 건에 관해 논의, NLSW 원고 집필의 사 타진.
: 이진국 교수와의 인터뷰- KLI와의 초기 접촉과정과 파트너십 성격, 기술이전 계약 결렬 경위 등.

1) 샘플링 프레임과 추적원칙

여성가족패널의 샘플링 방법과 추적원칙을 설명하고 코멘트를 부탁함. 대부분의 개인단위 조사(NLSW 포함)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하고 있는 방법으로 문제될 것 없음. 다만 NLSW에서는 남성 가구원을 인터뷰하지 않음. 여성을 인터뷰하면서 가구 전체와 남성 가구원에 대한 설문을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가족구조와 남성 가구원에 대한 정보를 간접적으로 얻음. 따라서 가치나 태도와 같은 주관적 질문에 대해서는 대리응

답 불허. 성별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이리저리한 특성을 가진 남성 가구원을 둔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간의 비교를 통해 남성 가구원의 존재가 미치는 영향력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 구체적으로 NLS 자료를 이용해 성별 비교를 어떻게 했는지는 웹상에 올라있는 NLS 연구보고서 목록 중에서 남녀간 비교를 다루는 보고서들을 참고할 것.

가구원 중 일부만을 추적할 경우 표본 유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하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임. NLSMW의 경우 2001년 현재 표본 유지율은 45.6% 이지만 사망자를 제외하면 57.9%를 넘어서므로 표본 대표성에 문제를 야기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며, 10년 이내에 표본 유지율이 50%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데이터 콜렉션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즉, 개인을 추적기로 한 샘플링 전략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임.

2) 무응답과 인터뷰 거부 문제

첫 웨이브 최초 접촉에서 참여를 거부한 가구에 대해 최소한의 기본 정보(혼인지 위, 자녀수, 가구주 신분, 소득정도, 등)를 파악하여 이 기본 정보를 바탕으로 가장 유사한 가구로 대체토록 함. 조사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은 의미가 없음. 최대한 끈질긴 노력을 기울이고 last resort로는 돈을 지급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면접 허락을 받아내야 함. 끝까지 거부할 경우에는 대부분 돈을 제시하는데, 1-200달러 정도면 대부분 오케이 해줌(물론 이런 전략을 택하는데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

웨이브 도중에 접촉 실패로 응답을 받아내지 못할 경우에는 그 가구를 표본에서 누락시킬 것이 아니라 다음 년도에 다시 접촉하여 전년도에 대한 회고 질문을 하는 형식으로 누락된 정보를 채워넣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bounded event history analysis에 활용될 수 있음.

3) 과대표집(Over Sampling)

과대표집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이혼여성가구에 대한 과대표집은 기술적으로 어려울 듯함. 흑인이 다수인 조사구(black-dominant EDs)를 과다 표집하는 방법으로 흑인에 대한 과대표집을 할 수 있는데, 같은 방법을 이혼여성가구에도 적용할 수 있을

지는 의문임. divorced women-dominant EDs가 identifiable하지 않을 것임. 이 문제에 대해 Patricia는 screening questions을 마련해서 이혼여성가구를 집중적으로 인터뷰하는 방법과 추출확률을 두배로 해서 초기 샘플을 뽑고 그 중에서 이혼여성가구가 아닌 가구를 걸러낸 다음 실사에 들어가는 방법을 추천했으나, 본인도 인정하듯이 샘플링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방법은 아닌듯 함.

4) 종단면 서베이 설문지와 횡단면 서베이 설문지의 차이

어떤 형식의 설문지이든 과거를 회상하는 질문을 물을 수 있음. 하지만 종단면 서베이 설문지의 가장 큰 특징은 각 웨이브의 설문들이 서로 잘 연계(link)되고 아구가 잘 맞아야(fit)한다는 것. 횡단면 조사에서는 어떤 질문을 물을 기회가 한번 밖에 없지만, 종단면 조사에서는 그 기회가 반복해서 오게 되므로 한번 응답을 거부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회고적 질문을 통해서라도 누락된 문항에 대한 응답을 얻어내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 따라서 종단면 조사의 설문지는 이처럼 한사람에 대해 반복적으로 질문할 수 있다는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설계되어야 함. 그러나 종단면 서베이에 서도 횡단면 조사와 같은 종류의 질문을 해야할 경우도 있는데 예컨대 태도에 관한 설문이 그것임. 올해 현재의 태도나 가치를 물을 수는 있지만 작년, 2년 전, 3년 전의 태도나 가치가 어땠는지를 물을 수는 없음. 그러나 종단면 조사에서는 건강이나 가치관 등과 같이 급격한 변화가 없는 항목에 대해서는 매해 묻기 보다는 좀 더 시간 간격을 많이 두고 물을 수도 있음. 결국 종단면 조사에서는 횡단면 조사에서보다 생략할 수 있는 문항의 수가 많음. 될 수 있으면 매년 묻지 않아도 되는 질문들을 과감히 생략하고 대신 관심의 초점이 되는 문항에 대해 더 자세히 묻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5) CAPI system

CHRR의 CAPI system은 어느 한 프로그램으로 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네가지 그룹의 프로그램들이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음.

- the Designer - 설문지를 시스템에 입력하는 소프트웨어(종이 설문지를 전자 설문지로)
- the Web - 디자이너에 의해 입력된 설문지를 ‘예쁘게’ 스크린에 디스플레이하는

기능.

- the DB and the Web Investigator - 서버이를 통해 모인 자료를 저장, 가공, 클리닝, 웹상에 릴리즈하는 전 과정을 관장.

이 전체가 한 덩어리 시스템으로서, 인터뷰, 자료 전송, 자료 저장, 편집, 클리닝, 데이터 릴리즈 전체를 통합 관장함. 17여년 간에 걸쳐 정확히 집계할 수 없는 많은 비용을 들여 구축한 시스템임.

미시건의 블레이즈와 다른 것은 블레이즈는 종단면조사를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아니지만 디자이너를 비롯한 NLS의 시스템은 오직 종단면조사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는 것임. 더구나 디자이너는 블레이즈보다 더 interactive하고 user friendly하다.

그동안 걱정했던 설문지 작성에 있어서의 경직성, 전송 오류, 등은 그다지 큰 문제가 안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예컨대 전송오류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인터뷰어의 랩탑에 백업 자료가 항상 저장되어 있을 것이므로 상관 없음).

CAPI로 가야하는 것은 undisputed norm. 단편적으로, 인터뷰를 통한 자료수집 단계만 전산화해도 응답의 웨이브간 inconsistency(이른바 seam problems)를 최소화할 수 있고, 스킵 에러를 비롯하여 인터뷰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논리적 에러들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특수한 케이스에 대한 인터뷰어의 개별적 코멘트가 가능하고 그것을 언제나 불러와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특이치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고, voice-over ID를 이용하여 현장 인터뷰 내용을 감청할 수 있어 인터뷰어 모니터링에도 효과적이며, 등등 이루 말할 수 없이 유리함. 21세기에 종단면 전국 서베이를 하려는 기관치고 PAPI로 하려고 하는 기관이 과연 있는가?

실사업체의 역할은 미니멈으로, 이 시스템의 개발과 적용에 실사업체가 한 역할은 거의 없음. 실사업체의 반발과 저항이 만만치 않았음.

시스템 개발과 정착을 위해서는 전산 전담 자체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 requirements는 그리 높지 않음. 서베이 오리엔테이션을 갖춘 전산 전공자 혹은 전산 오리엔테이션을 갖춘 서베이 전공자 정도면 충분. CHRR은 15명의 전산 전문가로 구성된 technical support team을 갖추고 있음.

CHRR이 구축해 놓은 전체 시스템을 take over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위험

함. 이미 그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우리가 지구상 어느 곳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웹 기반 시스템을 구축해 두었으니 그걸 사용하는 것이 초기 웨이브에서는 가장 손쉽고 효율적인 방법임. 종이 설문지를 완성한 다음 그것을 The Designer를 통해 전자 설문지로 전환하고 인터뷰어를 훈련시켜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한 인터뷰를 실시하고 결과를 전송토록하면, 인터뷰 자료는 바로 CHRR의 DB로 전송되어 클리닝까지의 processing 과정을 거친후 CHRR의 Web Investigator프로그램을 통해 전세계 유저들에게 제공됨.

이를 위하여 두 가지 옵션을 제시. 첫째는 우리쪽 인력을 CHRR에 파견하여 일정 기간(2주에서 한달 정도, 배우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 The Designer를 이용한 설문지 구축 과정에 대한 교육훈련을 받게 하고 그 사람이 귀국하여 여성가족패널 전자 설문지를 직접 구축하게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면접원들을 훈련시켜 CAPI를 수행케 함. 나머지 과정은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음. 두 번째 옵션은 설문지를 종이 버전으로 완성하여 CHRR에 보내고 그쪽에서 자체 인력이 그것을 전자 설문지로 변환토록 하는 것. 나머지 과정은 위와 동일함.

다. Technical Part 비교

1) 미시건 ISR

인터뷰 대상: SAS Programer April, Programer Dave

가) 개요

미시건의 ISR에서는 PSID조사와 HRS, CHRR 등 여러 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일대일 면접조사가 아닌 CAPI 시스템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장애가 있거나 특수한 상황에만 면접조사를 실시함. 전화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결과는 텍스트 파일 뿐만 아니라 음성파일로 저장되어 전송이 가능함.

나) 시스템 구성

오라클을 통한 자료 수집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5개의 모듈을 사용하고 있음. Web, Visual Basic, Oracle, SAS, Blaise 등이며, Web 기반이 아닌 서버-클라이언트

언트 개념으로 각각의 독립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최종적으로 설문조사가 완료된 data는 웹에 탑재하는 방식으로 구성됨.

* 주요 프로그램기능: Blaise, RAPS, SAS

- 1) Blaise: 설문지를 웹으로 작성하는 방식을 포함하여, 설문실시, 코딩, 데이터 파일 생성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음.
- 2) RAPS(Response Address Payment System)을 자체 개발하여 응답 대상들의 주소관리, 응답사례비 지급을 관리하고 있음.

Raps의 주요 기능: ① 응답자들의 추적하여 응답사례를 지급

- ② data 변형
- ③ data 에디팅(editiong)
- ④ data 신뢰성 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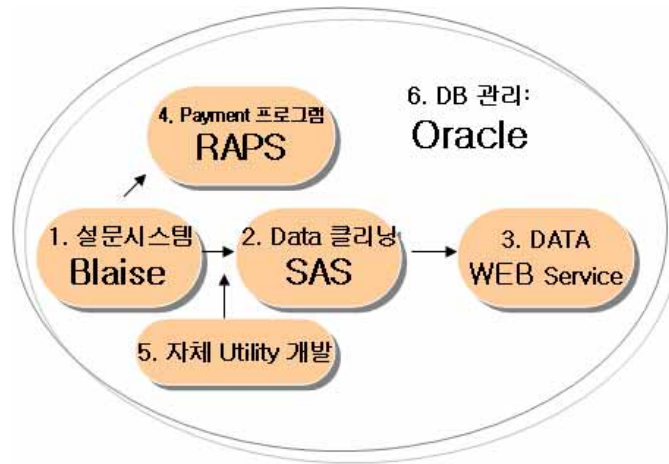
- 3) SAS: 통계프로그램

다) 조사 진행 과정

- ① 연구진 설문지 개발
- ② 조사할 PC에 Blaise 설치
- ③ 설문내용을 Blaise를 통하여 컴퓨터에 탑재
- ④ Blaise로 구현된 설문을 보면서 면접원이 전화조사 실시
- ⑤ data가 서버에 쌓이면 SAS와 RAPS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클리닝 실시

라) 인원

시스템관련인원: Data 프로그래밍 5명, Payment and Adress 관련 인원 1명



ISR의 설문시스템

1. 네덜란드의 설문조사시스템인 Blaise를 활용하여 전화설문조사
2. 조사된 결과를 SAS로 클리닝
3. 최종 클리닝된 DATA는 WEB을 통하여 다양한 형식으로 연구자에게 제공
4. RAPS: 응답사례비 자동 입급 및 주소 업데이트 프로그램
5. 설문조사결과를 SAS로 옮겨주는 Utility를 개발(Visual Basic)→ 설문결과변환과정에서 Wild Code Check, 코드북 생성 및 여타 기능을 제공
6. DB관리는 Oracle 프로그램을 통하여 관리

마) 시사점

미시건의 ISR은 PSID, CHD 등 여러 조사를 모두 CATI로 실시하고 있음
설문입력Tool은 네덜란드의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외의 나머지 부분은 자체개발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음.

네덜란드의 설문조사 프로그램은 단독 소프트웨어로서 구매자의 요구에 맞추어 패키지를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고, 가격이 저렴한 장점이 있는 반면, 패널조사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개발된 것이 아니어서, 동일인에 대한 년도간 응답결과 비교와 같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함.

전체가 모두 Web 기반이 아니며, 각각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data 제공에서만 Web을 지원함.

설문을 하기 위해서는 각 면접원의 PC에 설문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설문실시가 가능함.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WEB으로 data를 제공하고 있음. data는 변수별, 년도별, Id별,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이 가능함.

2) 오하이오대의 CHRR

인터뷰 대상 Research Associate Margerat L. Plahuta

기술팀 인원: 15명

가) 개요

오하이오대학의 CHRR에서는 미시건에서의 설문시스템 보다 더 발전된 시스템으로 설문작성단계를 제외한 나머지는 Web 기반으로 구축되어있음.

나) 시스템 구성

설문시스템의 구성은 크게 3가지 설문작성(The Designer), 웹조사(WEB), 결과제공(Web Investigator)로 구성되며 각 단계별로 담당인력이 있으며 오라클을 통한 자료 수집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CHRR의 설문시스템의 구성

다) 조사진행 과정

- ① The Designer: 완성된 설문지를 컴퓨터에 넣는 Tool임. 내용수정, Logic, 질문 display, 문항이동 등 다양한 기능을 구사할 수 있음
- ② Present To WEB: 디자이너를 통해 설문이 완성되면, WEB 화면으로 완성된 설문이 보여지며, 응답자를 대상으로 설문이 가능하게 됨. WEB 기반의 설문조사 프로그램으로 실시
- ③ 면접원 설문조사를 실시하면, 응답결과를 The Designer를 통해 관리함.
- ④ The Designer가 응답결과를 Sas, Spss, Static 등 다양한 통계프로그램으로 변환해 주며 이를통해 클리닝 실시
- ⑤ 클리닝 된 data는 다시 WEB Investigator을 통하여 data를 연구자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됨. WEB 기반의 프로그램임

라) 시사점

설문조사를 위한 프로그램인 The Designer의 경우, 패널을 위하여 설계되었으며, 그 기능이 매우 다양하고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뛰어나.

설문실시 환경이 Web이기 때문에 면접원이 별도의 프로그램을 PC에 설치할 필요

없이, 인터넷이 가능한 곳에서는 어디에서든지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오하이오 CHRR의 설문시스템은 각 프로그램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20년에 걸쳐서 시행착오를 거치며 개발하여 현재의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 면에서 우수함.

그러나, 시스템 도입을 위하여 기간과 비용(보사연의 경우 OSU 시스템 도입비용: 3년간 15억~20억)을 산정할 수 없는 어려움이 존재함.

한국에서 원격으로 설문작성을 하는 프로그램인 The Designer에 접속이 현재는 불가능함.

- 대안 1) 완성된 설문지를 OSU에 보내서 설문답재
 - 2) 설문지와 연구원이 동시에 가서 OSU에서 배우면서 답재
 - 3) 연구원에 OSU에서 배우고 난후 한국에서 원격으로 설문답재(향후)
- 1)의 방법이 가장 비용면에서는 가장 저렴함

3. 수집자료

Computer-Assisted Interviewing, William E. Saris, 1991, Sage

Analysing Panel Data, Gregory B. Markus, 1979, Sage

Analysing Complex Panel Data, Eun Sul Lee, et al., 1989, Sage

Causal Analysis with Panel Data, Steven E. Finkel, 1995, Sage

그 외 PSID 및 NLS의 모든 발간자료들은 모두 웹을 통해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수집한 자료는 없음.

2. 호주 패널조사기관 출장 보고서

가. 출장지

1) 호주 여성건강패널(WHA) 뉴캐슬소재: Women's Health in Australia

: Research Center of Gender and Health, University of Newcastle

David Madison Bldg. Coner of King and Watt Street, Newcastle

- Debora Loxoton (project manager) : Deborah.Loxton@newcastle.edu.au
61)2-4923-6872

2) HILDA(Households, Income, and Labor Dynamics in Australia)

- : “University of Melbourne, Melbourne Institute of Applied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Melbourne, VIC 3010 Australia
- Prof. Mark Wooden(Project Director): m.wooden@unimelbo.edu.au
61)3-8344-2089

나. 출장기간: 2006.4.25~4.29

다. 출장자: 민무숙 선임연구위원, 김종숙 연구위원

2. 출장내용

가. WHA 회의내용 정리

- * 면담자: Debora Loxoton (project manager): 61)2-4923-6872
Jennifer Powers(통계분석담당)
Anna Graves(data manager), Dr. Warner Smith

1) 조사개요

- 조사방식은 우편조사를 사용하고 있으며 응답자가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많은 표본(40,000명)을 조사함에도 불구하고 적은 예산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20~40분 정도로 측정되고 있음. 장애나 인종에 따라 설문에 응답이 어려운 집단을 위하여 interpreter가 제공되고 있음.
- 설문지 후반에 open-ended 질문을 추가하여 응답자의 자유로운 응답을 유도하고 더 나아가 질적연구를 하는데 사용하고 있음(widow 등의 여성생애 history 연구).

- 무료 전화번호 등을 제공하여 응답이 어려운 부분에 대한 도움을 주고 있음.
- 다소간의 민감한 질문을 포함하고 있어 우편조사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음.
- WHA 팀은 뉴캐슬소재의 연구팀이 실사의 중심이 되며 퀸스랜드 대학의 연구팀과 공동으로 연구를 하고 있음. 뉴캐슬에 전임 및 비전임 5~9명, 퀸스랜드에서 6명의 연구진이 있음. 연구진행은 설문지를 작성한 후 포커스그룹스터디를 거치고 교수 등의 자문을 거치고 매년 예비조사를 한 후 본 조사를 수행하고 있음. 예비조사에서는 설문지와 질문내용의 가독성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함.
- 조사의 구성은 3개의 코호트를 추적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음. 18세 이하, 중간연령집단, 고령자집단으로 나누어 각각의 코호트에 적절한 질문을 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음. 따라서 질문지는 각 코호트별로 매우 중심적인 사항을 제외하고는 다르게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조사시기마다 다른 사항을 조사하는 질문도 다수 포함되어 있음.
- 인구학적 변화를 고려하여 증가하는 고령자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질문이 새롭게 추가되고 있음 예를 들어 연금, 조세, 은퇴, 돌봄에 관련된 사항들이 최근에 추가되었고 노동시장노동과 무급노동의 실태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표본추출은 국가의료보험 DB에서 40,000명의 여성을 추출하였음. 무작위표본추출을 하였으며 42%의 초기응답률을 나타내었음. 도시지역거주비율이 매우 높아 농촌지역 여성을 과대추출하였음.
- 국가DB인 의료보험DB 와 연결해서 분석할 수 있으며 향후 추적에도 행정자료를 이용할 수 있음.
- 핵심질문영역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내용, 36가지의 건강관련 사항, 질병 등 사항, 시간사용, 인구학적 사항, 돌봄 등 여성의 일상에 대한 사항 등이 포함됨.
- 2006년 관련된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WHA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발표하였음. (자료확보)

2) 실사운영

- pupil management issue: 긴 기간동안 패널과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핵심적인 사항은 어떤 방식으로 연구진이 바뀔때로 지속성을 유지하도록 할 것인가

임. 매우 자세한 업무의 분장, 각 개인이 수행하여야 하는 일에 대한 자세한 기록, 결과의 자세한 기록 등에 의거하여 개인에게 연구결과가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이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연구진들이 본인이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보고하도록 함. 또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결과에 대한 활용 등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것을 권장함(기초분석을 외부 연구진이 담당하므로 연구결과에 대한 통제가 더욱 필요함). 결과적으로 조사결과에 대한 일관성, 결과 활용의 질을 통제할 수 있도록 사전에 명확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 기술적인 문제들: 아이디 부여 등에 대하여는 9자리로 하여 코호트, 주, 지역, 치수 등을 부여하도록 하며 기술적으로 아이디를 체크할 수 있는 로직을 부여하여 확인하도록 하고있음. 이름과 생년월일을 이용하여 추적하고 있으며 동의서를 통하여 크로스체크 할 수 있음. 행정자료인 의보자료와 연결하여 확인할 수 있음. (이 곳에서는 매해 동의서를 storage에 보관하여 개인별로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추적방법으로는 가능한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음. 뉴스레터를 보내 돌아오는 경우 추적하도록 하고, 표본이탈자 등을 대상으로 이탈원인 등을 연구함. 무료전화운영, 젊은 연령에게 이메일 발송 등을 실시하고 있음.
 - 젊은세대 코호트의 응답이 저조하고 표본유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잦은 이동과 국외로의 이동이 주원인인 것으로 나타남. 상대적으로 중년연령이 가장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어 실질적으로 관심이 되는 집단의 유실이 큰 것으로 보임.
 - representation 문제: 초기 패넬조사가 시작된 이후인 2000년대 이후에는 이민 집단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이 집단이 초기샘플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여성인구 대표성에는 약간 한계가 있음.
- : Census data에 비하여 non-english 집단 및 less-educated 집단에 대한 과소추정이 있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이로 인한 영향이 더 크다고 여겨짐.

3) 관련된 이슈들

- 여성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제기되는 타당도 문제가 여전히 있음. WHA는 매우 제한된 가구정보를 담고 있는 조사로 남성과 비교가 불가능함. 그러나 본 조사

는 매우 특정한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함에 따라 이러한 문제제기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음.

- 기존의 자료가 포괄하는 부분은 기존의 자료에서 과감하게 인용하고 국제비교 등을 활용하고 있음. 또한 표본틀이 다르기 때문에 센서스자료와 비교하고 있음.
- WHA의 예산은 매 3년에 한번씩 호주건강국에 요청을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다지 안정적인 예산확보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
- 호주의 경우 우리나라보다는 조사윤리에 대한 제약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이며 향후 우리 과제에서도 대두될 수 있는 문제임.
- 각 웨이브별로 별도로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사결과가 완벽하게 발표되는 것은 아님. 유실포본에 대한 연구가 전체적으로 부족하고 따라서 편이를 발생시킬 여지가 큰 점에서 본 조사의 한계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남.
- 통계분석담당자의 평가에 의하면, 아직까지 추적자료에 의한 고유한 특성을 보여주는 의미있는 연구결과는 나오지 못한 것으로 생각. 이것이 차수가(아직까지는 3차) 아직 적어서 그런지는 더 분석해 봐야 하는 문제라고 보고 있음.

나. HILDA 회의내용 정리

* 면담자: Prof. Mark Wooden (Project Director)

Nichole Watson (통계분석담당)

Simon Freidin (data manager)

1) 조사개요

- 호주의 가장 일반적인 가구조사 형태의 패널조사임. 다른 사들과 유사한 일반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초기단계에 Wooden단독으로 연구를 준비하였으며 현재에도 3명의 주요스텝이 거의 대부분의 일을 처리하고 있음.
- 표본은 지역을 기초로 한 군집표본을 사용하였음. 조사방식은 일대일 면접조사를 사용하고 있으며 소수의 표본에 한하여 전화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설문의

뒷부분은 민감한 질문으로 응답자가 설문에 직접 응답하도록 함.

- 기본적으로 한국의 노동패널과 매우 유사한 형태의 조사임. 질문내용에는 가구 사항에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아동양육, 가구내의 자녀, 주택사항, 주택관련 자산사항 등이 포함됨. 개인질문으로는 개인의 노동시장 사항, 교육사항, 경력 등이 조사됨. 가족의 형성 등에도 관심이 있으나 주로 아동과 관련된 부분이며 파트너와 관계 등에 대한 질문도 포함되어 있음.
- 부가조사 모듈을 이용하여 3년에 한번씩 동일한 모듈을 조사하기로 함.
- 많은 다이내믹스가 발견되고 있음. 특히 가족사항, 노동시장에서의 지위 등은 많은 변화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오히려 이 결과들이 측정이 잘 된 것인가에 대한 측정오류 문제를 의심하는 수준임.
- 가구원 모두를 추적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음. 해당연령 미만연령도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해당연령이 될 경우(15세) 응답하도록 함. 추적을 위하여 각종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 따라서 HILDA의 표본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응답률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고 있음. 사전에 편지발송, 브로셔, 인터뷰어 훈련, 선물 및 현금 인센티브 등이 제공됨. 시간대를 다양하게 방문하고 6번까지 방문하도록 하고 있음. 대체표본을 하지 않고 있으며 초기단계에서 응답률을 예상하여 표본을 추출하였음. 인터뷰어가 설문지에 차년도를 위하여 조사대상자 및 가구 접촉방법 등 다양한 정보를 기입하도록 하여 표본유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함.
- 현금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응답자 개인당 25달러에 가구원이 모두 완성할 경우 가구에 부가적으로 현금을 제공하고 있음.
- 매년 표본탈락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음. 주거와 무응답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 가중치를 산출하고 있음. 2차년도부터는 횡단면 가중치와 종단 가중치가 동시에 부여되어야 하고 개인과 가구의 가중치가 다르게 주어져야 하므로 이를 고려함(보고서 참조).
- 소득의 경우 imputation을 이용하고 있음. 8가지의 소득원을 고려하여 산출하고 있음.
- 실사업체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함. AC닐슨의 경우 유명한 회사이나 패널조사-

의 경험이 없었음. 연구가 진행되며 신뢰관계가 형성되었고 높은 응답률과 최소한의 표본유실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또한 실사업체도 학문적인 컨셉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함.

- 마케팅, 정부와의 관계, 실사업체와의 관계설정 등이 패널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매우 중요한 문제임.
- 본 패널은 정부의 완전개입과 담당기관의 완전자율성의 중간정도 수준임. 상호의견교환과 적절한 개입간의 발런스를 기하고 있음.
- 여러 다양한 committee를 가지고 있어서 질문 내용구성 등 각종 자문을 받고 있음(국제전문가, 정부위원회 등).
- 첫째는 face-to-face를 실시하였고, 두 번째 부터는 CATI를 약간 병행하고 있으나 전체에서 6% 정도에만 머물고, face-to-face interview가 주 방법임. 예 산문제로 아직까지 CAPI 시스템을 도입하지는 않고 있으나 예산이 있다면 CAPI로 하는 것이 data cleaning 작업 등에 드는 시간을 절약하고, 차수별로 동일한 질문에 대한 상이한 답변에 대한 검증 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음(다른 한편으로는 면접원의 실직을 유발 할 수 있음).
- 행정DB와 연계하지는 못함.

2) 이슈들

-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였음. 가구의 자산에 대한 관심이 있어 이를 설문문항에 포함시키는 조건으로 재원마련이 가능하였음.
- 특정집단에 대한 과대표집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정책적으로 빈곤집단, 실업자에 관심은 있었으나 이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워 일반표본으로 진행함.
- 젊은 연령의 이동이 많아 15~24세 연령의 추적이 어려움.

3) 여성가족 패널과 관련된 회의 안전

- 여성만 조사하는 것 VS 가구구성원 조사: 비교군이 있는 일반적인 조사가 바람직함. 여성만 추적할 경우 표본의 유실에 따라 지속적으로 표본수가 줄어들 우려가 있음.

- 특정집단의 과대표집은 샘플프레임이 있는 경우만 가능하다고 봄. 예를 들어 빈곤층의 과대표본은 빈곤층 밀집지역을 과대표집 하는 등 프레임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혼여성 등의 경우 프레임이 없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여성이 있는 가구 등 해당가구에 대한 스크리닝이 어려운 문제이므로 표집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처음에 샘플수를 정하기보다는 패널유지기간을 생각하여, 예컨대 10년을 생각한다면 그때의 샘플수를 거꾸로 추정함이 필요함. 즉, 그 때까지 유실되지 않고 남아있어 하위분석이 가능한 샘플수를 추정하여 정하는 것이 요망됨.
- UN의 'generation & gender' 조사가 여성가족패널조사와 유사한 관심을 가지는 조사이므로 이를 참조함이 좋겠음(자료 및 전문가 추천 받음).
- 홍보 및 마케팅의 중요성 강조: 여성가족패널조사에서 나온 여러 결과를 되도록 많은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마케팅함이 매우 중요.

3. 수집자료

Women's Health Australia: 1995~2000 (보고서)

WHA annual report, 2005

여성건강 각 집단별 설문지

여성건강 워크숍(2005) 책자

여성건강 뉴스레터

HILDA annual report, 2004, 2005

Families, Income, and Jobs (HILDA working paper)

Generation and Gender, 안내서

4. 여성가족패널 질문지 설문 항목

I. 가구 대표자용

◆ 설문 구성

영역	여성 가구 대표자 설문내용 I
1. 가구원 조사	<p>○ 가구원관계, 이름, 성별, 연령, 학력, 취업상태, 직업, 혼인상태, 비동거 사유, 종교</p> <p>○ 가구주 및 배우자의 부모님 - 비동거 여부, 거주지 근접 여부 및 근처로 이사 계획, 자녀양육위탁 여부 및 빈도</p> <p>○ 분가한 자녀 - 거주지근접여부, 손자녀 유무 및 돌보기 요구, 돌보기 빈도</p>
2. 자녀보육	<p>○ 0세~고교생 자녀 여부</p> <p>○ 해당 아동의 어머니</p> <p>○ 재학중인 학교</p> <p>○ 이용 사교육 기관 및 시설- 국공립, 민간 여부, 주 평균 이용시간, 월평균 비용</p> <p>○ 주 양육자</p> <p>○ 일평균 양육 시간</p> <p>○ 월평균 양육 비용</p>
3. 보살핌	<p>○ 신체적 정신적 장애인 여부</p> <p>○ 불편 사유</p> <p>○ 주 양육자</p> <p>○ 시설 이용 여부</p> <p>○ 월평균 간병 비용</p>
4. 주거상태	<p>○ 주택종류</p> <p>○ 평수</p> <p>○ 주택점유형태</p> <p>○ 주택 시가(전세보증금, 월세) 또는 전세 보증금 또는 월세</p> <p>○ 명의자</p> <p>○ 현재 주거지에 주거를 시작한 년, 월, 일</p> <p>○ 주택마련시 부모의 도움 여부 및 받은 액수</p> <p>○ 주택마련시 시부모의 도움 여부 및 받은 액수</p>

표계속

영역	여성 가구 대표자 설문내용 II
5. 가구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 액수 ○ 금융소득 액수 ○ 부동산 소득 액수 ○ 사회보험 종류 및 액수 ○ 기타 이전소득 액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호대상가구 여부 ○ 기타소득 액수
6. 가구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년 한 해 월평균 생활비 ○ 항목별 지출 금액 - 식비, 외식비, 자녀공교육비, 자녀 사교육비, 보건의료비, 보육비, 주거비, 교통통신비 ○ 작년 한 해 월평균 저축액 ○ 가구원별 생활비 기여도 ○ 월평균 저축액
7. 자산과 부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거주 주택 외 부동산 여부 및 시가 총액 ○ 현재 거주 주택 외 임차 부동산 여부 및 보증금 액수 ○ 금융자산 총액 - 은행예금, 주식, 채권, 신탁, 저축성 보험, 기타 ○ 부채 - 금융기관부채 여부 및 액수, 비금융기관 부채 여부 및 액수 ○ 현재 경제상태 ○ 가계 부담 경제적 요인

Ⅱ. 기혼 취업여성용

영역	기혼 취업자용 설문내용 I
1. 가족관계와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제자매 여부 및 순서, 장녀 여부 ○ 아버지의 교육수준, 어머니의 교육수준 ○ 부모님의 경제상태 ○ 독립계획 ○ 따로살고 있는 가족들과 경제적, 정서적, 생활상 교류여부 ○ 시부모님 및 며느리와의 관계 ○ 남편 형제자매들과의 관계 ○ 명절, 제사 관련 교류여부
2. 결혼력 및 출산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력 ○ 출산력
3. 부부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생활 만족도 ○ 부부 사이의 결정권-자녀교육, 본인 및 남편의 직장이동, 본인 취업, 투자 및 재산관리, 생활비관리, 여가활동 ○ 부부관계의 형평성- 가족부양문제, 소비 문제 ○ 성생활 관심도, 지난 1년간 성관계 횟수 ○ 부부갈등 유무 및 이유, 처리방식, 신체적 또는 언어적 폭력을 받은 경험, 부부갈등 전문상담 여부 ○ 이혼고려 여부, 부부관계유지 이유
4. 가사노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 포함 가사노동 시간 - 응답자 및 배우자 ○ 육아 제외 주 가사노동자 ○ 가사노동 비용지출액 ○ 부부간 가사노동분담정도 ○ 가사노동으로 인한 부부갈등 경험 및 갈등 후 변화여부 ○ 자녀돌보기 분담상황 ○ 취업시에 부담스러운 가사노동 ○ 가사노동의 월평균 환산 비용
5. 자녀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자녀별 가구원 번호 ○ 자녀와 대화 정도 및 대화하지 않는 이유 ○ TV 시청 제한 여부 ○ 컴퓨터 게임 제한 여부 ○ 공부시키기 ○ 의견충돌 빈도-옷차림, 이성친구, 친구, 귀가시간, 가사노동, 오락, 돈, 학업, 가족간 불화 ○ 체벌여부 및 횟수 ○ 학교 면담 여부 및 횟수 ○ 학교 징계 여부 및 징계 받은 시기 ○ 가출 여부 및 가출 시기 및 기간 ○ 자녀문제 전문가 상담 여부

표 계속

영역	기혼 취업자용 설문내용 II
6. 노인·환자 돌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환자 유무 및 명수, 수발 참여 여부 ○ 노인환자의 주 수발자 ○ 노인환자와 함께 사는지 여부 및 함께 사는 사람 ○ 노인환자와의 관계, 나이, 성별, 불편하게 된 기간 ○ 노인환자 수발 비용 부담 ○ 노인환자 수발 이후 변화상 ○ 노인환자의 수발상 어려움-신체적 부담, 우울증, 대인관계, 여가생활, 경제적 부담 ○ 노인돌봄서비스 이용 유무 및 정도, 만족도 ○ 노인환자의 시설 거주 경험 및 기간, 만족도 ○ 노인환자의 사회복지관 도움 여부 및 이용정도, 만족도 ○ 환자 유무 및 명수, 수발 참여 여부 ○ 환자의 주 수발자 ○ 환자와 함께 사는지 여부 및 함께 사는 사람 ○ 환자와의 관계, 나이, 성별, 불편하게 된 기간 ○ 환자 수발 비용 부담 ○ 환자 수발 이후 변화상 ○ 환자의 수발상 어려움-신체적 부담, 우울증, 대인관계, 여가생활, 경제적 부담 ○ 환자의 돌봄서비스 이용 유무 및 정도, 만족도 ○ 환자의 시설 거주 경험 및 기간, 만족도 ○ 환자의 사회복지관 도움 여부 및 이용정도, 만족도
7. 결혼과 출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관 - 희망자녀수, 희망자녀성별, 자녀출산시기조절여부 및 이유, 자녀 계획 ○ 피임수술 여부 및 시기 ○ 인공임신중절 여부 및 이유 ○ 이혼경험, 이혼이유, 자녀여부, 자녀와 함께 사는 사람, 전남편과 자녀와의 연락 또는 접촉빈도, 양육비 받은 경험 및 비용, 따로사는 자녀와 연락 및 접촉빈도, 양육비 지급 경험 및 비용 ○ 자녀입양 여부 및 시기, 함께사는 여부 및 거주지역 ○ 남편유무 및 결혼형태, 자녀구성 ○ 별거여부 및 시기
8. 가족관련 가치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관련 가치관 ○ 부부관계 가치관 ○ 성 관련 가치관
9. 취업Histo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전취업유무, 노동력상태, 업종 및 직종, 근무기간, 취업중단 이기 및 이유, 월평균 임금 ○ 현재 하는일 종류 ○ 작년 소득여부 및 소득액 ○ 일자리 형태

표 계속

영역	기혼 취업자용 설문내용 III
10. 임금근로자	○ 일하는 장소, 직종형태, 시간당 임금적용여부, 현업 지속 가능성 여부, 고용계약체결 여부 및 기간, 고용계약 미체결 이유, 퇴사권유 여부 및 이유, 이직 의향 및 이유, 사업장 종류, 직위 직책, 최초 임용일, 직원규모, 여성 근로자 비율, 소속 부서의 여성인원수, 노조유무 및 가입, 미가입 여부
11. 비임금근로자	○ 가족종사자-하는 일, 담당업무, 종업원 유무 및 수, 도와주는 가족종사자 유무 및 대상 및 이유, 근로형태, 근로시간, 가족종사자로 어려운점, 실제 수입관리자 ○ 자영자/고용주-창업년월, 이전 창업경험 및 전환 이유, 정부지원유무 및 종류, 업종, 소득수준, 자영업/사업체 창업 이유, 전환계획 및 이유, 가족종사자 유무 및 이유, 실 권한자, 이직여부 및 이유
12. 근로조건	○ 직장위치 ○ 출퇴근시간 ○ 근로시간 ○ 급여형태 ○ 복리후생 제공여부 및 혜택여부 ○ 4대보험 제공여부 및 혜택 여부 ○ 유급휴가 일수 및 실 사용일수
13. 구직경로	○ 구직경로 및 기간
14. 일 만족도	○ 교육수준 및 기술수준 일치도 ○ 업무 유용성 ○ 좋은일자리 ○ 좋은일자리 예상 임금 ○ 일 만족도- 임금, 안정성, 내용, 환경, 근로시간, 발전가능성,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복지후생, 전반적 만족도
15. 주된 일을 제외한 일	○ 추가일 유무 ○ 업종 및 직종 ○ 수입 ○ 형태 ○ 하는 이유 ○ 시작 년월 ○ 주 근로 시간
16. 교육 및 훈련	○ 직업훈련경험, 목적, 장소, 목적달성 여부 ○ 교육훈련 이수 이유 ○ 자격증보유여부, 종류 및 취득시점

표 계속

영역	기혼 취업자용 설문내용 IV
17. 사회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가입여부 ○ 사회보험 가입여부 ○ 사회보험 수급여부 ○ 사회보험 수급기간 ○ 사회보험 수급방식 ○ 사회보험 1회 수급액
18. 직장생활과 가정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생활의 가정생활에의 영향 ○ 가정생활의 직장생활에의 영향 ○ 일에 대한 의견
19. 차별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별경험 여부 ○ 차별 상황 및 유형 ○ 성희롱 경험
20. 모성보호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성보호제도 인지여부 ○ 산전 후 휴가 및 육아휴직, 부성휴가 시행여부
21. 개인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소득액수 ○ 자산 형태 ○ 정기적 자산소득액
22. 개인특성/건강/여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생지 ○ 14세 전후 거주지 ○ 건강상태 ○ 삶에서 중요한 문제 ○ 여가시간 및 충분여부 ○ 여가활동 빈도-취미 및 여흥, 학습 및 자기개발, 친교, 사회참여 및 자원봉사, 종교
23. 미래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5세 이후 거주형태, 주된 활동, 생계방법 ○ 노후에 자녀와 동거 희망 여부 및 희망 자녀

Ⅲ. 기혼 비취업여성용

영역	기혼 비취업자용 설문내용 I
1. 가족관계와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제자매 여부 및 순서, 장녀 여부 ○ 아버지의 교육수준, 어머니의 교육수준 ○ 부모님의 경제상태 ○ 독립계획 ○ 따로살고 있는 가족들과 경제적, 정서적, 생활상 교류여부 ○ 시부모님 및 며느리와의 관계 ○ 남편 형제자매들과의 관계 ○ 명절, 제사 관련 교류여부
2. 결혼력 및 출산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력 ○ 출산력
3. 부부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생활 만족도 ○ 부부 사이의 결정권-자녀교육, 본인 및 남편의 직장이동, 본인 취업, 투자 및 재산관리, 생활비관리, 여가활동 ○ 부부관계의 형평성- 가족부양문제, 소비 문제 ○ 성생활 관심도, 지난 1년간 성관계 횟수 ○ 부부갈등 유무 및 이유, 처리방식, 신체적 또는 언어적 폭력을 받은 경험, 부부갈등 전문상담 여부 ○ 이혼고려 여부, 부부관계유지 이유
4. 가사노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 포함 가사노동 시간 - 응답자 및 배우자 ○ 육아 제외 주 가사노동자 ○ 가사노동 비용지출액 ○ 부부간 가사노동분담정도 ○ 가사노동으로 인한 부부갈등 경험 및 갈등 후 변화여부 ○ 자녀돌보기 분담상황 ○ 취업시에 부담스러운 가사노동 ○ 가사노동의 월평균 환산 비용
5. 자녀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자녀별 가구원 번호 ○ 자녀와 대화 정도 및 대화하지 않는 이유 ○ TV 시청 제한 여부 ○ 컴퓨터 게임 제한 여부 ○ 공부시키기 ○ 의견충돌 빈도-옷차림, 이성친구, 친구, 귀가시간, 가사노동, 오락, 돈, 학업, 가족간 불화 ○ 체벌여부 및 횟수 ○ 학교 면담 여부 및 횟수 ○ 학교 징계 여부 및 징계 받은 시기 ○ 가출 여부 및 가출 시기 및 기간 ○ 자녀문제 전문가 상담 여부

표 계속

영역	기혼 비취업자용 설문내용 II
6. 노인·환자 돌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환자 유무 및 명수, 수발 참여 여부 ○ 노인환자의 주 수발자 ○ 노인환자와 함께 사는지 여부 및 함께 사는 사람 ○ 노인환자와의 관계, 나이, 성별, 불편하게 된 기간 ○ 노인환자 수발 비용 부담 ○ 노인환자 수발 이후 변화상 ○ 노인환자의 수발상 어려움-신체적 부담, 우울증, 대인관계, 여가생활, 경제적 부담 ○ 노인돌봄서비스 이용 유무 및 정도, 만족도 ○ 노인환자의 시설 거주 경험 및 기간, 만족도 ○ 노인환자의 사회복지관 도움 여부 및 이용정도, 만족도 ○ 환자 유무 및 명수, 수발 참여 여부 ○ 환자의 주 수발자 ○ 화자와 함께 사는지 여부 및 함께 사는 사람 ○ 환자와의 관계, 나이, 성별, 불편하게 된 기간 ○ 환자 수발 비용 부담 ○ 환자 수발 이후 변화상 ○ 환자의 수발상 어려움-신체적 부담, 우울증, 대인관계, 여가생활, 경제적 부담 ○ 환자의 돌봄서비스 이용 유무 및 정도, 만족도 ○ 환자의 시설 거주 경험 및 기간, 만족도 ○ 환자의 사회복지관 도움 여부 및 이용정도, 만족도
7. 결혼과 출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관 - 희망자녀수, 희망자녀성별, 자녀출산시기조절여부 및 이유, 자녀 계획 ○ 피임수술 여부 및 시기 ○ 인공임신중절 여부 및 이유 ○ 이혼경험, 이혼이유, 자녀여부, 자녀와 함께 사는 사람, 전남편과 자녀와의 연락 또는 접촉빈도, 양육비 받은 경험 및 비용, 따로사는 자녀와 연락 및 접촉빈도, 양육비 지급 경험 및 비용 ○ 자녀입양 여부 및 시기, 함께사는 여부 및 거주지역 ○ 남편유무 및 결혼형태, 자녀구성 ○ 별거여부 및 시기
8. 가족관련 가치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관련 가치관 ○ 부부관계 가치관 ○ 성 관련 가치관
9. 학생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공, 전공선택이유 및 만족도 ○ 복수전공유무 ○ 진학 또는 창업준비 ○ 아르바이트 경험 및 이유 ○ 취업계획 및 희망하는 일자리 ○ 취업 실패시 결혼계획 ○ 희망보수 및 월평균 용돈 및 마련방법

표 계속

영역	기혼 비취업자용 설문내용 III
10. 취업History	○ 취업경험 유무, 노동력상태, 업종 및 직종, 근무기간, 취업중단 이기 및 이유, 월평균 임금
11. 구직활동	○ 구직경험 ○ 취업의사 유무 ○ (실업자)-구직방법, 구직기간, 취업시 고려사항, 희망 취업 지위 및 형태, 탄력근로 희망 시간, 희망 임금, 희망 지역, 희망 통근시간, 취업실패이유, 취업성공이유, 좋은일자리 ○ (비경제활동인구)-이유
12. 사회보험	○ 연금가입여부 ○ 사회보험 가입여부 ○ 사회보험 수급여부 ○ 사회보험 수급기간 ○ 사회보험 수급방식 ○ 사회보험 1회 수급액
13. 교육 및 훈련	○ 직업훈련경험, 목적, 장소, 목적달성 여부 ○ 교육훈련 이수 이유 ○ 자격증보유여부, 종류 및 취득시점
14. 일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	○ 일에 대한 의견 ○ 여성취업이 가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15. 차별사항	○ 차별경험 여부 ○ 차별 상황 및 유형 ○ 성희롱 경험
16. 모성보호제도	○ 모성보호제도 인지여부 ○ 산전 후 휴가 및 육아휴직, 부성휴가 시행여부
17. 개인자산	○ 자산소득액수 ○ 자산 형태 ○ 정기적 자산소득액
18. 개인특성/건강/여가	○ 출생지 ○ 14세 전후 거주지 ○ 건강상태 ○ 삶에서 중요한 문제 ○ 여가시간 및 충분여부 ○ 여가활동 빈도-취미 및 여흥, 학습 및 자기개발, 친교, 사회참여 및 자원봉사, 종교
19. 미래설계	○ 65세 이후 거주형태, 주된 활동, 생계방법 ○ 노후에 자녀와 동거 희망 여부 및 희망 자녀

IV. 미혼 취업여성용

영역	미혼 취업자용 설문내용 I
1. 가족 관계와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제자매 여부 및 순서, 장녀 여부 ○ 아버지의 교육수준, 어머니의 교육수준 ○ 부모님의 경제상태 ○ 독립계획 및 이유 ○ 따로살고 있는 가족들과 경제적, 정서적, 생활상 교류여부
2. 가사노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사노동 시간 및 주 가사노동자 ○ 취업병행시 부담스런 가사노동 ○ 가사노동의 월평균 환산 비용
3. 노인·환자 돌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환자 유무 및 명수, 수발 참여 여부 ○ 노인환자의 주 수발자 ○ 노인환자와 함께 사는지 여부 및 함께 사는 사람 ○ 노인환자와의 관계, 나이, 성별, 불편하게 된 기간 ○ 노인환자 수발 비용 부담 ○ 노인환자 수발 이후 변화상 ○ 노인환자의 수발상 어려움-신체적 부담, 우울증, 대인관계, 여가생활, 경제적 부담 ○ 노인돌봄서비스 이용 유무 및 정도, 만족도 ○ 노인환자의 시설 거주 경험 및 기간, 만족도 ○ 노인환자의 사회복지관 도움 여부 및 이용정도, 만족도 ○ 환자 유무 및 명수, 수발 참여 여부 ○ 환자의 주 수발자 ○ 화자와 함께 사는지 여부 및 함께 사는 사람 ○ 환자와의 관계, 나이, 성별, 불편하게 된 기간 ○ 환자 수발 비용 부담 ○ 환자 수발 이후 변화상 ○ 환자의 수발상 어려움-신체적 부담, 우울증, 대인관계, 여가생활, 경제적 부담 ○ 환자의 돌봄서비스 이용 유무 및 정도, 만족도 ○ 환자의 시설 거주 경험 및 기간, 만족도 ○ 환자의 사회복지관 도움 여부 및 이용정도, 만족도
4. 결혼과 출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의견 ○ 결혼계획 및 시기 ○ 결혼하지 않은 이유 ○ 결혼 지연 경험 및 이유 ○ 이상적 자녀 수 및 희망자녀성별 ○ 동거의 장점 및 단점에 대한 의견 ○ 동거 경험 및 기간 ○ 성생활 중요도

표 계속

영역	미혼 취업자용 설문내용 II
5. 가족관련 가치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관련 가치관 ○ 부부관계 가치관 ○ 성 관련 가치관
6. 취업 HIsto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전취업유무, 노동력상태, 업종 및 직종, 근무기간, 취업중단 이기 및 이유, 월평균 임금 ○ 현재 하는일 종류 ○ 작년 소득여부 및 소득액 ○ 일자리 형태
7. 임금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근로자 - 일하는 장소, 직종형태, 시간당 임금적용여부, 현업 지속 가능성 여부, 고용계약체결 여부 및 기간, 고용계약 미체결 이유, 퇴사권유 여부 및 이유, 이직 의향 및 이유, 사업장 종류, 직위 직책, 최초 임용일, 직원규모, 여성근로자 비율, 소속 부서의 여성인원수, 노조유무 및 가입, 미가입 여부
8. 비임금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종사자)-하는 일, 담당업무, 종업원 유무 및 수, 도와주는 가족종사자 유무 및 대상 및 이유, 근로형태, 근로시간, 가족종사자로 어려운점, 실제 수입관리자 ○ (자영자/고용주)-창업년월, 이전 창업경험 및 전환 이유, 정부지원유무 및 종류, 업종, 소득수준, 자영업/사업체 창업 이유, 전환계획 및 이유, 가족종사자 유무 및 이유, 실 권한자, 이직여부 및 이유
9. 근로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위치 ○ 출퇴근시간 ○ 근로시간 ○ 급여형태 ○ 복리후생 제공여부 및 혜택여부 ○ 4대보험 제공여부 및 혜택 여부 ○ 유급휴가 일수 및 실 사용일수
10. 구직경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직경로 및 기간
11. 일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수준 및 기술수준 일치도 ○ 업무 유용성 ○ 좋은일자리 ○ 좋은일자리 예상 임금 ○ 일 만족도- 임금, 안정성, 내용, 환경, 근로시간, 발전가능성,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복지후생, 전반적 만족도
12. 주된 일을 제외한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일 유무 ○ 업종 및 직종 ○ 수입 ○ 형태 ○ 하는 이유 ○ 시작 년월 ○ 주 근로 시간

표 계속

영역	미혼 취업자용 설문내용 Ⅲ
13. 교육 및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훈련경험, 목적, 장소, 목적달성 여부 ○ 교육훈련 이수 이유 ○ 자격증보유여부, 종류 및 취득시점
14. 사회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가입여부 ○ 사회보험 가입여부 ○ 사회보험 수급여부 ○ 사회보험 수급기간 ○ 사회보험 수급방식 ○ 사회보험 1회 수금액
15. 직장생활과 가정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생활의 가정생활에의 영향 ○ 가정생활의 직장생활에의 영향 ○ 일에 대한 의견
16. 차별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별경험 여부 ○ 차별 상황 및 유형 ○ 성희롱 경험
17. 모성보호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성보호제도 인지여부 ○ 산전 후 휴가 및 육아휴직, 부성휴가 시행여부
18. 개인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소득액수 ○ 자산 형태 ○ 정기적 자산소득액
19. 개인특성/건강/여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생지 ○ 14세 전후 거주지 ○ 건강상태 ○ 삶에서 중요한 문제 ○ 여가시간 및 충분여부 ○ 여가활동 빈도-취미 및 여흥, 학습 및 자기개발, 친교, 사회참여 및 자원봉사, 종교
20. 미래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5세 이후 거주형태, 주된 활동, 생계방법 ○ 노후에 자녀와 동거 희망 여부 및 희망 자녀

V. 미혼 비취업여성용

영역	미혼 비취업자용 설문내용 I
1. 가족 관계와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제자매 여부 및 순서, 장녀 여부 ○ 아버지의 교육수준, 어머니의 교육수준 ○ 부모님의 경제상태 ○ 독립계획 및 이유 ○ 따로살고 있는 가족들과 경제적, 정서적, 생활상 교류여부
2. 가사노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사노동 시간 및 주 가사노동자 ○ 취업병행시 부담스런 가사노동 ○ 가사노동의 월평균 환산 비용
3. 노인·환자 돌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환자 유무 및 명수, 수발 참여 여부 ○ 노인환자의 주 수발자 ○ 노인환자와 함께 사는지 여부 및 함께 사는 사람 ○ 노인환자와의 관계, 나이, 성별, 불편하게 된 기간 ○ 노인환자 수발 비용 부담 ○ 노인환자 수발 이후 변화상 ○ 노인환자의 수발상 어려움-신체적 부담, 우울증, 대인관계, 여가생활, 경제적 부담 ○ 노인돌봄서비스 이용 유무 및 정도, 만족도 ○ 노인환자의 시설 거주 경험 및 기간, 만족도 ○ 노인환자의 사회복지관 도움 여부 및 이용정도, 만족도 ○ 환자 유무 및 명수, 수발 참여 여부 ○ 환자의 주 수발자 ○ 화자와 함께 사는지 여부 및 함께 사는 사람 ○ 환자와의 관계, 나이, 성별, 불편하게 된 기간 ○ 환자 수발 비용 부담 ○ 환자 수발 이후 변화상 ○ 환자의 수발상 어려움-신체적 부담, 우울증, 대인관계, 여가생활, 경제적 부담 ○ 환자의 돌봄서비스 이용 유무 및 정도, 만족도 ○ 환자의 시설 거주 경험 및 기간, 만족도 ○ 환자의 사회복지관 도움 여부 및 이용정도, 만족도
4. 결혼과 출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의견 ○ 결혼계획 및 시기 ○ 결혼하지 않은 이유 및 결혼 지연 경험 및 이유 ○ 이상적 자녀 수 및 희망자녀성별 ○ 동거의 장점 및 단점에 대한 의견 ○ 동거 경험 및 기간 ○ 성생활 중요도

표 계속

영역	미혼 비취업자용 설문내용 II
5. 가족관련 가치관	<input type="checkbox"/> 결혼관련 가치관 <input type="checkbox"/> 부부관계 가치관 <input type="checkbox"/> 성 관련 가치관
6. 학생용	<input type="checkbox"/> 전공, 전공선택이유 및 만족도 <input type="checkbox"/> 복수전공유무 <input type="checkbox"/> 진학 또는 창업준비 <input type="checkbox"/> 아르바이트 경험 및 이유 <input type="checkbox"/> 취업계획 및 희망하는 일자리 <input type="checkbox"/> 취업 실패시 결혼계획 <input type="checkbox"/> 희망보수 및 월평균 용돈 및 마련방법
7. 취업History	<input type="checkbox"/> 취업경험 유무, 노동력상태, 업종 및 직종, 근무기간, 취업중단 이기 및 이유, 월평균 임금
8. 구직활동	<input type="checkbox"/> 구직경험 <input type="checkbox"/> 취업의사 유무 <input type="checkbox"/> (실업자)-구직방법, 구직기간, 취업시 고려사항, 희망 취업 지위 및 형태, 탄력근로 희망 시간, 희망 임금, 희망 지역, 희망 통근시간, 취업실패이유, 취업성공이유, 좋은일자리 <input type="checkbox"/> (비경제활동인구)-이유
9. 교육 및 훈련	<input type="checkbox"/> 직업훈련경험, 목적, 장소, 목적달성 여부 <input type="checkbox"/> 교육훈련 이수 이유 <input type="checkbox"/> 자격증보유여부, 종류 및 취득시점
10. 사회보험	<input type="checkbox"/> 연금가입여부 <input type="checkbox"/> 사회보험 가입여부 <input type="checkbox"/> 사회보험 수급여부 <input type="checkbox"/> 사회보험 수급기간 <input type="checkbox"/> 사회보험 수급방식 <input type="checkbox"/> 사회보험 1회 수금액
11. 일에 대한 가치관	<input type="checkbox"/> 일에 대한 의견 <input type="checkbox"/> 여성취업이 가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12. 차별사항	<input type="checkbox"/> 차별경험 여부 <input type="checkbox"/> 차별 상황 및 유형 <input type="checkbox"/> 성희롱 경험
13. 모성보호제도	<input type="checkbox"/> 모성보호제도 인지여부 <input type="checkbox"/> 산전 후 휴가 및 육아휴직, 부성휴가 시행여부
14. 개인자산	<input type="checkbox"/> 자산소득액수 <input type="checkbox"/> 자산 형태 <input type="checkbox"/> 정기적 자산소득액

258 여성가족패널조사

영역	미혼 비취업자용 설문내용 III
15. 개인특성/건강/여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생지 ○ 14세 전후 거주지 ○ 건강상태 ○ 삶에서 중요한 문제 ○ 여가시간 및 충분여부 ○ 여가활동 빈도-취미 및 여흥, 학습 및 자기개발, 친교, 사회참여 및 자원봉사, 종교
16. 미래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5세 이후 거주형태, 주된 활동, 생계방법 ○ 노후에 자녀와 동거 희망 여부 및 희망 자녀

VI. 남편용

◆ 설문 구성

영역	남편용 설문내용 I
1. 가족관계와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제자매 여부 및 순서, 장녀 여부 ○ 아버지의 교육수준, 어머니의 교육수준 ○ 부모님의 경제상태 ○ 독립계획 ○ 따로살고 있는 가족들과 경제적, 정서적, 생활상 교류여부 ○ 남편 형제자매들과의 관계 ○ 명절, 제사 관련 교류여부
2. 부부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생활 만족도 ○ 부부 사이의 결정권-자녀교육, 본인 및 남편의 직장이동, 본인 취업, 투자 및 재산관리, 생활비관리, 여가활동 ○ 부부관계의 형평성- 가족부양문제, 소비 문제 ○ 성생활 관심도, 지난 1년간 성관계 횟수 ○ 부부갈등 유무 및 이유, 처리방식, 신체적 또는 언어적 폭력을 받은 경험, 부부갈등 전문상담 여부 ○ 이혼고려 여부, 부부관계유지 이유
3. 가사노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 포함 가사노동 시간 - 응답자 및 배우자 ○ 육아 제외 주 가사노동자 ○ 가사노동 비용지출액 ○ 부부간 가사노동분담정도 ○ 가사노동으로 인한 부부갈등 경험 및 갈등 후 변화여부 ○ 자녀돌보기 분담상황 ○ 부담스러운 가사노동
4. 자녀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자녀별 가구원 번호 ○ 자녀와 대화 정도 및 대화하지 않는 이유 ○ TV 시청 제한 여부 ○ 컴퓨터 게임 제한 여부 ○ 공부시키기 ○ 의견충돌 빈도-옷차림, 이성친구, 친구, 귀가시간, 가사노동, 오락, 돈, 학업, 가족간 불화 ○ 체벌여부 및 횟수 ○ 학교 면담 여부 및 횟수 ○ 학교 징계 여부 및 징계 받은 시기 ○ 가출 여부 및 가출 시기 및 기간 ○ 자녀문제 전문가 상담 여부

표 계속

영역	남편용 설문내용 II
5. 결혼과 출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관 - 희망자녀수, 희망자녀성별, 자녀출산시기조절여부 및 이유, 자녀계획 ○ 피임수술 여부 및 시기 ○ 이혼경험, 이혼이유, 자녀여부, 자녀와 함께 사는 사람, 전남편과 자녀와의 연락 또는 접촉빈도, 양육비 받은 경험 및 비용, 따로사는 자녀와 연락 및 접촉빈도, 양육비 지급 경험 및 비용 ○ 자녀입양 여부 및 시기, 함께사는 여부 및 거주지역 ○ 부인유무 및 결혼형태, 자녀구성 ○ 별거여부 및 시기
6. 가족관련 가치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관련 가치관 ○ 부부관계 가치관 ○ 성 관련 가치관
7. 취업Histo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전취업유무, 노동력상태, 업종 및 직종, 근무기간, 취업중단 이기 및 이유, 월평균 임금 ○ 현재 하는일 종류 ○ 작년 소득여부 및 소득액 ○ 일자리 형태
8. 임금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하는 장소, 직종형태, 시간당 임금적용여부, 현업 지속 가능성 여부, 고용계약체결 여부 및 기간, 고용계약 미체결 이유, 퇴사권유 여부 및 이유, 이직 의향 및 이유, 사업장 종류, 직위 직책, 최초 임용일, 직원규모, 여성근로자 비율, 소속 부서의 여성인원수, 노조유무 및 가입, 미가입 여부
9. 비임금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종사자-하는 일, 담당업무, 종업원 유무 및 수, 도와주는 가족종사자 유무 및 대상 및 이유, 근로형태, 근로시간, 가족종사자로 어려움점, 실제 수입관리자 ○ 자영자/고용)-창업년월, 이전 창업경험 및 전환 이유, 정부지원유무 및 종류, 업종, 소득수준, 자영업/사업체 창업 이유, 전환계획 및 이유, 가족종사자 유무 및 이유, 실 권한자, 이직여부 및 이유
10. 근로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위치 ○ 출퇴근시간 ○ 근로시간 ○ 급여형태 ○ 복리후생 제공여부 및 혜택여부 ○ 4대보험 제공여부 및 혜택 여부 ○ 유급휴가 일수 및 실 사용일수
11. 구직경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직경로 및 기간

표 계속

영역	남편용 설문내용 III
12. 일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수준 및 기술수준 일치도 ○ 업무 유용성 ○ 좋은일자리 ○ 좋은일자리 예상 임금 ○ 일 만족도- 임금, 안정성, 내용, 환경, 근로시간, 발전가능성,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복지후생, 전반적 만족도
13. 교육 및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훈련경험, 목적, 장소, 목적달성 여부 ○ 교육훈련 이수 이유 ○ 자격증보유여부, 종류 및 취득시점
15. 사회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가입여부 ○ 사회보험 가입여부 ○ 사회보험 수급여부 ○ 사회보험 수급기간 ○ 사회보험 수급방식 ○ 사회보험 1회 수금액
16. 모성보호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성보호제도 인지여부 ○ 산전 후 휴가 및 육아휴직, 부성휴가 시행여부
17. 개인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소득액수 ○ 자산 형태 ○ 정기적 자산소득액
18. 개인특성/건강/여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생지 ○ 14세 전후 거주지 ○ 건강상태 ○ 삶에서 중요한 문제 ○ 여가시간 및 충분여부 ○ 여가활동 빈도-취미 및 여흥, 학습 및 자기개발, 친교, 사회참여 및 자원봉사, 종교
19. 미래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5세 이후 거주형태, 주된 활동, 생계방법 ○ 노후에 자녀와 동거 희망 여부 및 희망 자녀

2006 연구보고서-8

여성가족패널조사

2006년 12월 28일 인쇄
2006년 12월 30일 발행

발행인 : 서 명 선

발행처 : 한 국 여 성 개 발 원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1-363
전화 / 356-0070 (代)

인쇄처 : 도서출판 늘 품
전화 / 2275-5326 (代)

ISBN 978-89-8491-171-0 93330

<정가 9,000원>